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III

연구보고 23-일반03

김형주 · 김정숙 · 김문길 · 변금선 · 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협동연구총서 23-86-01
연구보고 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저 자 김형주, 김정숙, 김문길, 변금선, 배정희

연구진 연구책임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
변금선(서울연구원 · 부연구위원)
배정희(성균관대학교 · 조교수)
연구보조원_ 김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¹⁾은 청년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심층적인 현황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파악하고 청년 빈곤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임
-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속연구로 추진되었으며, 1차년도(2021년) 연구는 청년 빈곤에 대한 분류틀과 지표의 개발, 지표에 따른 실태 및 규모 추정, 빈곤 집단 유형 분석, 소득과 노동 빈곤에 대한 정책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기초를 구축하였고, 2차년도(2022년)는 청년 빈곤의 다차원 실태 분석,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파악, 교육훈련과 주거 빈곤 중심의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년 3차년도는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방안 마련과 더불어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지역적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총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3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 빈곤의 금년도 중점영역에 대한 개념논의, 정책과 법·제도 고찰임. 여기서는 청년 빈곤의 정의와 시각에 대해 사회적이고 정책적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고찰, 청년 빈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과 조례 사례 고찰, 청년 빈곤과 관련되거나 유관한 국회의 입법,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분석 등을 하였음

1) 본 연구는 3개년도 연속과제로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과 연차별 세부 추진목표는 1차년도 및 2차년도에 수립한 목적과 동일함

- 둘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가들의 청년 빈곤과 연관된 정책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셋째,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 분석임. 2023년 한국 청년의 빈곤 실태를 제시하기 위해 소득,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 청년 빈곤을 구성하는 분류 틀, 핵심지표별 통계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공식 발표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실태 분석 및 청년 빈곤층에 대한 규모를 추정함. 2차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빈곤 형태에 따른 생애주기적인 빈곤 이행경로와 빈곤의 세부적인 원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분석하여 청년 빈곤 실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넷째, 청년 빈곤 문제 주요영역에 대한 상황과 인식, 향후 전망과 정책 욕구 조사임. 1, 2차년도에 도출한 청년 빈곤 지표를 기초로 하여 3차년도 중점영역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자본 영역에 대한 상황과 인식, 향후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음. 이를 통해 청년 빈곤 영역 및 유형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효과 평가, 청년 빈곤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정책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도출하였음
- 다섯째, 청년 빈곤의 주요 영역에 대한 청년층 심층면담조사임. 청년의 삶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자본 영역에 있어서 빈곤의 현 상황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일에서 빈곤 현황, 원인과 경로, 그리고 빈곤위험성 예측을 위한 청년 대상의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고 면담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도출하였음
- 여섯째, 본 연구의 다양한 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임. 총 3개년 연구를 총괄하여 정책 비전과 세부 전략 도출, 빈곤 해소를 위한 자립안전망 기반 구축과 추진체계에 대한 제안,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시행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속과제의 3차년도 연구로서 기본적인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첫째, 청년 빈곤과 관련된 문헌 고찰임.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화 논의, 빈곤에 관한 금년도 중점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둘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셋째, 청년 빈곤에 관한 다차원 실태 분석임. 이는 1차년도에 수립했던 청년 빈곤 지표에 대해서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며, 영역별 빈곤 위험성을 예측하였음
- 넷째, 청년 빈곤의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하여 빈곤의 이행경로 및 주요 영향요인을 2차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다섯째, 금년도 청년 빈곤 중점영역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설문조사임. 전국 17개 시도의 총 4천명 내외의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빈곤 상황, 인식, 전망, 정책욕구 등을 파악하였음
- 여섯째,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심층면담조사임. 이는 외현적 현상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설문조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IDI)으로 진행하였음
- 일곱째,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의 개발 및 제언임. 금년 3차년도 중점주제인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포함하여 지난 3개년간 제시하였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총괄하여 청년 빈곤의 예방 및 타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1·2차년도에 이어 통계청 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음.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의 조사 집단과의 비교, 연차별 변화 추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를 분석하였음
- 청년은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들의 빈곤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자산 빈곤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실업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건강 영역 빈곤 수준이 악화한 것을 확인하였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2022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표는 저임금근로자 비율, 순자산 빈곤, 우울증 환자 비율, 과부담 의료비, 니트였음. 주목할 점은 2020년 이후 급격히 악화하였던 노동영역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양상을 고려해 청년층의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 취약층을 선별하는 경제적 영역의 빈곤과 더불어 비경제적 영역의 빈곤을 고려해 청년이 직면한 자원, 기회의 박탈과 결핍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노동영역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이 니트, 사회적지지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이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적지지 결핍과 정신건강 악화 경향은 겉으로 드러난 고용지표의 개선 뒤에 가려진 청년 삶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 청년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해야 함. 사회 재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형성기 청년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청년으로 진입하는 다음 세대의 다차원 빈곤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화 및 정책·법제도 동향 고찰
 -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
 - 청년의 건강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빈곤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 동향 고찰
 - 미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일본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청년 빈곤(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관련 상황과 인식 및 정책적 욕구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건강 실태 및 의식, 건강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및 의견, 사회·문화자본 실태 및 의식, 사회·문화자본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및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총 4,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음
 - 전체 응답자 중 45.8%가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4.4%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신체에서 17.4%, 정신에서 23.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의 경우 정신 건강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병원 방문 및 입원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6%는 최근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방문하는 경우 대체로 1~5회 방문이 49.5%로 가장 많았음. 또한, 방문하는 경우에도 72.3%의 응답자가 최근 1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임
 -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41.6%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이 없어서(47.1%), 병원비가 아까워서(33.7%) 등의 이유로 설명되었음. 특히, 병원비가 아까워서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는 미취업자(43.7%), 빈곤층(41.9%), 중위소득 미만(41.3%) 등 취약계층에서 주요하게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청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였음
 - 의료비 지출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의료비 지출은 353,909원(중위

값 100,000원)이었으며, 월 생활비에서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대부분 5% 이하였음. 이는 응답자들이 경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하지만, 40.0%의 응답자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했음

-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8%가 우울 상태에 있으며, 37.1%는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이는 우울 및 자살 증상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청년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함의함. 특히,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로부터 우울증과 자살 증상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건강 증진 정책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의 인지도는 약 34%로 높게 나타났음. 청년 건강 증진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이용한 비율이 가장 큰 정책 사업은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가 46.1%로 가장 높았음. 모든 청년 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다른 정책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로 응답자의 72.2%가 이를 지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65.1%)와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61.5%)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았음
- 또한, 청년들은 현재 청년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66.9%)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의료비 지원(32.8%)과 청년 심리상담 지원(28.9%)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으로 강조되었음. 구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건강 검진 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의 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크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음
- 청년의 사회·문화자본과 관련하여 과반수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53.4%)고 응답했으며, 약 11.3%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음. 가까운 친구 혹은 선후배의 수는 3~5명(39.6%) 응답이 높았지만,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은 1~2명(46.1%)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저학력 청년들은 가까운 친구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음

- ‘혼밥’이나 ‘혼술’로 알려진 청년들의 식사 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를 한 경험이 있었고, 34%의 응답자가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음
-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수에 대한 조사 결과, 18.3%의 응답자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저학력층(34.7%)과 빈곤층(27.4%)에서 이러한 응답이 더 많이 나왔음. 또한, 건강상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의 수에 대한 조사 결과, 15.2%의 응답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저학력층(23.7%)과 빈곤층(22.3%)에서 이러한 응답이 더 많이 나왔음
-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41.5%로 부족하다는 응답(26.4%)보다 더 높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시간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 세대의 10명 중 2명은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특히 저학력층(33.8%), 미취업자(24.2%), 빈곤층(24.4%), 중위소득 미만(23.6%) 등의 청년 빈곤층에서 이러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 시간은 대부분 3시간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비용 약 6만원을 사용하고 약 8만원 정도가 필요한 차이가 발생했음. 이들은 주로 영화/TV/OTT(49.5%)를 즐기며, 운동(21.9%), 여행 (13.7%) 등의 순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의 인지도는 37.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응답자들 중에서 실제로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을 인지하고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49.2%의 응답을 받았음. 전반적으로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은 청년 건강 증진 정책에 비해 필요성이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해외 청년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인식되었음.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이 73.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70.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59.5%)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았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정책이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밀려난 이유는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추정됨

- 응답자들 중 48.2%는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36.6%)와 청년 문화/여가활동비 지원(35.8%)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으로 강조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청년 1인가구 돌봄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크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 빈곤의식(건강, 사회·문화자본) 심층면담결과

-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30명(남성 15명/여성 15명, 20대 초반 10명/20대 후반 10명/30대 초반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 심층 면담의 첫 번째 파트인 일상 생활시간 파트에서는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 일주일 중 최다/최소 시간을 보내는 활동,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 그리고 시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먼저,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들은 주중에는 퇴근 후 공부나 운동 등 자기계발 활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대학생의 경우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친교활동으로 일주일을 보냈으며, 전업주부 청년들은 가사활동 및 육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음
- 현재 일주일 활동 패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는 대부분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정규직, 구직중, 학생, 전업주부 등)와 관련된 일, 공부, 육아 등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현재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활동은 운동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의 일주일 활동패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은 여행으로 나타났음. 청년들은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내가 보유한 시간에 대해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간은 평등하고 공정한 자원”이라는 인식과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라는 인식이 구분되어 나타났음. 전자의 입장을 가진 청년들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청년들은 나이에 비해 성취한 것이 적다는 압박 또는 일과 육아 등으로 개인시간이나 친교활동을 갖지 못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인식했음
- 한국사회에서 시간의 의미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먼저 시간에 대한 이미지는 재촉, 촉박, 빨리빨리 등으로 표현되었고 제한된 시간 내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만들었음. 한편 일부 미혼의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특정 시간대에 대학 졸업, 취업, 결혼 등 일정한 스케줄을 마쳐야 하는 생애주기별 시간표로서 시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도 했음. 대체로 청년들은 건강하고 인간다우며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인식했는데, 일부 청년들의 경우 학업 또는 일로 인해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기회가 적다고 인식했음
- 청년들의 일상 생활시간 관련 사항을 종합하면,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은 주로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운동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청년들은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지만, 돈과 시간 부족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도 청년들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청년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
- 건강 파트에서는 청년들이 평소 갖고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어려움, 현재의 영양상태, 신체/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음
- 우선 평소 갖고 있는 신체적 질환의 경우 대체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일상생활에 신체적 건강 상태가 끼치는 영향은 크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음.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 또는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중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치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비용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에 대한 타인의 시선, 또는 치료 이력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년들의 현재 영양 상태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 양호한 영양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경우 영양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식사를 때우거나 주말 외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 간 관계에 대해 청년들은 식비가 오를수록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식비와 무관하게 저렴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으로 양분된 입장을 보였음
- 청년들은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을 한다는 의견과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명상, 종교 활동 등을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음
- 청년들의 건강 관련해서 많은 청년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일부는 외부의 시선과 치료 이력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균형 있는 식단과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영양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부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심층 면담의 세 번째 파트인 사회자본에서는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존재, 만족/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의 의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먼저,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가 상이하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 청년들의 경우 주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친구 및 연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하층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현재 본인이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만한 상황(구직중,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대체로 부모, 친구, 연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는 만났을 때 편안함을 주는 관계, 불만족스러운 관계

는 업무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관계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부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불필요하거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 청년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화자본 파트에서는, 청년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여가/문화 활동 욕구 및 해소 방법,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음
- 면담 참여 청년들은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게임, 여행, 캠핑 등을, 문화 활동에는 전시회와 공연, 영화 관람을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는 시간과 돈이라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는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음.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의 청년들은 콘서트,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의 청년들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였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자신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일부 기혼 청년들은 육아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다고 응답했음
- 여가/문화 활동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고 자아 실현 및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였음.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청년 시기는 자기 계발이나 경력을 쌓는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여가/문화 활동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한편 다수의 청년들은 과거 부모와 즐겼던 여가/문화생활이 현재 자신이 즐기는 여가/문화활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이들이 즐기는 여가/문화 활동에서의 계층적 배경별 차이를 크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음. 오히려 과거 여가/문화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있는 청년들일수록 여가/문화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심층 면담의 다섯 번째 파트이자 마지막 파트인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에서는 청년 대상 정책 지원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였음
-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관련 사업 목록에 대해 처음 접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청년들만이 무료 건강검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여행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해당 사업을 알고 지원하려 했던 청년들은 소득 분위 등 지원 자격이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음
-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 및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를 살펴본 결과, 청년들의 배경변인별로 다양한 정책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면담참여자 중 다수는 여가 및 문화 활동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책들이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청년 대상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자립지원망 정책의 비전과 분야
 - 금년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중점주제로 살펴본 건강 분야와 사회·문화자본 분야, 그리고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 등 총 3개 분야,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는데 다음과 같음

- 건강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청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청년의 우울 증상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사업 확대
 -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청년 건강 지원 정책 우선순위 조정

-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청년문화패스 운영
 - 1인 가구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지원
 - 청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시설 및 공간 확충
 - 청년 국내여행 바우처 지원
 - 청년 '문화가 있는 날' 보장 기업 지원

-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기반 구축
 - 청년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위한 청년기본법 보완 개정
 - 청년의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청년정신건강진흥원 설치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 축방안 연구 Ⅲ

연구보고 23-일반03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8
- 3. 연구내용 9
- 4. 연구방법 10

Ⅱ. 청년 빈곤에 관한 정책동향 고찰

- 1.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논의 13
- 2. 청년 건강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21
-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빈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 29
- 4. 정책적 시사점 43

Ⅲ. 해외 청년 빈곤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1. 미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 49
- 2. 일본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 60
- 3. 정책적 시사점 73

IV. 청년 빈곤 실태 분석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 79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83
3.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 심층 분석 113

V.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 137
2. 청년의 건강 139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208
4. 빈곤 인식 300
5. 요약 및 시사점 308

VI.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

1. 면담조사 개요 317
2. 면담조사 분석결과 321
3. 요약 및 시사점 371

VII.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381
2. 정책 제언 384
3. 결론 408

참고문헌 417

부 록 429

표 목차

표 I-1. 실업자 추이	5
표 I-2.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	6
표 II-1. 소득 빈곤과 다차원적 빈곤의 비교	15
표 II-2.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성 평가	17
표 II-3.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타당성 평가	18
표 II-4. 건강 영역 중앙정부 청년정책 개관	21
표 II-5.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 설치 경과	23
표 II-6.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마음건강바우처) 서비스 종류와 내용 ..	23
표 II-7. 17개 광역시도 시행계획 상 건강관련 사업 현황(자체 사업) ..	27
표 II-8. 「청년기본법」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내용	30
표 II-9. 광역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청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30
표 II-10.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청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 내용	37
표 II-11.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사회·문화자본 관련 내용	38
표 III-1. 샌다이시 청년 사회참여활동촉진사업	66
표 III-2. 차세대 하숙 「교토소리텔사업」 추진경과	71
표 IV-1. 청년 빈곤의 지표 타당성 평가	80
표 IV-2.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최종안)	82
표 IV-3. 분석 내용	84
표 IV-4.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측정방법	86
표 IV-5. 분석자료 개요	87
표 IV-6. 상대적 빈곤율 (2012~2021)	88
표 IV-7.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2)	90
표 IV-8. 순자산 빈곤율 (2017~2022)	91
표 IV-9. 실업률 (2012~2022)	92
표 IV-1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15~2022)	94
표 IV-11. 가구특성별 RIR (2017~2021)	95

표 IV-12.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21)	97
표 IV-13.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7~2022)	98
표 IV-14.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1)	100
표 IV-15.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5, 2019, 2020, 2021)	101
표 IV-16.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2)	103
표 IV-17.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2019~2021)	105
표 IV-18.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5~2022)	106
표 IV-19. 시간 빈곤율 (2014)	108
표 IV-20. 영역 및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109
표 IV-21. 변수 측정	118
표 IV-22. 응답자 특성	120
표 IV-23. 청년 우울수준 변화 궤적	121
표 IV-24.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 (관측값)	123
표 IV-25. 청년의 우울 발생률 변화 궤적	125
표 IV-26. 청년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128
표 IV-27. 청년 우울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1
표 V-1. 조사 응답자 특성	138
표 V-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139
표 V-3.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140
표 V-4.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141
표 V-5.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142
표 V-6.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143
표 V-7.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배경변인별) ..	144
표 V-8.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145
표 V-9.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배경변인별) ..	146
표 V-10.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147
표 V-11.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배경변인별)	148
표 V-12.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149
표 V-13.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150
표 V-14.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151
표 V-15.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배경변인별) ..	152

표 V-16.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153
표 V-17.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154
표 V-18.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	155
표 V-19.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배경변인별)	156
표 V-20.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157
표 V-21.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배경변인별) ..	158
표 V-22.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159
표 V-23.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배경변인별)	160
표 V-24.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161
표 V-25.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배경변인별)	162
표 V-26. 우울증 증상 실태	163
표 V-27. 우울증 증상 실태 (배경변인별)	164
표 V-28.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165
표 V-29.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배경변인별)	166
표 V-30. 자살생각 실태	167
표 V-31. 자살생각 실태 (배경변인별)	168
표 V-32.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169
표 V-33.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배경변인별)	170
표 V-34.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171
표 V-35.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별)	172
표 V-36.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173
표 V-37.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배경변인별)	174
표 V-38.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175
표 V-39.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배경변인별)	176

표 V-40.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177
표 V-41.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배경변인별)	178
표 V-42.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179
표 V-43.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배경변인별)	180
표 V-4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181
표 V-45.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배경변인별)	182
표 V-46.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183
표 V-47.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배경변인별)	184
표 V-48.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185
표 V-49.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배경변인별)	186
표 V-50.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187
표 V-51.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배경변인별)	188
표 V-52.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189
표 V-53.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배경변인별)	190
표 V-54.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191
표 V-55.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배경변인별)	192
표 V-5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193
표 V-57.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배경변인별)	194
표 V-58.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195
표 V-59.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배경변인별)	196

표 V-60.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197
표 V-61.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배경변인별)	198
표 V-62.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199
표 V-63.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200
표 V-64.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배경변인별)	200
표 V-65.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2+3) (배경변인별)	201
표 V-66.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202
표 V-67.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배경변인별)	203
표 V-68.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204
표 V-69.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배경변인별)	205
표 V-70.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206
표 V-71.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배경변인별)	207
표 V-72.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208
표 V-73.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배경변인별)	209
표 V-74.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210
표 V-75.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배경변인별)	211
표 V-76.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212
표 V-77.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배경변인별)	213
표 V-78.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214
표 V-79.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배경변인별)	215
표 V-80.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216
표 V-81.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배경변인별)	217
표 V-82.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218
표 V-83.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배경변인별)	219
표 V-84.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220
표 V-85.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배경변인별)	221
표 V-86.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222
표 V-87.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배경변인별)	223
표 V-88.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224

표 V-89.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배경변인별)	225
표 V-90.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226
표 V-91.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배경변인별)	227
표 V-92.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228
표 V-93.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배경변인별)	229
표 V-94.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230
표 V-95.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배경변인별)	231
표 V-96.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232
표 V-97.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배경변인별)	233
표 V-98.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234
표 V-99.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235
표 V-100.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236
표 V-101.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배경변인별)	237
표 V-102.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238
표 V-103.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배경변인별)	239
표 V-104.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240
표 V-105.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배경변인별)	241
표 V-106.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242
표 V-107.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배경변인별)	243
표 V-108.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244
표 V-109.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배경변인별)	245

표 V-110.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246
표 V-111.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배경변인별)	247
표 V-112.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	248
표 V-113.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 (배경변인별)	249
표 V-114.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250
표 V-115.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배경변인별)	251
표 V-116.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252
표 V-117.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배경변인별)	253
표 V-118.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254
표 V-119.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배경변인별)	255
표 V-120.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256
표 V-121.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배경변인별)	257
표 V-122.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258
표 V-123.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259
표 V-124.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260
표 V-125.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261
표 V-126.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	262
표 V-127.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263
표 V-128.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264
표 V-129.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265
표 V-130.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266
표 V-131.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267
표 V-132.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268
표 V-133.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별)	269

표 V-134.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270
표 V-135.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배경변인별)	271
표 V-136.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272
표 V-137.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273
표 V-138.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74
표 V-139.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배경변인별)	275
표 V-140.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276
표 V-14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배경변인별)	277
표 V-142.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278
표 V-143.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배경변인별)	279
표 V-14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280
표 V-14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배경변인별)	281
표 V-146.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282
표 V-147.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283
표 V-148.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84
표 V-149.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배경변인별)	285
표 V-150.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286
표 V-15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배경변인별)	287
표 V-152.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288

표 V-153.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배경변인별)	289
표 V-15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290
표 V-15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배경변인별)	291
표 V-156.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293
표 V-157.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293
표 V-158.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배경변인별)	294
표 V-159.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배경변인별)	295
표 V-160.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296
표 V-161.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배경변인별)	297
표 V-162.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298
표 V-163.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배경변인별)	299
표 V-164. 주관적 빈곤 인식	300
표 V-165. 주관적 빈곤 인식 (배경변인별)	301
표 V-166.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	302
표 V-167.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303
표 V-168.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	304
표 V-169.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 (배경변인별)	305
표 V-170.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306
표 V-171.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배경변인별)	307
표 VI-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318
표 VI-2. 청년빈곤 심층면담 주요 내용	320
표 VII-1. 청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소요예산	385
표 VII-2. 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소요예산	387
표 VII-3. 우울증 증상 실태	388
표 VII-4. 청년의 우울 증상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사업 확대 소요예산	389

표 VII-5. 자살생각 실태	390
표 VII-6.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소요예산	391
표 VII-7. 청년의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393
표 VII-8. 청년의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소요예산	393
표 VII-9. 청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패스 운영 소요예산	395
표 VII-10. 1인 가구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지원 소요예산	397
표 VII-1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398
표 VII-12. 청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시설 및 공간 확충 소요예산 ·	399
표 VII-13. 청년 국내여행 바우처 지원 소요예산	401
표 VII-14. 청년 ‘문화가 있는 날’ 보장 기업 지원	403
표 VII-15. 청년기본법 조문 구성	404
표 VII-16. 청년기본법 개정(안)	405
표 VII-17. 청년기본법 개정 소요예산	405
표 VII-18. (가칭)청년정신건강진흥원 설치 소요예산	407

그림 목차

그림 I-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4
그림 I-2.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5
그림 I-3.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7
그림 I-4.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8
그림 II-1.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	13
그림 II-2.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14
그림 II-3.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과 빈곤 위험	16
그림 II-4.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	19
그림 III-1. WSCC 모델	56
그림 III-2. 도교도청년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60
그림 III-3. 히키코모리 대상 상담흐름도	62
그림 III-4. 도교도 히키코모리 지원 체계도	63
그림 III-5. 토야마현 청년건강증진사업 홍보자료	65
그림 III-6. 교토소리델 사업추진체계	70
그림 IV-1. 상대적 빈곤율 (2012~2021)	89
그림 IV-2.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2)	90
그림 IV-3. 순자산 빈곤율 (2017~2022)	91
그림 IV-4. 연령별 실업률 (2010~2022)	93
그림 IV-5.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15~2022)	94
그림 IV-6. 가구특성별 RIR (2017~2021)	96
그림 IV-7.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21)	97
그림 IV-8.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7~2022)	99
그림 IV-9.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1)	100
그림 IV-10.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5, 2019, 2020, 2021)	102
그림 IV-11.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2)	104
그림 IV-12. 청년 니트 비율 변화	105

그림 IV-13.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5-2022)	107
그림 IV-14. 시간 빈곤율 (2014)	108
그림 IV-15.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110
그림 IV-16. 코로나19 전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	
추세 변화 유형과 해당 지표	111
그림 IV-17. 청년 건강·사회·문화자본 빈곤 심층분석 연구모형	115
그림 IV-18. 청년 우울수준 변화 궤적	122
그림 IV-19.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 (관측값)	124
그림 IV-20.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궤적	125
그림 IV-21. 청년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129
그림 IV-22. 건강·사회·문화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130
그림 V-1.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139
그림 V-2.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141
그림 V-3.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143
그림 V-4.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145
그림 V-5.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147
그림 V-6.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149
그림 V-7.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151
그림 V-8.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153
그림 V-9.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155
그림 V-10.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157
그림 V-11.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159
그림 V-12.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161
그림 V-13. 우울증 증상 실태	163
그림 V-14.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165
그림 V-15. 자살생각 실태	167
그림 V-16.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169
그림 V-17.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171
그림 V-18.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173
그림 V-19.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175

그림 V-20.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177
그림 V-21.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179
그림 V-22.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181
그림 V-23.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183
그림 V-24.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	185
그림 V-25.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187
그림 V-26.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189
그림 V-27.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191
그림 V-28.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193
그림 V-29.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195
그림 V-30.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	197
그림 V-31.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199
그림 V-32.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202
그림 V-33.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204
그림 V-34.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	206
그림 V-35.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208
그림 V-36.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210
그림 V-37.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212
그림 V-38.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214
그림 V-39.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216
그림 V-40.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218
그림 V-41.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220
그림 V-42.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222
그림 V-43.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224
그림 V-44.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	226
그림 V-45.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	228
그림 V-46.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230

그림 V-47.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232
그림 V-48.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	234
그림 V-49.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236
그림 V-50.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238
그림 V-51.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240
그림 V-52.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242
그림 V-53.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244
그림 V-54.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제 ..	246
그림 V-55.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 (평균)	248
그림 V-56.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평균)	250
그림 V-57.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평균)	252
그림 V-58.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평균)	254
그림 V-59.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256
그림 V-60.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258
그림 V-61.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260
그림 V-62.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	262
그림 V-63.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264
그림 V-64.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266
그림 V-65.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268
그림 V-66.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270
그림 V-67.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272
그림 V-68.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74
그림 V-69.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276
그림 V-70.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278

그림 V-7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280
그림 V-72.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282
그림 V-73.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84
그림 V-74.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286
그림 V-75.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288
그림 V-7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290
그림 V-77.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	292
그림 V-78.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296
그림 V-79.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298
그림 V-80. 주관적 빈곤 인식	300
그림 V-81.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	302
그림 V-82.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	304
그림 V-83.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306
그림 VI-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일주일 활동 패턴	323
그림 VI-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일주일 중 최소 시간 보내는 활동	324
그림 VI-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	326
그림 VI-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한국사회에서 시간의 의미	329
그림 VI-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수행 중인 신체 건강 유지 활동	341
그림 VI-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	343
그림 VI-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347
그림 VI-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349
그림 VI-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	351
그림 VI-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352
그림 VI-1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만족/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354

그림 VI-1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여가/문화 활동 욕구 발생 시기 및 해소 방법	360
그림 VII-1. 정책 비전 및 분야	381
그림 VII-2. 1차년도 정책과제(안)	382
그림 VII-3. 2차년도 정책과제(안)	383
그림 VII-4.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와 그 이유 ..	384
그림 VII-5.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386
그림 VII-6. 우울증 증상 실태	388
그림 VII-7. 자살생각 실태	390
그림 VII-8.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392
그림 VII-9.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394
그림 VII-10.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395
그림 VII-11.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396
그림 VII-1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여가/문화 활동 욕구	400
그림 VII-13.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	402
그림 VII-14.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40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전대미문의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일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시작된 청년 실업률의 증가가 미처 해소되기도 전에 발생한 팬데믹 상황으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보다 어렵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결핍을 만들어냈다. 이는 청년의 빈곤 문제가 일부 극소수의 빈곤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청년층의 다수가 당면하거나 잠재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 빈곤 실태를 다루고 있는 금년 3차년도 연구는 청년 빈곤이 실제 어떤 상황이고 향후 어떤 양상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다루면서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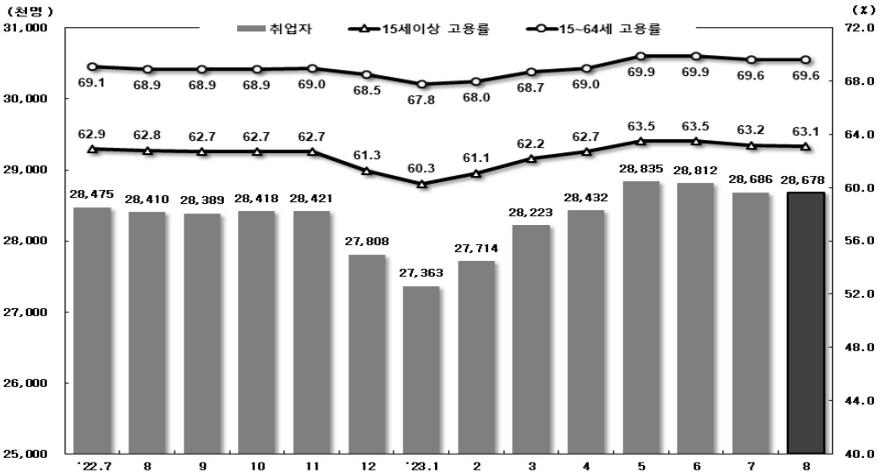
그동안 청년과 빈곤은 양립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니라는 정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청년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경제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고 점차 소득과 자산을 축적해 가는 삶의 궤적을 갖기 때문에 청년시기의 어려움은 취업 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곤 하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보다 길어진 청년 고용난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더욱 요원하게 하고 있다.

2차년도 연구인 2022년 연구에서 시행하였던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중 주관적 빈곤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 중 52.1%가 비록 주관적

2)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인 인식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빈곤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형주 외, 2022). 일상적으로 쓰이는 빈곤이라는 용어가 다소 심각한 경제적 결핍 상태를 떠올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를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청년들이 처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태이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15세이상 취업자는 2,86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8천명 증가하였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다(통계청, 2023a).



* 출처: 통계청(2023a). 2023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3.09.13. p.3.

그림 1-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실업률은 2.0%로 나타났고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는데 실업률이 2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1.9%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고 여성은 2.0%로 0.2%p 하락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였고 실업자는 5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다(통계청, 2023a).

표 | -1. 실업자 추이

단위: %

	'22. 8월	'23. 5월	6월	7월	8월
실업률	2.1	2.7	2.7	2.7	2.0
·15~29세 (청년층) 실업률	(5.4)	(5.8)	(6.3)	(6.0)	(4.5)
·25~29세 실업률	(5.6)	(6.1)	(6.6)	(6.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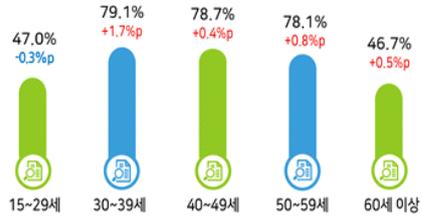


그림 | -2.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 출처: 통계청(2023a), 2023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3.09.13. p.1.

이와 같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의 최근 고용동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산업별 고용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결핍 상황의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

2023년 8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8만 1천명인데 전년동월대비 기준 3.8%(-3천명) 감소하였으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2천명), 숙박음식(-1천명), 제조업(-1천명) 등에서 주로 감소하였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4천명(-6.7%) 감소하였고, 지급액은 9,863억원으로 508억원(-4.9%) 감소하였는데, 구직급여 지급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지급액인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다(고용노동부, 2023a).

작년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 관련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의 17번째 국정과제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에서 3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둘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셋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 출발을 위한 노동, 자산,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중 두 번째 과제에서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등 취약청년 출발 지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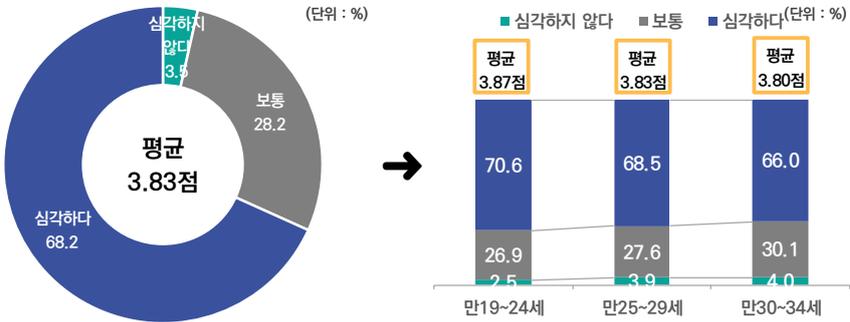
표 1 -2.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

	'20.8월	'21.8월	'22.4월	'22.5월	'22.6월	'22.7월	'22.8월 ¹⁾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90	84	93	85	85	100	81
(증감)	-	-6	-10	-2	-6	-7	-3
(증감률)	-	(-6.8)	(-10.1)	(-2.0)	(-6.5)	(-6.3)	(-3.8)
구직급여 지급자	705	647	652	636	615	613	603
(증감)	-	-59	-87	-68	-78	-66	-44
(증감률)	-	(-8.3)	(-11.7)	(-9.7)	(-11.3)	(-9.7)	(-6.7)
지급건수	755	719	704	715	668	650	685
(증감)	-	-37	-121	-36	-96	-86	-34
(증감률)	-	(-4.8)	(-14.7)	(-4.8)	(-12.6)	(-11.7)	(-4.7)
구직급여 지급액(억원)	10,974	10,371	9,722	10,150	9,557	9,136	9,863
(증감)	-	-603	-1,857	-628	-1,387	-1,257	-508
(증감률)	-	(-5.5)	(-16.0)	(-5.8)	(-12.7)	(-12.1)	(-4.9)
지급건수당 지급액(천원)	1,453	1,443	1,382	1,420	1,431	1,405	1,440
(증감)	-	-10	-22	-16	-1	-7	-3
(증감률)	-	(-0.7)	(-1.6)	(-1.1)	(-0.1)	(-0.5)	(-0.2)
1인당 지급액(천원)	1,556	1,604	1,491	1,597	1,554	1,490	1,636
(증감)	-	48	-76	66	-24	-41	32
(증감률)	-	(3.1)	(-4.9)	(4.3)	(-1.5)	(-2.7)	(2.0)

* 출처: 고용노동부(2023a).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09.13. p.16.

- * 주 1) 구직급여 통계는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작성(일용근로자 포함, 자영업자 제외), 1인당 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을 지급자수로 나눈 값이며,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지급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의 평균 지급액임(지급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월 2회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음)
- 2) '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구직급여 신청·지급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19.10월~'21.6월 통계수치의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1차년도 연구에서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중 한국 사회에서 청년 빈곤 문제의 심각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68.2%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3.5%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점수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87점), 비정규직 취업(3.91점), 부모 동거가구(3.88점), 빈곤층(4.19점), 복지인식 분배중요(4.0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 출처: 김형주 외(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464.

그림 1-3.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또한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인지에 대한 동의도를 조사한 결과, ‘동의함’ 응답이 49.8%로 ‘동의하지 않음’ 응답 13.0%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의도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다(김형주 외, 2021).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년 빈곤의 예방과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3)은 청년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심층적인 현황과 실태를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파악하고 청년 빈곤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속연구로 추진되었으며, 1차년도(2021년)는 청년 빈곤에 대한 영역별 분류틀과 세부지표 개발, 지표에 따른 실태 및 규모 추정, 빈곤 집단 형태별 분석, 소득과 노동 빈곤의 정책 평가와 욕구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자립안전망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였고, 2차년도(2022년)는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현황, 청년 빈곤 이행경로에 대한 분석, 교육훈련과 주거에 대한 빈곤을 중심으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년 3차년도는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방안 마련과 더불어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지역적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김형주 외, 2022).

3) 본 연구는 3개년도 연속과제로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과 연차별 세부 추진목표는 1차년도 및 2차년도에 수립한 목적과 동일함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4)

본 연구는 총 3개년에 걸쳐 수행되며 연차별 연구 목적, 내용, 방법 및 중점분야 등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2021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조사, 청년 빈곤층에 대한 규모 추정, 정책육구 파악 등을 통한 자립안전망 토대 구축
	내용	• 소득(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 분류들 및 지표 개발,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집단 유형 분석 및 도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공인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소득, 노동)에 관한 청년층 의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 정책욕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소득, 노동),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2차년도 (2022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조사,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생애주기 빈곤이행 경로 및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교육훈련, 주거)에 관한 청년층 의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정책욕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교육훈련, 주거),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3차년도 (2023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 도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청년층 의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 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건강, 사회·문화자본),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 출처: 김형주 외(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p.8.

그림 1-4.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4) 본 연구는 3개년 연속과제로서 연차별 연구추진계획은 1차년도에 수립한 각 년도 계획과 동일함

3. 연구내용⁵⁾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총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3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빈곤에 대한 금년도 중점영역에 대한 개념논의,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는 청년 빈곤에 관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개념 논의 분석, 청년 빈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분석, 청년 빈곤에 관한 국회의 입법 사례 및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분석 등을 한다. 또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추진 사례를 분석·제시한다.

둘째, 한국의 청년들이 겪는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 현황과 실태 분석이다. 2023년 한국 청년이 겪고 있는 빈곤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노동,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 청년 빈곤에 관한 영역별 분류 틀, 세부 핵심지표에 관해 통계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공식발표 통계를 토대로 한 실태 분석 및 청년 빈곤층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2차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빈곤 형태에 따른 생애주기적인 빈곤으로의 이행 경로와 빈곤의 주요 원인과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심층분석하여 청년 빈곤 실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청년 빈곤 문제 주요영역에 대한 상황과 인식, 향후 전망과 정책 욕구 조사이다. 1, 2차년도에 도출한 청년 빈곤 지표를 기초로 하여 3차년도 중점영역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자본 영역에 대한 상황과 인식, 향후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빈곤 영역 및 유형별 정책에 관한 인식과 평가,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청년 빈곤의 금년도 중점영역에 대한 심층면담조사이다. 청년들의 삶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자본 영역에 있어서 빈곤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일에서 빈곤 상태, 원인과 이행경로, 빈곤위험성 예측을 위한 청년 대상의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다양한 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이다. 총 3개년 연구를 총괄하여 정책적인 비전 및 세부전략 제안, 자립안전망에 관한 기반 구축 및 추진체계 구체화,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시행방안들을 제시한다.

5) 본 연구는 3개년 연속과제로서 연차별 연구내용의 기본 틀은 동일함

4. 연구방법⁶⁾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속과제의 3차년도 연구로서 기본적인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청년 빈곤과 관련된 문헌 고찰이다.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화 논의, 빈곤에 관한 금년도 중점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 동향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을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둘째, 청년 빈곤에 관한 다차원 실태 분석이다. 이는 1차년도에 수립했던 청년 빈곤 지표에 대해서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며, 영역별 빈곤 위험성을 예측한다.

셋째, 청년 빈곤의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이다.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하여 빈곤의 이행경로 및 주요 영향요인을 2차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넷째, 금년도 청년 빈곤 중점영역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설문 조사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총 4천명 내외의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빈곤 상황, 인식, 전망, 정책요구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심층면담조사이다. 이는 외현적 현상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설문조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IDI)으로 진행된다.

여섯째,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의 개발 및 제언이다. 금년 3차년도 중점주제인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포함하여 지난 3개년간 제시하였던 정책방향과 과제를 총괄하여 청년 빈곤의 예방 및 타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 본 연구는 3개년 연속연구로서 연차별 연구방법의 기본 틀은 동일함



제2장 청년 빈곤에 관한 정책동향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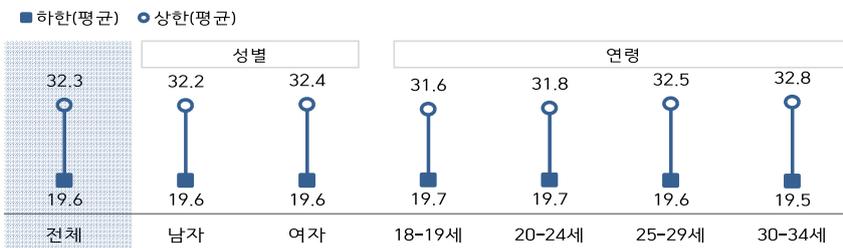
- 1.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논의
- 2. 청년 건강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
-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빈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 4. 정책적 시사점

1.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논의)

청년의 사전적 개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하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 청년기는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 20대 전후의 연령대를, 청년층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어기초사전, 2023).

청년 사회·경제실태 2020년 조사에서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19.6세에서 32.3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비교 했을 때 상한-하한 연령 범위가 18-19세에서 상한 31.6세, 하한 19.7세, 20-24세에서 상한 32.8세, 하한 19.5세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한 연령은 낮아지고, 상한 연령은 높아져 응답자가 생각하는 청년 연령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단위: 세)



* 출처: 김형주 외(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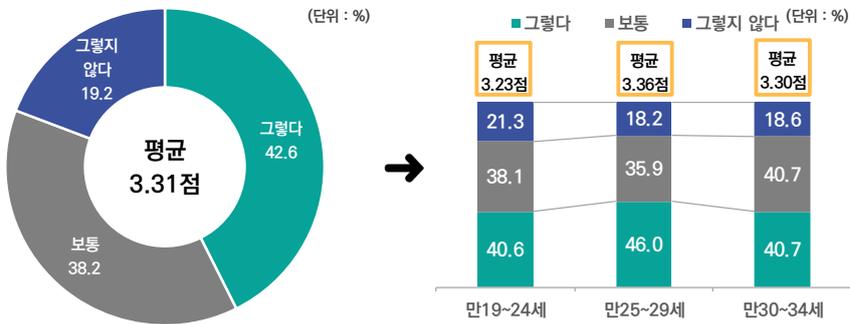
그림 II-1.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

7)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빈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며 유사어로서 가난, 궁핍 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 인구는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불평등 문제가 새로운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

빈곤의 유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 되는 상태,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되며, 주관적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기회평등대책·노동시장정책·조세정책 등이 있다(두산백과사전, 2023).

그렇다면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을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차년도 연구에서 시행한 청년 대상 설문조사 중 주관적인 빈곤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42.6%로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19.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빈곤 인식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46.0%), 만30~34세(40.7%), 만19~24세(40.6%) 순으로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외, 2021).



* 출처: 김형주 외(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418.

그림 II-2.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지금까지 빈곤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어 오고 있는 ‘빈곤선’의 사전적 정의가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혹은 소득 수준’(우리말샘, 2023)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흔히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결핍 여부를 중심으로 빈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중심으로 보는 빈곤과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차원적 빈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표와 같이 변금선과 이혜림(2021)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표 II-1. 소득 빈곤과 다차원적 빈곤의 비교

구분	소득 빈곤	다차원적 빈곤
영역	단일영역	다차원 영역
빈곤선 기준	계량화된 단일 빈곤선	자원·기회의 결핍, 박탈, 배제
특성	간접적 지표 절대적 최소한의 삶 혹은 상대적 평균	직접적 지표 상대적 혹은 적정수준의 삶 가정
강점	공식적 소득분배지표로 활용	빈곤의 실질적 상태 반영 개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 가능
한계	소득정보의 불확실성 경제 이외 욕구 수준 미반영 비화폐적 재화의 결핍 측정 어려움	빈곤 영역과 지표선정의 모호성 영역과 요소 간 상호작용, 시점 문제 빈곤의 수직적 격차 식별의 어려움

* 출처: 변금선, 이혜림(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p.12.

이상의 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빈곤 영역에 있어서 명칭 그대로 소득 빈곤은 단일영역, 다차원적 빈곤은 다차원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빈곤선의 기준에 있어서는 소득 빈곤은 계량화된 단일 빈곤선, 다차원적 빈곤은 자원·기회의 결핍, 박탈, 배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성에 있어서 소득 빈곤은 간접적 지표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다차원적 빈곤은 직접적 지표를 중심으로 상대적 혹은 적정수준의 삶을 가정한다. 강점에 있어서 소득 빈곤은 공식적 소득분배지표로 활용하고 다차원적 빈곤은 빈곤의 실질적 상태를 중심으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계점에 있어서는 소득 빈곤은 소득정보의 불확실성, 경제 이외 욕구 수준 미반영, 비화폐적 재화의 결핍 측정 어려움 등이 있는 반면 다차원적 빈곤은 빈곤 영역과 지표 선정의 모호성, 영역과 요소 간 상호작용 및 시점 문제, 빈곤의 수직적 격차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변금선과 이혜림(2021)의 연구에서 청년들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업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그 위험요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빈곤 위험을 살펴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사회적 과업	교육자격 획득	구직과 일자리 이행		주거 분리(독립)	가족 형성
	교육자격	직업 정보	일자리	독립된 주거	새로운 가구 형성
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부담 · 일-학업 병행 · 학업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비용 부담 · 하향 취업 · 정보 비대칭성 (부정확한 채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임금 · 불안정노동 · 위험한 일터 환경(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 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부담 · 범죄 위험 노출 · 열악한 주거 환경 · 주거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위험 가중 · 가족돌봄으로 인한 소득상실, 경력단절
결과	저학력 경제적 자립역량 상실	장기실업 구직 포기	근로빈곤 찾은 이직 이직 포기	주거 빈곤 독립 포기	가족형성 포기 일·생활 포기
니트, 사회적 고립, 부채부담, 불건강 등					

* 출처: 변금선, 이혜림(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p.14.

그림 II-3.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과 빈곤 위험

이상의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업을 교육자격 획득, 구직과 일자리 이행(직업 정보, 일자리), 독립된 주거, 새로운 가구 형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교육자격 획득이라는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은 학비부담, 일-학업 병행, 학업중단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저학력, 경제적 자립역량 상실 등이다. 직업 정보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구직비용 부담, 하향 취업, 정보 비대칭성이며 그로 인한 장기실업, 구직 포기 등이 있으며, 일자리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저임금, 불안정노동, 위험한 일터 환경이고 이로 인한 근로빈곤, 잦은 이직, 이직 포기 등이 있다. 독립된 주거 마련이라는 과업에서의 위험요인은 주거비 부담, 범죄 위험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정보 부족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주거 빈곤, 독립 포기 등이 있으며, 새로운 가구 형성이란 과업의 위험요인은 1인 가구 위험 가중, 가족돌봄으로 인한 소득상실, 경력단절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형성 포기, 일·생활 포기 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들에서 모두 결핍이 발생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니트, 사회적 고립, 부채부담, 불안감 등의 빈곤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개년 연구인 본 연구에서도 단순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빈곤이 아니라 최근의 청년 세대의 삶을 정확히 파악하자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빈곤 문제를 접근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년도 연구에서 빈곤 개념과 이와 같은 빈곤 개념을 설명하는 빈곤 영역 및 빈곤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하여 청년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1차 년도 연구에서 청년 빈곤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 청년 빈곤 개념의 타당성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1·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 빈곤의 개념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다(김형주 외, 2021).

표 II-2.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성 평가

(n= 23, 단위: %, 점)

구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1차(A)	0.0	8.7	4.3	60.9	26.1	8.7	87.0	2.00	5.00	0.82	4.04
2차(B)	0.0	8.7	13.0	60.9	17.4	8.7	78.3	2.00	5.00	0.81	3.87
GAP (B-A)	0.0	0.0	+8.7	0.0	-8.7	0.0	-8.7	0.00	0.00	-0.01	-0.17

* 출처: 김형주 외(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100.

이와 같은 청년 빈곤의 개념을 중심으로 청년 빈곤에 대한 6가지 분류 영역은 1차 델파이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 모두 같게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청년 빈곤을 분류하는 6가지 영역의 타당성 및 중요성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가면서 타당성 및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추가 의견으로서 주거 영역에서 가구의 형태(부모 동거, 1인가구, 셰어하우스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김형주 외, 2021).

표 II-3.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타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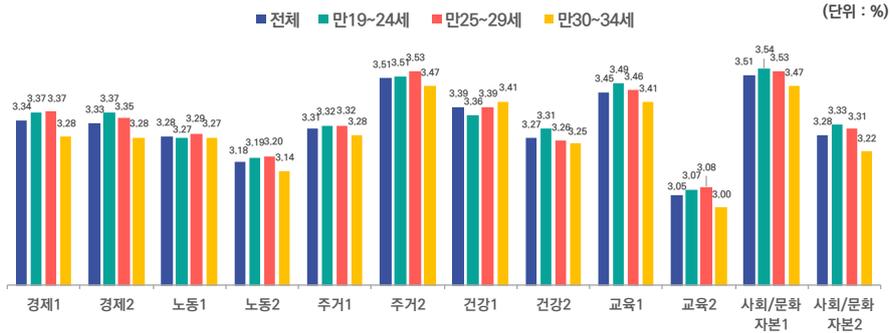
(n= 23, 단위: %, 점)

구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경제	1차(A)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2차(B)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GAP (B-A)	0.0	0.0	0.0	0.0	0.0	0.0	0.0	0.00	0.00	0.00	0.00
노동	1차(A)	0.0	4.3	0.0	43.5	52.2	4.3	95.7	2.00	5.00	0.73	4.43
	2차(B)	0.0	0.0	4.3	30.4	65.2	0.0	95.7	3.00	5.00	0.58	4.61
	GAP (B-A)	0.0	-4.3	+4.3	-13.1	+13.0	-4.3	0.0	+1.00	0.00	-0.15	+0.18
주거	1차(A)	0.0	0.0	4.3	47.8	47.8	0.0	95.7	3.00	5.00	0.59	4.43
	2차(B)	0.0	0.0	4.3	43.5	52.2	0.0	95.7	3.00	5.00	0.59	4.48
	GAP (B-A)	0.0	0.0	0.0	-4.3	+4.4	0.0	0.0	0.00	0.00	0.00	+0.05
건강	1차(A)	0.0	0.0	4.3	52.2	43.5	0.0	95.7	3.00	5.00	0.58	4.39
	2차(B)	0.0	0.0	4.3	47.8	47.8	0.0	95.7	3.00	5.00	0.59	4.43
	GAP (B-A)	0.0	0.0	0.0	-4.4	+4.3	0.0	0.0	0.00	0.00	+0.01	+0.04
교육	1차(A)	0.0	0.0	8.7	52.2	39.1	0.0	91.3	3.00	5.00	0.63	4.30
	2차(B)	0.0	0.0	4.3	52.2	43.5	0.0	95.7	3.00	5.00	0.58	4.39
	GAP (B-A)	0.0	0.0	-4.4	0.0	+4.4	0.0	+4.4	0.00	0.00	-0.05	+0.09
사회·문화 자본	1차(A)	0.0	4.3	13.0	39.1	43.5	4.3	82.6	2.00	5.00	0.85	4.22
	2차(B)	0.0	4.3	17.4	34.8	43.5	4.3	78.3	2.00	5.00	0.89	4.17
	GAP (B-A)	0.0	0.0	+4.4	-4.3	0.0	0.0	-4.3	0.00	0.00	+0.04	-0.05

* 출처: 김형주 외(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p.100-101.

1차년도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로 도출된 청년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을 지표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에 대해 실제 청년들은 이러한 빈곤 정의의 기준이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번호는 각 빈곤 영역별 지표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간략하게 명칭화한 것이다.

청년 빈곤층을 규정하는 정의 기준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점 이상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교육2(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2(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타 영역별 기준 대비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김형주 외, 2021).



* 출처: 김형주 외(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429.

그림 II-4.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

또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빈곤 6가지 영역별 중요도를 조사해 본 결과, '주거'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 노동, 건강 등의 순이었다. 한편 사회·문화 자본 영역은 중요도가 타 영역 대비 낮게 분석되었다. 연령별 청년 빈곤 영역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주거', '경제', '노동', '건강' 영역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김형주 외, 2021).

청년들이 인식하는 여러 빈곤 영역 중에서 주거를 소득이나 노동 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서 주거 마련이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초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가격의 급등과 이른바 영끌이라고 칭하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의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러한 자산 투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의 경기침체는 청년 취업난의 심화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 증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증가와 개인의 소득 증가 간의 간극 확대는 청년이 자신의 경제

활동을 통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정서적 삶의 좌절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개년 동안의 본 연구에서 추진한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구조화 시키는데에 주안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빈곤의 주체인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고, 두 번째는 빈곤이란 현상을 사전적 정의 이상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면모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우선 청년의 개념은 자립안전망이라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의 특성상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으로 개념화하였고 그렇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가진 청년의 범주 보다는 청년기본법에서 법제상 정의하고 있는 연령 범위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제한하였다. 다만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개념화에서 다루었듯이 청년에 대한 연령 상한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도 넓은 사례도 있고, 청년들의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의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연령 상한에 있어서 청년의 범주를 보다 넓게 볼 필요성도 열어 두었다. 이 문제는 비단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법적 연령인 만 15세까지로 연령 하단을 넓히는 문제도 동반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본법과의 연계와 통합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빈곤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인 연구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연구진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과 가장 많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념화는 빈곤의 사전적 의미인 경제적 자산이 부족하다는 정의로 우리 사회의 청년 빈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빈곤 현상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면모에서 발생하는 결핍을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인 빈곤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시도로서 개념화의 논의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 빈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후지타 다카노리(2016)가 주장한 것처럼 장래 증장년 성인 시기에도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위험성)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다뤄봤지만, 청년 빈곤을 실제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화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본설계 상 장래의 빈곤 가능성(위험성)을 정량화하는 난제가 있어서 청년 빈곤의 개념화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청년기의 빈곤이 향후 증장년기의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연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의 연속성 문제와 장래 빈곤에 빠질 위험성 부분도 향후 관련 연구가 추가로 추진되어 다룬다

면 생애주기 상에서 청년 빈곤 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청년 건강 빈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동향⁸⁾

청년 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⁹⁾ 2022년 4월 14일 발표된 내용 기준이므로 실제 집행된 사업내용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청년 건강 관련 정책은 아래 표에서 총 8개로 집계된다. 1개 사업은 5대 정책영역 중 교육 영역에 해당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복지·문화 영역에 해당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6개, 교육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다.

건강 영역의 사업들은 크게 정신(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으로 구분된다. 8개 중 5개 사업이 정신(마음) 건강과 관련되고, 3개 사업이 신체 건강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생애주기 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기에 해당하지만, 정신건강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 건강 영역 중앙정부 청년정책 개관

정책영역	소관부처	사업명	대상
교육	교육부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추진	대학생
복지·문화	보건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마음건강특화사업)	만 15~34세 우선
복지·문화	보건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청년마음건강바우처)	만 19~34세
복지·문화	보건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자살예방)	전 연령층
복지·문화	보건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알코올 중독 예방)	만 15~34세
복지·문화	보건복지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만 20~39세
복지·문화	보건복지부	청년층 건강개선과 일자리 창출	만 19~34세
복지·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전 연령층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8) 이 절은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9) 2023년 시행계획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는 17개 시도는 발표를 하였지만, 중앙정부는 2023년 5월 3일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각 사업별로 대상, 사업내용, 추진체계, 예산 등의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추진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추진’은 별도 연령 기준 없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체계 구축, 마음건강 정보·인식의 문턱 낮추기, 고위험군 학생 ‘선별-선별 후 관리’ 체계 마련,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시행계획 상 학생상담센터 설치율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함으로써 별도 예산 소요는 없다.

(2)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마음건강특화사업)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마음건강특화사업)’은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의 인프라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한 청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치료와 만성화 예방, 그리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소득이나 기타 조건과 무관하게 만 15~3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지역자원(청년센터, 대학교, 고용센터, 병무청 등) 연계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의 연계, 청년들에게 익숙한 SNS, 모바일 APP,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심리지원 서비스(정신건강 자가진단, 마음건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와 홍보 및 캠페인,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를 중심으로 한 집중사례관리, 심층평가, 그룹인지 행동치료, 의료기관 연계·치료지원, 증상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2년 말 현재 17개 광역시도 전체에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2019까지 7년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에 부산 등 6개 시도, 2021년에 인천 등 5개 시도, 그리고 2022년에 서울 등 5개 시도에 설치가 되면서 모든 광역시도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성과지표를 특화사업 실시 시도 수로 함으로써 2022년에 완전히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II-5.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 설치 경과

연도	2012~2019	2020	2021	2022
시도	광주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서울, 대구, 울산, 세종, 충북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예산을 보건복지부가 시도로 배분하고, 시군구에서 실행기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지원하고, 실행기관에서 청년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2년 사업 예산은 29,099백만원(국비 50% 기준)이다.

(3)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마음건강바우처)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인 지원, 건강성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인 문제 예방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별도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된 청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강박 등 심리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3개월(10회기)간 주 4회에 걸쳐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월 24만원 혹은 28만원(본인부담금 10%)에 상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서비스 기간은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6.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마음건강바우처) 서비스 종류와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회당 50분	주1회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사업예산은 국비 기준 5,670백만원(지자체 평균보조율 70%)에 달한다.

(4)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자살예방)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자살예방)’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자살 유족)의 사후관리를 통한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연령도 모든 연령층을 포괄한다.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면서 청년층을 따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청년정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청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같은 별도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청년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54.3%(통계청, 2022)에 달하고, 특히 여성 청년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사실로부터 다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내용은 자살 유족 대상 심리·정서 지원 및 환경·경제지원, 자살시도자 대상 응급실 기반 단기 사례관리 및 지역서비스 연계 등이다. 그리고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개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 사례관리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에 의해 사고 발생부터 유족 발굴과 연계, 애도 상담, 환경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원스톱서비스에는 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일시 주거 비용 지원, 사후 행정처리, 특수청소 등이 포함된다.

(5)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알코올 중독 예방)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알코올 중독 예방)’ 사업은 청년층 알코올·마약류 등 중독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기타 조건 없이 만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동 사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

한 중독예방 및 홍보, 사례관리 매뉴얼 등 개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알코올·마약류 등 중독문제 지원 확대에 구성된다.

사업 예산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 홍보비 50백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8개소 각 국비 25백만원씩 총 200백만원으로 총 250백만원(국비 기준)으로 책정된다.

(6)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보건복지부의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사업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20대, 30대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대함으로써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대상은 만 20~39세의 청년세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었다.

사업 내용은 격년 주기(검진항목에 따라 다름)로 11개 대상질환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개 대상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시각·청각 이상, 신장 질환, 빈혈,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우울증, 치아우식 등 구강검진이 포함된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는 2021년부터 검진주기를 10년마다 1번에서 10년 중 1번으로 개선함으로써 과거 검진시기를 놓치면 검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

사업 예산은 국가건강검진 총 예산 9,039백만원 중 청년층에 3,977백만원이 할당되어 있다.

(7)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다.

2018년 3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중 '지역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총 34개 사업단(시도별 평균 2개)을 통해 정신건강(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체건강(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자율형(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 모델) 중 선택할 수 있다(중복 가능). 사업단은 대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자격을 갖춘 기관이 단장 1명, 행정인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만 19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7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기 사업들과 달리 청년들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사업 예산은 1,488백만원이 책정되었다.

(8)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사업은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관, 수영장 등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전 연령층으로 청년층을 별도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

(1) 개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관련 정책들은 2022년 17개 광역시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검토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특색이 있고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치가 있을 만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자체 시행계획에서 건강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마음건강바우처)'나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광역 시도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사업은 드문 형편이다.

17개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 건강 관련 사업들 중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 시행여부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자체 사업이 있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 7개이고, 나머지 10개 시도에는 자체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체 사업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각 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7. 17개 광역시도 시행계획 상 건강관련 사업 현황(자체 사업)

지역	자체사업	사업	대상
서울특별시	있음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부산광역시	있음	청년 마음건강 지원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대구광역시	있음	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	대구시 거주 만 19~39세
인천광역시	없음	-	-
광주광역시	있음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	광주시 거주 첫아이 임신 계획 중인 부부
대전광역시	있음	청년 마음건강 지원	대전시 거주 만 18~39세
울산광역시	없음	-	-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	-
경기도	없음	-	-
강원도	없음	-	-
충청북도	있음	마음-이음 프로그램	충북 거주 만 19~39세
충청남도	없음	-	-
전라북도	있음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전북 거주 만 18~39세
전라남도	없음	-	-
경상북도	없음	-	-
경상남도	없음	-	-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2) 자치단체별 주요 사업

서울특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거주 만 19~39세의 청년 7,000명(2022년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상담 전 온라인 심리측정검사를 활용하여 청년 마음상태를 유형별로 분류 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상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마음건강 관리 앱’ 도입. 고위기군 대상 임상심리검사를 통한

마음 치유와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다. 전액 시비로 2,999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시행기관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로, 상담사 자격기준 관리와 상담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500명(2022년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문상담사 연계 1:1 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특강, 아트테라피, 상담콘서트, 집단상담 등) 운영이다. 전액 시비로 3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심리건강 회복과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 심리·진로 등 상담사업 운영 및 청년정책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시 거주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마음(정신)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영역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마음건강뿐만 아니라 취업, 진로 등의 영역으로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입활동지원금(수당) 연계(2천명) 10개 분야의 상담 제공, 청년 대상으로 심리·취업·진로 등의 1대 1 맞춤형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운영, 개별·집단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기관연결, 멘토링 등 맞춤형 해결책 제시 등이다. 이 중 수당연계형 상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액 시비로 2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가 전달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광주광역시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사업과 다른 점은 첫아이 임신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2022년 300부부)으로 임신관련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사업 내용은 부부당 30만원 내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초음파 검사, 자궁질환검사, 정자·난자 검사, 항체검사, 성병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액 시비로 1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전광역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거주 중인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우울, 학업과 취업, 불안 등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문상담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액 시비로 22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충청북도는 ‘마음-이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19~39세 청년(2022년 기준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내용은 온라인 상담 및 북부권(충주, 음성) 상담소 운영,

MBTI(간편검사-자가채점용) 추가 검사(참여자 요구시) 통한 분석적 맞춤형 상담, 전문가와 상시 비대면 및 대면 개별상담(1인당 최대 5회), 사전, 사후 척도 검사를 통해 상담의 타당도 검사 등이다. 사회적 고립 청년(3개월 이상 구직자)은 우대하여 선정한다. 전액 도비로 2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라북도는 ‘청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저소득 청년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도내 거주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청년 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통보 → 검진 실시(지정의료기관) → 검진결과 및 유소견자 통보(검진기관) → 유소견자 중 희망자 보건소 신청의 과정을 거친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보건소 프로그램(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센터, 금연클리닉 등)을 연계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비와 시군비로 총 30백만원(도비 9백만원, 시군비 2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빈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¹⁰⁾

1)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법령 분석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2조 기본이념 2항 2호는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을, 제23조는 청년 문화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2항 2호의 청년의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은 다양한 유형의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청년의 사회자본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활동 지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제23조의 청년의 문화활동 지원은 문화자본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10) 이 절은 김정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8. 「청년기본법」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23조 청년 문화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3년 4월 5일 인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도 청년 참여활동 지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권익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 조항에 포함하거나(대구),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일환으로 청년활동과 커뮤니티 조직 결성 등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내용을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경북), 청년 참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당 지급을 명시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등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활동을 주로 정책참여 활동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과 청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크게 일반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활성화와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¹¹⁾

표 II-9. 광역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청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서울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11) 전라남도도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복지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 문화복지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청년문화패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p>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9.7.18〉</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7., 2020.10.5〉</p> <p>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신설 2016.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p>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제10조의 2 (청년의 참여 확대 등)	<p>①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시정 전반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책이 민주시민으로서 교육·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p>
부산	제15조 (청년문화사업)	<p>①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p>
인천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p>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p>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p>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p>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개정 2021.6.4., 2022.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제16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p>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대전	제2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p>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제28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p>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대구	제13조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p>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 창업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 4. 청년 주거지원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 국제협력 지원 9. 청년정책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10. 청년 사회진입 촉진 지원
광주	제11조 (시정 참여)	<p>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p> <p>② 시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위원의 수를 늘리는 데 노력한다. [제목개정 2021.2.25.]</p>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제17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2.25.]
울산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청년당사자가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 문화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창작 및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	제2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정에 청년 관련 각종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11. 15.>
	제2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	제1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p>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p>
	제1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충북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p>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제1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p> <p>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충남	제19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23.3.10.)</p> <p>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참여한 청년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제25조 (청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경북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제16조 (청년의 문화 예술 활성화)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제21조의 2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p>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활력회복을 위하여 청년활동과 커뮤니티 조직 결성 등 청년공동체 활동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② 도지사는 청년커뮤니티 지원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4.]
경남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위원의 비율을 결정한다. <신설 2021.5.3.>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9.26, 개정 2021.5.3.>
	제14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도지사는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1.>]
	제17조 (청년의 문화 예술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31.>]
전남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매년 도보·도정소식지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제17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지역	구분	사회·문화 활동 지원 관련 내용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문화복지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교부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 ⑤ 지원 대상 청년은 문화복지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거주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문화복지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2. 5. 19.) ⑥ 문화복지비의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3., 향이동 2022. 5. 19.)
제주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등 자문기구 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1.11.23.>
	제16조 (청년의 문화 등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문화·예술·여가를 활성화하고, 이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2.28., 2020.8.12.>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예술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b). 해당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년 4월 5일 인출

2)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청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2023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중, 세 번째 과제 “한국문화의 차세대 주자, 예술”, 다섯 번째 과제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여섯 번째 과제인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한국 스포츠”에 반영된 청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업무계획 중 청년을 위한 지원은 청년예술인, 예술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예술 전공자 또는 청년 직업인에게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만을 위한 스포츠대회 지원 등 청년 중에서도 일부 대상에게만 지원이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가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청년 지원 정책이 모든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핵심 추진과제들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삶의 질 개선,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게임 등 K-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을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심 추진과제 곳곳에서 청년은 K-컬처의 차세대 주자로서 부각될 뿐, 청년 일반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의 맥락에서 볼 때,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표 II-10.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청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 내용

핵심 추진과제	내용
3. 한국문화의 차세대 주자, 예술	② 미래 인재의 상상력과 독창성 키우는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예술 인재 발굴: 청년예술인(생애 첫 지원, 35억원) • 현장인력 양성: 현장과 대학을 연결, 예술대학생 역량 강화(58억원, 신규)
5.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③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별 관심, 특성 반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꼬마작곡가, 주말예술캠퍼스, (청소년) 송캠프, 건축학교, (청년)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중장년) 생애전환학교, (노년)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등
6.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한국스포츠	①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활동 지원: 유아·청소년·대학생·중장년·노년 맞춤형 스포츠 활동으로 평생 운동 습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대학클럽스포츠 대회 종목 확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https://www.mcst.go.kr/kor/s_policy/plan2023/plan2023.jsp에서 2023년 4월 5일 인출

3)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내용

여기에서는 지자체별로 매년 발표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된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중앙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관계부처 합동, 2020.)이 2020년 12월에 발표된 후, 청년정책 중점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로 발표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5개 분야별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은 참여·권리 분야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문화 분야에 많은 부분 반영되어 있다. ‘청년기본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관계로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한정하여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표 II-11.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사회·문화자본 관련 내용

구분	세부과제명	내용
서울특별시 ¹²⁾	청년문화패스	만19세 청년들(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 제공,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연간 20만원 상당) 지원
	청년예술청 운영 지원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지원 사업
	청년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인 첫 작품 발표를 위한 창작지원금 지원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청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산광역시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게임기업 인큐베이팅,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등 게임산업 육성 지원
	이스포츠 대학리그 개최	대학생 이스포츠 동아리 대항전 개최를 통한 이스포츠 저변 확대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웹툰작가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 마케팅 지원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1인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제작, 마케팅 지원
	청년마을놀이터 조성 및 운영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조성 운영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운영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운영가능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청년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부산권 청년문화 허브공간 운영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다양한 서브컬처 단체와 청년 예술가의 네트워크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	

구분	세부과제명	내용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청년예술가의 거리예술 활동을 통해 창작영역 확대 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작가의 작품전시 및 판매지원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 발판 마련
	청년문화포럼	청년문화 활동가 풀 구성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콘서트 개최 지원
	신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신진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공연 기회 제공
	청년문화 축제 개최	청년문화육성 및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청년 문화축제 개최
	지역대학 비교과과정 예체능 활성화 지원	지역대학 내 예체능 교과과정 운영 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쇼케이스 및 공연작품 제작 지원을 통한 청년연출가 발굴, 육성 및 지역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활동	공연, 시각, 문학분야 청년예술가 지원으로 창작활동 기회제공 및 창작역량 강화
	기업협력형 창작지원 활동	기업과 협업을 통한 청년예술가 전시회 개최 지원
	청년예술가 자율 기획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프로젝트 지원
	청년예술작품 구독	공공 및 민간시설 청년예술가 작품 구독 지원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	대학생과 예술창작 현장(공공, 민간)을 연결하는 프로덕션 체계를 구축하여 작품제작, 참여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청년의 자발적인 모임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사회관계망 형성, 지역문제 관심 고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 발굴 육성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인천광역시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청년시민의 문화창작 향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청년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 여가활동 활성화 및 관광 향유권 증진 인천 청년이 지역관광 콘텐츠를 즐기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 홍보하는 활동
	인천 유니크베뉴 청년체험단	유니크베뉴 29개 소 중 체험지를 선정하여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MICE 산업 육성 관련 사업)
	지역기반형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청년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및 창작자 양성, 청년 기획 공연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 발굴 확산하고, 지역연계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활동의 기반 마련,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구분	세부과제명	내용
대구 광역시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공연 전시분야 전문기획 인력 양성과정 운영
	폐유티공간 활용, 청년 공간 재탄생	도시문제 원인인 (폐)유티공간을 시가 전략적으로 매입 후 민관공이 협업해 청년층 대상 활동공간 제공(임대) 활용
	서구 유티공간 활용 청년 복합문화 클러스터 조성	유티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 통한 시민청년 활동 실험공간 조성 등
	대구청년 응원카페 상생사업	카페 이용료 지원, 청년 응원프로그램 운영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신진예술가 창작지원, 컨설팅 등
	DIMF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뮤지컬 전문 창작 인력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뮤지컬 페스티벌과 연계한 개발작 무대화 지원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창작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공간 및 홍보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공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시 보유공간을 청년시민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실험 공간, 청년 공유공간, 창업공간 등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조성(리모델링)하여 제공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 발굴 육성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추진으로 청년역량 강화 및 지역활력 도모	
광주 광역시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 운영 지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 실무교육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청년예술인 스튜디오 제공 등 지원
	청년 체육인재 육성	전도유명한 청년선수 훈련비 등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 문화일자리 지원	문화예술 분야 구직자와 예술단체 매칭 인건비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육사 실무경험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프로젝트	광주 5대 문화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청년 매칭 일자리 제공(인건비, 교육)
	광주5대 문화 콘텐츠 청년창업가 성장 사다리 지원	5대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청년 초기성장 지원(시제품개발, 홍보 등)
	청년온라인 문화교류	해외 자매도시 청년 네트워크 사업
	청년자율 공간 확충	공공 민간 청년공간 발굴 및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공동체 발굴, 지역공헌 활동 기반 조성
	마을청년 활동가 운영	청년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능력 있는 마을활동가 발굴 육성

구분	세부과제명	내용
대전광역시	청년작가 지원 (넥스트코드)	청년작가 (넥스트코드) 전시 참여
	대전청년작가장터	대전 지역청년예술가 미술작품 직거래 장터 운영
	이응노미술관 청년작가 프로젝트 아트랩대전	대전출신 시각예술 작가에게 전시 일체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창작지원, 차세대 아티스트 역량강화, 창작활동 지원, 청년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운영
	대전청년유니브연극제	청년 연극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 화합하는 청년연극제 및 부대 행사 실시
	대전시민교향악단	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음악인의 연주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를 발굴·확산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	자발적인 청년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 (3인 이상 구성된 비영리 커뮤니티)
울산광역시	울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게임 기업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 육성
	울산웹툰캠퍼스 운영	만화·웹툰 작가, 예비작가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만화산업 생태계 육성
	K팝 사관학교 설치	케이팝을 활용한 문화경쟁력 강화와 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울산 청년예술 지원사업	관내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예술현장 정착 도모
	울산 비보이 페스티벌	비보이가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는 축제로 청년문화의 발전에 기여
	거리공연 지원사업	청년예술가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거리공연 기획 및 지원
	울산 스트리트댄스 페스티벌	청년 문화 중 하나인 스트리트 댄스 장르의 대중화와 시민 향유 기회 확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 발굴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으로 청년 정착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청년활동경험 지원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지역 정착의 기반 마련 및 청년 유출 방지

* 출처: 서울특별시(2023).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2023).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인천광역시(2023).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구광역시(2023). 2023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광주광역시(2023). 2023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2023). 2023년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2023). 2023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 12) 서울시에서는 본 연구의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참'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사업은 청년활동 및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청년 허브 홈페이지(2023). 청년참. <https://youthhub.kr/활동지원단체/청년모임> 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서울시에서는 청년문화패스를 제공하고, 청년예술청 운영, 청년예술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청년문화패스를 지원하는 것은 여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지원으로 판단되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마음건강지원, 진로모색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정보선별 및 제공, 청년정책 홍보” 등에 두고 있어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자본 관련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개별 지원센터별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나머지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부산시는 서울시 및 나머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청년 문화 관련 지원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청년 문화예술가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 역시 동일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두드러진 차이점은 청년 문화지원 정책이 부산의 문화산업, 마케팅 육성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별점은 부산시와 대전시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영리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의 매칭펀드로 운영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청년단체 또는 법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의 확대된 버전이자 청년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년 사회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 관련 정책을 가장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청년 문화지원 정책으로 포함된 내용도 주로 청년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청년문화예술 인력 양성 사업이나 청년 예술인을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은 나머지 지자체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 인천시 역시 행정안전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의 경우,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청년예술가 인력 양성 지원 등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자체와 유사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보유한 공간 또는 폐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작 공간으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대구시가 각종 뮤지컬 행사나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지자체인 만큼 뮤지컬 산업과 연계한 청년 예술가 지원정책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 시행계획에는 청년예술인 양성,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공간 지원 사업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것이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지원(창업, 일자리 매칭 등) 사업과 유사하거나 문화일자리 지원 정책을 표방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시행계획에서도 청년 예술가 및 창작자를 지원하는 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시와 함께 대전시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대전시 역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경우, 게임산업, 웹툰산업 등 해당 분야를 진흥시키는 일환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청년 문화지원 정책이 페스티벌, 공연 행사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활동 경험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청년들의 지역 유출 방지에 방점을 찍고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파악되어 부산시,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서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1) 청년 건강 지원 정책의 시사점¹³⁾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건강 관련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체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3개로 분류하였으나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3) 이 부분은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건강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청년층 국가건강검진사업’ 하나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두 개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강하거나 청년층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부족한데다 건강증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19~29세 청년들의 현재흡연율이 22.3%로 전체 평균(19.3%)을 상회하고 있으며, 월간 음주율도 63.9%로 전체 평균(53.5%)을 상회하며(질병관리청, 2022), 2022년 기준으로 19~34세 청년들 10명 중 주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이 약 3명 남짓한 상황(정세정 외, 2022) 등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신체건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예컨대,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신(마음)건강 사업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마음)건강 악화에 대응하는 대응요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이나 소진,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측면의 사업이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과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마음건강 사업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의 사업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연계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2) 청년 사회·문화자본 지원 정책의 시사점¹⁴⁾

지금까지 청년의 사회·문화자본과 관련된 법제도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동향 분석을 토대로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과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함을 명시하고

14) 이 부분은 김정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기회 보장을 정책참여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정치활동은 정책참여에, 경제활동은 일자리 등 취창업 활동에, 문화활동은 문화예술 영역에 한정하여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숙, 강영배(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일상생활 영역과 공적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지자체의 청년 활동 지원 정책이 여타 정책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이지 못하고 있고, 공적영역 지원에 비해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청년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정책과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석을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을 만나 교류하고, 정보를 나눔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기도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가현, 2022). 또한, 가족관계 외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관계망이 청년에게 일종의 ‘비밀 언덕’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정책에는 해당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지원 정책은 많지 않았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고려한 활동 지원(지자체 유출을 막는 정착 지원, 특정 산업분야 육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활동 그 자체, 커뮤니티 형성과 그를 통한 관계망 형성, 사회적 지지와 교류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활동 지원 정책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들의 문화활동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 및 활성화 과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현재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표방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청년들의 일상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 청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을 직업분야로 선택한 청년들의 활동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활동 지원에는 정책의 보편성과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을 추구하는 내용도 고르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지자체들은 문화예술을 직업분야로 하는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외 부분적으로 일반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청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정책은 크게 수월성 추구 정책(청년 예술인 지원)과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반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로서의 문화활동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는 문화예술을 단지 소비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제한된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 문화활동 지원은 향유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의미의 활동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최보연, 2022). 또한 취약계층 청년지원의 측면에서도 문화활동 향유 또는 창작 지원 활동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문화패스 지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보편적 문화복지의 측면에서 일반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경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들에 대한 접근기회 보장과 다양한 향유, 창작,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현재 청년들의 사회·문화자본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법령, 정책들은 관련 내용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는 있으나, 청년들이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또 보편적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해외 청년 빈곤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1. 미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
- 2. 일본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
-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미국, 일본의 동향을 살펴본 이유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의 누적적 불이익 차원으로 청년 문제를 대응하고 있고, 일본은 청년의 정신건강을 중점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인기이행과 자립안전망 구축을 추구하고 있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1. 미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⁵⁾

1) 미국 청년정책 개요¹⁶⁾

미국 연방정부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은 Pathways for Youth가 주된 정책이다. 2013년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Working Group)에 의해 제시된 이 정책은 18개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진행되며, 2008년 공표된 행정명령 13459(Executive Order 13459)와 2009년 통합예산법(Omnibus Appropriation Act 2009)을 근거로 재정이 마련된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청년정책은 Working Group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Youth.gov.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행 및 결과를 공유한다. 상향식 접근에서 청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추진체계는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요컨대 Pathways for Youth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청년 정책이지만 연방 및 주 정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촉진하고 증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상술한 정책에는 Working Group의 주도 하에 청년문제의 사회문화적 요인인 인종

15) 이 절은 김수혜(강릉원주대학교)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16) 미국의 청년정책 개요는 US Government (2013)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및 민족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과 사회 계층 차이가 야기하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포함된다. Pathways for Youth는 10-24세 연령집단이 정책의 대상이지만 생애사적 관점에서 아동기에서부터 초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발달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틀 안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청년정책은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의 확충을 위해 다음의 주요 비전을 제시한다.

- 청년들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사회환경 하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며 일한다.
- 청년들은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청년들은 가정, 친구, 학교, 성인 및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 청년들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

2) 청년층의 건강 관련 정책사례

(1)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제도 및 체계

가. Affordable Care Act(ACA)¹⁷⁾

미국의 의료개혁 정책인 부담적정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은 의료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취약계층에게도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개혁으로 오바마케어(ObamaCare)로도 알려진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며 줄여서 ACA라고도 일컬어진다. ACA는 민간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의 구축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소득 분위가 최저빈곤선을 넘는 까닭에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인 Medicaid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혜택을 보장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의 건강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무엇보다 ACA는 양육시설 퇴소 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26세 미만 청년층에

17) ACA 제도는 U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23). Young adults and the Affordable Care Act: protecting young adults and eliminating burdens on families and businesses. https://www.cms.gov/CCIIO/Resources/Files/adult_child_fact_sheet 에서 2023년 3월 2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이르기까지 Medicaid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한다. 양육시설 퇴소 청년층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의료,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등)에 취약한 집단으로 미 의회연구 보고서(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에 따르면 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35-60%는 치료가 필요한 만성 또는 급성 건강의 문제를 최소 1개 이상 갖고 있으며, 정신건강 치료가 긴요한 행동 또는 사회적 역량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비율 또한 50-7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Emam & Golden, 2014).

ACA의 시행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인 18세-26세 양육시설 퇴소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CA가 확대되면서 양육시설 퇴소 이후에도 21세까지 예방, 구강 및 정신건강과 발달상의 문제를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종합 의료서비스(the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 (EPSDT))가 제공되었으며, 모든 주 정부는 취약 청년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비록 Medicaid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의 내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ACA는 공적 서비스로서 의료보장의 범위를 정신건강 및 행동발달의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으며 여기에는 약물남용 치료 또한 포함된다.

상술한 ACA가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미국 청년층의 건강은 가구소득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의료보험료에 좌우되기 쉬운 까닭에 불평등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schooling)과 다르게 청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에는 제약이 엄존했으며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없었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9). ACA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 19세-25세 청년층 직장건강보험(employer-based insurance) 가입률은 26세-64세 집단보다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층의 비율은 30%에 이르러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U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23).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회 청년실업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관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획득한 청년층만이 직장 내 건강보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사회불평등의 단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청년층이 직면하는 건강 문제의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노동시장 성과 또한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구조적 원인이 작용하며 이는 곧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로 논의된다(Tebb, Pica, Twietmeyer, Diaz & Brindis,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청년층의 건강 상태는 교육, 고용, 소득, 인종, 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의 목적으로 ACA가 대두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평등의 실현을 위해 입안된 ACA의 도입 직후 미국 청년층의 건강 격차는 수치상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공적 보험급여 적용은 23%에서 30%까지 확대된 반면에 부분 적용(14%→11%)과 무보험 상태(9%→5%)의 비율은 감소되었다(Adams, Park, Twietmeyer, Brindis & Irwin, 2018). ACA 적용에 따라 전체 청년층의 의료보험 보장과 건강 검진율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Ortega et al., 2018),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양육시설, 소년사법체계, 노숙 및 가출)이 18세 이후에도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English, Scott & Park, 2014).

ACA 실행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층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책의 효과는 차별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인종 집단에 ACA의 혜택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백인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히스패닉계 청년층의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계 및 히스패닉계 청년층에 대한 의료 이용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된다(Ortega et al., 2018). 아울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과 대조적으로 아시아계,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히스패닉계 청년층의 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VanGarde, Yoon, Luck & Mendez-Luck, 2018). 또한 정신건강과 약물사용의 위험에 처한 청년층의 치료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다(Olfson, Wall, Barry, Mauro & Mojtabai, 2018).

나. Healthy People: Adolescent Health¹⁸⁾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국(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은 연방정부 차원

18) Healthy People의 내용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Healthy People 2030. <https://health.gov/healthypeople>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함

에서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Healthy People'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국가수준에서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하는 거버넌스가 운영된다. 2020년 공표된 Healthy People 2030는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미래 설계(Building a healthier future for all)”를 모토로 각 인구집단의 특성에 맞는 세부목표와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Healthy People 2030에서 청년층의 건강과 웰빙은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생애발달 과정에서 이 시기의 건강과 웰빙이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청년층은 약물사용, 성병, 차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예방가능한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인종 및 가구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도 취약한 집단이다. 아울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발달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전제 하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예방교육과 긍정적인 건강행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전 Healthy People의 정책 기조와 구별되는 Healthy People 2030의 특징 중 하나는 건강의 사회심리적 요소에 초점을 두며 보다 근원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윤주, 2021). 이러한 까닭에 종전의 '건강(health)'과 함께 '웰빙(well-being)'의 개념이 Healthy People 2030의 비전에 추가되었으며, 청년층의 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안정성(Economic Stability), 교육의 접근성과 질(Education Access and Quality), 건강관리 접근성과 질(Health Care Access), 근린 및 구조적 환경(Neighborhood and Built Environment), 사회 및 지역사회 맥락(Social and Community Context)의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된 Healthy People 2030의 목표는 건강관리 전달보다 건강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업스트림 요소(upstream factors)가 부각된다. 다시 말해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중점을 두는 다운스트림 전략에서 질병을 사전에 관리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전에 모색하는 업스트림 전략으로 의료보건 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상술한 맥락에서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학년 학생의 읽기 능력, 청소년기 주요 우울증 치료 여부, 비만, 흡연여부가 선도건강지표(Leading Health Indicators, LHI)로 선정되었으며, 청년층의 건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증거기반자원(evidence-based resources, EBRs)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 연방정부의 자료(Federal Data)¹⁹⁾

미국 연방정부의 청년층의 건강 관련 제도적 개입은 실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증거기반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의 건강 상태 및 행동(긍정적 및 부정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청년층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실무자, 정책 입안자 및 연구원에게 제공한다. 청년층²⁰⁾의 건강 관련 연방정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Monitoring the Future: 미국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생 및 청년의 행동, 태도 및 가치에 관한 연구로서 매년 약 50,000명의 8, 10, 12학년생을 조사함
- 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미국 내 담배, 알코올, 불법 약물(처방약의 비의료적 사용 포함)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및 주 차원의 자료를 제공함
-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Health: 신체적, 정신적 건강,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가족, 이웃, 학교 및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여 청소년 삶에 관한 다층적이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
-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YRBSS): 청소년 및 성인의 주요 사망 및 장애 원인으로 지목되는 6가지 유형의 건강 위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설문조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부상 및 폭력, 담배 사용,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성적 위험 행동,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관련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1984년부터 매년 미국의 건강 상태와 위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와 괌에서 시행 중인 전화 건강 조사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자료를 포함함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아동 및 가족 통계에 관한 연방 기관 간 포럼(the Forum)은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연방 기관의 실무 그룹으로서 포럼의 연례 보고서인

19) 연방정부의 청년 건강 관련 자료는 US Government (2023). <https://youth.gov/youth-topics/adolescent-health/federal-data>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함

20) 시사점에 논의한 것과 같이 미국의 청년건강 관련 정책(Adolescent Health)의 대상 연령은 청소년기(10-19세)와 초기성인기(20-25세)를 포괄하므로 본고에서는 청년층으로 번역함.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은 아동 복지에 대한 국가 지표를 제공하고 이러한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모니터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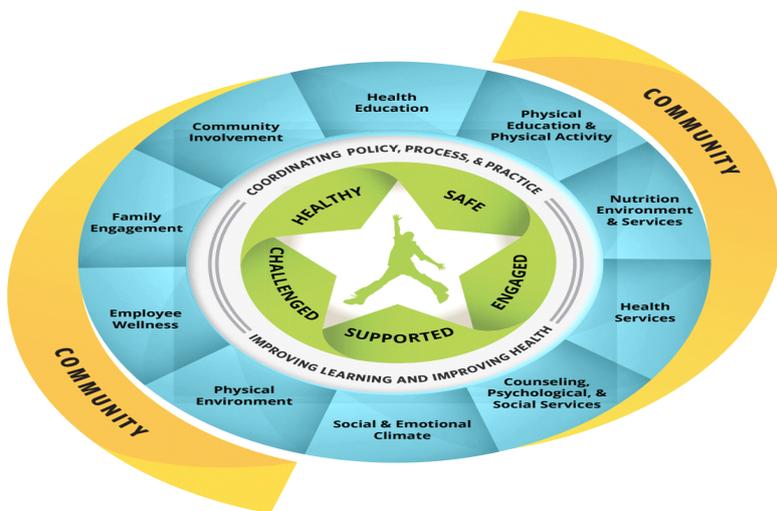
(2) 주 정부의 학교기반 건강관리 모형의 실제²¹⁾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의 건강 및 사회문화적 자원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The 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WSCC) 모형을 통해 실현된다. 이 정책 모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장학 및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ASCD)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청소년의²²⁾ 학업,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는 건강한 학교(healthy school) 환경 조성을 위한 개념 틀을 제공한다. WSCC 모델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역할, 건강과 학업성취의 관련성, 증거기반 학교 정책 및 실천을 강조한다. 건강, 공중보건, 교육 및 학교 보건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안된 WSCC 모델에 따르면 건강교육, 체육 및 신체활동, 영양환경 및 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정서적 풍토, 상담심리 및 사회 서비스, 물리적 환경, 직원복지, 가족의 참여,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10가지 영역이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그림 III-1 참조). 주 의회 및 주 교육부와 함께 주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두고 있으며,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NASBE)는 학교 보건 정책 및 관련 법제 자료를 제공한다.

WSCC 모델에서 주 정부 정책입안자는 전술한 WSCC 모델의 10개 영역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학교 복지 정책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평가(예: 학교 보건지수) 및 조정 메커니즘(예: 학교 보건 위원회, 코디네이터)을 수립한다. 또한 건강 교육 및 체육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설정하며, 학생 건강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련 정책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을 모색한다.

21) The 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WSCC) 관련 정보는 Us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2023). WSCC model. <https://statepolicies.nasbe.org/about/the-wsc-model>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2) 해당 모형이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류되지만 WSCC의 대상은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므로 번역의 정확성을 위해 청소년기로 번역함.



* 출처: US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2023). WSCC model.
<https://statepolicies.nasbe.org/about/the-wscc-model>에서 2023년 4월 15일 인출

그림 III-1. WSCC 모델

(3) 청소년 친화적 건강 서비스(Adolescent-Friendly Health Services)²³⁾

미국에서 수행되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 정책과 실천은 청소년의 성장과 잠재 역량 축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기 친화적 건강 서비스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친화적 건강 서비스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건강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통합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모든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며 청소년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양방향의 소통을 전제하는 대화의 참여, 사생활과 비밀의 존중, 수용, 존중, 전문성 및 직업의식,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3) 청소년 친화적 건강 서비스의 개념과 관련 사례는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9). The promise of adolescence: Realizing opportunity for all youth. <https://www.russellsage.org/sites/default/files/NAS%20Report%20Full%20Text.pdf> 에서 2023년 4월 2일 인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전술한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 서비스는 ①접근가능하고 편리함, ②지불가능함(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부담이 없음), ③적절함(발달단계 및 요구 사항에 반응함), ④형평성(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⑤유능함, ⑥비밀보장, ⑦포괄적임(전반적인 청소년 건강 문제를 다루고 적절한 건강교육을 포함함), ⑧적합한 환경에서 제공되며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⑨청년층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성과 통합성의 특징을 갖는다. 청소년 친화적 건강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학교기반 치료제공(School-Based Care Delivery)

학교기반 건강 센터(SBHC)는 청소년에게 접근이 쉬우며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SBHC에 대한 접근은 초기진료의 빈도를 늘리고, 응급실 사용과 입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된다. 통상적인 외래진료와 비교했을 때,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용 시 편안함을 느끼는 까닭에 청소년들의 선호가 크다.

이처럼 SBHC는 취약계층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며 접근성의 측면에서 강점이 분명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소수의 학교만이 SBHC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에서는 자원 부족으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모든 학교에서 SBHC가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지지가 된다. 먼저 학교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규모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 위험 및 약물남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청소년들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흡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는 통합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SBHC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야 할 당위성으로 귀결된다. 학교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요컨대 SBHC는 청년층의 건강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체계(eHealth)

"eHealth"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달되는 의료서비스로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매개체는 건강관리에 대한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일상에서 손쉽게 건강과 관련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주로 건강교육을 위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행동 관련 건강 증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증재는 일부 연구에서 그 효과가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초기진료 환경에서 대면 개입과 결합될 때 더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전략은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면 접근의 장점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건강 서비스를 탐색하고 정기검진을 계획하며 치료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등 건강관리에 대한 청년층의 주도성을 독려하기 쉽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다. 뉴욕시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Center(MSAHC)

뉴욕시의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Center(MSAHC)는 청소년 친화적인 건강 서비스 모델 중 하나로서 10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MSAHC 모델은 일차적으로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MSAHC는 신체적, 성적 및 생식, 치과, 안과, 행동 및 정신 건강 관련 예방 및 치료를 포용적인 환경 속에서 제공한다. MSAHC의 목표는 청년층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의료 서비스는 비밀보장을 전제로 무료로 제공되고 두 가지 유형의 전문 서비스도 포함한다. 첫 번째는 모든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저해하는 폭력 개입 및 예방이며, 두 번째는 LGBTQ, 노숙경험, HIV 감염, 이민 및 난민, 젊은 부모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년층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MSAHC의 특징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의 혁신을 위해 청소년 중심의 환경평가 과정(Adolescent-Centered Environment Assessment Process)과 청소년 챔피언 모델(Adolescent Champion Model)과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청소년 중심 환경 평가 과정은 의료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임상 환경을 청소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시간 대학의 청소년 건강 전문가 그룹이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이 모델에는 포괄적인 자체 평가와 치료에 대한 접근, 청소년에게 적합한 환경, 기밀 유지, 모범 사례 및 관리 표준, 생식 및 성 건강, 행동 건강, 영양 건강, 문화적 반응성, 직원 태도 및 존중하는 대우, 청소년 참여 및 역량 강화, 학부모 참여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청소년 챔피언 모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미시간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초기진료 사이트를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중심 치료 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챔피언" 팀을 선정한다. 이 청소년 챔피언 팀은 예비교육을 다른 직원에게 제공하고 청소년 친화적으로 사이트(무지개 스티커, 청소년 친화적 간판)를 바꾸며 나아가 기밀유지 실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라. 뉴멕시코시 The Zuni Youth Enrichment Project (ZYEP)

뉴멕시코의 ZYEP(Zuni Youth Enrichment Project)는 Zuni Pueblo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리더 및 멘토로서 참여시킨다. ZYEP는 여름 캠프를 포함하여 1년 동안의 스포츠, 방과 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주니족(Zuni) 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캠프 지도자 및 스포츠 팀 코치로 봉사하게 된다. ZYEP는 지도자로서 청년들이 리더십 관련 기술을 배우고 인생 경험을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 Zuni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Zuni 언어, 문화 및 전통적 요소를 포함하며 청년을 리더로 참여시킴으로써 멘토로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스스로를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 사례로 볼 수 있다.

2. 일본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 동향²⁴⁾

1) 일본 정부, 지자체의 청년 건강 지원 정책

(1) 도쿄도(東京都) 청년상담지원사업²⁵⁾

도쿄도(東京都)는 도내에 거주, 재직 그리고 재학중인 18-39세 청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쿄도청년종합상담센터(東京都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상담방법은 크게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라인(LINE)상담 그리고 면접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²⁶⁾ 센터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상담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출처: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2023a).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 에서 2023년 3월 29일 인출.

그림 III-2. 도쿄도청년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 24) 이 절은 강영배(대구한의대학교)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25)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 (2023c). 若ナビのこと.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profile/> 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26)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 (2023b) 리플렛.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pd/leaflet.pdf?ver=20220425> 에서 2023년 3월 16일 인출.

한편, 센터의 상담사례 분석자료²⁷⁾에 따르면, 센터 이용자 가운데 20대가 48%로 거의 절반에 달하며, 10대 22%, 30대 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방법으로는 전화 상담이 전체 상담 7,164건 가운데 3,6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라인을 통한 상담이 3,015 건이었다. 아울러 상담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문제 12%, 가족관계 10% 그리고 대인관계 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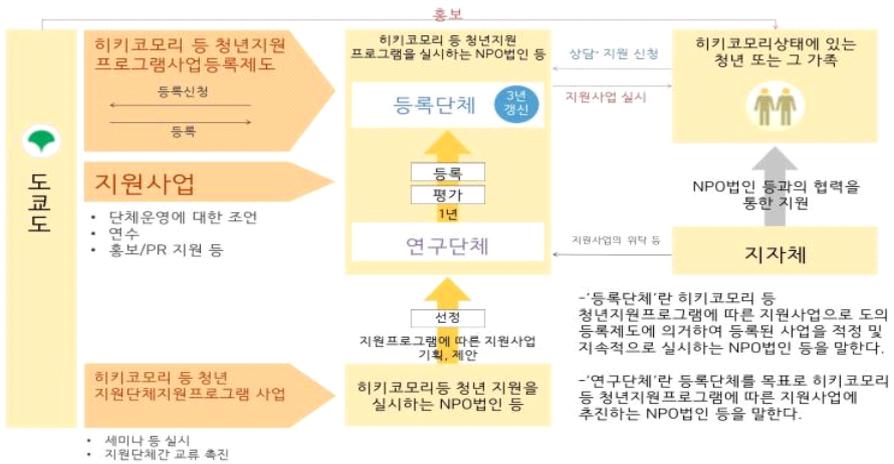
(2) 도쿄도(東京都)의 히키코모리청년 지원 사업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를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 참여(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 근무를 포함한 취업, 가정 밖에서의 교류 및 놀이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주로 가정 내에만 머무르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전국의 11개 지자체의 20-49세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1,660명을 선정하여 히키코모리 경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히키코모리 경험 시작 연령은 22.3세이며, 히키코모리 생애 유병률은 1.2%이고, 조사 시점에 세대 내 히키코모리 상태에 놓인 청년을 보유한 세대의 비율은 0.5%로, 20대가 30-4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도쿄도는 2020년 9월에서 11월에 걸쳐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원상황 등 조사(ひきこもりに関する支援状況等調査)」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상담센터 그리고 민간단체 등 664개소를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담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가족 등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히키코모리의 연령분포,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지게 된 계기, 히키코모리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히키코모리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2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23.7%로, 이들 20-30대를 합한 비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지게 된 계기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이치메 등과 같은 인간관계’ 라고 응답한 비율(103건)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질병’, ‘가족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성 폭력, 지위를 이용한 폭력 등)’ 로 인해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27) 東京都若者総合センター(2023d). 統計情報 <https://www.wakanai-tokyo.metro.tkyo.lg.jp/advice/> 에서 2023년 3월 16일 인출
 28)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23).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Shakai/0000147789.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있다. 29) 도쿄도가 2008년 실시한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민 가운데 15-34세 청년 히키코모리가 약 2만 5천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지게 된 시기가 10-20초반이며, 히키코모리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75%로, 한번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 상태의 청년 가운데 약 80% 이상이 관련기관에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히키코모리 지원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30)



* 출처: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2023a).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とは<https://www.hikkikomori-tokyo.jp/wakamono/> 에서 2023년 3월 29일 인출.

그림 Ⅲ-3. 히키코모리 대상 상담흐름도

(3) 도쿄도(東京都) 히키코모리 지원 네트워크사업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쿄도에서는 청년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쿄도 히키코모리 지원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주요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마친 15세 이상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35세 이상의 청년도 지원

29) 東京都(2023a). 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 <https://www.hikkikomori-tokyo.jp/pdf/guidebook.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30) 東京都青少年治安対策本部 (2023). 東京都におけるひきこもり対策. <https://www.cas.go.jp/jp/seisaku/kids/dai03/siryuu2.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범위를 확대하였다.³¹⁾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 사업에는 히키코모리 당사자모임, 민간지원단체, 의료기관, 교육센터, 각 지자체별 상담기관, 가족모임,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출처: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2023b).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の支援体制 <https://www.hikikomori-kyo.jp/howto/first.php>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그림 III-4. 도쿄도 히키코모리 지원 체계도

이 사업은 주로 상담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되는데, 상담의 방법은 전화상담, 메일상담, 온라인을 통한 포레상담, 방문상담, 개별 상담의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다섯 가지 상담 유형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상담 방법이 '온라인을 통한 포레상담' 과 '방문상담'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온라인을 통한 포레상담은 히키코모리 경험자 또는 그 가족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히키코모리의 특성상 자신을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1명당 대략 1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하며, 매주 화, 목요일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가족의 입장에서 히키코모리 청년 지원에 관한 상담을, 매월 네 번째 목요일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포레 청년이

31) 東京都 (2023b) 都政情報.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19/05/30/25.html>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문상담은 청년 당사자의 양해를 구한 후,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방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일 것, 도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그리고 6개월 이상 히키코모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³²⁾ 방문상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담횟수는 5회로 제한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가족세미나, 합동상담회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4) 토야마현(富山県)의 앱을 이용한 청년층 생활습관개선사업

토야마현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20-30대 청년층의 아침식사 습관의 정착과 야채섭취량의 증가 등 청년층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앱을 보급하게 되었다.³³⁾

토야마현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토야마현이 현민을 위한 건강증진기본계획인 「토야마현건강증진계획(富山県健康増進計画)(2차)」(2013-2023년)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가운데 청년층의 건강 증진이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토야마현은 20, 30대의 청년층의 아침식사 여부에 주목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내에 거주하는 20, 30대 청년층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앱인 「민차레(みんチャレ)」³⁴⁾를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³⁵⁾

이 사업은 민차레라고 하는 앱을 활용하여 최대 5명이 한 조가 되어 2개월간 또래와 함께 서로 격려, 지지하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아침식사하기, 야채 많이 먹기, 골고루 섭취하기, 걷기, 일찍 일어나기 등이 있다. 참여 청년들은 자신들의 생활습관개선 노력을 앱에 기록하게 되며, 성과의 정도에 따라 코인(일종의 포인트)이 쌓이게 된다. 쌓인 코인을 기부하게 되는데 기부처는 주로 토야마현내에 소재한

32)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2023c). 相談方法について. https://www.hikikomori-tokyo.jp/howto/index.php#s_tel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33) 富山県(2022a). つながる健康キャンペーン(習慣化アプリ「みんチャレ」を活用した若年層の生活習慣改善事業)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pref.toyama.jp/120501/kenkouzoushin/r4_minchare.html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34) 이 앱은 2015년에 민간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는 <https://minchalle.com/> 이다.

35) PRTIMES(2022). 富山県の若年層が習慣化アプリみんチャレでチームを組み、自身の食生活や歩数の記録を共有し健康的な生活にトライ.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104.000024217.html>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아동식당이며, 이 때 지역의 야채출하협동조합의와 연계하여 아동에게 야채를 제공한다.



* 출처: 富山県 (2022b). つながる健康プロジェクト. <https://www.pref.toyama.jp/documents/29474/chirashi.pdf>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富山県 (2022a). つながる健康キャンペーン (習慣化アプリ「みんなチャレ」を活用した若年層の生活習慣改善事業) 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pref.toyama.jp/120501/kenkouzoushin/r4_minchare.html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그림 III-5. 토야마현 청년건강증진사업 홍보자료

(5) 가와구치시(川口市) 「청년심리지원센터 SODA」 사업

가와구치시는 사이타마현(埼玉県)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인접한 인구 규모 약 50만명 정도의 중소 도시이다.³⁶⁾ 가와구치시 보건소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청년들의 심리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장애에도 대응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추진사업(精神障害にも対応した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推進事業)」을 활용하여 「청년조기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4월경 청년들의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쇼핑몰 건물 내에 청년대상 심리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주요 이용대상자는 15-35세의 청년으로, 가와구치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가와구치시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센터는 정신과의사, 공인심리사, 간호사, 보건사 등의 팀을 이뤄

36) 川口市ホームページ (2023).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010/020/6/2478.html> 에서 2023년 3월 9일 인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근으로 두 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며, 6개월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필요 시 복지 또는 의료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³⁷⁾ 센터의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청년심리상담센터는 SODA 모델을 개발한 동방(東邦)대학교 의학부가 설립한 일반사회법인 SODA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상담내용으로는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정신질환의 경계선에 위치한 심리정서적 문제, 친구관계에 발생한 문제, 가족 간 갈등문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불안증세, 직장 내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일본 정부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지원 정책

(1) 미야기현(宮城県) 센다이시(仙台市)의 청년 사회참여지원사업

센다이시(仙台市)는 일본의 혼슈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정부령 도시로, 2022년 4월 1일 기준 인구규모는 총 108만 명이다. 센다이시는 대학생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다이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센다이시 청년 사회참여활동촉진사업

사업명	대상자	사업개요
센다이시 청년SDGs 어워드	구성원의 과반수가 16세 이상-30세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미야기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단체 가운데 지역의 과제, 현안 해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청년단체에 대해 상을 수여
센다이마치즈쿠리라보	18세-30세전후	청년의 자유로운 발상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마을 만들기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 공유함으로써 청년의 견해, 아이디어를 센다이시의 활성화 및 문제해결에 활용하며, 청년들이 마을 만들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
유스 챌린지: 콜라보 프로젝트 (청년판 시민협동사업 제안제도)	구성원이 18세-30대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문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집하여, 청년의 제안을 토대로 청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37) 東京新聞 (2022). <https://www.tokyo-np.co.jp/article/189476> 에서 2023년 3월 9일 인출.

사업명	대상자	사업개요
이즈미키즈나(絆)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간의 상부상조, 협동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다이시 이즈미구(泉区) 및 주변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단체 등이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활성화, 지역 특색 만들기 사업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학생소방단원활동 인증제도	대학생 등	대학생 등이 센다이시 소방단원으로서 소방단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센다이 시장이 인증해주는 제도임. 인증을 받은 대학생 등은 구직활동 시 '센다이시학생소방단원활동인증증명서'를 기업 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회에 공헌한 실적을 기업에 어필할 수 있음
청년사회참획(参画)형 학습촉진	20-30대 청년	청년들이 지역만들기(地域づくり)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학습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식을 함양하여 자발적,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

* 출처: 仙台市 (2023a). まちづくり政策局関連リンク. <http://www.city.sendai.jp/project/shise/gaiyo/soshiki/sesakukyoku/link/shokai.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가. 센다이시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청년 라보 사업³⁸⁾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감성과 발상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워크숍, 필드워크(field work), 최종보고회로 구성된다. 워크숍은 대략 3-4차례 정도 이루어지며, 첫 번째 모임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팀 단위로 토론 및 협의를 거친 후, 현장 취재를 위한 주제를 정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모임에서는 팀별로 현장 취재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정리, 편집하여 최종보고회 발표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필드워크는 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설정한 주제에 관련된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취재한다. 각 팀별로 참가자와 같은 또래의 멘토를 배치하며, 이들이 진행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는 각 팀별로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 때 시관계자 및 시장이 출석한다. 2022년에 4차례의 워크숍, 팀별 3-4차례의

38) 仙台市 (2023c) 仙台まちづくり若者ラボ. <https://www.city.sendai.jp/jigyosuishin/wakamono/wakamonolabotop.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필드워크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총 6개 팀이 활동하였으며, 제안된 내용으로 는 센다이시의 지역적 특성(숲, 꽃, 나무 등과 같은 자연자원)을 살린 지역축제 개최를 통한 청년층의 교류 기회 확대, 청년들이 놀면서 교류 가능한 공간 확충, 이 때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렌터카를 빌릴 때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 마련, 청년들이 센다이 지역의 고유문화, 전통 등을 소재로 동영상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소개하는 사업으로, 주요 대상은 타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10-20대 청년으로 이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정주(定住)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³⁹⁾

나. 유스챌린지! 콜라보 프로젝트(청년판 시민협동사업제안제도)⁴⁰⁾

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단체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센다이시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제안 사업의 요건으로는 청년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공익적이며, 사회공헌적 요소를 포함할 것,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의 매력 향상에 기여할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연계, 협력하되 청년이 중심적,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조건은 센다이시내에 활동거점을 두고 있거나 센다이를 활동 범위로 설정하고 있을 것, 3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구성원이 18세 이상 30세 까지의 청년일 것, 종교 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 향후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폭력단과 관계가 없을 것, 특정비영리법인일 경우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적이 없을 것, 법인의 경우 시세를 체납한 적이 없을 것, 기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센다이시는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3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업 선정 시 심사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⁴¹⁾

39) 仙台市 (2023d). 仙台まちづくり若者ラボ2022. <https://www.city.sendai.jp/jigyosuishin/wakamono/wakamonolabo2022.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40) 仙台市 (2023b)ユースチャレンジ! コラボプロジェクト (若者版 : 市民協働事業提案制度) . <http://www.city.sendai.jp/jigyosuishin/wakamono/wakamonoteiantop.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41) 仙台市(2023b) ユースチャレンジ! コラボプロジェクト (若者版 : 市民協働事業提案制度) . <https://www.city.sendai.jp/jigyosuishin/wakamono/wakamonoteiantop.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 청년들 스스로 문제의식과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을 것
- 청년의 시점, 아이디어를 살린 독창성, 선진성(先進性) 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시와 협력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 것
-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일 것
- 타 단체, 행정기관 시민 등의 연계를 촉진하는 내용일 것
- 목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일 것
-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내용일 것
- 경비에 대한 견적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
-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이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전상담, 제안서류의 제출, 제안서 발표, 심사결과 통지, 협정서 체결, 사업실시(협정 체결 후부터-3개월), 사업결과보고(협정 체결 후-3개월), 센다이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성과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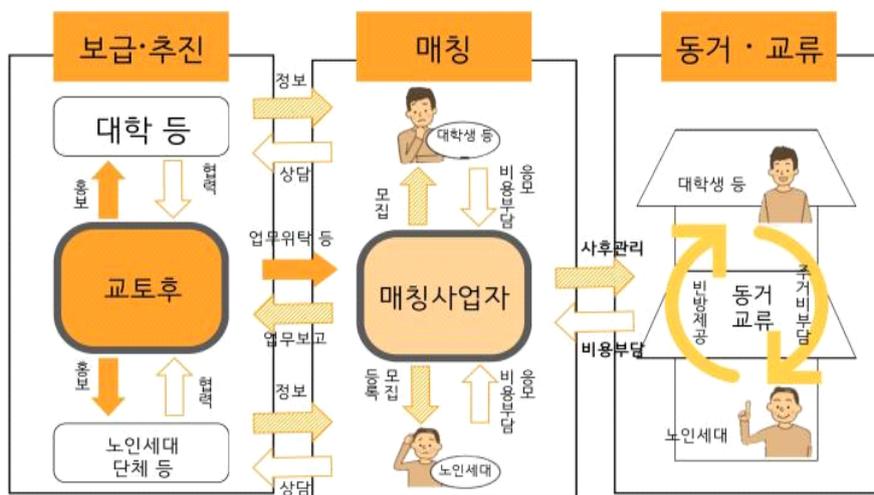
(2) 교토후(京都府)의 차세대하숙 『교토소리델(京都ソリデル)』 사업⁴²⁾

일본의 교토후(京都府)는 인구 10만명당 학생 및 대학의 수가 전국의 최고수준에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교토 지역을 떠나는 역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⁴³⁾ 이 사업은 교토후가 수립한 『교토후지역창생전략』(2015-2019년)의 기본목표 가운데 하나인 ‘교토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의 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인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동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환경 매칭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⁴⁴⁾

42) 京都府 (2023)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ル」事業. <https://www.pref.kyoto.jp/jutaku/jisedaigeshuku-kyotosolidaire.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43) 安竹 洋平 (2019).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ル」事業視察 まとめ. <https://yasutakeyohei.com/wp-content/uploads/2019/07/20190704-kyoto-solidaire-inspection-summary.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44) 安竹 洋平 (2019).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ル」事業視察 まとめ. <https://yasutakeyohei.com/wp-content/uploads/2019/07/20190704-kyoto-solidaire-inspection-summary.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 출처: 京都府住宅課 (2023).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ール」事業概要. <https://www.pref.kyoto.jp/jutaku/documents/gaiyo2212.pdf>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그림 III-6. 교토소리델 사업추진체계

이 사업은 교토후 2016년부터 고령자와 청년의 동거, 교류를 통한 청년층의 정주축진을 위해 교토후와 사업자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⁴⁵⁾ 이 사업의 취지는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 등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의 확보와 더불어 자신의 주거 환경 가운데 일부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노인 세대 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주거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이점은 노인세대의 경우 청년들과 같이 거주함으로써 인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청년들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⁴⁶⁾

또한 이 사업은 2015년 프랑스, 도쿄(東京), 후쿠이현(福井県) 등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2016년, 교토 시내에서 이세대(異世代) 동거매칭사업 개시, 2017년 이후 사업을 확대하여 2019년에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매년 500만 엔 수준이며,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주거 매칭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자에게 50만 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실적으로는 2016년에

45) SOLIDAIRE PROJECT (2023). <http://www.solidaire.kyoto/sub/concept>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46) 京都新聞社 (2020). https://www.pref.kyoto.jp/jutaku/kyoto_solidaire/documents/200521_kyotoshinbun.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4건, 2017년 8건, 2018년 21건, 2019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I-2. 차세대 하숙 「교토소리델사업」 추진경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활동개요	산촌민 및 타지역 사례조사(프랑스 도쿄, 후쿠이현)	교토 시내 대상 이세대동거매칭 사업 개시 리폼보조제도 도입 (2018년까지 3년간 반액 보조, 상한액 90만엔)	남부 중부 지역 대상 사업 실시 하숙비보조제 도입 교토부내 생활 공공세대 대상 집세, 광열수요비 식비 1/3을 보조	중부지역 대상 사업 전개	대학, 지역사회 연계 강화
리폼보조건수		2건	3건	4건	보조제도 종료
희망노인세대수		11세대	22세대	32세대	
희망대학생수		17명	30명	31명	-
매칭건수	-	4건	8건	21건	24건

* 출처: 安竹 洋平 (2019).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ル」事業視察まとめ. <https://yasutakeyohei.com/wp-content/uploads/2019/07/20190704-kyoto-solidaire-inspection-summary.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3) 야마가타현(山形県)의 청년을 위한 교류공간 구축 사업

내각부(内閣府)(2018)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정 또는 자신의 방 이외에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바쇼, 居場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요청할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도가 2002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의 15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인구 76명당 1명의 히키코모리가 존재하며, 히키코모리 기간별로는 1년 이상 장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히키코모리 청년 가운데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도쿄 이외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짐작된다.⁴⁷⁾ 이에 일본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역 청년들이 고립 또는 소외된 상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47) NHK (2022).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608/k10013662971000.html>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기울이고 있다. 아마가타현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의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니트 청년, 히키코모리 청년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 참여한 시민단체가 'With 優' 라는 NPO이다. 이 단체는 주로 아마가타현을 중심으로 등교거부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⁴⁸⁾

이 단체는 오랫동안 장기간 미취업 청년, 히키코모리 청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훈련, 그리고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지원, 복학 및 전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 이외에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과의 교류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제 이자카야(居酒屋) '유이(結)'를 설립하였다(内閣府, 2017). '유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청년 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며, 이러한 취지에 찬동한 지역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가 앞에서 언급한 장기미취업 청년, 히키코모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술집을 선택한 이유는 청년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유이'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요리, 설거지 그리고 손님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숙련 정도에 따라 업무가 배당되는 방식이다. 즉,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자신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설거지와 요리를 담당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생긴 청년들이 손님접대(주문받고 손님과 대화하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유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찬동한 지역주민들의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최초 회원 가입 시 300엔을 회비로 납부한다.⁴⁹⁾ 회원들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는 청년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이'에서의 취업경험을 '중간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본격적인 취업을 위한 일종의 예비경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가게에서의 경험을 통해 취업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달성한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2013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취업을 경험한 청년의 수는 35명이며, 회원 수는 3,750명이다(内閣府, 2017).

48) 非営利法人With優 (2023). https://www.with-yu.net/html/yui_top.html#aim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49) 非営利法人With優 (2023) https://www.with-yu.net/html/yui_top.html#aim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3.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⁵⁰⁾

앞에서 살펴본 미국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청년 건강정책 사례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청년층의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의 확충은 미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핵심 성과로서 증거기반 개입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의 주된 영역이 취창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단기성과에 집중된 것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정책적 개입은 청년문제를 고용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정책의 파급효과가 지속성을 담보하기 쉽다.

특히 생애과정의 시각에서 청년문제가 성인 초기에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문화자본 결핍을 조기에 진단하고 건강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Healthy People 2030의 Adolescent Health 대상 연령은 10-25세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괄하며, 사후 건강관리의 접근을 넘어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도 건강지표로 4학년 학생의 읽기 능력과 청소년기의 건강 관련 지표를 선정하였다. 전술한 미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입 또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건강한 삶에 방점을 두고 이를 위협하는 요인을 이전 발달단계인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발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사례에서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학교 기반 시스템 작동을 통해 예방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주 정부 차원의 The 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WSCC) 모델은 눈여겨볼 만하다. WSCC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서도 학생의 건강과 웰빙을 중요한 교육성과로 삼고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상호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성과는 입시 과열의 풍토 속에서 주로 인지적

50) 이 부분은 김수혜(강릉원주대학교)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영역의 성취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짝으며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영역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건강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주의가 만연한 사회문화 맥락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여기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논의된다(Kwak & Ickovics, 2019). 따라서 교육결과에 청소년의 건강 관련 지표를 강조하여 학교가 청소년의 온전한(well-rounded) 발달을 촉진하고 청년 건강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정책 동향의 시사점⁵¹⁾

현재까지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지원 및 사회관계자본 형성 지원 관련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에 한국 사회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청년 대상 건강지원 사업은 주로 정신건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히키코모리 상태에 놓인 20대, 30대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최근 들어 도쿄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히키코모리 상태에 놓인 이들의 연령대가 청소년에서 청년, 성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때, 상담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팀 형태로 참여하며, 정신적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 훈련, 직업훈련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한국의 각 지역별로 설치된 청년센터에서도 상담, 사회기술훈련 그리고 직업훈련이 하나의 세트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상담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등과 같이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관계자본형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년배간의 네트워크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있지만, 세대 간 연결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교토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리텔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의 노인이 거주하는

51) 이 부분은 강영배(대구한대학교)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주거시설 내 유희공간을 지역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인해 상호간 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in(2008)은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을 목적성을 가진 행위에 의해 접근 또는 동원되는 사회구조 내에 포함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교토후가 추진하는 ‘소리텔 사업’은 지역 내 유희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원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노인세대에게 청년세대와의 교류를 통한 활력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관계자본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井上慧真(2016)은 사회관계자본의 형성 형태를 동질적 요소 간 상호작용과 이질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질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사회관계자본형성에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교토후의 소리텔 사업은 이질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SNS 등을 통해 같은 연령대간의 소통은 활발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타 연령대간의 소통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식의 확장, 의사소통기술의 함양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들이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한국의 지자체 및 지자체에 설치된 청년센터는 동일 연령대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타 연령대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청년 빈곤 실태 분석

-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
-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 3.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 심층 분석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⁵²⁾

본 3개년 연구는 1차년도에 청년 빈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이에 따른 빈곤의 영역 구분과 영역별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체계화 작업이 타당성과 중요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23명의 청년분야 및 빈곤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다음 표는 1차 년도에 도출된 청년 빈곤 지표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인 가처분 소득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순자산과 노동안정성,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의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였고,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조사결과 지적된 여가·문화비 지출 지표를 삭제하였다. 이에 2차 델파이조사에서 1차 조사보다 청년 빈곤 지표의 타당성과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형주 외, 2021).

52)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V-1. 청년 빈곤의 지표 타당성 평가

영역별 지표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1차(A)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2차(B)	0.0	0.0	0.0	52.2	47.8	0.0	100.0	4.00	5.00	0.51	4.48
	GAP (B-A)	0.0	0.0	0.0	+4.4	-4.4	0.0	0.0	0.00	0.00	0.00	-0.04
순자산 (자산-채무) (가구)	1차(A)	0.0	8.7	13.0	47.8	30.4	8.7	78.3	2.00	5.00	0.90	4.00
	2차(B)	0.0	0.0	13.0	60.9	26.1	0.0	87.0	3.00	5.00	0.63	4.13
	GAP (B-A)	0.0	-8.7	0.0	+13.1	-4.3	-8.7	+8.7	+1.00	0.00	-0.27	+0.13
실업	1차(A)	0.0	0.0	4.3	26.1	69.6	0.0	95.7	3.00	5.00	0.57	4.65
	2차(B)	0.0	0.0	4.3	30.4	65.2	0.0	95.7	3.00	5.00	0.58	4.61
	GAP (B-A)	0.0	0.0	0.0	+4.3	-4.4	0.0	0.0	0.00	0.00	+0.01	-0.04
노동안정성	1차(A)	0.0	0.0	13.0	47.8	39.1	0.0	87.0	3.00	5.00	0.69	4.26
	2차(B)	0.0	0.0	4.3	52.2	43.5	0.0	95.7	3.00	5.00	0.58	4.39
	GAP (B-A)	0.0	0.0	-8.7	+4.4	+4.4	0.0	+8.7	0.00	0.00	-0.11	+0.13
주거비부담	1차(A)	0.0	0.0	13.0	43.5	43.5	0.0	87.0	3.00	5.00	0.70	4.30
	2차(B)	0.0	0.0	8.7	43.5	47.8	0.0	91.3	3.00	5.00	0.66	4.39
	GAP (B-A)	0.0	0.0	-4.3	0.0	+4.3	0.0	+4.3	0.00	0.00	-0.04	+0.09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1차(A)	0.0	0.0	8.7	26.1	65.2	0.0	91.3	3.00	5.00	0.66	4.57
	2차(B)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GAP (B-A)	0.0	0.0	-8.7	+21.7	-13.0	0.0	+8.7	+1.00	0.00	-0.15	-0.05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 질환	1차(A)	0.0	0.0	13.0	43.5	43.5	0.0	87.0	3.00	5.00	0.70	4.30
	2차(B)	0.0	0.0	8.7	56.5	34.8	0.0	91.3	3.00	5.00	0.62	4.26
	GAP (B-A)	0.0	0.0	-4.3	+13.0	-8.7	0.0	+4.3	0.00	0.00	-0.08	-0.04
의료비 부담	1차(A)	0.0	0.0	17.4	56.5	26.1	0.0	82.6	3.00	5.00	0.67	4.09
	2차(B)	0.0	0.0	13.0	60.9	26.1	0.0	87.0	3.00	5.00	0.63	4.13
	GAP (B-A)	0.0	0.0	-4.4	+4.4	0.0	0.0	+4.4	0.00	0.00	-0.04	+0.04

영역별 지표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차(A)	0.0	0.0	8.7	43.5	47.8	0.0	91.3	3.00	5.00	0.66	4.39
	2차(B)	0.0	0.0	0.0	43.5	56.5	0.0	100.0	4.00	5.00	0.51	4.57
	GAP (B-A)	0.0	0.0	-8.7	0.0	+8.7	0.0	+8.7	+1.00	0.00	-0.15	+0.18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 참여)	1차(A)	0.0	4.3	17.4	60.9	17.4	4.3	78.3	2.00	5.00	0.73	3.91
	2차(B)	0.0	4.3	13.0	52.2	30.4	4.3	82.6	2.00	5.00	0.79	4.09
	GAP (B-A)	0.0	0.0	-4.4	-8.7	+13.0	0.0	+4.3	0.00	0.00	+0.06	+0.18
사회적 지지	1차(A)	0.0	4.3	17.4	39.1	39.1	4.3	78.3	2.00	5.00	0.87	4.13
	2차(B)	0.0	4.3	17.4	47.8	30.4	4.3	78.3	2.00	5.00	0.82	4.04
	GAP (B-A)	0.0	0.0	0.0	+8.7	-8.7	0.0	0.0	0.00	0.00	-0.05	-0.09
여가·문화비 지출 ※지표 삭제	1차(A)	0.0	8.7	17.4	65.2	8.7	8.7	73.9	2.00	5.00	0.75	3.74
	2차(B)	0.0	8.7	21.7	43.5	26.1	8.7	69.6	2.00	5.00	0.92	3.87
	GAP (B-A)	0.0	0.0	+4.3	-21.7	+17.4	0.0	-4.3	0.00	0.00	+0.17	+0.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1차(A)	0.0	4.3	30.4	43.5	21.7	4.3	65.2	2.00	5.00	0.83	3.83
	2차(B)	0.0	4.3	13.0	56.5	26.1	4.3	82.6	2.00	5.00	0.77	4.04
	GAP (B-A)	0.0	0.0	-17.4	+13.0	+4.4	0.0	+17.4	0.00	0.00	-0.06	+0.21

* 출처: 김형주 외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 p.103-104.

청년 빈곤의 개념은 역시 델파이조사와 분석을 통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김형주 외, 2021). 애초에 성인이 되기 위한 이행기에 있는 청년시기를 고려하여 청년 빈곤을 성인기의 빈곤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델파이조사에서는 개념적으로 타당하기는 하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지표로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이상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었다.

1차 년도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최종적인 청년 다차원 빈곤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2.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최종안)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빈곤선(cut-off)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50%미만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가구총자산-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노동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경활자)인 경우
	노동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RIR)가 30%초과한 경우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 출처: 김형주 외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 . p.109의 표의 영역 배치순서를 1, 2, 차년도 중점 연구영역 순으로 수정하여 제시함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⁵³⁾

여기서는 1차 년도 연구에서 1차와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분석·도출한 6개 영역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청년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청년의 빈곤은 경제적 영역의 빈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다차원적 빈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청년은 졸업, 취업, 독립, 가족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성인으로의 이행, 순조로운 독립에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과 기회의 결핍은 청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변금선, 이해림, 2022). 이에 더해 코로나19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사회로부터 단절되도록 만들었다. 3차 년도 연구에서는 2차 년도에 이어 지표별 최신의 2차 자료결과를 활용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청년들에게 나타난 다차원 빈곤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1) 분석방법

(1) 분석 내용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령별 빈곤 지표 추이를 비교하고, 청년층의 빈곤 위험 수준이 다른 연령집단과 어떻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 위험을 분석하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은 전체 연령대의 빈곤을 1이라고 할 때, 청년층 혹은 특정 연령집단에서의 상대적 빈곤 위험 수준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빈곤의 질적 특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후 청년층의 빈곤 위험에 있어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2021년 2개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위험도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⁵⁴⁾

53) 이 절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집필하였음

54) 교육영역의 교육기회 결핍에 활용한 통계청 「사회조사」는 2년 주기조사이므로, 교육기회 결핍은 2022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표 IV-3. 분석 내용

	구분	분석 내용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6개 영역별 지표의 변화 추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시계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4세 청년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에 관한 최근 10여년 이내의 변화 추이 분석
청년의 다차원 빈곤 특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연령집단과 청년집단의 6개 영역별 지표의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연령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4세가 포함된 집단과 전체, 다른 연령집단과의 지표별 차이 비교 분석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빈곤 위험) 전체 연령 대비 청년의 빈곤 위험을 산출하여 과거보다 현재 청년의 빈곤 위험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 분석 • (코로나19 전후 비교)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개 시점 상대적 빈곤 위험 비교

*출처 :김형주 외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p.69 표Ⅲ-3 발췌 및 수정

(2) 영역별 빈곤 정의 및 분석자료

다음 <표 IV-4>는 지표별 측정방법이다. 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제영역의 빈곤은 가구소득, 근로소득, 순자산 빈곤으로 측정하였으며, 노동영역의 빈곤은 실업과 노동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주거영역 빈곤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 결핍으로 구분해 분석하였고, 건강영역 빈곤 지표는 신체 및 정신건강 결핍을 보여주는 장애인 비율과 우울증 환자 비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박탈을 보여주는 과부담 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로 측정하였다(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교육영역 빈곤 지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과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로 측정하였다. 사회·문화자본 영역 빈곤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활동 시간 결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노혜진, 2019; 김형주 외, 2021 재인용).

다음 <표 IV-5>은 분석자료를 요약한 표인데, 지표별 분석은 통계청의 승인통계와 이를

활용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10년 이내를 분석 대상 시기로 하였고, 연령 구분의 경우 각 조사자료별로 제공하는 연령 구분 값을 활용하되, 직접적인 분석이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 연령 기준인 19-34세를 적용하였다.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지표는 2022년까지 자료(2년 주기)를 활용하였으며,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재량시간 빈곤 지표의 경우는 기존 선행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경제영역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조사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영역의 실업과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거영역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건강영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와 건강보험 질병통계를 이용하였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지표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니트 비율 지표는 OECD (2023) 의 Education DB 등과 정재현(2022)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시간빈곤 지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해서 시간 빈곤에 대해 분석한 노혜진(2019)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표 IV-4.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측정방법

영역	지표	측정방법	
경제	가구소득 빈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의 빈곤율	
	근로소득 빈곤 ¹⁾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경우	
	순자산 빈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	
노동	실업 ²⁾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노동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의 비율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경제 적/신체적 사유 등) ⁵⁾	교육기회가 미충족된 사유로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혹은 '질병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비참여)	만15-29세 청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³⁾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	
	주거 결핍	최저주거기준 미달(방 혹은 면적 미달) 반지하, 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건강	장애 및 정신건강 ⁴⁾	장애인 비율	주민등록 인구 중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수 비율
		우울증 환자 비율	주민등록 인구 중 건강보험 우울증 환자 수 비율
	의료비 부담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돌봄,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량시간)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솟값을 차감. 재량시간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 재량시간 빈곤	

주: 1) 근로소득 빈곤의 원지표 컷오프는 중위임금의 50%이나, 저임금 근로로 근로빈곤을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 중위임금의 2/3를 적용함

주: 2) 노동의 '실업' 원지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이나, 연령대별로 장기실업을 측정하기 어려워 실업으로 측정함

주: 3) 주거에서 주거비 부담 원지표는 '주거비 과부담 위험: 소득대비 (전월세) 주거비(RIR)가 30%를 초과한 경우'. 이나 청년개인의 주거비 부담을 산출하기 어려워 주거비 부담 수준을 확인함.

주: 4) 건강의 '장애 및 정신건강'의 원지표는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이나, 장애, 질환, 정신건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해 장애인 비율과 우울증 환자 비율로 측정함.

주: 5) 교육의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원지표는 '경제적 혹은 신체적 사유로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이나, 직업훈련에 관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없어서 '교육기회 미충족 사유' 문항으로 측정함.

*출처 : 김형주 외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p. 70.

표 IV-5. 분석자료 개요

영역	지표	청년 연령	시기	분석자료
경제	가구소득 빈곤	18~25세	2012~2021	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빈곤	19~34세	2005~20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순자산 빈곤	19~34세 가 구주	2017~202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	실업	15~29세	2012~20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15~29세	2015~20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3~29세	2012~2022	통계청, 「사회조사」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비참여)	15~29세	2007, 2017, 2019~ 20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주거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옥탑방 등 거주 가구 비율	20~34세 가 구주	2017~2021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건강	장애	20~30대	2017~2022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
	정신건강	20~30대	2016~202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질병통계」
	의료비 부담	19~34세	2015 2019 2020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한국복지패널조사」
사회· 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20~30대	2014~2021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능시간)	20~30대	2014	노혜진(2019)(「한국노동패널」)

*출처 : 김형주 외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p.72 표Ⅲ-5. 일부 내용 수정함.

2)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1) 경제영역 청년 빈곤 실태

1-1. 가구소득 빈곤

〈표 IV-6〉과 〈그림 IV-1〉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 기준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해 소득자료를 보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빈곤율을 중심으로 빈곤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18-25세 청년 빈곤율은 2016년 11.9%에서 2022년 8.7%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26-40세 빈곤율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 시기인 2020년 8.4%에서 9.1%로 증가하였으며, 18-65세 빈곤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일하는 연령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빈곤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지원이 확대된 정책 효과일 수 있다. 한편, 청년의 낮은 빈곤율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나, 독립의 지연과 이로 인해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중장년, 노년 가구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독립과 빈곤 위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표 IV-6. 상대적 빈곤율 (2012~2021)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B-A
18-25세	13.1	12.9	13.2	11.1	11.9	11.3	11.3	10.0	9.0	8.7	-3.2
19-34세	-	-	-	-	10.4	10.6	9.5	8.9	8.2	-	-
26-40세	12.4	11.9	12.0	11.7	11.2	11.3	9.6	8.9	8.4	9.1	-2.1
18-65세	13.9	13.8	13.7	12.9	12.9	12.6	11.8	11.1	10.6	10.6	-2.3
전체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15.3	15.1	-2.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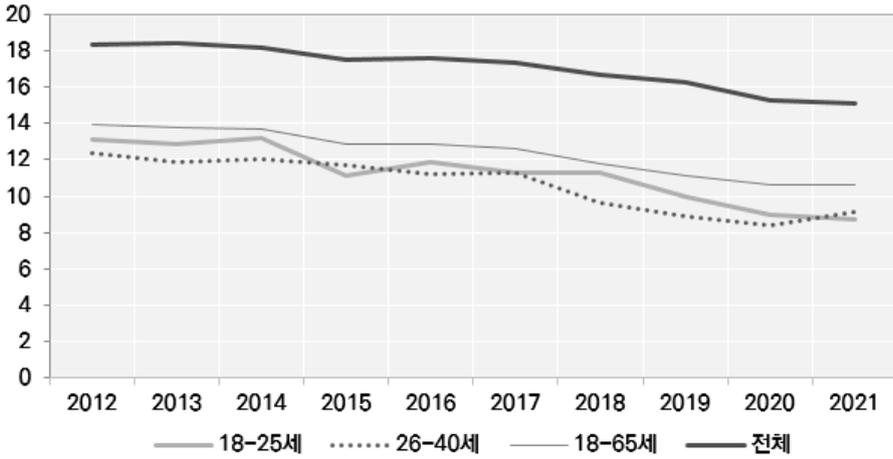
19-34세 빈곤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조사자료 분석결과.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주: 1)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개인 빈곤율

2) 2021년도 19-34세 빈곤율은 빈곤통계연보를 통해 공표되지 않아 19-25세 청년 빈곤율을 중심으로 확인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19-34세 빈곤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조사자료 분석결과.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IV-1. 상대적 빈곤율 (2012~2021)

1-2. 근로소득 빈곤

〈표 IV-7〉와 [그림 IV-2]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임금근로자 비율 변화이다. 2022년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8.5%로 2005년보다 8.2%p 감소하였다. 2022년 20-24세, 25-29세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각각 37.5%, 14.9%로 2005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은 중장년, 노년층보다 크지 않았다.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 비율은 2019년 17.8%에서 2020년 12.0%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4.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24세, 15-19세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는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청년의 일자리 수를 감소시킨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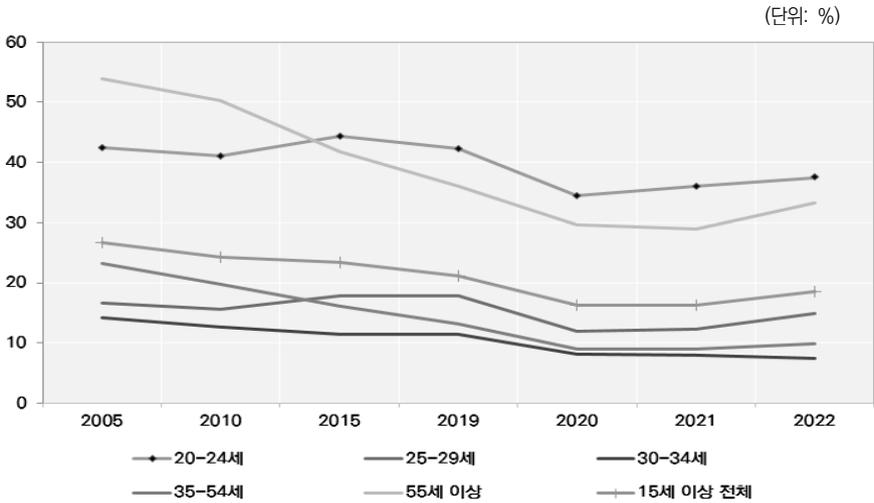
표 IV-7.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2)

(단위: %)

구분	2005(A)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B)	B-A
15-19세	74.4	75.3	78.8	64.5	57.1	61.7	71.0	-3.4
20-24세	42.5	41.0	44.3	42.3	34.4	36.0	37.5	-5.0
25-29세	16.7	15.6	17.9	17.8	12.0	12.2	14.9	-1.8
30-34세	14.2	12.7	11.5	11.5	8.1	7.9	7.5	-6.7
35-54세	23.2	19.7	16.1	13.2	9.0	8.9	9.9	-13.3
55세 이상	53.8	50.3	41.8	36.1	29.7	28.9	33.3	-20.5
15세 이상 전체	26.7	24.3	23.4	21.1	16.3	16.2	18.5	-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비율
2) 15-19세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IV-2.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5-2022)

1-3. 순자산 빈곤

<표 IV-8>과 <그림 IV-3>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구주의 연령별 순자산 빈곤율이다. 2022년 19-34세 청년가구의 순자산 빈곤율은 53.5%로 전체 가구주(31.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청년 가구의 순자산 빈곤율의 경우 2017년 47.6%에서 2022년 53.5%로 5.9%p 증가하였다. 청년층은 자산형성 초기이므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자산이 실직이나 부채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적 안전장치인 점을 고려할 때(Osberg, 2015), 청년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IV-8. 순자산 빈곤율 (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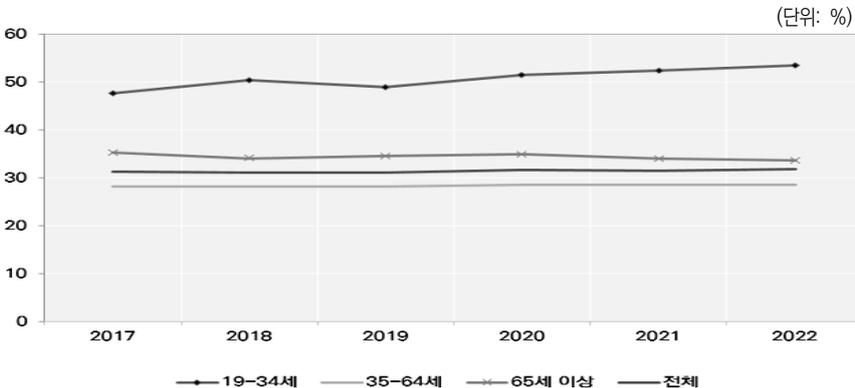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	2022(B)	B-A
19-34세	47.6	50.3	48.9	51.5	52.3	53.5	5.9
35-64세	28.1	28.1	28.1	28.5	28.5	28.5	0.4
65세 이상	35.2	34.1	34.6	34.9	34.0	33.7	-1.5
전체	31.3	31.0	31.0	31.6	31.5	31.9	0.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당해연도 기준,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함.
 2)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주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해당연도 기준,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함.
 2)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주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그림 IV-3. 순자산 빈곤율 (2017~2022)

(2) 노동영역 청년 빈곤 실태

2-1. 실업

〈표 IV-9〉과 [그림 IV-4]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실업률 추이이다. 2022년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4%로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은 2012년 3.2%에서 2022년 2.9%로,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7.5%에서 6.4%로 감소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 직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의 실업률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청년 실업률의 경우는 2019년 8.9%에서 2020년 9.0%, 2021년 7.8%, 2022년 6.4%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취업자와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자 비율로 측정하는 실업률의 특성상, 구직을 포기하거나 장기실업으로 인해 ‘그냥 쉬’ 상태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이 증가한 것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⁵⁵⁾

표 IV-9. 실업률 (2012~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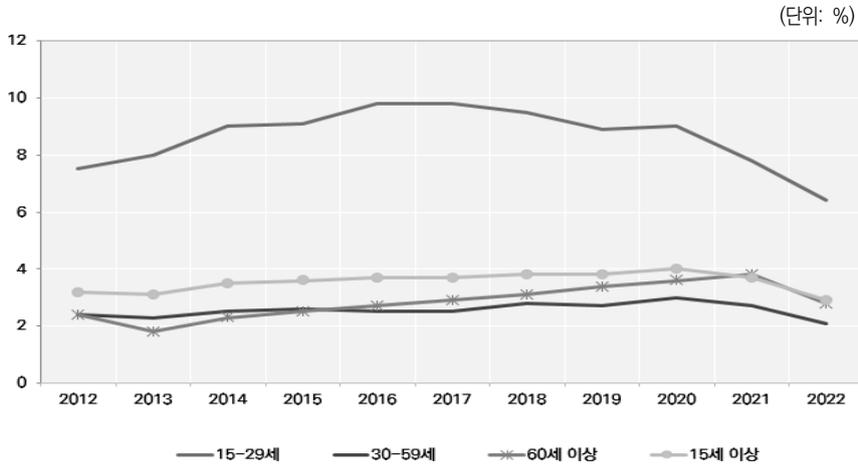
구분	2012 (A)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B-A
15-29세	7.5	8.0	9.0	9.1	9.8	9.8	9.5	8.9	9.0	7.8	6.4	-1.1
30-59세	2.4	2.3	2.5	2.6	2.5	2.5	2.8	2.7	3.0	2.7	2.1	-0.3
60세 이상	2.4	1.8	2.3	2.5	2.7	2.9	3.1	3.4	3.6	3.8	2.8	0.4
15세 이상	3.2	3.1	3.5	3.6	3.7	3.7	3.8	3.8	4.0	3.7	2.9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주 :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비율

5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중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월 38만6천명에서 2022년 2월 45만3천 명, 2023년 1월 49만7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주 :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비율

그림 IV-4. 연령별 실업률 (2010~2022)

2-2. 노동 안정성 : 비정규직 비율

〈표 IV-10〉과 [그림 IV-5]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22년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1.4%로 15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7.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확인한 결과⁵⁶⁾,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39.9%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42.1%로 상승하고, 2022년 다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1.0%p 증가한 것으로, 동기간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1.8%p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노동 불안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불안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노동, 자영업자 등 비정형근로나 비임금근로자의 불안정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청년의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 근로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노동 안정성은 더 악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9년부터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을 측정하여 이전 시점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김형주 외, 202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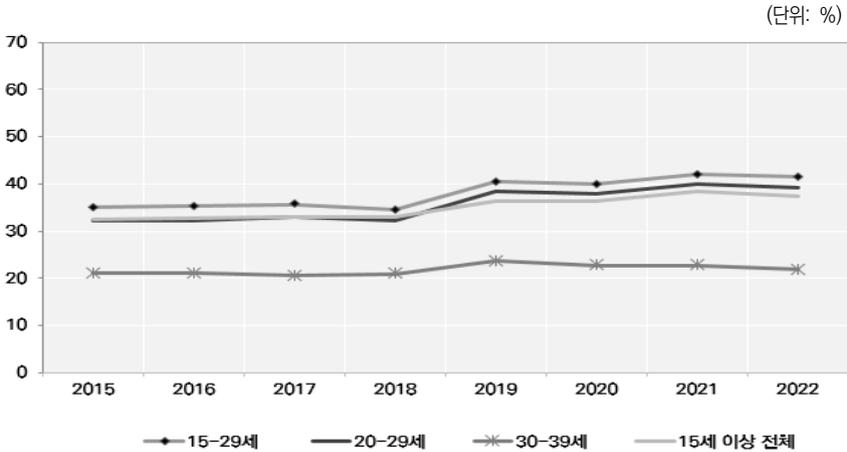
표 IV-1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15~2022)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A)	2020	2021	2022(B)	B-A
15-29세	35.1	35.2	35.7	34.6	40.4	39.9	42.1	41.4	1.0
15-19세	74.3	75.2	73.4	74.0	77.8	84.2	85.1	86.4	8.6
20-29세	32.1	32.2	33.1	32.3	38.3	37.8	40.0	39.1	0.8
30-39세	21.2	21.1	20.6	21.0	23.7	22.8	22.8	21.9	-1.8
15세 이상 전체	32.4	32.8	32.9	33.0	36.4	36.3	38.4	37.5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3월 14일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23),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표 3-3> 수정, 발체.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3) 15-19세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3월 14일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23),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표 3-3> 수정, 발체.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그림 IV-5.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15~2022)

(3) 주거영역 청년 빈곤 실태

3-1. 주거비 부담 : 주거비 과부담 위험

〈표 IV-11〉과 〈그림 IV-6〉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RIR 변화 추이이다. 2021년 20세부터 34세 청년 가구의 RIR의 경우 16.8%(중위 기준)로서 일반 가구(15.7%)보다 높았다. 청년 가구의 RIR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7년(18.8%) 보다 2020년(16.8%) 감소하였는데, 일반 가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IV-11. 가구특성별 RIR (2017~2021)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B-A
중위수	청년 가구	18.8	20.1	17.7	16.8	16.8	-2.0
	일반 가구	17.0	15.5	16.1	16.6	15.7	-1.3
평균	청년 가구	21.9	20.5	21.0	20.4	20.9	-1.0
	일반 가구	21.8	21.1	21.3	20.9	21.5	-0.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portal/search/newSearchList.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강미나 외 (2022),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표 II-23〉 일부 발췌.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7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RIR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강미나 외, 2022, p.56 주10 발췌)

$$RIR_t = \frac{\text{median}(R_{j,t})}{\text{median}(I_{j,t})} \text{ or } \frac{\text{mean}(R_{j,t})}{\text{mean}(I_{j,t})}$$

- 3) RIR 계산 시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7년 8월 6.40%, 2018년 9월 6.20% 2019년 6.10%,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9월 5.7%, 2021년 9월 5.6%를 적용함 (강미나 외, 2022)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portal/search/newSearchList.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강미나, 외 (2022).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표 II-23> 일부 발췌.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IV-6. 가구특성별 RIR (2017~2021)

3-2. 주거 결핍 :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표 IV-12>와 <그림 IV-7>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3인이상 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이하 반지하 등 거주비율)의 변화 추이이다. 2021년 기준 20~34세 청년 가구 중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7.9%로 일반가구(4.5%)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지하 등 거주비율(1.6%)도 일반가구(1.1%)보다 높았다. 변화추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의 경우 2017년 10.5%에서 2021년 7.9%로 2.6%p 감소하여 일반가구 감소 수준(1.4%p)보다 높았다. 반지하 등 거주가구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반지하, 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는 3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므로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실태조사는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청년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⁵⁷⁾.

57)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7년 10.1%에서 2021년 10.8%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10.9%에서 4.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가구(수도권 6.7%에서 5.5%로 감소, 수도권 외 5.2%에서 3.5%로 감소)와 다른 결과로, 청년 주거 빈곤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2.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21)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B)	B-A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10.5	9.4	9.0	7.5	7.9	-2.6
	일반 가구	5.9	5.7	5.3	4.6	4.5	-1.4
3인 이상 지하·반지하·옥탑방	청년 가구	3.1	2.4	1.9	2.0	1.6	-1.5
	일반 가구	2.3	1.9	1.3	1.6	1.1	-1.2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portal/search/newSearchList.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강미나 외 (2022),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표 II-16>과 표 <II-12> 일부 발췌.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교통부, 20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을 따름.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침실 수 및 주택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판단(강미나 외, 2022, p.41).
 3)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가구는 표본규모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강미나 외, 2022, p.35)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portal/search/newSearchList.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강미나 외 (2022),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표 II-16>과 표 <II-12> 일부 발췌.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교통부, 20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을 따름.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침실 수 및 주택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판단(강미나 외, 2022, p.41)

그림 IV-7.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7~2021)

(4) 건강영역 청년 빈곤 실태

4-1.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 등록장애인 비율 및 우울증 환자 비율

〈표 IV-13〉과 [그림 IV-8]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등록장애인 수 및 주민등록인구 기준 등록장애인 비율 추이에 대해 보여준다. 2022년 20세부터 34세 청년 인구 중에서 장애인 비율은 1.47%~1.59%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5.18%)보다 낮았다. 변화 경향을 보면, 20대의 경우 장애인 인구 비율은 일부 증가하고, 30대의 경우는 감소하였다.

표 IV-13.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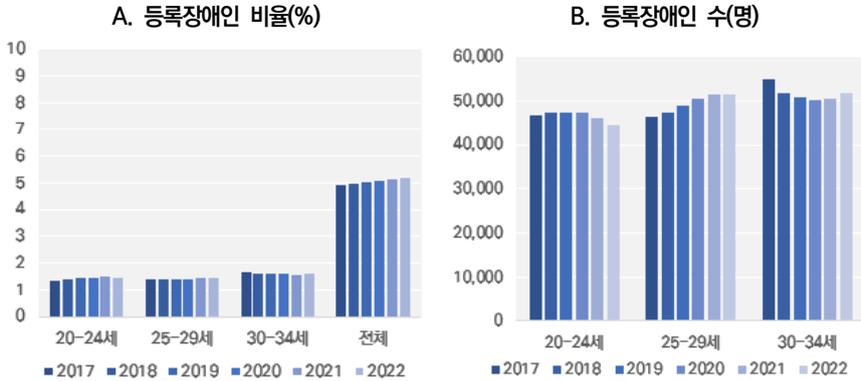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7(A)	2018	2019	2020	2021	2022(B)	B-A	
장애인 비율(%)	20-24세	1.34	1.39	1.43	1.45	1.48	1.47	0.13
	25-29세	1.40	1.39	1.40	1.42	1.45	1.47	0.07
	30-34세	1.66	1.62	1.60	1.59	1.57	1.59	-0.07
	전체	4.92	4.99	5.05	5.08	5.12	5.18	0.26
장애인 수 (명)	20-24세	46,582	47,363	47,397	47,280	46,090	44,458	-2,124
	25-29세	46,388	47,433	49,009	50,581	51,252	51,382	4,994
	30-34세	54,924	51,742	50,630	49,985	50,439	51,564	-3,360
	전체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107,223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주 : 등록장애인 비율은 주민등록통계 7월 1일 기준 인구수 중 등록장애인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IV-8.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 (2017~2022)

〈표 IV-14〉과 [그림 IV-9]는 2016년에서 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 환자 수 및 주민등록 대비 우울증 환자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관심질병통계가 미공개되어, 2차연도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였다.

2021년 20-34세 청년의 우울증 환자 비율은 2.55%로 15세 이상 전체인구의 우울증 환자 비율(1.76%)보다 높았고, 변화 추이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20-34세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6년 1.00%에서 2021년 2.5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우울증 환자 비율이 2016년 1.24%에서 2021년 1.76%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20대 청년의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9년 1.79%에서 2020년 2.23%, 2021년 2.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였음을 보여준다(김형주 외, 2022).

표 IV-14.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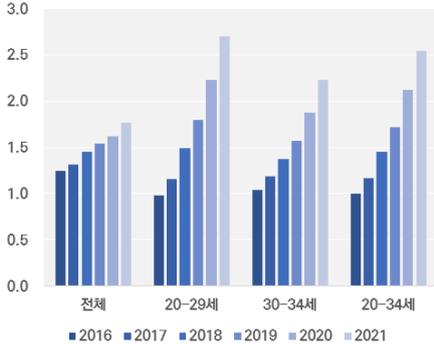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B)	B-A
우울증 환자 비율 (%)	전체	1.24	1.31	1.45	1.54	1.62	1.76	+0.52
	15-19세	0.70	0.85	1.24	1.48	1.69	2.00	+1.30
	20-29세	0.98	1.15	1.49	1.79	2.23	2.70	+1.72
	30-34세	1.04	1.18	1.37	1.57	1.87	2.22	+1.19
	20-34세	1.00	1.16	1.45	1.72	2.12	2.55	+1.55
우울증 환자 수 (명)	전체	643,102	680,169	751,930	796,364	837,808	910,785	267,683
	15-19세	21,947	25,039	34,888	39,472	41,456	46,985	25,038
	20-29세	66,409	78,558	101,458	122,119	151,923	179,973	113,564
	30-34세	36,564	39,151	43,714	49,439	58,943	71,540	34,976
	20-34세	102,973	117,709	145,172	171,558	210,866	251,513	148,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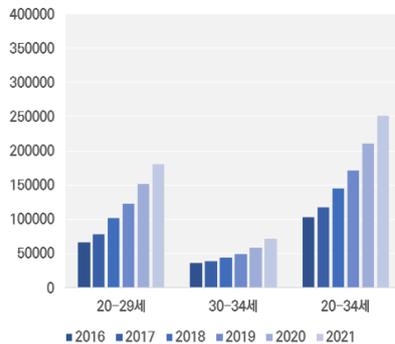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김형주 외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p.89 (표 III-16) 발췌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우울증 환자 비율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기준 각 연령 인구를 우울증 환자 수로 나눈 값임.
- 2) 2022년 관심질병통계 미공개로 2021년까지 확인

A. 우울증 환자 비율(%)



B. 우울증 환자 수(명)



*자료: 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출처: 김형주 외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p.90 [그림 III-11] 발췌.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IV-9.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 (2016~2021)

4-2. 의료서비스 박탈 :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표 IV-15〉와 [그림 IV-10]은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 19-34세 청년 중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의 경우는 11.0%, 재난적 의료비 지출 경험률은 12.9%로, 전체 연령집단보다 낮았다. 청년의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경험률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전체 연령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집단 증가 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년층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실직과 경력단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15.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5, 2019, 2020, 2021)

(단위: %)

구분		2015(A)	2019	2020	2021(B)	B-A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19-34세	8.9	8.2	10.2	11.0	2.1
	35-64세	10.1	10.4	12.6	12.8	2.7
	65세 이상	32.5	37.5	38.7	39.1	6.6
	전체	12.1	13.6	15.9	16.3	4.2
재난적 의료비 지출 경험률	19-34세	11.8	9.8	13.1	12.9	1.1
	35-64세	12.2	12.8	16.2	16.5	4.3
	65세 이상	41.6	47.8	47.2	48.6	7.0
	전체	15.3	17.1	20.2	20.4	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11차(소득기준 2015년), 15차(2019년), 16차(2020년), 17차(2021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
- 주 2) 부담의료비는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함 (우경숙, 박찬미, 신영진, 2018; 김형주 외, 2021, 2022 재인용).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11차(소득기준 2015년), 15차(2019년), 16차(2020년), 17차(2021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
- 2) 과부담의료비는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함(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김형주 외, 2021, 2022 재인용).

그림 IV-10.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2015, 2019, 2020, 2021)

(5) 교육영역 청년 빈곤 실태

5-1. 교육기회 미충족

〈표 IV-16〉과 [그림 IV-11]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 추이이다. 2022년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은 21.9%인데, 13-29세 청소년과 20대 청년은 6.6%, 30대 청년은 8.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V-16.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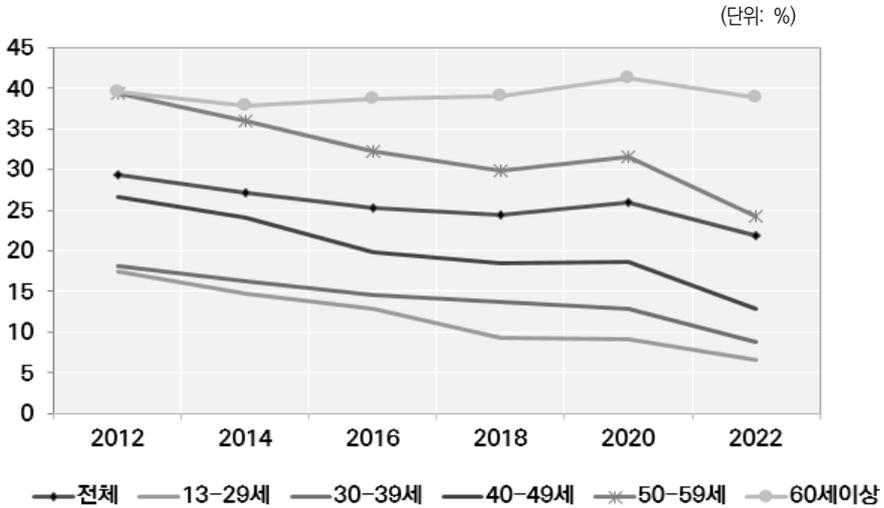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2(A)	2014	2016	2018	2020	2022(B)	B-A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기회 미충족 (a*(b+c/100))	전체	29.3	27.1	25.3	24.4	25.9	21.9	-7.4
	13-29세	17.4	14.8	12.8	9.3	9.2	6.6	-10.8
	30-39세	18.2	16.2	14.5	13.7	12.9	8.8	-9.4
	40-49세	26.7	24.1	19.9	18.4	18.6	12.8	-13.9
	50-59세	39.4	36.0	32.2	29.8	31.5	24.2	-15.2
	60세이상	39.5	37.8	38.6	39.1	41.2	38.8	-0.7
(a)교육기회 미충족	전체	53.0	49.8	46.3	43.8	43.9	39.1	-13.9
	13-29세	34.2	31.2	27.4	22.3	20.3	17.5	-16.7
	30-39세	37.5	31.6	27.9	26.1	24.0	17.7	-19.8
	40-49세	48.1	44.2	38.5	35.5	35.3	27.2	-20.9
	50-59세	62.2	58.5	52.8	49.2	48.9	41.7	-20.5
	60세이상	74.6	72.5	70.5	67.8	67.5	64.6	-10.0
(b)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전체	54.0	53.4	53.6	54.5	57.9	54.6	0.6
	13-29세	49.1	45.3	44.7	39.7	42.5	34.5	-14.6
	30-39세	47.4	50.2	50.6	50.0	52.2	46.3	-1.1
	40-49세	54.1	53.2	50.4	50.6	51.7	45.4	-8.7
	50-59세	62.1	60.4	59.6	59.4	63.4	57.0	-5.1
	60세이상	52.1	51.4	54.1	56.8	60.2	59.3	7.2
(c) 질병, 신체적 장애	전체	1.2	1.1	1.1	1.3	1.1	1.3	0.1
	13-29세	1.8	2.1	2.0	2.0	2.7	3.2	1.4
	30-39세	1.2	1.0	1.4	2.6	1.7	3.3	2.1
	40-49세	1.5	1.3	1.4	1.2	0.9	1.8	0.3
	50-59세	1.3	1.2	1.3	1.1	1.0	1.1	-0.2
	60세이상	0.9	0.7	0.7	0.9	0.9	0.8	-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교육기회 미충족' 은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2) b와 c는 교육기회가 미충족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사유를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혹은 '질병, 신체적 장애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IV-11.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 (2012~2022)

그러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진학, 이수율이 매우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대학 이상 고학력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학 비진학 청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2. 청년 니트 비율

<표 IV-17>와 [그림 IV-12]는 2007년, 2017년, 2019~2021년까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니트 비율이다. 니트는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지 않고 OECD 국가와 비교하였다(김형주 외, 2021). 2021년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비율은 20.9%로 OECD 국가 평균(14.5%)보다 6.4%p 더 높았다.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OECD 국가는 감소하다가 2021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니트의 증가는 학교, 일자리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절된 청년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학원 등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졸업 후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은둔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니트 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IV-17.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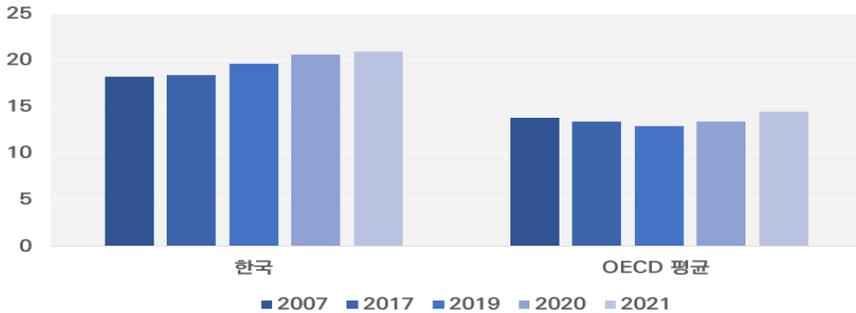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7(A)	2017	2019	2020	2021(B)	B-A
한국	18.2	18.4	19.6	20.6	20.9	2.7
OECD 평균	13.8	13.4	12.9	13.4	14.5	0.7

*자료: OECD (2023).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2019, 2020, 2021년 한국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유기영 외 (2020)의 p.62 결과를 표로 재구성함. (원자료 출처: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니트비율은 정재현(2022). 청년 NNET 특성 및 유형분석. 에서 발췌.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현재 일,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비율임.
2) 2019년과 2020년 OECD 국가 니트 비율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수치임.

(단위: %)



*자료: OECD (2023).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2019, 2020, 2021년 한국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유기영 외 (2020)의 p.62 결과를 표로 재구성함. (원자료 출처: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니트비율은 정재현(2022). 청년 NNET 특성 및 유형분석. 에서 발췌.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주 :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현재 일,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비율임.

그림 IV-12. 청년 니트 비율 변화

(6) 사회·문화자본 영역 빈곤 실태

6-1. 사회적 지지 결핍률

〈표 IV-18〉와 [그림 IV-13]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지지 결핍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2년 19-29세 청년 중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음(경제적 지지 결핍)’ 비율은 19.6%였으며,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음(돌봄 지지 결핍)’은 4.7%,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음(정서지지 결핍)’ 비율은 3.0%였다.

표 IV-18.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5-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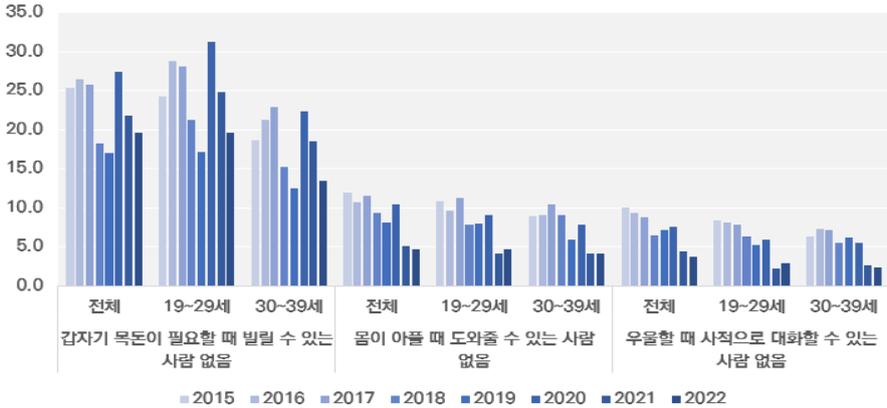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B-A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25.4	26.4	25.8	18.3	17.0	27.4	21.8	19.6	-5.8
	19-29세	24.3	28.8	28.1	21.3	17.2	31.3	24.8	19.6	-4.7
	30-39세	18.6	21.3	22.9	15.3	12.5	22.3	18.5	13.5	-5.1
	40-49세	21.9	23.7	21.8	13.8	16.0	19.9	18.4	15.6	-6.3
	50-59세	29.8	27.6	26.7	18.0	16.5	23.6	18.9	17.1	-12.7
	60-69세	36.5	32.7	31.1	25.0	23.7	-	-	-	-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12.0	10.7	11.5	9.3	8.2	10.5	5.1	4.7	-7.3
	19-29세	10.8	9.7	11.3	7.9	8.0	9.1	4.1	4.7	-6.1
	30-39세	9.0	9.1	10.5	9.1	6.0	7.8	4.1	4.1	-4.9
	40-49세	11.1	10.9	10.5	7.8	7.5	10.1	3.6	3.5	-7.6
	50-59세	13.5	11.9	10.6	10.9	8.1	9.9	5.5	4.0	-9.5
	60-69세	17.8	12.4	15.8	11.0	12.1	-	-	-	-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10.1	9.4	8.8	6.5	7.2	7.6	4.5	3.7	-6.4
	19-29세	8.4	8.2	7.9	6.3	5.3	6.0	2.3	3.0	-5.4
	30-39세	6.4	7.3	7.2	5.6	6.2	5.5	2.7	2.4	-4.0
	40-49세	8.1	9.4	8.8	5.5	7.4	7.5	4.0	2.8	-5.3
	50-59세	13.0	11.0	9.0	7.2	7.4	7.2	4.7	2.6	-10.4
	60-69세	16.8	11.3	12.0	8.2	10.1	-	-	-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주 :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 현황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주 :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 현황임.

그림 IV-13.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 (2015-2022)

경제적 지지 결핍은 전체 연령집단의 결핍 비율(19.6%)과 동일하고, 돌봄과 정신적 지지 결핍 수준은 일부 낮은 수준이었다.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적 지지 결핍률은 2015년 24.3%에서 2022년 19.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결핍률(17.2%)보다는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공적인 지원이 확대 되었음에도 경제적 지지 결핍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사적 안전망에 의존해온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6-2. 시간 빈곤율

〈표 IV-19〉과 〈그림 IV-14〉은 2014년 시간빈곤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노혜진, 2019). 재량시간 빈곤은 1차연도와 2차연도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20대와 30대 재량시간 빈곤율은 40대, 5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기 특성, 높은 미취업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시간 빈곤은 다양한 상태와 특성에 따라 다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⁵⁸⁾.

58)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해 닛트 청년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박미희와 조미라(2019)는 닛트 청년이 시간 사용

표 IV-19. 시간 빈곤율 (2014)

(단위: %)

구분	자유시간	활용가능시간	재량시간
20대	0.7	2.9	2.3
30대	1.2	3.4	2.2
40대	2.1	6.3	4.9
50대	2.4	7.6	5.4
60대	1.9	9.7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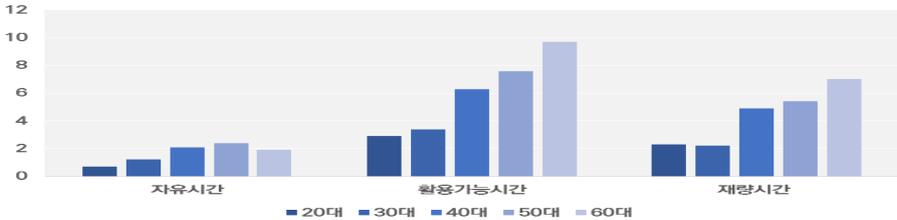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노혜진(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p.80의 <표 5> 분석결과 일부 발췌. 김형주 외 (2022) 재인용.

*주석: 본 분석표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표임.

- 주 1) '자유시간 빈곤율'은 자유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에서 필수 개인 유지 시간(수면시간, 개인 관리시간), 필수 유급노동(통근시간, 주된 취업 활동, 부업시간), 필수 무급노동(자녀 돌봄, 자녀의 돌봄, 가사활동)을 차감한 시간이 중위 50% 미만인 경우임(노혜진, 2019, p.73).
- 2) '활용가능시간 빈곤율'은 총 시간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차감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1,066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노혜진, 2019, p.73).
- 3) '재량시간 빈곤율'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소값을 차감한 값이 재량시간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노혜진, 2019, p.73).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출처: 노혜진(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p.80의 <표 5> 분석결과 일부 발췌. 김형주 외 (2022) 재인용.

*주석: 본 그래프는 본 연구(3개년)의 1차년도부터 금년도 3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실태분석 통계치를 누적하여 나타낸 것임.

- 주 1) '자유시간 빈곤율'은 자유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에서 필수 개인 유지 시간(수면시간, 개인관리시간), 필수 유급노동(통근시간, 주된 취업활동, 부업시간), 필수 무급노동(자녀돌봄, 자녀의돌봄, 가사활동)을 차감한 시간이 중위 50% 미만인 경우임(노혜진, 2019, p. 73).
- 2) '활용가능시간 빈곤율'은 총 시간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차감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1,066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노혜진, 2019, p. 73).
- 3) '재량시간 빈곤율'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소값을 차감한 값이 재량시간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노혜진, 2019, p. 73).

그림 IV-14. 시간 빈곤율 (2014)

특성에 따라 돌봄, 취업과 진학 준비, 취업과 진학 몰입형, 은둔형, 주간 활동, 야간활동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하고,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형태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박미희, 조미라, 2019, p.193; 김형주 외, 2021, 2022 재인용).

3)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표 IV-20〉은 영역별로 빈곤 지표를 활용해서 산출한 3개 시점 기준의 상대적 빈곤 위험과 이중차분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 빈곤 위험성의 변화 방향이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코로나19 이후 시점은 2021년으로 통일해 분석하였다. [그림 IV-15]는 영역별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위험 수준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IV-20. 영역 및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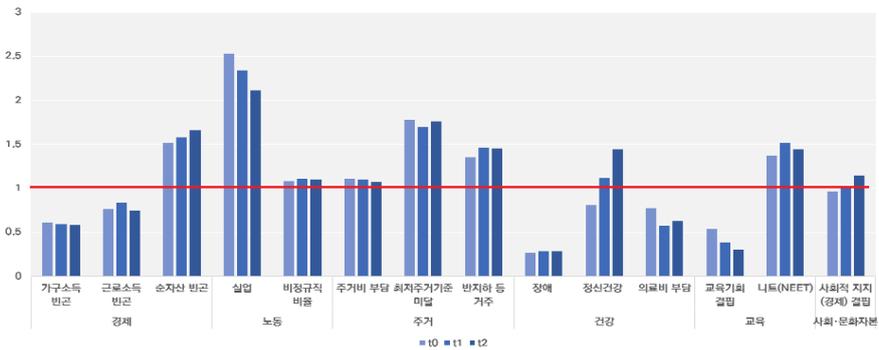
영역	지표	청년 연령	비교 시점 (A, B, C)	상대적 빈곤 위험			DID (C-B)- (B-A)
				A	B	C	
경제	가구소득 빈곤	18-25세	2016, 2019, 2021	0.61	0.59	0.58	+
	근로소득 빈곤	25-29세	2015, 2019, 2021	0.76	0.84	0.75	-
	순자산 빈곤	19-34세 가구주	2017, 2019, 2021	1.52	1.58	1.66	+
노동	실업	15-29세	2015, 2019, 2021	2.53	2.34	2.11	-
	비정규직 비율	15-29세	2015, 2019, 2021	1.08	1.11	1.10	-
주거	주거비 부담	20-34세 가구주	2017, 2019, 2021	1.11	1.10	1.07	-
	최저주거기준 미달			1.78	1.70	1.76	+
	반지하 등 거주			1.35	1.46	1.45	-
건강	장애	25-29세	2016, 2019, 2021	0.27	0.28	0.28	-
	정신건강	20-34세		0.81	1.12	1.44	+
	의료비 부담	19-34세	2015, 2019, 2021	0.77	0.57	0.63	+
교육	교육기회 결핍	13-29세	2014, 2018, 2022	0.54	0.38	0.30	+
	니트(NEET)	15-29세	2017, 2019, 2021	1.37	1.52	1.44	-
사회 자본	사회적 지지 (경제) 결핍	19-29	2015, 2019, 2021	0.96	1.01	1.14	+
	재량시간 빈곤	20대	2014	0.47	-	-	

*자료: 본 연구의 〈표 IV-6〉부터 〈표 IV-19〉를 이용하여 분석함.

- 주 1) 상대적 빈곤 위험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 해당 지표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임. 상대적 빈곤 위험 값이 1보다 크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함.
 2) 니트의 경우, OECD 평균으로 나눈 값을 제시함.
 3) 재량시간 빈곤은 40대 재량시간 빈곤율로 20대 재량시간 빈곤율을 나눈 값을 제시함.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성이 가장 큰 영역은 노동, 주거, 경제, 교육, 사회복지 순이었다. 세부지표에 있어서도 상대적 빈곤 위험이 큰 영역은 노동과 주거로 나타났다. 노동과 주거는 청년의 성인이행 과정에서 독립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청년층의 정책 욕구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경험하는 성인으로서의 이행이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가 결핍된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역별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은 실업(2.11배), 최저주거기준 미달(1.76배), 순자산 빈곤(1.66배), 반지하 등 거주(1.45배), 니트(1.44배) 정신건강(1.44배), 사회적 지지(1.14배), 비정규직 비율(1.10배)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단지 경제적 영역의 빈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빈곤을 통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코로나19 이전 2개 시점과 코로나19 이후 1개 시점, 총 3개 시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빈곤 위험성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표 IV-20〉 A, B, C). 상대적 빈곤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표는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사회적지지였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의 격차,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본 연구 〈표 IV-20〉을 이용해 도식화함

주 : 상대적 빈곤 위험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 해당 지표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임. 상대적 빈곤 위험 값이 1보다 크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함.

그림 IV-15.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추세를 고려해 코로나19 이후의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동과 관련한 지표인 근로소득 빈곤, 노동의 실업과 비정규직 비율은 2020년에 증가했던 빈곤 위험이 2021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구직 포기과 비경활 인구 증가를 함께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차감한 뒤에도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한 지표는 경제의 가구소득 빈곤과 순자산 빈곤, 주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건강에서 정신건강과 의료비 부담, 교육의 교육기회 결핍, 사회자본 중 사회적 지지(경제) 결핍이었다. 특히 앞에서 2020년보다 2021년 상대적 빈곤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소득 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의료비 부담, 교육기회 결핍은 2019년과 2020년보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상대적 빈곤 위험 감소 경향이 약화되었다. 즉, 코로나19 시기효과를 제거하였다면 이들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은 더 크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결핍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빈곤 위험 증가 경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코로나19 시기 자산형성 기회 제약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청년의 우울과 고립 문제가 심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IV-16]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양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A.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빈곤 위험감소 경향 약화

[경제] 가구소득 빈곤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건강] 의료비 부담 [교육] 교육기회 결핍

B.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빈곤 위험증가 경향 강화

[경제] 순자산 빈곤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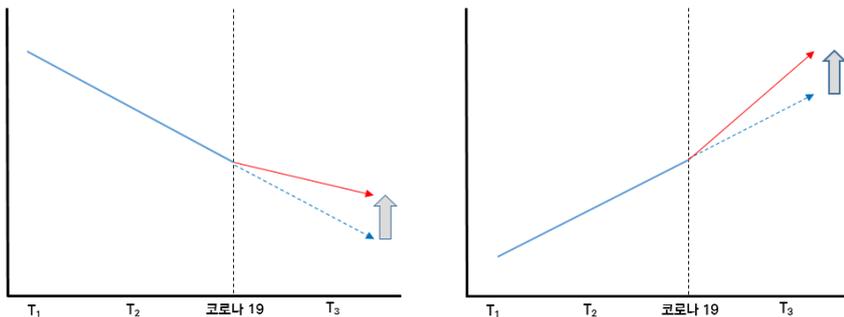


그림 IV-16. 코로나19 전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 추세 변화 유형과 해당 지표

4) 3차년도 다차원적 빈곤 실태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통계청 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다.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 집단과의 비교,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은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의 빈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기준으로 경제(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실업, 비정규직), 건강(정신건강) 영역 빈곤 수준이 악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2022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표는 저임금근로자 비율, 순자산 빈곤, 우울증 환자 비율, 과부담 의료비, 니트였다. 주목할 점은 2020년 이후 급격히 악화하였던 노동영역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양상을 고려해 청년층의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전통적인 취약층이 아니다.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외 영역의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다수의 청년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은 청년 이행기 취약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더 오래 지속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 취약층을 선별하는 경제적 영역의 빈곤과 더불어 비경제적 영역의 빈곤을 고려해 청년이 직면한 자원, 기회의 박탈과 결핍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영역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이 니트, 사회적지지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의 노동영역 빈곤의 악화는 청년의 이행기 연장과 노동시장 일자리 수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등의 변화로 설명해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청년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이 때문에 청년정책의 방향도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고려하는 것에서 고용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최근 청년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의 노동시장 진입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용 지표의 개선은 실질적 개선이 아닐 수 있다. 다수의 청년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니트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적지지 결핍과 정신건강 악화 경향은 겉으로 드러난 고용 지표의 개선 뒤에 가려진 청년 삶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 청년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년의 다차원 영역의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에 사회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청년층의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평균적 삶의 결핍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은 청년 개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청년층이 전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청년의 집단 내 격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재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형성기 청년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청년으로 진입하는 다음 세대의 다차원 빈곤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누적된 취약성(vulnerability) 혹은 불리함(disadvantage)의 결과가 청년기에 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청년 개인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청년정책은 아동, 청소년정책과의 연속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청년 다차원 빈곤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구구조, 생애과정의 구조적 불평등 등 관점에서 다차원 빈곤을 전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3.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 심층 분석⁵⁹⁾

1) 분석 개요

(1) 분석목적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간 청년들의 우울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사회·문화 관련 특성들이 청년들의 우울 변화 궤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59) 이 절은 배정희 조교수(성균관대학교)가 집필하였음

(2) 분석 배경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우울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고해 왔다(배정희, 2022; Power, Hughes, Cotter & Cannon, 2020, Pierce et al., 2020).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단절을 경험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청년들의 우울 수준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청년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우울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대상자로서 청년들을 고려해 볼 때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에서 나아가 특히 어떤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년들의 우울 수준을 횡단면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갖는다(박지현, 2021; 신예술, 박수현, 2022). 코로나19 이후 우울 변화궤적을 살펴본 배정희(2022)의 연구는 청년의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우울수준 변화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단순히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화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청년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우울수준 변화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엄밀하게 분석된 실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분석은 최근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이들의 우울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23년 본 연구 보고서의 중심 주제인 건강, 사회, 문화 빈곤과 관련하여 신체건강·사회자본·문화자본의 특성이 청년들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을 위한 연구문제

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들의 우울 변화 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들의 우울 변화 궤적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사회·여가 관련 변인들은 청년들의 우울 변화궤적과 관계가 있는가?

2) 분석 방법

(1) 분석모형

본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4년간 청년들의 우울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사회·문화 특성에 따라 이러한 변화 궤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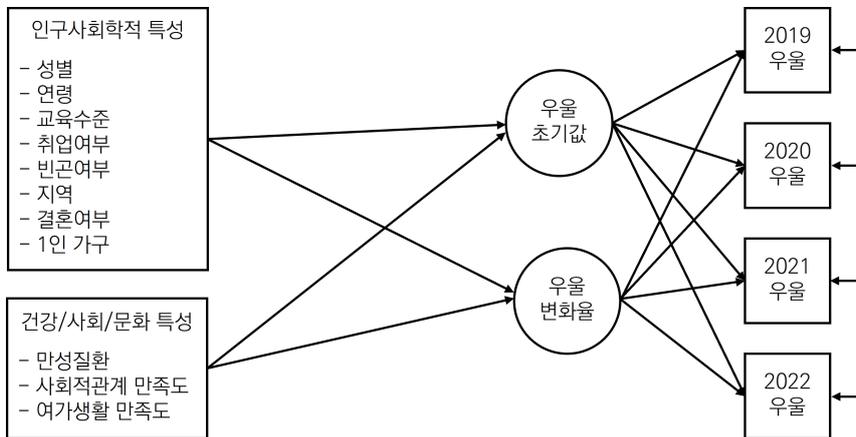


그림 IV-17. 청년 건강·사회·문화자본 빈곤 심층분석 연구모형

(2)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4-17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승인통계(제331009호)이며, 전 국민의 복지실태와 복지욕구를 중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며,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14-17차 한국복지패널에 모두 참여하고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우울에 대해 4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원 중 2019년 조사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885명이다.

(3) 변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한국복지패널의 CESD-11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질문은 ‘(각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이며, 응답자는 ‘㉞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㉟ 비교적 잘 지냈다’, ‘㊱ 상당히 우울했다’ 등 11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①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② 가끔 있었다(1주일에 1-2일간)’, ‘③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등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CESD-11 척도 계산방식에 따라 각 응답값을 0-3점으로 변환 및 합산한 후 20/11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우울 수준은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0)에서는 CESD-11 척도를 활용한 우울수준이 0-15점인 경우 정상수준, 16-20점인 경우 경미한 우울로 파악하며, 21-24점은 중한 우울, 25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구분한다.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잠재성장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때 초기값은 2019년의 우울값을 의미하며, 변화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형적인 변화궤적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질 때 4년 간 평균적으로 우울수준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질 때는 4년간 평균적으로 우울수준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게 또는 빠르게 우울값이 증가 또는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만성질환여부,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0,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1점-5점 값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 '여가생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1점-5점 값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빈곤여부, 지역, 결혼여부, 1인가구 여부를 설정하였으며, 2019년의 응답값을 기준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의 경우 0, 여성의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값을 갖는 연속변수이며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집단 간 변화궤적 분석 시에는 19-29세 사이의 20대를 0으로, 30-34세의 30대를 1로 코딩하였으며, 연구문제 3의 다중회귀분석 시에는 연속변수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 및 2019년 응답 당시 학위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고졸이하인 경우 0, 2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취업여부는 2019년 응답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응답에서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미취업자 0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취업자로 분류하여 1로 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균등화 경상소득 중위 60% 미만인 경우 저소득층 가구, 60% 이상인 경우 일반가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일반가구의 경우 0, 저소득 가구는 1로 코딩하였다. 지역은 2019년 조사 시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으로 1로 코딩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으로 0으로 코딩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인 경우 1, 미혼이거나 사별·이혼·별거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1인가구 여부는 2019년 조사당시 가구원의 수가 1명인 경우 1인가구로 1로 코딩하였으며, 2명 이상인 경우 다인가구로 분류, 0으로 코딩하였다. 변수별 구체적인 측정방식의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V-21. 변수 측정

변수유형	변수	측정
종속변수	우울	CESD-11 척도의 11가지 문항을 0-3점으로 변환하여 합산 후 20/11을 곱하여 계산 (*역문항은 역채점)
독립변수	만성질환여부	만성질환 없음(=0), 만성질환 있음(=1)
	사회적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통제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19-34 사이의 값을 갖는 연속변수 * 집단간 변화궤적 분석에서는 19-29(=0), 30-34(=1)
	교육수준	최종학력 및 학위상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두 가지 범주로 조작화 고졸이하(=0), 대학 재학 이상(=1)
	취업여부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실업자 또는 비경제 활동인구인 경우 미취업(=0), 임금근로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취업(=1)
	빈곤여부	일반가구(=0) 저소득가구(=1)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1),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0)
	결혼여부	미혼 및 기타(사별·이혼·별거)(=0) 기혼(=1)
	1인가구 여부	다인가구(=0), 1인가구(=1)

(4) 데이터 분석 방법

먼저, 응답자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7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 세 가지 연구질문을 위해서 Mplus Version 8.8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수의 특성이 선형적으로 (또는 비선형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의 우울궤적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우울궤적 변화에 청년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건강·사회·문화관련 요인들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들의 우울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잠재성장분석 조건부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3)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38.9%, 여성은 61.1%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 응답한 청년 1,527명 중 남성은 45%, 여성은 55%였으나, 4년동안 남성의 표본탈락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청년 중 남성은 38.9%, 여성은 61.1%로 나타났다. 연령은 2019년 기준 평균 27.13세 ($SD=4.02$)였으며, 19-24세가 35.1%, 25-29세가 37.4%, 30-34세가 27.5%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 13%, 미혼 및 기타가 86.3%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17.7%, 대학재학 이상이 82.3%였다. 2019년 기준 취업상태였던 응답자는 61.1%였으며, 미취업자는 38.9%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일반가구가 91.1%, 저소득 가구가 8.9%로 구성되었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43.6%였으며, 비수도권은 56.4%였다. 1인가구가 12.3%였으며, 다인가구는 87.7%였다. 만성질환은 2019년 기준으로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10.5%였으며, 89.5%는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우울의 경우 2019년 평균 3.906점($SD=6.526$), 2020년 평균 4.123점($SD=6.608$), 2021년 평균 4.955점($SD=7.338$) 점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2022년에는 매우 소폭 감소한 4.905점($SD=7.336$)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3년간 급격하게 우울수준이 증가하다가, 2021년 12월 백신 예방 접종률 80%를 달성하고 의료체계 보완 등을 통해 2022년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들어가면서(보건복지부, 2022), 우울수준의 증가추세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관계 만족도는 평균 3.845($SD=0.609$), 여가활동 만족도는 평균 3.531($SD=0.72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응답자 특성

비연속 변수		비율	비연속 변수		비율
성별 (2019)	남	38.9	취업여부 (2019)	취업	61.1
	여	61.1		미취업	38.9
연령 (2019)	만19-24	35.1	소득수준 (2019)	일반가구	91.1
	만25-29	37.4		저소득가구	8.9
	만30-34	27.5			
	* 평균(표준편차)	27.13 (4.02)			
혼인 상태 (2019)	기혼	13.7	지역 (2019)	수도권	43.6
	미혼 및 기타	86.3		비수도권	56.4
학력 (2019)	고졸이하	17.7	가구특성 (2019)	1인가구	12.3
				다인가구	87.7
	대학재학 이상	82.3	만성질환 (2019)	없음	89.5
				있음	10.5

연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우울	2019	3.906	6.526	0	56.36
	2020	4.123	6.608	0	50.91
	2021	4.955	7.338	0	49.09
	2022	4.902	7.336	0	54.55
사회적관계 만족도 (2019)		3.845	0.609	1	5
여가활동 만족도 (2019)		3.531	0.726	1	5

(2) 청년 우울수준 변화 궤적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청년 우울 변화궤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χ^2/df 가 3 미만, RMSEA가 0.08 미만, CFI 및 TLI는 0.9 이상 일 때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데(Hu & Bentler, 1998), 본 모형에서는 χ^2/df 가 3.116으로 3을 약간 초과하지만 나머지 적합지수(fit index)인 RMSEA, CFI, TLI 가 모두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우울 수준의 궤적에서 초기값은 3.888점($p < .001$),

변화율은 0.382점($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청년들의 평균적인 우울 수준은 3.888점이었으나 2019년 이후 4년간 매년 평균 0.382점씩 선형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청년 우울수준 변화 궤적

		평균	표준오차	P
초기값		3.888	0.199	***
변화율		0.382	0.091	***
초기값-변화율 상관		-0.974	0.827	
Model Fit	χ^2 (df)	15.583(5)		
	RMSEA	0.049		
	CFI	0.972		
	TLI	0.966		

주 : 1)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러한 청년 우울 변화궤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선형 잠재모형분석에 따를 때,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청년들의 평균 우울 수준은 3.888점이었으나 2020년 4.27점, 2021년 4.652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5.034 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응답자 특성에서 살펴본 관측값과는 다른 것이다. 위 응답자 특성에서 살펴본 값이 실제 응답값의 단순평균이라면, 아래 그림의 변화궤적 상의 점수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형에 근거하여 추정된 최적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청년 우울 수준을 추적한 선행연구(배정희, 2022)에 따르면, 2019년의 평균 우울수준은 3.893점, 3년간의 변화율은 0.561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로 1년 기간을 연장한 본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두 연구에서 2019년의 초기값은 3.89점 내외로 유사한 반면, 선행연구에서 밝힌 3년 간의 증가율(0.561)보다 본 분석의 4년의 증가율(0.382)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확연하게 우울 수준이 증가해 왔으나, 2022년부터 감소세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선형궤적이

아닌 비선형궤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선형궤적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비선형의 패턴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 2024년 등 추후 데이터들이 누적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2021년 정점을 이룬 청년들의 우울수준이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2022년의 우울 변화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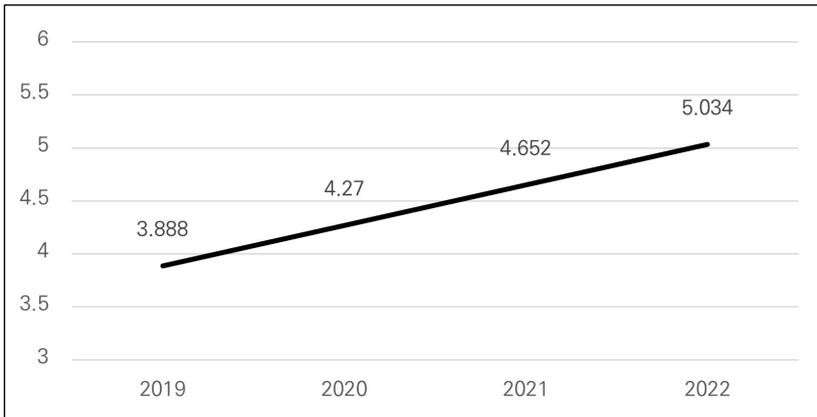


그림 IV-18. 청년 우울수준 변화 궤적

(3)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 궤적

국립정신건강센터(2020)의 CESD-11 척도 해석기준에 따르면, 0점에서 15점 이하 우울 수준은 정상범위로 보고 있으므로, 위 ‘청년 우울 수준 변화 궤적’ 분석에서 청년들의 우울 수준은 정상범위 내에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울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경미한 우울(16-20점), 중한 우울(21-24점), 심한 우울(25점 이상)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우울수준에 따른 청년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상수준 청년은 2019년 93.4%에서 2022년 90.8%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19년 대비 2022년에 정상 수준의 청년이 2.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10명 중 1명은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에 따른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경미한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은 2019년 3.6%, 2020년 3.5%, 2021년 4.4%, 2022년 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경미한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의 수는 2019년 대비 21.9%가 증가하였다. 중한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도 2019년 1.2%, 2020년 1.4%, 2021년 1.8%, 2022년 2.1%로 증가했으며 2022년은 2019년의 대비 7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점 이상의 심한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은 2019년 1.7%, 2022년 2.1%, 2021년 2.7%, 2022년 2.6%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은 2019년보다 53.3%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IV-24.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 (관측값)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19년 대비 2022년 증감율
정상수준 (0-15점)	93.45	92.99	91.07	90.85	-2.78
경미한 우울 (16-20점)	3.62	3.50	4.41	4.41	21.88
중한 우울 (21-24점)	1.24	1.36	1.81	2.15	72.73
심한 우울 (25-60점)	1.69	2.15	2.71	2.60	53.33

이러한 우울 수준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경미한 우울과 중한 우울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심한 우울은 2022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9-2022년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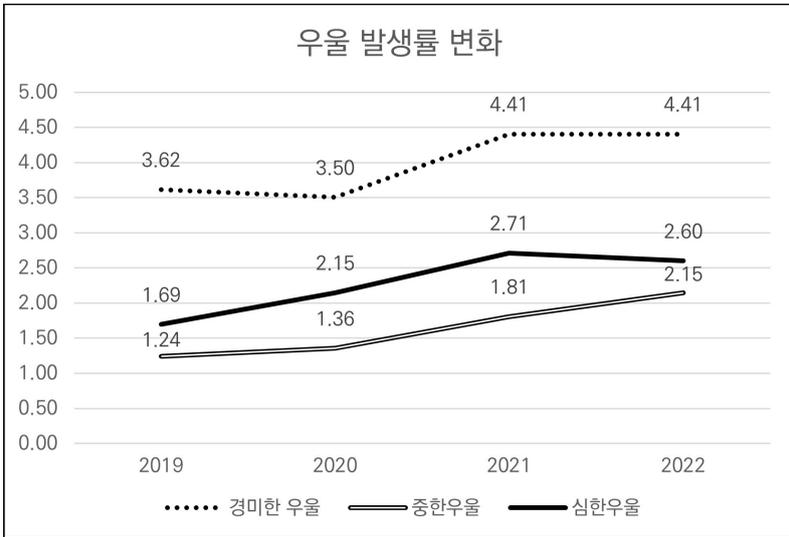


그림 IV-19.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 (관측값)

이어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의 우울 변화 궤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경미한 우울, 중한 우울, 심한 우울을 모두 우울(=1)코딩하고, 우울 수준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정상수준(=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 발생률의 초기값은 $0.064(p < .001)$ 로 2019년 기준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발생률의 변화율은 $0.01(p < .01)$ 로, 2019년 이후 청년들의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 발생률이 매년 1%씩 선형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5. 청년의 우울 발생률 변화 궤적

		평균	표준오차	P
초기값		0.064	0.007	***
변화율		0.01	0.004	**
초기값-변화율 상관		0	0.058	.
Model Fit	$\chi^2(df)$	5.386(5)		
	RMSEA	0.009		
	CFI	0.997		
	TLI	0.997		

주 : 1) *** $p < 0.001$, ** $p < 0.01$

잠재성장모형에 기반한 청년들의 우울 발생률 변화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할 확률은 2019년 6.4%, 2020년 7.4%, 2021년 8.4%, 2022년 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우울 수준 변화궤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우울 발생률 변화가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화될 것인지 추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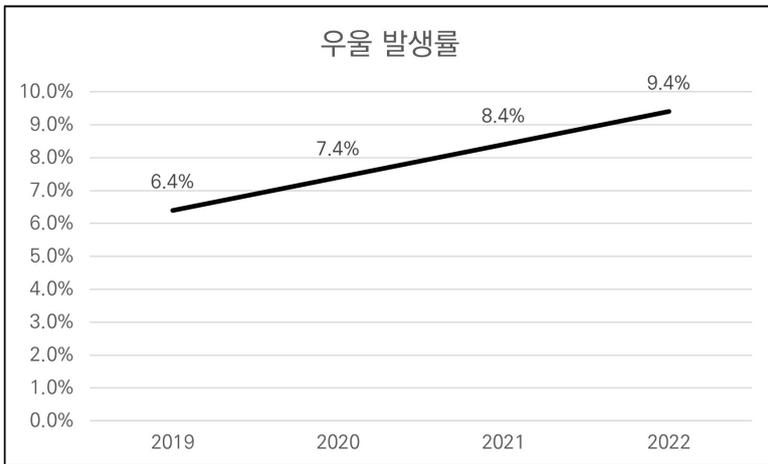


그림 IV-20. 청년 우울 발생률 변화궤적

(4) 청년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다음 분석에서는 청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우울 수준 변화궤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11개의 모형은 모형 적합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선형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변화궤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우울 초기값은 2.996($p < .001$), 기울기는 0.256($p < .01$)이었으나, 여성의 초기값은 4.441($p < .001$), 기울기는 0.465($p < .001$)로, 남성보다 여성의 2019년 초기 우울 수준이 높고 2019년 이후 4년간 우울 수준도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남성들보다 여성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더욱 큰 폭으로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20대의 우울 초기값은 3.913점($p < .001$)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0.439점($p < .001$) 증가했다. 그러나 30대의 2019년 우울 초기값은 3.832점($p < .001$)으로 20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30대에서는 유의미한 기울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대는 확연히 코로나19 이후 우울수준이 증가했으나, 30대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전체 청년 들 중 특히 20대의 우울 수준 증가가 더욱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 청년의 우울 수준 초기값($B = 4.698, p < .001$)이 2년제 대학재학 이상 청년의 우울 수준 초기값($B = 3.653, p < .001$)보다 높았으며, 2019년 이후 고졸이하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556, p < .01$).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 변화 궤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우울 수준 초기값($B = 4.192, p < .001$)이 취업자의 우울 수준 초기값($B = 3.69, p < .00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우울은 증가하였으나 특히 미취업자에게서 우울의 증가폭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B = 0.514, p < .001$). 소득수준의 경우, 2019년 기준 저소득가구 청년의 우울수준($B = 5.767, p < .001$)이 일반가구 청년의 우울수준($B = 3.706, p < .00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흥미롭게도 저소득 가구 청년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감이 없었던 반면, 일반 가구 청년의 우울수준이 평균 청년들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B = 0.435, p < .001$). 이에, 2019년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 청년의 우울 수준은 약 2점의 격차가 있었던 반면, 2022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그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이들의 우울수준을 낮추거나 유지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추후 심층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 변화 궤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청년들의 우울수준 초기값($B = 4.357, p < .001$)이 비수도권 청년들의 우울수준 초기값($B = 3.519, p < .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 우울의 증가폭은 수도권 청년들($B = 0.347, p < .01$)보다 비수도권 청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B = 0.408, p < .001$). 결혼 여부의 경우, 2019년 당시 기혼자였던 청년은 2019년 이후 유의미한 우울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혼자 또는 사별·이혼·별거 상태인 청년의 경우,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우울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442, p < .001$). 1인가구 여부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우울의 초기값은 1인가구 3.782 ($p < .001$), 다인가구 3.904 ($p < .001$)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인가구의 경우 2019년부터 4년간 유의미한 우울수준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인가구의 경우, 매년 평균 0.415점씩 우울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이 홀로 지내는 청년들보다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했을 가능성,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이 전이됨으로 인한 우울감 증대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독립변수인 만성질환, 사회적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와 우울 변화궤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9년 초기값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청년의 우울수준($B = 7.051, p < .001$)은 만성질환이 없는 청년의 우울 수준($B = 3.518, p < .001$)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만성질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초기값이 이미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지 2019년부터 유의미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만성질환이 없는 청년의 경우 2019년 이후 매년 0.416점씩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다($p < .001$). 사회적관계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하(3점 이하)로 응답한 청년들과 만족(4점 이상) 한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2019년 당시 사회적관계에 만족했던 청년들이 2019년 이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우울수준이 증가한 반면($B = 0.505, p < .001$), 2019년 당시 사회적 관계에 보통 이하라고 답한 청년들은 유의미한 우울 수준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생활 만족도도 이와 유사한 궤적을

나타냈는데, 2019년 당시 여가생활 만족했던 청년들은 2019년 이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우울수준이 증가한 반면($B = 0.495, p < .001$), 2019년 당시 사회적 관계에 보통 이하라고 답한 청년들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울이 증가하지 않았다.

표 IV-26. 청년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특성	n	우울		Model fit				
		초기값	기울기	χ^2 (df)	RMSEA	CFI	TLI	
성별	남	344	2.996 ***	0.256 *	23.585(10)	0.055	0.96	0.952
	여	541	4.441 ***	0.465 ***				
연령	20대	642	3.913 ***	0.439 ***	378.735(12)	0.042	0.979	0.975
	30대	243	3.832 ***	0.223				
교육수준	고졸이하	157	4.698 ***	0.556 *	350.193(12)	0.06	0.953	0.943
	대학학이상	728	3.653 ***	0.343 ***				
취업여부	미취업자	344	4.192 ***	0.514 **	21.877(10)	0.052	0.966	0.959
	취업자	541	3.69 ***	0.295 **				
소득수준	일반가구	806	3.706 ***	0.435 ***	31.103(10)	0.069	0.944	0.932
	저소득가구	79	5.767 ***	-0.175				
지역	비수도권	499	3.519 ***	0.408 ***	25.250(10)	0.059	0.961	0.954
	수도권	386	4.357 ***	0.347 *				
결혼여부	미혼·기타	764	3.842 ***	0.442 ***	21.549(10)	0.051	0.969	0.963
	기혼	121	4.107 ***	-0.028				
1인가구여부	다인가구	776	3.904 ***	0.415 ***	20.998(10)	0.05	0.971	0.965
	1인가구	109	3.782 ***	0.136				
만성질환	없음	792	3.518 ***	0.416 ***	32.967(10)	0.072	0.932	0.919
	있음	93	7.051 ***	0.086				
사회적관계 만족도	보통 이하	193	7.057 ***	0.053	24.736(10)	0.058	0.946	0.935
	만족	692	2.942 ***	0.505 ***				
여가활동 만족도	보통 이하	362	5.4 ***	0.255	27.707(10)	0.063	0.942	0.931
	만족	523	2.776 ***	0.495 ***				

다음 그림은 이러한 청년 특성별 우울 수준 변화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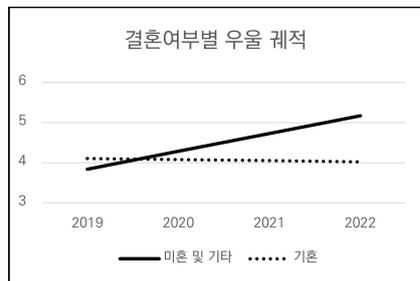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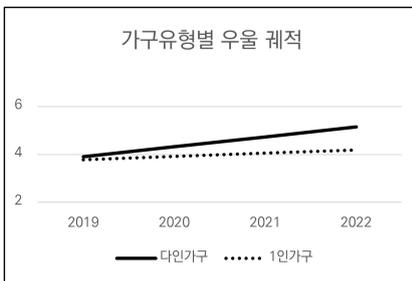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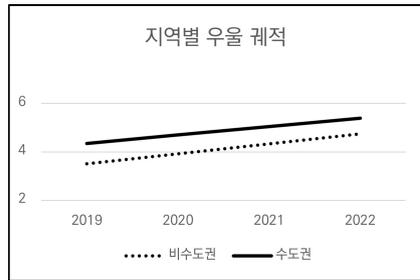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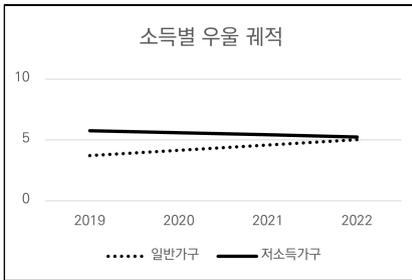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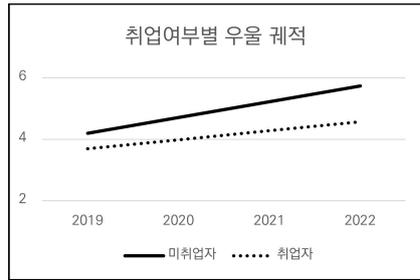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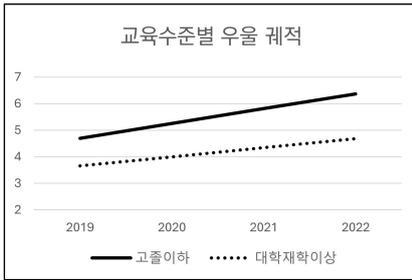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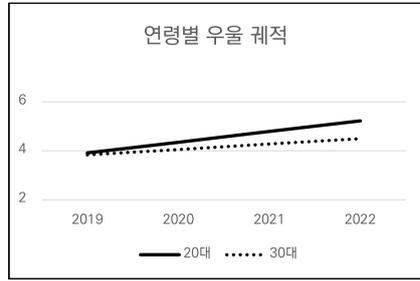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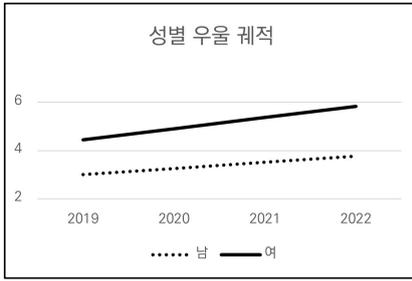


그림 IV-21. 청년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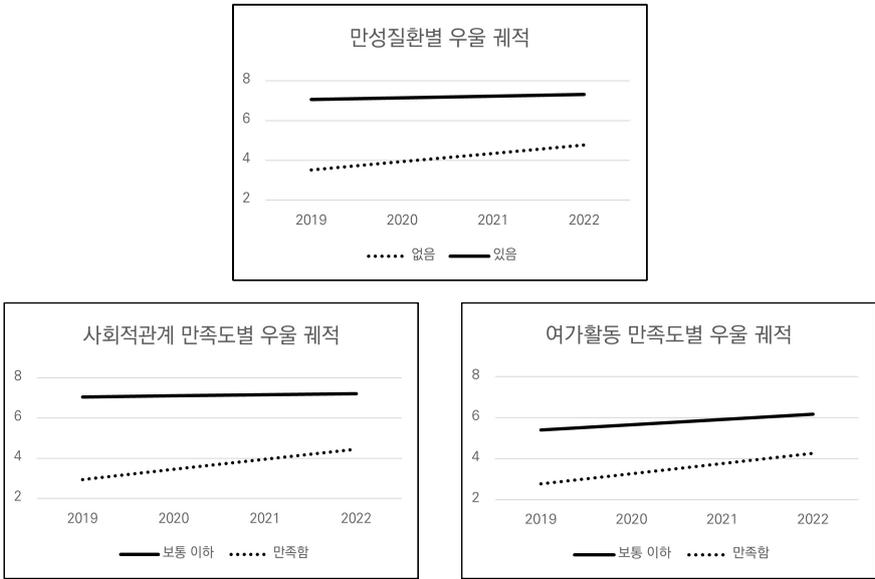


그림 IV-22. 건강·사회·문화 특성별 우울 변화 궤적

(5) 청년 우울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사회·문화 관련 특성이 청년 우울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2019년 당시 만성질환이 있었던 청년($B = 2.712, p < .001$)은 만성질환이 없는 청년보다, 여성($B = 1.173, p < .01$)은 남성보다, 빈곤가구에 속한 청년($B = 1.330, p < .05$)은 일반가구에 속한 청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2019년의 우울 수준 초기값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B = 0.635, p < .1$)은 유의도 0.1 수준에서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보다 우울 수준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은 청년일수록($B = -2.113, p < .001$),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년일수록($B = -0.701, p < .001$), 청년의 2019년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우울의 증가폭에 이러한 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2019년 당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청년의 경우 2019년 이후 4년간 더 빠르게 우울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402, p < .05$). 즉, 평소에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청년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평소의 사회적 관계망과 이에 대한 만족감은 청년들에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되기 보다는, 관계망의 갑작스러운 단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 가구 청년이 저소득 가구 청년보다($B = -0.643, p < .05$), 미혼 청년이 기혼 청년보다($B = -0.713, p < .05$) 코로나19 이후 우울수준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의도 0.1 수준에서 고졸 이하 청년이 대학재학 이상의 청년들보다($B = -0.416, p < .1$) 우울수준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일반가구 청년, 미혼 청년, 고졸이하 청년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코로나19 이후 특히 더욱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모형에 투입되었던 다른 변수들인 만성질환 여부, 여가생활 만족도, 성별, 연령, 취업여부, 지역, 1인가구 여부는 우울의 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청년 우울 변화 귀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우울	
	초기값	기울기
만성질환	2.712***	-0.332
사회적관계만족도	-2.113***	0.402*
여가생활만족도	-0.701*	-0.022
성별	1.173**	0.309
연령	0.046	0.030
교육수준	-0.465	-0.416 ⁺
취업여부	-0.396	-0.297
빈곤여부	1.330*	-0.643*
지역	0.635 ⁺	-0.069
결혼여부	0.257	-0.713*
1인가구	0.096	-0.243
Model Fit	$\chi^2(df)$	37.782(27)
	RMSEA	0.021
	CFI	0.98
	TLI	0.963

주 : 1) + $p < .1$, * $p < 0.05$, ** $p < 0.01$, *** $p < 0.001$

4) 심층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본 분석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들의 우울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러한 우울 변화궤적에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건강·사회·문화 관련 특성에 따라 우울 궤적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4년간 우울이 크게 증가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청년 정신건강 관련 정책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정책대상자들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의 전체 청년들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울이 선형적으로 증가해 왔다. 잠재성장분석을 통해 선형적 변화 궤적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당시 만19세-34세 청년들의 우울수준은 2019년 3.888, 2020년 4.27, 2021년 4.652, 2022년 5.034 점으로 매년 0.382점씩 증가해 왔다. 일반적으로 우울수준은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강상경, 정은희, 김병수, 2015),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해 온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배정희, 2022)에서 2019년과 2021년까지 3년간의 청년 우울 궤적을 살펴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2022년 코로나19가 발생한지 4년차에 이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2021과 2022년 관측된 응답값을 살펴보면 2021년 평균 우울수준(4.955, $SD=7.338$)보다 2022년 평균 우울수준(4.902, $SD=7.336$)이 0.0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년들의 우울수준이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우울수준까지 감소할 것인지, 아니면 높아진 우울수준이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인지의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정신건강센터(2020)에서는 CESD-11 척도를 활용한 우울수준이 16-20점 인 경우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구분하는데,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의 수는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잠재성장 모형 분석을 통해 청년의 우울 발생률을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전체 청년 중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을 확률은 6.4% 였으나, 2020년 7.4%, 2021년 8.4%, 2022년 9.4%로 매년 약 1%p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들의 평균적인 우울 수준이 정상 범위 내에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해 왔으며, 2022년 기준 10명 중 1명의 청년은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단위 면접조사라는 점에서 우울 수준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9.4%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청년의 특성별로 우울 변화 궤적을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 변화궤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9년 초기값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30대보다, 고졸이하가 대학재학 이상보다,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수도권 청년이 비수도권 청년보다, 미혼 청년이 이혼 청년보다, 다인 가구 청년이 1인 가구 청년보다 우울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2019년부터 4년간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 20대, 고졸 이하, 미취업자, 일반가구, 비수도권, 미혼 청년, 다인가구 청년들에게서 비교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9년 우울수준이 높았던 집단이 우울의 변화율도 높게 나타나면서 두 집단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20대, 고졸이하, 미취업자, 다인가구 청년들은 초기값과 기울기가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전과 발생 후 특히 우울에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2019년 초기값은 낮지만 기울기는 높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로 했다. 즉, 일반가구 청년들은 저소득 가구 청년들보다 2019년 우울 수준은 낮았으나, 2019년 이후 저소득가구 청년들보다 가파르게 우울수준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도 수도권 청년들보다 2019년 우울 수준은 낮았으나 2019년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일반가구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더욱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넷째, 건강·사회·문화 특성별 우울 변화궤적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초기값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청년, 사회적 관계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청년, 여가활동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청년들이 우울수준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부터 변화 궤적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이 없던 청년들, 사회적 관계에 만족했던 청년들, 여가활동에 만족했던 청년들이 비교집단보다 가파르게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건강했던 청년들, 사회적 관계가 만족스럽고 여가활동도 만족스러웠던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더욱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청년 우울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이 있는

청년, 여성, 빈곤가구 청년, 수도권 청년인 경우 기본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고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우울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19년 당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청년, 일반가구 청년, 미혼 청년, 고졸 이하 청년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코로나19 이후 특히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울 수준의 초기값과 2019년 이후 4년간의 우울 수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인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최근 4년간 청년들의 증가된 우울 수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최소 10명 중 1명 이상이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우울 수준과 우울증 발생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들 중에서도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청년, 여성 청년, 빈곤가구 청년, 수도권 청년은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항시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더욱 우울수준이 증가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이전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청년, 일반가구 청년, 미혼 청년, 고졸 이하 청년들이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우울 수준 증가가 이들 집단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날지 향후 추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분석 결과는 청년 전반의 우울 수준 증가 뿐만 아니라, 청년 내부에서 심화되는 정신건강 격차 양상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 제5장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

- 1. 설문조사 개요
- 2. 청년의 건강
-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 4. 빈곤 인식
- 5. 요약 및 시사점

청년 빈곤 관련 인식 및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⁶⁰⁾

1. 설문조사 개요

1)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사 설계

- 표본수 : 총 4,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조사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추출 : 성별(남여), 연령별(3개 연령대), 지역별(권역구분) 균등할당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1.5\%$ Point
- 조사기간 : 2023년 4월 19일 ~ 6월 04일
- 주요 조사내용 : 청년의 건강 실태 및 인식, 건강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및 의견, 사회·문화자본 실태 및 인식, 사회·문화자본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및 의견

60)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숙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3)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의 대상인 만 19~34세 청년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V-1.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000	100.0%
성별	남성	1,984	49.6%
	여성	2,016	50.4%
연령	만19-24세	1,356	33.9%
	만25-29세	1,321	33.0%
	만30-34세	1,323	33.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1.9%
	대학교(재학/졸업)	3,370	84.3%
	대학원(석사졸/박사졸)	154	3.9%
취업 여부	취업	2,047	51.2%
	미취업	1,953	48.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7.1%
	시간제 근로	164	4.1%
	미취업	1,953	48.8%
가구 유형	청년 부부 가구	732	18.3%
	청년 독립가구	1,172	29.3%
	청년 동거가구	2,088	52.2%
	기타	8	0.2%
지역	수도권	2,234	55.9%
	충청권	409	10.2%
	전라권	348	8.7%
	경상권	869	21.7%
	강원/제주권	140	3.5%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7.7%
	중소도시	1,426	35.7%
	읍면	268	6.7%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46.8%
	비빈곤층	2,128	53.2%
1인가구 중위 소득 ⁶¹⁾	중위소득 이상	1,918	48.0%
	중위소득 미만	2,082	52.1%

61)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e-나라지표, 2023).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2762)에서 2023년 3월 20일 인출)

2. 청년의 건강

1) 청년의 건강 실태 및 의식

(1)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5.8%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0.5%, 만25~29세: 44.1%, 만30~34세: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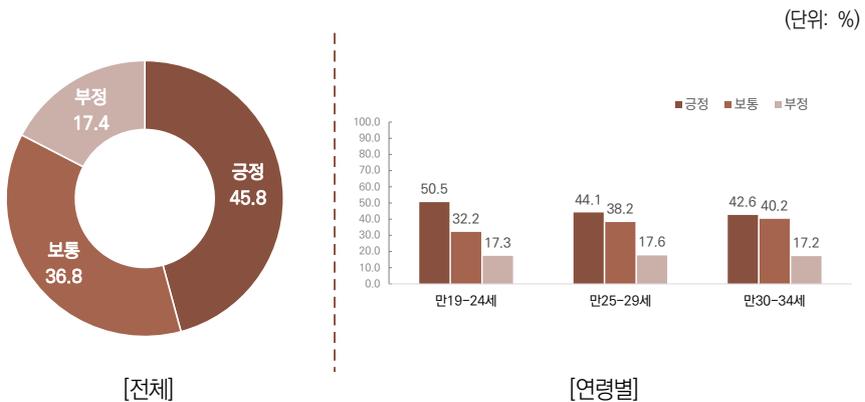


그림 V-1.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표 V-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건강함	조금 건강함	보통임	별로 건강 하지 못함	전혀 건강 하지 못함	χ^2
전체	(4,000)	14.0	31.8	36.8	15.4	2.0	46.481***
만19~24세	(1,356)	18.6	31.9	32.2	15.8	1.5	
만25~29세	(1,321)	11.7	32.4	38.2	15.2	2.4	
만30~34세	(1,323)	11.6	31.0	40.2	15.2	2.0	

* $p < .05$, ** $p < .01$, *** $p < .001$.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57.8%),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55.1%)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건강함	조금 건강함	보통임	별로 건강하지 못함	전혀 건강하지 못함	χ^2
전체		(4,000)	14.0	31.8	36.8	15.4	2.0	40.659***
성별	남성	(1,984)	16.6	32.4	36.3	12.6	2.2	
	여성	(2,016)	11.5	31.2	37.4	18.2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1.1	20.6	40.3	23.5	4.4	73.021***
	대학교(재/졸)	(3,370)	14.3	32.9	36.7	14.4	1.7	
	대학원(졸)	(154)	16.2	41.6	29.2	12.3	0.6	
취업 여부	취업	(2,047)	12.0	34.6	37.7	14.4	1.3	37.223***
	미취업	(1,953)	16.1	28.8	35.9	16.5	2.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1.8	35.3	37.7	14.0	1.2	44.181***
	시간제 근로	(164)	14.6	26.8	37.8	18.9	1.8	
	미취업	(1,953)	16.1	28.8	35.9	16.5	2.7	
지역	수도권	(2,234)	14.0	32.9	36.1	15.1	1.9	21.752
	충청권	(409)	10.0	32.3	37.4	17.1	3.2	
	전라권	(348)	16.4	29.9	37.1	15.8	0.9	
	경상권	(869)	15.4	30.3	37.6	14.5	2.2	
	강원/제주권	(140)	12.1	26.4	40.7	20.0	0.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4.1	33.3	36.5	14.1	1.9	27.160***
	중소도시	(1,426)	13.7	30.7	36.7	17.3	1.5	
	읍면	(268)	14.6	23.9	39.9	16.8	4.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9.6	25.6	39.4	22.0	3.4	234.299***
	비빈곤층	(2,128)	17.9	37.2	34.6	9.6	0.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2.5	35.5	36.9	13.9	1.3	37.136***
	중위소득 미만	(2,082)	15.5	28.4	36.7	16.8	2.6	

* $p < .05$, ** $p < .01$, *** $p < .001$.

(2)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4.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3.9%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48.2%)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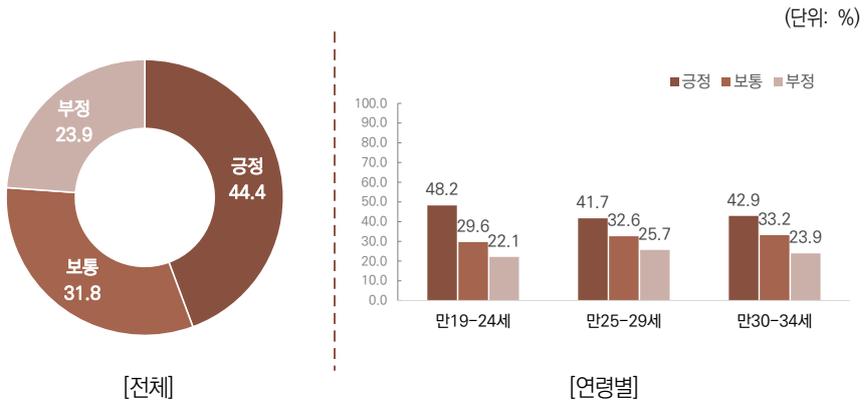


그림 V-2.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표 V-4.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건강함	조금 건강함	보통임	별로 건강 하지 못함	전혀 건강 하지 못함	χ^2
전체	(4,000)	14.4	30.0	31.8	19.5	4.4	32.942***
만19~24세	(1,356)	18.4	29.8	29.6	17.6	4.6	
만25~29세	(1,321)	12.6	29.1	32.6	21.0	4.6	
만30~34세	(1,323)	11.9	31.0	33.2	19.9	4.0	

* $p < .05$, ** $p < .01$, *** $p < .001$.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53.9%),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54.9%)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5.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건강함	조금 건강함	보통임	별로 건강 하지 못함	전혀 건강 하지 못함	χ^2
전체		(4,000)	14.4	30.0	31.8	19.5	4.4	
성별	남성	(1,984)	17.6	29.7	31.8	16.8	4.1	44.816***
	여성	(2,016)	11.1	30.3	31.8	22.1	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9.7	19.5	33.4	28.2	9.2	82.547***
	대학교(재/졸)	(3,370)	15.0	31.1	31.8	18.4	3.8	
	대학원(졸)	(154)	15.6	38.3	26.6	16.9	2.6	
취업 여부	취업	(2,047)	13.1	33.9	31.4	18.5	3.0	45.950***
	미취업	(1,953)	15.6	25.9	32.2	20.5	5.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3.5	34.1	31.1	18.2	3.0	50.921***
	시간제 근로	(164)	8.5	31.1	34.8	22.0	3.7	
	미취업	(1,953)	15.6	25.9	32.2	20.5	5.8	
지역	수도권	(2,234)	14.7	31.1	30.8	19.1	4.3	19.413
	충청권	(409)	11.7	30.8	32.8	18.8	5.9	
	전라권	(348)	12.4	30.5	35.1	19.3	2.9	
	경상권	(869)	14.8	27.5	33.0	19.9	4.7	
	강원/제주권	(140)	17.9	23.6	29.3	25.7	3.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4.9	30.7	31.5	18.3	4.6	7.994
	중소도시	(1,426)	13.8	29.1	32.2	20.9	4.0	
	읍면	(268)	12.3	28.0	32.5	22.0	5.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9.2	23.0	32.9	27.2	7.6	315.888***
	비빈곤층	(2,128)	18.8	36.1	30.8	12.6	1.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4.2	33.6	30.2	18.7	3.3	31.001***
	중위소득 미만	(2,082)	14.5	26.6	33.3	20.2	5.4	

* $p < .05$, ** $p < .01$, *** $p < .001$.

(3)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회'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닌 적 없음'(23.6%), '6~10회'(1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다닌 적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5.3%, 만25~29세: 23.4%, 만30~34세: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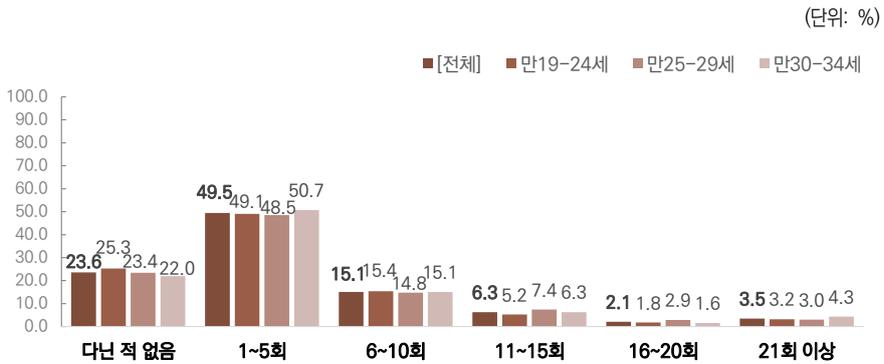


그림 V-3.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표 V-6.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닌 적 없음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x ²
전체	(4,000)	23.6	49.5	15.1	6.3	2.1	3.5	
만19~24세	(1,356)	25.3	49.1	15.4	5.2	1.8	3.2	
만25~29세	(1,321)	23.4	48.5	14.8	7.4	2.9	3.0	
만30~34세	(1,323)	22.0	50.7	15.1	6.3	1.6	4.3	

*p < .05, **p < .01, ***p < .001.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31.9%),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28.3%) 집단에서 '다닌 적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닌 적 없음	1~5회	6~10회	11~15 회	16~20 회	21회 이상	χ^2
전체		(4,000)	23.6	49.5	15.1	6.3	2.1	3.5	
성별	남성	(1,984)	25.5	49.3	14.1	6.6	1.6	3.0	16.966**
	여성	(2,016)	21.7	49.6	16.1	6.1	2.6	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1.9	40.1	14.7	5.7	2.7	4.8	52.768***
	대학교(재/졸)	(3,370)	22.8	50.7	15.2	6.2	2.0	3.1	
	대학원(졸)	(154)	14.3	51.3	13.6	9.7	1.9	9.1	
취업 여부	취업	(2,047)	19.1	51.8	16.6	6.4	2.5	3.6	50.034***
	미취업	(1,953)	28.3	47.0	13.6	6.1	1.6	3.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8.6	52.3	16.7	6.5	2.4	3.5	54.618***
	시간제 근로	(164)	24.4	47.0	15.2	5.5	3.0	4.9	
	미취업	(1,953)	28.3	47.0	13.6	6.1	1.6	3.4	
지역	수도권	(2,234)	22.1	49.2	15.7	7.2	2.2	3.6	25.956
	충청권	(409)	22.2	51.6	16.4	4.6	1.7	3.4	
	전라권	(348)	25.6	49.1	12.9	6.0	2.6	3.7	
	경상권	(869)	26.2	49.3	13.9	5.2	1.6	3.8	
	강원/제주권	(140)	30.0	49.3	14.3	4.3	2.1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3.1	49.0	15.7	6.5	2.2	3.5	5.272
	중소도시	(1,426)	23.9	50.1	14.1	6.2	2.0	3.6	
	읍면	(268)	26.1	49.6	15.3	4.9	1.5	2.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4.0	45.3	16.2	7.2	2.6	4.7	38.524***
	비빈곤층	(2,128)	23.2	53.1	14.1	5.5	1.6	2.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20.0	52.1	15.8	6.4	2.2	3.5	26.571***
	중위소득 미만	(2,082)	26.8	47.0	14.5	6.2	2.0	3.5	

* $p < .05$, ** $p < .01$, *** $p < .001$.

(4)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N=3,057)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었음’ 응답은 72.3%로 나타났으며, ‘있었음’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없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3.7%, 만25~29세: 71.4%, 만30~34세: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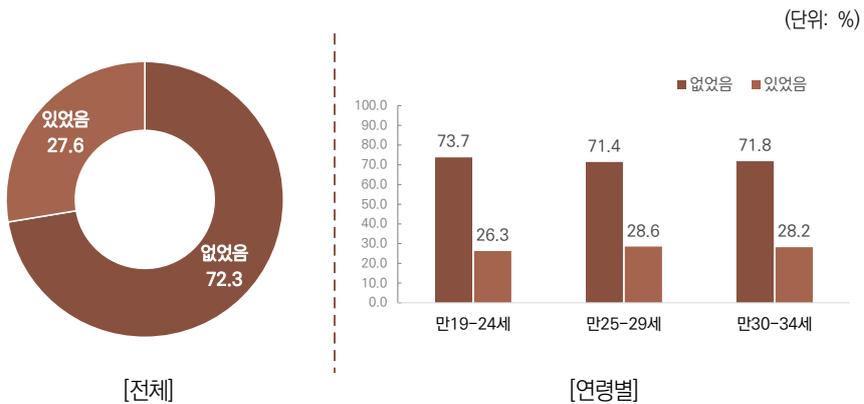


그림 V-4.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표 V-8.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었음	조금 있었음	자주 있었음	χ^2
전체	(3,057)	72.3	26.0	1.6	5.289
만19~24세	(1,013)	73.7	24.5	1.8	
만25~29세	(1,012)	71.4	26.5	2.1	
만30~34세	(1,032)	71.8	27.1	1.1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중소도시(77.9%),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77.4%) 집단에서 ‘없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었음	조금 있었음	자주 있었음	χ^2
전체		(3,057)	72.3	26.0	1.6	
성별	남성	(1,478)	69.3	28.9	1.8	13.240**
	여성	(1,579)	75.2	23.4	1.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24)	69.4	28.4	2.2	9.798*
	대학교(재/졸)	(2,601)	72.9	25.7	1.4	
	대학원(졸)	(132)	68.2	27.3	4.5	
취업 여부	취업	(1,656)	69.6	28.6	1.8	13.169**
	미취업	(1,401)	75.5	23.1	1.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532)	70.2	28.0	1.8	16.988**
	시간제 근로	(124)	62.1	35.5	2.4	
	미취업	(1,401)	75.5	23.1	1.4	
지역	수도권	(1,741)	71.7	26.7	1.6	9.489
	충청권	(318)	72.3	26.1	1.6	
	전라권	(259)	69.1	27.4	3.5	
	경상권	(641)	75.0	23.9	1.1	
	강원/제주권	(98)	73.5	25.5	1.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774)	69.0	29.1	1.9	26.781***
	중소도시	(1,085)	77.9	20.9	1.2	
	읍면	(198)	71.7	26.8	1.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22)	66.5	31.4	2.2	46.446***
	비빈곤층	(1,635)	77.4	21.4	1.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534)	70.9	27.4	1.6	3.173
	중위소득 미만	(1,523)	73.7	24.6	1.6	

* $p < .05$, ** $p < .01$, *** $p < .001$.

(5)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팠던 경험이 있는(N=846)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입원 횟수는 1.2회, 평균 총 입원일은 4.3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 입원 횟수’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만19~24세: 1.2회, 만25~29세: 1.2회, 만30~34세: 1.1회)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총 입원일’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6일, 만25~29세: 3.9일, 만30~34세: 3.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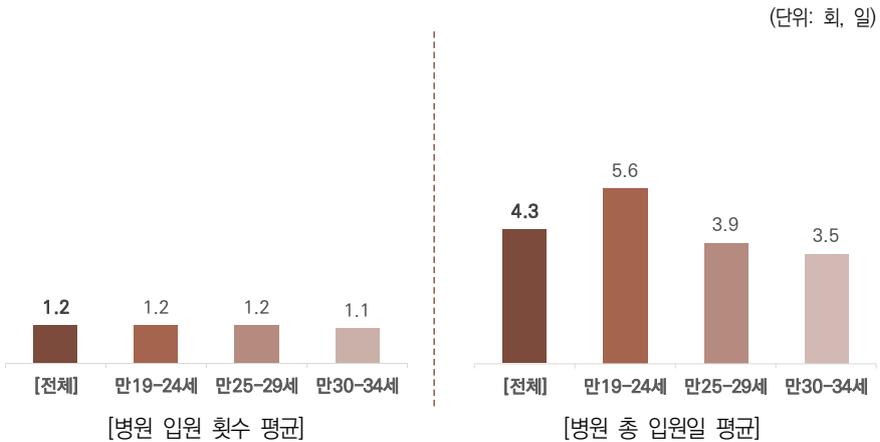


그림 V-5.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표 V-10.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단위: 명, 회, 일)

구분	사례수 [명]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					F (유의도)	최근 1년 동안 병원 총 입원일					F (유의도)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전체	(846)	0.0	1.2	1.0	15.0	0.235	0.0	4.3	2.0	210.0	3.819*		
만19~24세	(266)	0.0	1.2	1.0	15.0		0.0	5.6	2.5	210.0			
만25~29세	(289)	0.0	1.2	1.0	10.0		0.0	3.9	2.0	45.0			
만30~34세	(291)	0.0	1.1	1.0	15.0		0.0	3.5	2.0	45.0			

* $p < .05$, ** $p < .01$, *** $p < .001$.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의 경우 성별, 지역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총 입원일의 경우 성별, 지역과 함께 1인가구 중위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 (배경변인별)

(단위: 명, 회, 일)

구분	사례수 [명]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					T/F (유의도)	최근 1년 동안 병원 총 입원일					T/F (유의도)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846)	0.0	1.2	1.0	15.0		0.0	4.3	2.0	210.0			
성별	남성	(454)	0.0	1.4	1.0	15.0	5.268***	0.0	5.1	3.0	210.0	2.990	
	여성	(392)	0.0	0.9	1.0	10.0		0.0	3.3	2.0	54.0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99)	0.0	1.1	1.0	10.0	1.766	0.0	3.5	1.0	30.0	0.400	
	대학교(재/졸)	(705)	0.0	1.2	1.0	15.0		0.0	4.4	2.0	210.0		
	대학원(졸)	(42)	0.0	1.5	1.0	10.0		0.0	4.2	2.0	45.0		
취업 여부	취업	(503)	0.0	1.2	1.0	10.0	1.700	0.0	3.7	3.0	45.0	-1.694	
	미취업	(343)	0.0	1.1	1.0	15.0		0.0	5.0	2.0	21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456)	0.0	1.2	1.0	10.0	1.549	0.0	3.8	3.0	45.0	2.210	
	시간제 근로	(47)	0.0	1.1	1.0	4.0		0.0	2.8	2.0	15.0		
	미취업	(343)	0.0	1.1	1.0	15.0		0.0	5.0	2.0	210.0		
지역	수도권	(492)	0.0	1.2	1.0	15.0	3.295*	0.0	3.5	2.0	30.0	5.499***	
	충청권	(88)	0.0	1.1	1.0	7.0		0.0	4.2	2.0	45.0		
	전라권	(80)	0.0	1.4	1.0	15.0		0.0	8.7	3.0	210.0		
	경상권	(160)	0.0	0.9	1.0	4.0		0.0	4.7	2.0	70.0		
	강원/제주권	(26)	0.0	0.7	1.0	2.0		0.0	2.4	2.0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550)	0.0	1.2	1.0	15.0	3.002	0.0	4.0	2.0	70.0	0.692	
	중소도시	(240)	0.0	1.0	1.0	10.0		0.0	4.8	2.0	210.0		
	읍면	(56)	0.0	1.4	1.0	15.0		0.0	4.8	3.0	30.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477)	0.0	1.2	1.0	15.0	1.519	0.0	4.4	2.0	210.0	0.349	
	비빈곤층	(369)	0.0	1.1	1.0	15.0		0.0	4.1	2.0	7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46)	0.0	1.1	1.0	5.0	-1.752	0.0	3.6	3.0	34.0	-2.216*	
	중위소득 미만	(400)	0.0	1.3	1.0	15.0		0.0	5.1	2.0	210.0		

* $p < .05$, ** $p < .01$, *** $p < .001$.

(6)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었음' 응답은 58.4%로 나타났으며, '있었음' 응답은 41.6%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없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0.4%, 만25~29세: 56.9%, 만30~34세: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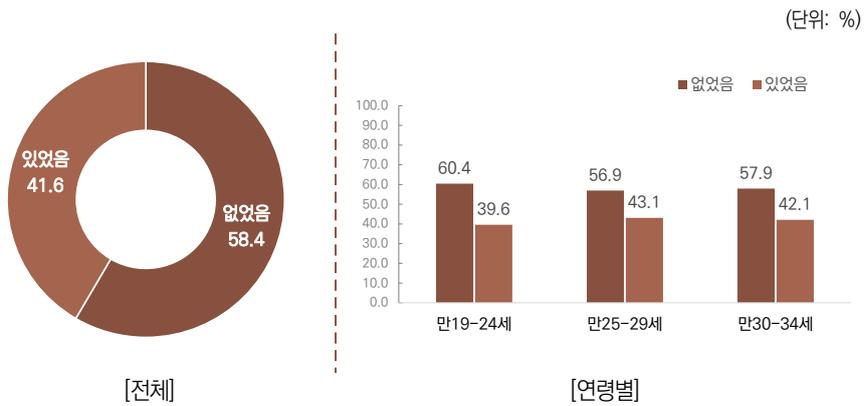


그림 V-6.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표 V-12.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었음	조금 있었음	자주 있었음	χ^2
전체	(4,000)	58.4	37.3	4.3	5.924
만19~24세	(1,356)	60.4	35.2	4.4	
만25~29세	(1,321)	56.9	38.4	4.7	
만30~34세	(1,323)	57.9	38.5	3.6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67.7%) 집단에서 ‘없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3.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었음	조금 있었음	자주 있었음	χ^2
전체		(4,000)	58.4	37.3	4.3	
성별	남성	(1,984)	62.5	34.0	3.5	28.216***
	여성	(2,016)	54.4	40.6	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2.3	38.9	8.8	32.354***
	대학교(재/졸)	(3,370)	59.5	37.0	3.6	
	대학원(졸)	(154)	54.5	40.3	5.2	
취업 여부	취업	(2,047)	54.2	41.8	4.0	36.169***
	미취업	(1,953)	62.8	32.6	4.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54.8	41.4	3.8	39.248***
	시간제 근로	(164)	48.2	46.3	5.5	
	미취업	(1,953)	62.8	32.6	4.6	
지역	수도권	(2,234)	57.8	38.0	4.2	11.759
	충청권	(409)	56.2	37.7	6.1	
	전라권	(348)	58.6	36.5	4.9	
	경상권	(869)	61.4	35.6	3.0	
	강원/제주권	(140)	55.0	38.6	6.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6.9	39.1	4.0	13.026*
	중소도시	(1,426)	60.4	35.4	4.1	
	읍면	(268)	60.8	32.1	7.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47.9	45.5	6.7	178.347***
	비빈곤층	(2,128)	67.7	30.2	2.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55.1	40.7	4.2	18.363***
	중위소득 미만	(2,082)	61.5	34.2	4.3	

* $p < .05$, ** $p < .01$, *** $p < .001$.

(7)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N=1,663) 응답자를 대상으로 병원을 못간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병원비(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33.7%), '약국에서 상용약품(비처방약)을 사먹는 편이어서'(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1.3%, 만25~29세: 47.6%, 만30~34세: 5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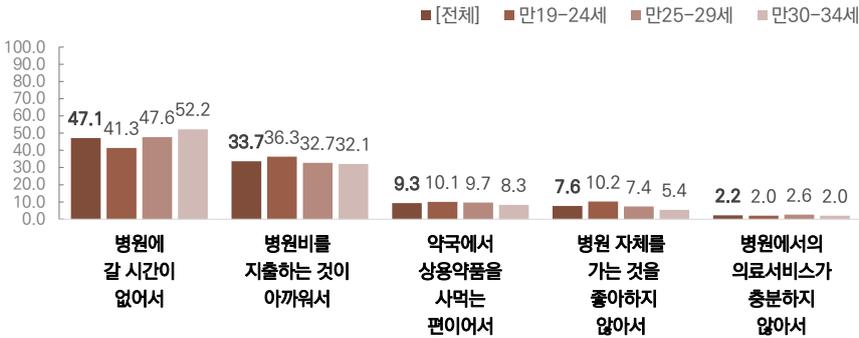


그림 V-7.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표 V-14.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병원비(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	약국에서 상용약품(비처방약)을 사먹는 편이어서	병원 자체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χ^2
전체	(1,663)	47.1	33.7	9.3	7.6	2.2	18.842*
만19~24세	(537)	41.3	36.3	10.1	10.2	2.0	
만25~29세	(569)	47.6	32.7	9.7	7.4	2.6	
만30~34세	(557)	52.2	32.1	8.3	5.4	2.0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아프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전일제 근로자(57.7%),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57.0%) 집단에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5. 최근 1년 동안 아프데도 병원을 못간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병원비(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까워서(의료비 부담))	약국에서 상용약품(비처방약)을 사먹는 편이어서	병원 자체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의뢰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χ^2
전체	(1,663)	47.1	33.7	9.3	7.6	2.2	
성별	남성 (744)	42.2	35.3	11.3	8.7	2.4	16.056**
	여성 (919)	51.1	32.3	7.7	6.7	2.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27)	33.0	46.3	6.6	12.3	1.8	40.637***
	대학교(재/졸) (1,366)	49.0	32.0	9.8	7.1	2.1	
	대학원(졸) (70)	57.1	25.7	8.6	2.9	5.7	
취업 여부	취업 (937)	56.4	25.9	9.5	6.3	1.9	82.785***
	미취업 (726)	35.3	43.7	9.1	9.4	2.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852)	57.7	25.0	9.3	5.9	2.1	93.422***
	시간제 근로 (85)	42.4	35.3	11.8	10.6	0.0	
	미취업 (726)	35.3	43.7	9.1	9.4	2.6	
지역	수도권 (942)	47.3	33.8	9.9	6.8	2.2	13.695
	충청권 (179)	43.0	39.1	8.9	6.1	2.8	
	전라권 (144)	49.3	27.8	8.3	11.1	3.5	
	경상권 (335)	47.5	33.1	9.3	9.0	1.2	
	강원/제주권 (63)	49.2	33.3	4.8	9.5	3.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994)	44.9	34.9	10.7	7.5	2.0	18.822*
	중소도시 (564)	52.1	29.8	8.2	7.4	2.5	
	읍면 (105)	41.9	42.9	2.9	9.5	2.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976)	41.8	41.9	7.8	6.4	2.2	72.955***
	비빈곤층 (687)	54.7	22.0	11.5	9.5	2.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861)	57.0	26.6	8.4	6.2	1.9	71.509***
	중위소득 미만 (802)	36.5	41.3	10.3	9.2	2.6	

* $p < .05$, ** $p < .01$, *** $p < .001$.

(8)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 응답은 52.9%로 나타났으며, ‘있음’ 응답은 47.2%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9.4%, 만25~29세: 50.8%, 만30~34세: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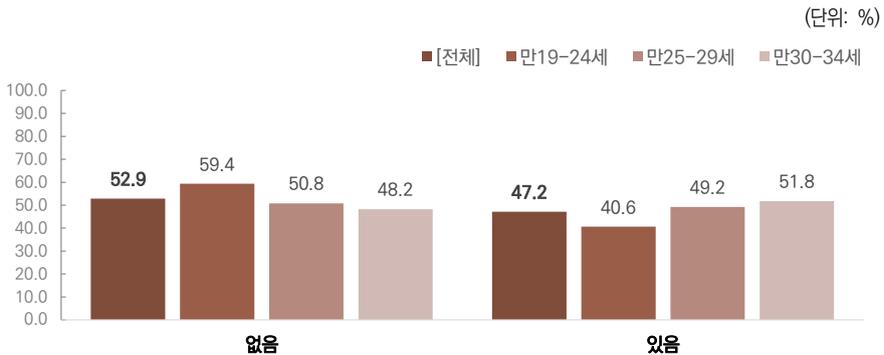


그림 V-8.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표 V-16.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있음	χ^2
전체	(4,000)	52.9	47.2	36.705***
만19~24세	(1,356)	59.4	40.6	
만25~29세	(1,321)	50.8	49.2	
만30~34세	(1,323)	48.2	51.8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62.8%),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미만(60.6%)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7.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있음	χ^2
전체		(4,000)	52.9	47.2	
성별	남성	(1,984)	57.8	42.2	38.903***
	여성	(2,016)	48.0	52.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60.3	39.7	14.654***
	대학교(재/졸)	(3,370)	52.1	47.9	
	대학원(졸)	(154)	45.5	54.5	
취업 여부	취업	(2,047)	43.3	56.7	152.429***
	미취업	(1,953)	62.8	37.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2.3	57.7	163.001***
	시간제 근로	(164)	55.5	44.5	
	미취업	(1,953)	62.8	37.2	
지역	수도권	(2,234)	52.3	47.7	2.519
	충청권	(409)	50.9	49.1	
	전라권	(348)	55.5	44.5	
	경상권	(869)	53.6	46.4	
	강원/제주권	(140)	55.7	4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1.9	48.1	2.595
	중소도시	(1,426)	54.6	45.4	
	읍면	(268)	51.9	48.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3.5	46.5	0.645
	비빈곤층	(2,128)	52.3	47.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44.4	55.6	105.057***
	중위소득 미만	(2,082)	60.6	39.4	

* $p < .05$, ** $p < .01$, *** $p < .001$.

(9)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53,909원, 중위값 100,00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지출 의료비'가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17,679원, 만25~29세: 329,359원, 만30~34세: 415,55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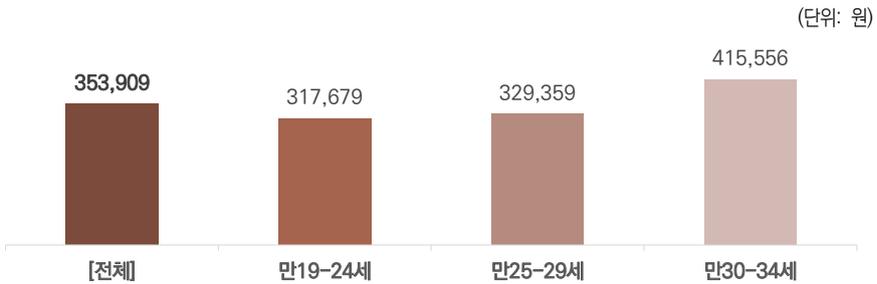


그림 V-9.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표 V-18.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F (유의도)
전체	(4,000)	0	353,909	100,000	10,000,000	5.080**
만19~24세	(1,356)	0	317,679	60,000	10,000,000	
만25~29세	(1,321)	0	329,359	100,000	7,000,000	
만30~34세	(1,323)	0	415,556	100,000	10,000,000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취업여부별로 전일제 근로자(436,793원),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423,736원) 집단에서 '평균 지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9.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 (배경변인별)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4,000)	0	353,909	100,000	10,000,000	
성별	남성	(1,984)	0	306,594	88,500	10,000,000	-3.434***
	여성	(2,016)	0	400,473	100,000	10,000,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0	296,094	80,000	7,000,000	2.553
	대학교(재/졸)	(3,370)	0	356,600	100,000	10,000,000	
	대학원(졸)	(154)	0	473,730	200,000	5,000,000	
취업 여부	취업	(2,047)	0	429,134	120,000	10,000,000	5.676***
	미취업	(1,953)	0	275,063	50,000	10,000,0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0	436,793	150,000	10,000,000	16.869***
	시간제 근로	(164)	0	341,201	100,000	5,000,000	
	미취업	(1,953)	0	275,063	50,000	10,000,000	
지역	수도권	(2,234)	0	404,551	100,000	10,000,000	4.787***
	충청권	(409)	0	309,529	100,000	10,000,000	
	전라권	(348)	0	305,286	65,000	10,000,000	
	경상권	(869)	0	288,603	100,000	10,000,000	
	강원/제주권	(140)	0	201,694	80,000	3,000,0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0	375,791	100,000	10,000,000	1.746
	중소도시	(1,426)	0	323,044	100,000	10,000,000	
	읍면	(268)	0	329,851	80,000	10,000,00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0	404,092	100,000	10,000,000	3.388***
	비빈곤층	(2,128)	0	309,763	100,000	10,000,0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0	423,736	130,000	10,000,000	4.872***
	중위소득 미만	(2,082)	0	289,582	50,000	10,000,000	

* $p < .05$, ** $p < .01$, *** $p < .001$.

(10)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 이하'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약 6 ~ 10%'(18.2%), '의료비 지출 전혀 없음'(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전혀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18.4%, 만25~29세: 11.8%, 만30~34세: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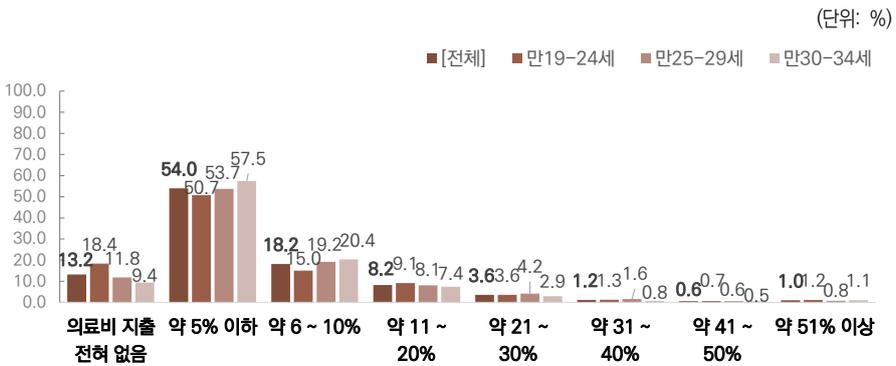


그림 V-10.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표 V-20.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음	약5% 이하	약6~10%	약11~20%	약21~30%	약31~40%	약41~50%	약51% 이상	χ^2
전체	(4,000)	13.2	54.0	18.2	8.2	3.6	1.2	0.6	1.0	71.955***
만19~24세	(1,356)	18.4	50.7	15.0	9.1	3.6	1.3	0.7	1.2	
만25~29세	(1,321)	11.8	53.7	19.2	8.1	4.2	1.6	0.6	0.8	
만30~34세	(1,323)	9.4	57.5	20.4	7.4	2.9	0.8	0.5	1.1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19.7%),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19.8%) 집단에서 '의료비 지출 전혀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1. 최근 1년 동안 월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 비중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음	약5% 이하	약6~ 10%	약11~ 20%	약21~ 30%	약31~ 40%	약41~ 50%	약 51% 이상	χ^2
전체		(4,000)	13.2	54.0	18.2	8.2	3.6	1.2	0.6	1.0	
성별	남성	(1,984)	17.2	51.6	15.9	8.1	4.1	1.2	0.7	1.2	67.373***
	여성	(2,016)	9.3	56.3	20.4	8.3	3.0	1.2	0.5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9.7	48.3	16.6	6.9	5.3	1.1	1.3	0.8	47.901***
	대학교(재/졸)	(3,370)	12.7	54.7	18.2	8.5	3.3	1.2	0.5	0.9	
	대학원(졸)	(154)	4.5	55.2	22.1	7.1	5.2	2.6	0.6	2.6	
취업 여부	취업	(2,047)	6.9	58.5	20.8	8.2	3.2	1.4	0.5	0.5	169.923***
	미취업	(1,953)	19.8	49.2	15.5	8.3	4.0	1.0	0.7	1.5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9	58.5	20.9	8.3	3.1	1.4	0.5	0.4	174.523***
	시간제 근로	(164)	7.9	58.5	18.9	6.7	4.3	1.2	0.6	1.8	
	미취업	(1,953)	19.8	49.2	15.5	8.3	4.0	1.0	0.7	1.5	
지역	수도권	(2,234)	11.3	53.4	19.7	8.7	4.1	1.3	0.6	0.9	48.013*
	충청권	(409)	11.7	55.3	16.9	10.3	3.4	0.7	0.7	1.0	
	전라권	(348)	15.8	55.5	15.2	7.5	2.6	0.9	0.6	2.0	
	경상권	(869)	17.1	53.7	16.5	6.9	3.0	1.4	0.6	0.8	
	강원/제주권	(140)	17.1	57.9	17.1	5.0	1.4	0.0	0.0	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2.2	51.4	19.1	9.4	4.4	1.5	0.7	1.3	57.666***
	중소도시	(1,426)	13.7	58.6	16.8	6.9	2.3	0.8	0.5	0.4	
	읍면	(268)	19.0	51.1	17.5	5.2	3.4	0.7	0.7	2.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2.3	47.4	21.2	10.4	4.6	1.6	1.0	1.5	100.714***
	비빈곤층	(2,128)	14.0	59.8	15.6	6.3	2.7	0.8	0.3	0.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9	58.6	20.4	7.8	3.5	1.0	0.4	0.3	128.066***
	중위소득 미만	(2,082)	18.1	49.7	16.1	8.6	3.6	1.3	0.8	1.7	

* $p < .05$, ** $p < .01$, *** $p < .001$.

(11)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됨' 응답은 40.0%로 나타났으며, '부담되지 않음' 응답은 30.9%로 나타났다.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부담됨' 응답이(40.8%)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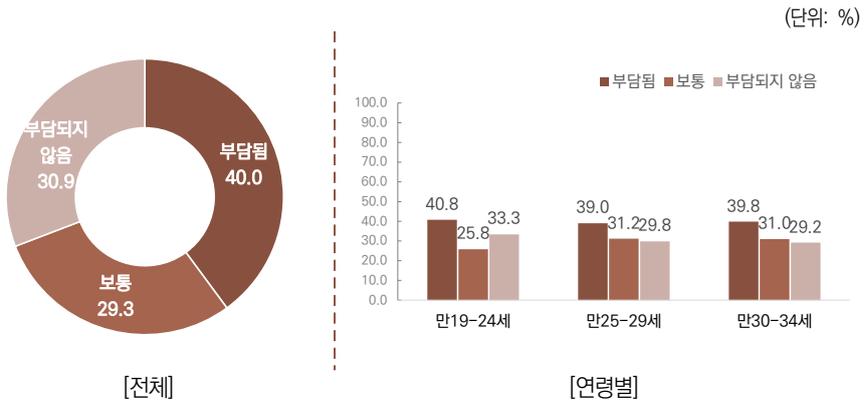


그림 V-11.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표 V-22.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보통임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χ^2
전체	(4,000)	9.2	30.8	29.3	22.1	8.8	30.951***
만19~24세	(1,356)	9.5	31.3	25.8	22.1	11.2	
만25~29세	(1,321)	10.2	28.8	31.2	22.6	7.2	
만30~34세	(1,323)	7.7	32.1	31.0	21.4	7.8	

* $p < .05$, ** $p < .01$, *** $p < .001$.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47.0%),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53.7%) 집단에서 ‘부담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3.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보통임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χ^2
전체		(4,000)	9.2	30.8	29.3	22.1	8.8	
성별	남성	(1,984)	8.8	27.5	29.8	23.2	10.7	34.606***
	여성	(2,016)	9.5	34.0	28.8	20.9	6.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4.7	30.7	27.7	20.0	6.9	27.400***
	대학교(재/졸)	(3,370)	8.4	30.5	29.6	22.6	8.9	
	대학원(졸)	(154)	8.4	36.4	26.6	16.9	11.7	
취업 여부	취업	(2,047)	7.1	30.9	31.6	22.8	7.6	33.072***
	미취업	(1,953)	11.3	30.6	26.9	21.3	9.9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7	30.6	31.5	23.3	7.9	44.453***
	시간제 근로	(164)	12.2	34.8	32.3	16.5	4.3	
	미취업	(1,953)	11.3	30.6	26.9	21.3	9.9	
지역	수도권	(2,234)	8.6	31.6	30.8	21.1	8.0	26.121
	충청권	(409)	9.0	31.3	27.4	21.5	10.8	
	전라권	(348)	10.3	25.9	30.7	22.4	10.6	
	경상권	(869)	9.7	29.3	27.2	24.3	9.6	
	강원/제주권	(140)	12.1	37.1	21.4	24.3	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9.6	31.2	29.7	21.1	8.3	19.042*
	중소도시	(1,426)	7.7	30.6	29.2	23.8	8.6	
	읍면	(268)	12.7	28.0	25.7	20.5	13.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5.1	38.6	27.2	14.3	4.9	367.126***
	비빈곤층	(2,128)	3.9	23.9	31.1	28.9	12.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1	30.9	30.7	22.9	8.4	20.282***
	중위소득 미만	(2,082)	11.0	30.6	28.0	21.3	9.1	

* $p < .05$, ** $p < .01$, *** $p < .001$.

(12)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음' 응답은 39.1%로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은 37.6%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7.2%, 만25~29세: 39.1%, 만30~34세: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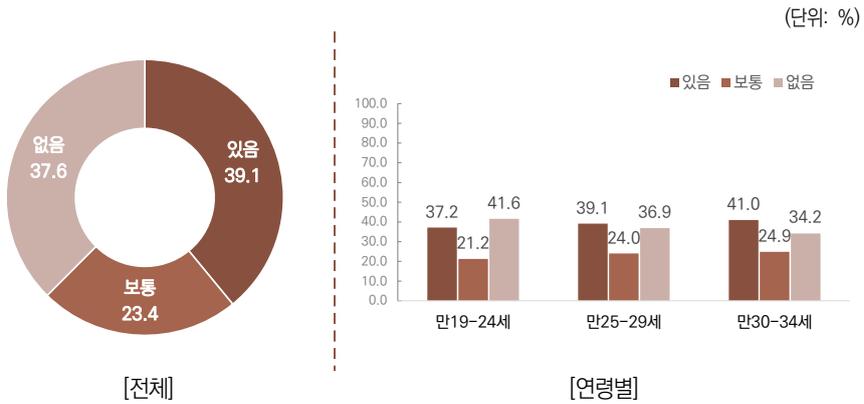


그림 V-12.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표 V-24.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7.0	32.1	23.4	26.2	11.4	47.057***
만19~24세	(1,356)	7.2	30.0	21.2	25.8	15.8	
만25~29세	(1,321)	5.9	33.2	24.0	27.3	9.5	
만30~34세	(1,323)	7.9	33.1	24.9	25.5	8.7	

* $p < .05$, ** $p < .01$, *** $p < .001$.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46.9%),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48.2%) 집단에서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5.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7.0	32.1	23.4	26.2	11.4	
성별	남성	(1,984)	6.4	28.4	26.8	24.7	13.7	60.304***
	여성	(2,016)	7.5	35.7	20.0	27.7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9.0	32.4	23.7	24.2	10.7	7.981
	대학교(재/졸)	(3,370)	6.7	31.8	23.5	26.5	11.5	
	대학원(졸)	(154)	7.1	37.7	18.2	26.6	10.4	
취업 여부	취업	(2,047)	7.1	35.3	23.1	25.9	8.6	42.298***
	미취업	(1,953)	6.9	28.7	23.7	26.5	14.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1	34.9	22.9	26.6	8.6	47.386***
	시간제 근로	(164)	6.7	40.2	25.0	18.9	9.1	
	미취업	(1,953)	6.9	28.7	23.7	26.5	14.3	
지역	수도권	(2,234)	7.1	33.1	22.8	26.6	10.3	16.190
	충청권	(409)	6.1	31.3	24.9	24.9	12.7	
	전라권	(348)	7.2	29.3	25.6	23.0	14.9	
	경상권	(869)	7.4	30.4	23.0	27.0	12.2	
	강원/제주권	(140)	4.3	35.7	24.3	25.7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2	33.0	24.2	25.3	10.3	17.042*
	중소도시	(1,426)	6.6	31.2	22.4	27.7	12.1	
	읍면	(268)	6.7	28.7	21.3	26.1	17.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9.8	38.4	25.3	19.9	6.6	212.224***
	비빈곤층	(2,128)	4.5	26.6	21.7	31.7	15.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4	34.7	22.3	27.1	8.6	37.223***
	중위소득 미만	(2,082)	6.6	29.7	24.3	25.4	14.0	

* $p < .05$, ** $p < .01$, *** $p < .001$.

(13) 우울증 증상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증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 상태' 응답은 42.2%로 나타났으며, '우울 상태 전체' 응답은 57.8%로 나타났다.⁶²⁾

우울증 증상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우울 상태 전체' 응답이(59.5%)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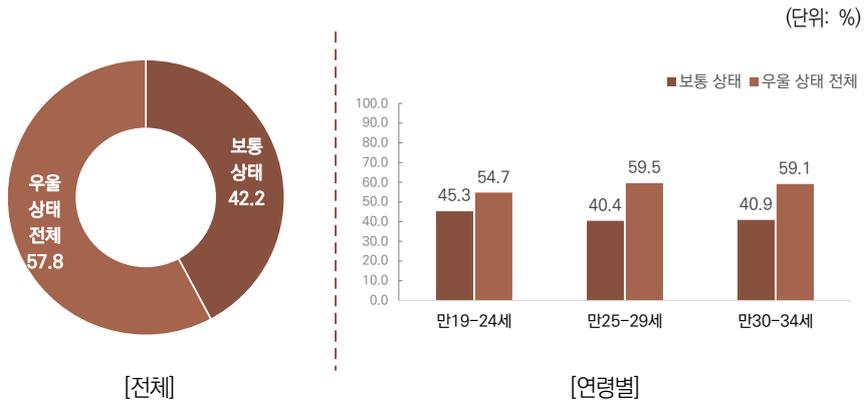


그림 V-13. 우울증 증상 실태

표 V-26. 우울증 증상 실태

구분	사례수 [명]	보통 상태	가벼운 우울 상태	중간 우울 상태	심한 우울 상태	χ^2
전체	(4,000)	42.2	27.0	26.2	4.6	
만19~24세	(1,356)	45.3	26.6	23.2	4.9	
만25~29세	(1,321)	40.4	25.4	29.6	4.5	
만30~34세	(1,323)	40.9	29.0	25.9	4.2	

* $p < .05$, ** $p < .01$, *** $p < .001$.

62) 우울증 증상 실태 점수 구분: 9개 문항에 대한 0~3점 사이의 점수 총합 (4점 이하: 보통 상태, 5~9점: 가벼운 우울 상태, 10~19점: 중간 우울 상태, 20점 이상: 심한 우울 상태)

우울증 증상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68.3%),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72.0%) 집단에서 ‘우울 상태 전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7. 우울증 증상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보통 상태	가벼운 우울 상태	중간 우울 상태	심한 우울 상태	χ^2
전체		(4,000)	42.2	27.0	26.2	4.6	
성별	남성	(1,984)	46.7	22.4	26.0	4.9	50.261***
	여성	(2,016)	37.8	31.5	26.4	4.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1.7	26.7	30.7	10.9	69.531***
	대학교(재/졸)	(3,370)	43.9	27.0	25.4	3.6	
	대학원(졸)	(154)	37.0	29.2	29.2	4.5	
취업 여부	취업	(2,047)	42.0	27.5	27.2	3.3	15.777**
	미취업	(1,953)	42.4	26.5	25.2	5.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2.8	27.1	27.0	3.0	25.071***
	시간제 근로	(164)	32.9	31.7	28.7	6.7	
	미취업	(1,953)	42.4	26.5	25.2	5.8	
지역	수도권	(2,234)	42.5	26.1	26.9	4.6	14.563
	충청권	(409)	40.6	25.2	28.9	5.4	
	전라권	(348)	39.4	29.0	28.4	3.2	
	경상권	(869)	43.6	29.5	22.4	4.5	
	강원/제주권	(140)	40.7	27.9	25.7	5.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42.7	25.6	26.8	4.9	9.791
	중소도시	(1,426)	41.8	29.5	24.8	3.9	
	읍면	(268)	40.7	25.7	28.0	5.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8.0	27.8	36.3	7.9	394.347***
	비빈곤층	(2,128)	54.7	26.4	17.3	1.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41.8	27.7	27.1	3.4	11.739**
	중위소득 미만	(2,082)	42.6	26.4	25.4	5.6	

* $p < .05$, ** $p < .01$, *** $p < .001$.

(14)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음' 응답은 16.3%로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은 47.9%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3.1%, 만25~29세: 45.3%, 만30~34세: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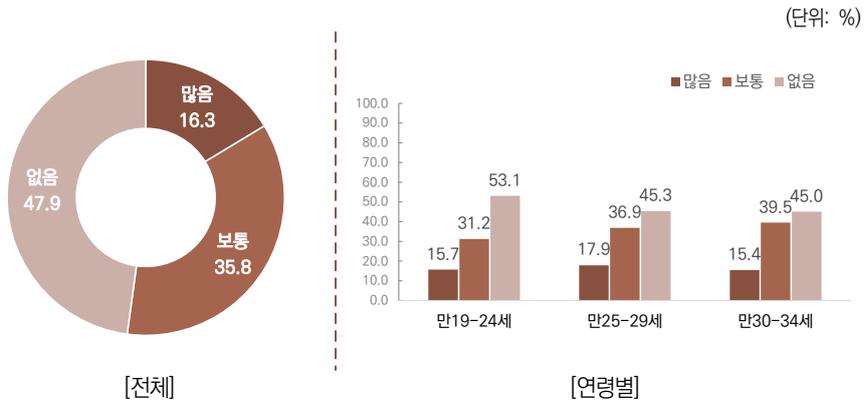


그림 V-14.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표 V-28.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많음	조금 많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1.8	14.5	35.8	30.7	17.2	53.756***
만19~24세	(1,356)	2.0	13.7	31.2	30.6	22.5	
만25~29세	(1,321)	2.2	15.7	36.9	30.6	14.7	
만30~34세	(1,323)	1.2	14.2	39.5	30.9	14.1	

* $p < .05$, ** $p < .01$, *** $p < .001$.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58.2%),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57.0%)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9. 우울 증상이 있는 주변 사람들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많음	조금 많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1.8	14.5	35.8	30.7	17.2	
성별	남성	(1,984)	1.4	10.7	33.5	32.3	22.1	108.945***
	여성	(2,016)	2.2	18.3	38.1	29.2	12.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6	16.0	36.3	24.2	20.0	26.706***
	대학교(재/졸)	(3,370)	1.5	14.3	35.9	31.3	17.0	
	대학원(졸)	(154)	3.2	14.9	32.5	37.0	12.3	
취업 여부	취업	(2,047)	1.6	15.3	38.5	31.2	13.3	48.221***
	미취업	(1,953)	2.0	13.7	33.0	30.2	21.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5	15.1	38.7	31.7	13.1	53.165***
	시간제 근로	(164)	3.0	17.7	37.2	26.2	15.9	
	미취업	(1,953)	2.0	13.7	33.0	30.2	21.2	
지역	수도권	(2,234)	1.7	15.4	37.1	30.5	15.4	30.113*
	충청권	(409)	2.2	17.4	31.8	31.3	17.4	
	전라권	(348)	2.3	13.5	38.5	26.4	19.3	
	경상권	(869)	1.5	12.4	33.5	32.5	20.1	
	강원/제주권	(140)	2.1	8.6	35.7	32.1	2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2	15.4	36.6	30.1	15.7	26.287***
	중소도시	(1,426)	1.3	13.7	35.8	31.3	17.9	
	읍면	(268)	1.5	11.2	29.1	32.8	25.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9	19.6	40.1	26.2	11.2	197.414***
	비빈곤층	(2,128)	0.8	10.1	32.0	34.6	22.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6	15.8	37.6	31.1	13.9	30.583***
	중위소득 미만	(2,082)	2.0	13.4	34.2	30.4	20.1	

* $p < .05$, ** $p < .01$, *** $p < .001$.

(15) 자살생각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살생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응답은 62.9%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전체’ 응답은 37.1%로 나타났다.⁶³⁾

자살생각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4.2%, 만25~29세: 61.6%, 만30~34세: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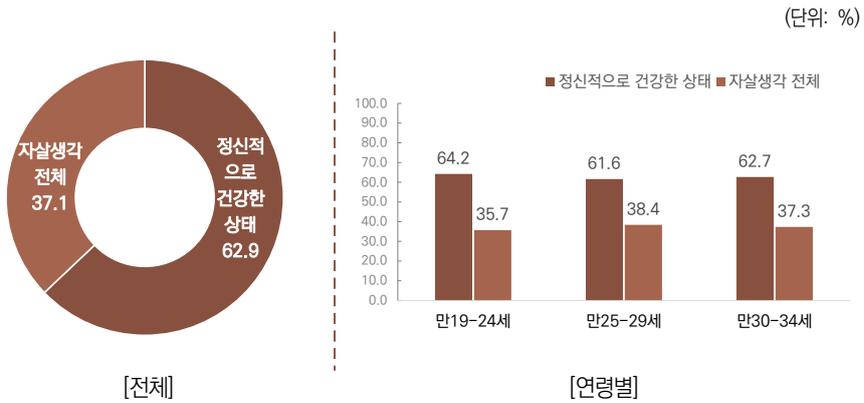


그림 V-15. 자살생각 실태

표 V-30. 자살생각 실태

구분	사례수 [명]	정신적으로 정상이며 건강한 상태	자살생각이 있는 편이며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 있는 상태	자살생각이 위험 정도이고 실제 자살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며, 심도있는 상담이 요망되는 상태	χ^2
전체	(4,000)	62.9	25.7	11.4	2.513
만19~24세	(1,356)	64.2	24.6	11.1	
만25~29세	(1,321)	61.6	26.3	12.1	
만30~34세	(1,323)	62.7	26.3	11.0	

* $p < .05$, ** $p < .01$, *** $p < .001$.

63) 자살생각 실태 점수 구분: 15개 문항에 대한 1~3점 사이의 점수 총합 (20점 이하: 정신적으로 정상이며 건강한 상태, 21~30점: 자살생각이 있는 편이며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 있는 상태, 31점 이상: 자살생각이 위험 정도이고 실제 자살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며, 심도있는 상담이 요망되는 상태)

자살생각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 식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49.7%),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49.7%) 집단에서 ‘자살생각 전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1. 자살생각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신적으로 정상이며 건강한 상태	자살생각이 있는 편이며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 있는 상태	자살생각이 위험 정도 이고 실제 자살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며, 심도있는 상 담이 요망되는 상태	χ^2
전체		(4,000)	62.9	25.7	11.4	
성별	남성	(1,984)	64.5	24.2	11.3	5.054
	여성	(2,016)	61.3	27.2	11.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0.2	30.0	19.7	58.959***
	대학교(재/졸)	(3,370)	64.7	25.3	10.0	
	대학원(졸)	(154)	61.0	21.4	17.5	
취업 여부	취업	(2,047)	63.7	25.3	11.1	1.202
	미취업	(1,953)	62.0	26.2	11.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4.1	25.1	10.8	4.077
	시간제 근로	(164)	58.5	26.8	14.6	
	미취업	(1,953)	62.0	26.2	11.8	
지역	수도권	(2,234)	62.7	25.5	11.8	19.060*
	충청권	(409)	65.0	20.5	14.4	
	전라권	(348)	58.3	29.3	12.4	
	경상권	(869)	62.9	27.5	9.6	
	강원/제주권	(140)	69.3	24.3	6.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1.4	26.2	12.4	7.898
	중소도시	(1,426)	65.1	24.6	10.2	
	읍면	(268)	63.4	27.2	9.3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0.2	31.8	17.9	271.584***
	비빈곤층	(2,128)	74.0	20.3	5.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4.1	24.6	11.3	2.954
	중위소득 미만	(2,082)	61.7	26.8	11.5	

* $p < .05$, ** $p < .01$, *** $p < .001$.

(16)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음' 응답은 4.6%로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은 77.3%로 나타났다.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78.1%)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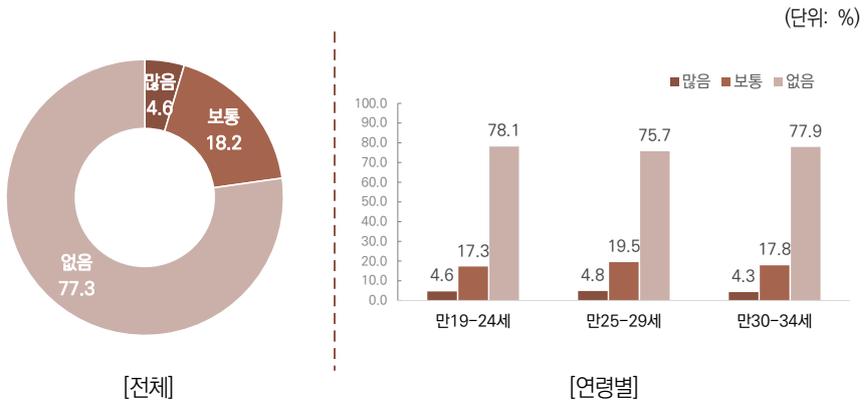


그림 V-16.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표 V-32.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많음	조금 많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0.5	4.1	18.2	29.6	47.7	25.129**
만19~24세	(1,356)	0.4	4.2	17.3	26.2	51.9	
만25~29세	(1,321)	0.4	4.5	19.5	29.1	46.6	
만30~34세	(1,323)	0.7	3.6	17.8	33.5	44.4	

* $p < .05$, ** $p < .01$, *** $p < .001$.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81.7%),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84.6%)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3. 자살 행동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많음	조금 많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0.5	4.1	18.2	29.6	47.7	
성별	남성	(1,984)	0.6	4.0	18.6	26.9	49.9	13.998**
	여성	(2,016)	0.4	4.2	17.8	32.1	4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0.8	4.6	20.4	26.9	47.3	12.763
	대학교(재/졸)	(3,370)	0.4	4.0	18.0	29.8	47.8	
	대학원(졸)	(154)	1.9	3.9	15.6	33.1	45.5	
취업 여부	취업	(2,047)	0.4	4.4	18.7	31.8	44.7	16.748**
	미취업	(1,953)	0.6	3.7	17.7	27.2	50.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0.4	4.5	17.8	32.2	45.0	30.231***
	시간제 근로	(164)	1.2	3.7	28.0	26.2	40.9	
	미취업	(1,953)	0.6	3.7	17.7	27.2	50.8	
지역	수도권	(2,234)	0.5	4.2	19.0	30.8	45.5	24.099
	충청권	(409)	0.5	4.2	15.6	27.6	52.1	
	전라권	(348)	0.3	4.3	22.7	28.2	44.5	
	경상권	(869)	0.5	3.9	15.3	28.9	51.4	
	강원/제주권	(140)	0.7	2.9	19.3	22.9	5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0.6	4.9	19.8	30.7	44.1	37.330***
	중소도시	(1,426)	0.4	3.2	16.0	28.5	51.8	
	읍면	(268)	0.0	2.2	16.0	25.0	56.7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0.9	6.5	23.7	30.7	38.2	189.160***
	비빈곤층	(2,128)	0.1	2.0	13.3	28.6	56.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0.3	4.7	17.4	32.0	45.7	17.421**
	중위소득 미만	(2,082)	0.7	3.6	18.9	27.3	49.5	

* $p < .05$, ** $p < .01$, *** $p < .001$.

2) 건강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1)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5.8%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74.2%로 나타났다.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모름’ 응답이(76.6%)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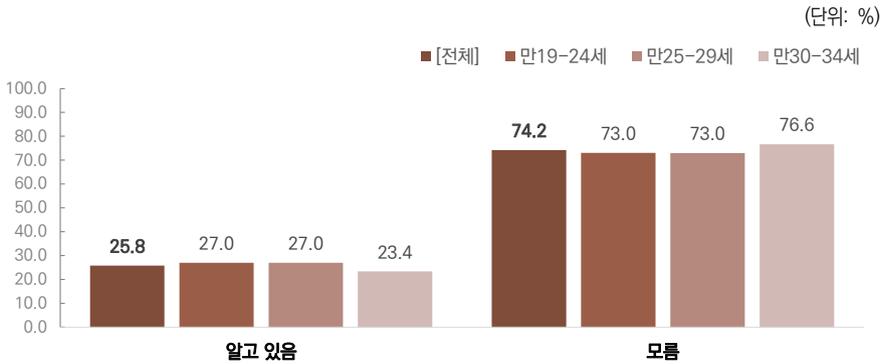


그림 V-17.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표 V-34.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음	모름	χ^2
전체	(4,000)	25.8	74.2	6.168*
만19~24세	(1,356)	27.0	73.0	
만25~29세	(1,321)	27.0	73.0	
만30~34세	(1,323)	23.4	76.6	

* $p < .05$, ** $p < .01$, *** $p < .001$.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80.0%) 집단에서 '모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5.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음	모름	χ^2
전체		(4,000)	25.8	74.2	
성별	남성	(1,984)	29.3	70.7	25.691***
	여성	(2,016)	22.3	77.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20.0	80.0	9.782**
	대학교(재/졸)	(3,370)	26.5	73.5	
	대학원(졸)	(154)	27.9	72.1	
취업 여부	취업	(2,047)	28.9	71.1	20.661***
	미취업	(1,953)	22.6	77.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29.1	70.9	21.316***
	시간제 근로	(164)	26.2	73.8	
	미취업	(1,953)	22.6	77.4	
지역	수도권	(2,234)	26.0	74.0	2.950
	충청권	(409)	27.6	72.4	
	전라권	(348)	27.6	72.4	
	경상권	(869)	23.9	76.1	
	강원/제주권	(140)	25.0	7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7.9	72.1	12.355**
	중소도시	(1,426)	22.9	77.1	
	읍면	(268)	23.1	76.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5.9	74.1	0.021
	비빈곤층	(2,128)	25.7	74.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28.3	71.7	11.635***
	중위소득 미만	(2,082)	23.5	76.5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급함' 응답은 66.9%로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음'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시급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9.3%, 만25~29세: 67.3%, 만30~34세: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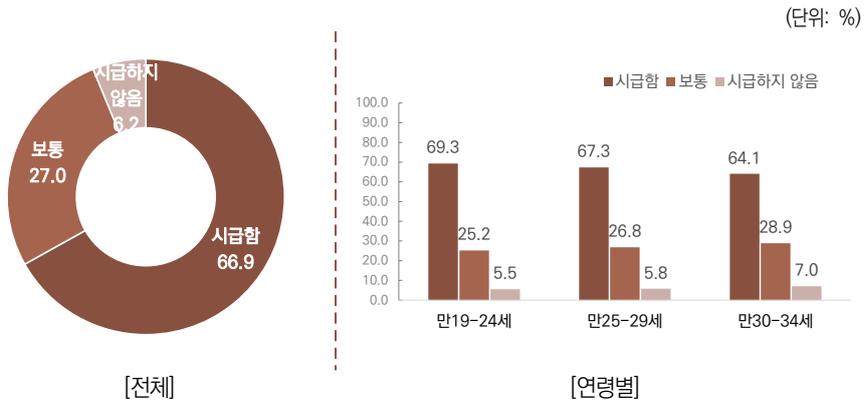


그림 V-18.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표 V-36.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시급한 사안	조금 시급한 사안	보통임	별로 시급한 사안 아님	전혀 시급한 사안 아님	χ^2
전체	(4,000)	24.9	42.0	27.0	4.9	1.3	23.006**
만19~24세	(1,356)	27.6	41.7	25.2	3.7	1.8	
만25~29세	(1,321)	24.5	42.8	26.8	4.9	0.9	
만30~34세	(1,323)	22.6	41.5	28.9	6.0	1.1	

* $p < .05$, ** $p < .01$, *** $p < .001$.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73.8%),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70.1%) 집단에서 '시급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7.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시급 한 사안	조금 시급 한 사안	보통임	별로 시급한 사안 아님	전혀 시급한 사안 아님	χ^2
전체		(4,000)	24.9	42.0	27.0	4.9	1.3	
성별	남성	(1,984)	21.6	38.3	32.0	6.2	1.9	92.875***
	여성	(2,016)	28.2	45.6	22.0	3.5	0.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0.5	34.0	29.0	4.6	1.9	33.596***
	대학교(재/졸)	(3,370)	24.3	43.2	26.8	4.6	1.2	
	대학원(졸)	(154)	22.1	40.9	24.0	11.7	1.3	
취업 여부	취업	(2,047)	22.4	43.0	27.8	5.7	1.0	21.240***
	미취업	(1,953)	27.5	40.9	26.1	3.9	1.5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22.0	43.6	27.6	5.7	1.1	25.355**
	시간제 근로	(164)	27.4	36.6	29.9	5.5	0.6	
	미취업	(1,953)	27.5	40.9	26.1	3.9	1.5	
지역	수도권	(2,234)	23.5	42.3	27.6	5.2	1.3	13.237
	충청권	(409)	28.4	41.1	24.2	5.6	0.7	
	전라권	(348)	24.7	43.1	26.7	3.7	1.7	
	경상권	(869)	27.0	41.3	26.6	4.0	1.0	
	강원/제주권	(140)	25.0	40.7	27.1	5.0	2.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3.4	41.7	27.9	5.7	1.3	17.128*
	중소도시	(1,426)	26.6	42.6	25.7	3.9	1.1	
	읍면	(268)	29.1	41.0	25.0	3.0	1.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7.4	40.1	26.9	4.5	1.2	12.468*
	비빈곤층	(2,128)	22.8	43.7	27.0	5.2	1.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23.7	43.0	26.5	5.5	1.3	6.827
	중위소득 미만	(2,082)	26.0	41.1	27.4	4.2	1.3	

* $p < .05$, ** $p < .01$, *** $p < .001$.

(3) 건강 지원 정책에 관한 인지도 및 수혜여부

가.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4.3%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65.7%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46.1%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5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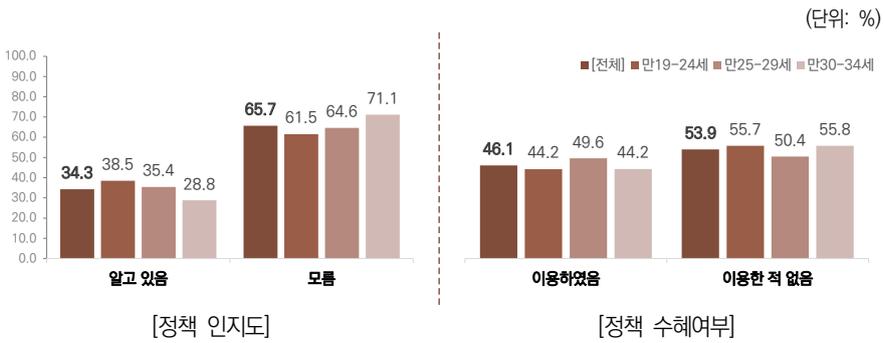


그림 V-19.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표 V-38.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7.6	26.7	65.7	34.565 ***	9.7	36.4	53.9	4.737	
만19~24세	(1,356)	9.8	28.7	61.5		10.3	33.9	55.7		
만25~29세	(1,321)	7.1	28.3	64.6		9.6	40.0	50.4		
만30~34세	(1,323)	5.7	23.1	71.1		8.9	35.3	55.8		

* $p < .05$, ** $p < .01$, *** $p < .001$.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x^2	매우 많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 한 적 없음	x^2
전체	(4,000)	7.6	26.7	65.7		9.7	36.4	53.9	
성별	남성 (1,984)	7.8	27.4	64.8	1.524	8.6	38.3	53.1	3.528
	여성 (2,016)	7.3	26.0	66.6		10.8	34.3	54.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0	23.9	71.0	12.061*	5.1	34.1	60.9	5.752
	대학교(재/졸) (3,370)	7.8	27.4	64.8		10.3	36.4	53.3	
	대학원(졸) (154)	9.7	20.8	69.5		8.5	42.6	48.9	
취업 여부	취업 (2,047)	6.9	26.2	66.9	3.597	10.2	37.8	52.1	1.902
	미취업 (1,953)	8.2	27.3	64.5		9.2	35.0	55.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0	25.8	67.2	5.295	10.2	37.3	52.5	2.601
	시간제 근로 (164)	6.7	30.5	62.8		9.8	42.6	47.5	
	미취업 (1,953)	8.2	27.3	64.5		9.2	35.0	55.8	
지역	수도권 (2,234)	7.5	27.6	64.9	7.980	9.1	36.4	54.6	5.697
	충청권 (409)	6.6	25.7	67.7		10.6	39.4	50.0	
	전라권 (348)	7.8	28.2	64.1		11.2	36.8	52.0	
	경상권 (869)	8.5	23.9	67.5		11.3	35.8	52.8	
	강원/제주권 (140)	5.0	30.0	65.0		4.1	30.6	65.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8.5	27.6	63.8	14.824**	10.7	36.9	52.4	3.270
	중소도시 (1,426)	5.8	25.9	68.4		8.2	35.7	56.1	
	읍면 (268)	9.0	23.5	67.5		8.0	34.5	57.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2	26.4	66.3	0.942	11.3	39.2	49.5	9.765**
	비빈곤층 (2,128)	7.9	27.0	65.1		8.4	34.0	57.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1	25.6	67.3	4.341	9.7	37.5	52.8	0.673
	중위소득 미만 (2,082)	8.0	27.8	64.2		9.7	35.4	54.9	

* $p < .05$, ** $p < .01$, *** $p < .001$.

나.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8.2%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71.8%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30.2%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69.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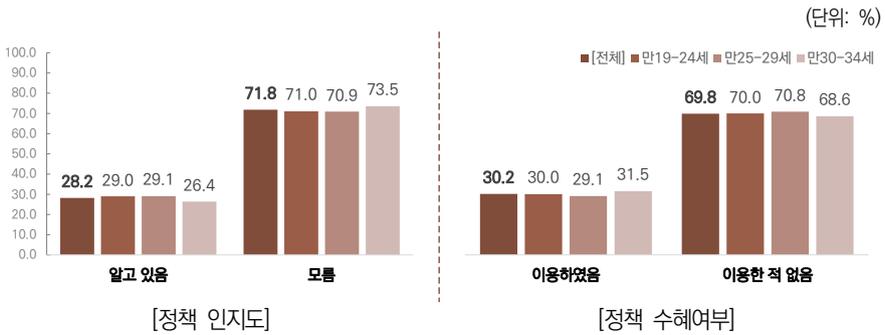


그림 V-20.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표 V-40.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5.0	23.2	71.8	3.437	6.3	23.9	69.8	4.109	
만19~24세	(1,356)	4.9	24.1	71.0		7.6	22.4	70.0		
만25~29세	(1,321)	5.5	23.6	70.9		4.4	24.7	70.8		
만30~34세	(1,323)	4.6	21.8	73.5		6.9	24.6	68.6		

* $p < .05$, ** $p < .01$, *** $p < .001$.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41.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이 이용하였 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5.0	23.2	71.8		6.3	23.9	69.8		
성별	남성 (1,984)	6.0	23.6	70.4	9.779**	9.0	30.4	60.5	51.815***	
	여성 (2,016)	4.0	22.8	73.3		3.3	16.7	8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3	22.7	72.1	0.201	8.3	24.8	66.9	4.333	
	대학교(재/졸) (3,370)	5.0	23.3	71.8		5.9	23.3	70.8		
	대학원(졸) (154)	4.5	23.4	72.1		9.3	32.6	58.1		
취업 여부	취업 (2,047)	5.6	25.5	68.9	18.108***	6.1	27.0	66.9	7.930*	
	미취업 (1,953)	4.3	20.8	74.9		6.5	19.8	73.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5.7	25.4	68.9	18.344**	5.8	26.8	67.4	9.553*	
	시간제 근로 (164)	4.9	26.2	68.9		9.8	29.4	60.8		
	미취업 (1,953)	4.3	20.8	74.9		6.5	19.8	73.7		
지역	수도권 (2,234)	5.3	22.5	72.2	3.902	5.6	25.6	68.8	8.901	
	충청권 (409)	4.6	23.0	72.4		8.0	16.8	75.2		
	전라권 (348)	4.6	26.4	69.0		7.4	29.6	63.0		
	경상권 (869)	4.7	23.6	71.7		6.5	21.1	72.4		
	강원/제주권 (140)	3.6	24.3	72.1		7.7	17.9	74.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5	23.7	70.9	6.858	6.7	27.5	65.8	16.390**	
	중소도시 (1,426)	3.9	22.4	73.6		5.6	17.0	77.4		
	읍면 (268)	6.3	23.1	70.5		6.3	25.3	68.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7	23.0	71.3	4.085	7.8	27.3	64.9	12.486**	
	비빈곤층 (2,128)	4.3	23.4	72.3		4.9	20.7	74.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5.8	24.7	69.4	12.072**	6.5	25.3	68.3	1.482	
	중위소득 미만 (2,082)	4.2	21.8	74.0		6.1	22.4	71.5		

* $p < .05$, ** $p < .01$, *** $p < .001$.

다.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4.6%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65.4%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27.2%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7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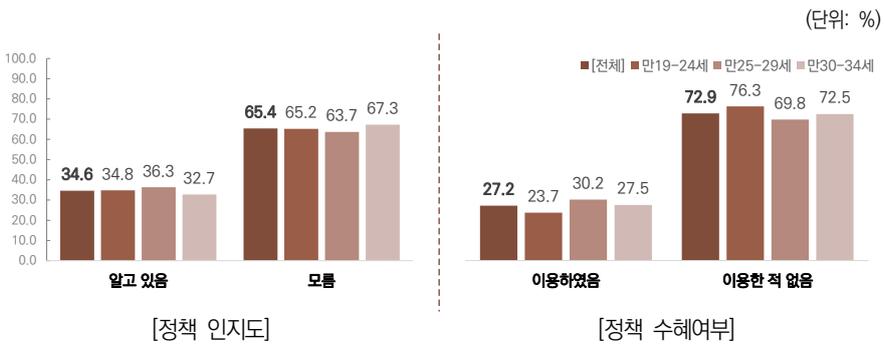


그림 V-21.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표 V-42.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7	27.9	65.4	6.488	7.1	20.1	72.9	8.588		
만19~24세	(1,356)	5.9	28.9	65.2		7.6	16.1	76.3			
만25~29세	(1,321)	7.5	28.8	63.7		7.7	22.5	69.8			
만30~34세	(1,323)	6.7	26.0	67.3		5.8	21.7	72.5			

* $p < .05$, ** $p < .01$, *** $p < .001$.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 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취업여부, 근무유형,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43.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χ^2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χ^2
전체	(4,000)	6.7	27.9	65.4		7.1	20.1	72.9	
성별	남성 (1,984)	7.1	24.9	68.0	17.943***	10.3	29.0	60.7	86.934***
	여성 (2,016)	6.3	30.9	62.7		4.4	12.5	83.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6.3	26.3	67.4	1.403	9.0	22.6	68.4	4.732
	대학교(재/졸) (3,370)	6.7	28.2	65.0		6.6	19.6	73.8	
	대학원(졸) (154)	7.1	26.0	66.9		11.8	23.5	64.7	
취업 여부	취업 (2,047)	7.7	28.9	63.5	9.585**	7.2	22.3	70.5	5.447
	미취업 (1,953)	5.7	26.9	67.4		6.9	17.4	75.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5	29.0	63.5	10.296*	7.0	21.8	71.2	8.024
	시간제 근로 (164)	9.1	27.4	63.4		10.0	28.3	61.7	
	미취업 (1,953)	5.7	26.9	67.4		6.9	17.4	75.7	
지역	수도권 (2,234)	7.2	28.3	64.5	6.404	7.1	20.6	72.4	7.923
	충청권 (409)	7.3	27.1	65.5		8.5	17.0	74.5	
	전라권 (348)	4.6	29.6	65.8		6.7	25.2	68.1	
	경상권 (869)	6.2	27.2	66.6		7.2	16.9	75.9	
	강원/제주권 (140)	5.0	25.0	70.0		2.4	28.6	69.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3	29.4	63.3	11.671*	8.3	20.9	70.8	9.853*
	중소도시 (1,426)	6.0	25.8	68.2		4.6	17.8	77.5	
주관적 빈곤의식	읍면 (268)	4.9	26.5	68.7	5.058	8.3	23.8	67.9	19.835***
	빈곤층 (1,872)	7.6	28.3	64.2		8.5	24.1	67.4	
1인가구 중위소득	비빈곤층 (2,128)	5.9	27.6	66.4	5.525	5.7	16.2	78.0	2.446
	중위소득 이상 (1,918)	7.7	27.8	64.5		6.3	21.5	72.2	
	중위소득 미만 (2,082)	5.8	28.0	66.1		7.8	18.7	73.5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3.5%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76.6%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34.7%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6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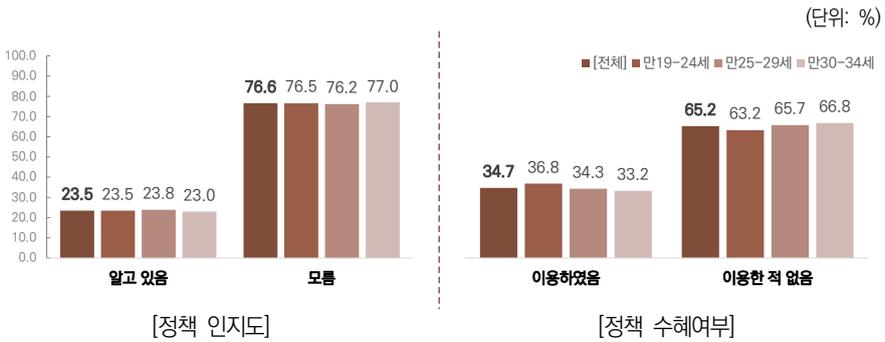


그림 V-22.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표 V-4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4.6	18.9	76.6	2.695	8.6	26.1	65.2	5.677
만19~24세	(1,356)	5.2	18.3	76.5		11.6	25.2	63.2	
만25~29세	(1,321)	4.5	19.3	76.2		7.6	26.7	65.7	
만30~34세	(1,323)	3.9	19.0	77.0		6.6	26.6	66.8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4.6	18.9	76.6		8.6	26.1	65.2		
성별	남성 (1,984)	5.6	20.3	74.1	17.557***	11.3	30.0	58.8	22.781***	
	여성 (2,016)	3.5	17.5	79.0		5.4	21.5	73.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8	18.3	77.9	1.676	12.4	21.9	65.7	4.925	
	대학교(재/졸) (3,370)	4.7	18.9	76.4		8.2	26.2	65.6		
	대학원(졸) (154)	3.2	19.5	77.3		8.6	37.1	54.3		
취업 여부	취업 (2,047)	4.8	20.8	74.4	11.784**	8.2	27.4	64.4	1.160	
	미취업 (1,953)	4.2	16.8	78.9		9.2	24.5	66.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9	21.0	74.1	12.397*	8.2	26.5	65.3	4.304	
	시간제 근로 (164)	4.3	18.9	76.8		7.9	39.5	52.6		
	미취업 (1,953)	4.2	16.8	78.9		9.2	24.5	66.3		
지역	수도권 (2,234)	4.6	18.7	76.7	7.857	9.4	26.0	64.6	11.037	
	충청권 (409)	4.4	17.6	78.0		8.9	30.0	61.1		
	전라권 (348)	4.0	23.9	72.1		5.2	35.1	59.8		
	경상권 (869)	4.9	18.2	76.9		8.0	19.9	72.1		
	강원/제주권 (140)	2.9	17.9	79.3		10.3	31.0	58.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2	20.1	74.7	13.295**	9.2	27.7	63.0	7.949	
	중소도시 (1,426)	3.6	17.6	78.8		6.6	22.5	70.9		
	읍면 (268)	4.1	14.9	81.0		13.7	29.4	56.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0	19.2	75.7	2.269	9.3	30.6	60.1	10.583**	
	비빈곤층 (2,128)	4.1	18.6	77.3		8.1	21.9	7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4.7	20.5	74.8	6.743*	7.5	24.8	67.7	3.234	
	중위소득 미만 (2,082)	4.4	17.4	78.2		9.9	27.5	62.6		

* $p < .05$, ** $p < .01$, *** $p < .001$.

마.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7.0%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73.0%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28.8%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7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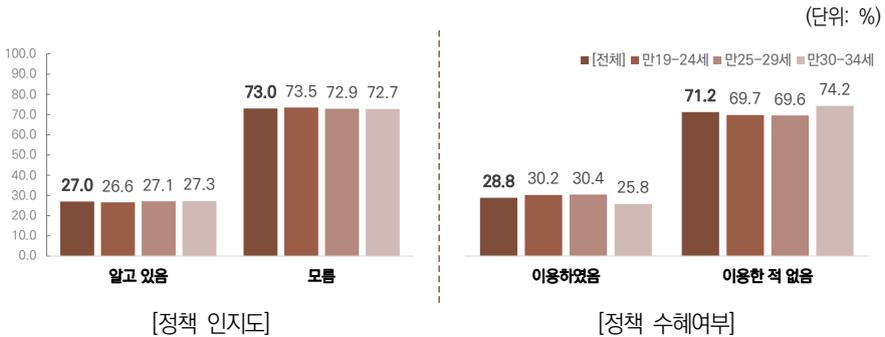


그림 V-23.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표 V-46.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5.6	21.4	73.0	9.314	6.6	22.2	71.2	2.557	
만19~24세	(1,356)	6.0	20.6	73.5		6.9	23.3	69.7		
만25~29세	(1,321)	6.5	20.6	72.9		6.7	23.7	69.6		
만30~34세	(1,323)	4.2	23.1	72.7		6.1	19.7	74.2		

* $p < .05$, ** $p < .01$, *** $p < .001$.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취업여부, 근무유형, 1인가구 중위소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7.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x ²	수혜여부			x ²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5.6	21.4	73.0		6.6	22.2	71.2		
성별	남성 (1,984)	6.4	21.5	72.1	5.264	9.4	30.7	59.9	71.004***	
	여성 (2,016)	4.8	21.3	73.9		3.6	13.3	83.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4.4	21.2	74.4	2.160	10.7	18.9	70.5	6.395	
	대학교(재/졸) (3,370)	5.8	21.3	72.9		6.2	22.3	71.4		
	대학원(졸) (154)	4.5	23.4	72.1		2.3	30.2	67.4		
취업 여부	취업 (2,047)	6.0	23.8	70.2	16.737***	7.2	22.0	70.8	0.952	
	미취업 (1,953)	5.2	18.9	75.9		5.7	22.6	71.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0	23.9	70.1	17.005**	7.1	21.1	71.8	4.651	
	시간제 근로 (164)	5.5	22.6	72.0		8.7	32.6	58.7		
	미취업 (1,953)	5.2	18.9	75.9		5.7	22.6	71.7		
지역	수도권 (2,234)	5.6	20.9	73.5	7.443	7.4	22.0	70.6	7.870	
	충청권 (409)	5.1	20.5	74.3		1.9	21.0	77.1		
	전라권 (348)	6.6	24.1	69.3		4.7	27.1	68.2		
	경상권 (869)	5.2	21.1	73.8		7.9	21.1	71.1		
	강원/제주권 (140)	7.1	27.1	65.7		4.2	22.9	7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0	21.2	72.7	4.067	8.9	24.2	66.9	19.443***	
	중소도시 (1,426)	5.0	22.2	72.8		3.1	19.1	77.8		
	읍면 (268)	4.5	18.7	76.9		4.8	22.6	72.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3	22.2	72.4	1.622	7.6	25.8	66.7	9.811**	
	비빈곤층 (2,128)	5.8	20.7	73.5		5.7	19.0	75.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5.9	23.1	70.9	8.430*	6.5	21.9	71.7	0.145	
	중위소득 미만 (2,082)	5.2	19.8	75.0		6.7	22.6	70.6		

*p < .05, **p < .01, ***p < .001.

바.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1.3%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68.7%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26.8%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7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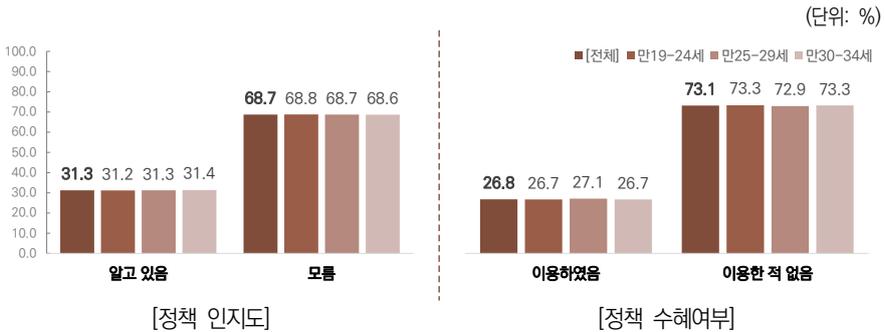


그림 V-24.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표 V-48.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5.6	25.7	68.7	4.858	7.4	19.4	73.1	5.001	
만19~24세	(1,356)	6.3	24.9	68.8		7.1	19.6	73.3		
만25~29세	(1,321)	5.9	25.4	68.7		9.4	17.7	72.9		
만30~34세	(1,323)	4.6	26.8	68.6		5.8	21.0	73.3		

* $p < .05$, ** $p < .01$, *** $p < .001$.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49.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5.6	25.7	68.7		7.4	19.4	73.1		
성별	남성 (1,984)	6.2	26.1	67.7	3.120	11.3	27.2	61.6	90.342***	
	여성 (2,016)	5.1	25.2	69.7		3.4	11.3	85.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4.2	23.1	72.7	6.156	10.0	18.5	71.5	3.085	
	대학교(재/졸) (3,370)	5.9	26.1	68.0		7.0	19.5	73.6		
	대학원(졸) (154)	4.5	22.7	72.7		11.9	21.4	66.7		
취업 여부	취업 (2,047)	5.7	28.7	65.6	20.955***	7.7	22.4	69.9	10.007**	
	미취업 (1,953)	5.5	22.5	72.0		7.1	15.5	77.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5.8	28.9	65.3	21.879***	7.7	21.6	70.8	14.286**	
	시간제 근로 (164)	4.9	26.2	68.9		7.8	33.3	58.8		
	미취업 (1,953)	5.5	22.5	72.0		7.1	15.5	77.3		
지역	수도권 (2,234)	5.1	25.9	68.9	4.321	7.5	20.6	71.9	10.442	
	충청권 (409)	6.1	23.2	70.7		6.7	15.0	78.3		
	전라권 (348)	5.7	27.3	67.0		6.1	26.1	67.8		
	경상권 (869)	6.6	25.5	67.9		9.0	15.8	75.3		
	강원/제주권 (140)	5.7	25.0	69.3		2.3	18.6	79.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1	27.4	66.5	13.308**	9.2	21.5	69.3	18.523***	
	중소도시 (1,426)	4.8	23.5	71.7		4.2	15.3	80.4		
	읍면 (268)	5.6	22.0	72.4		6.8	20.3	73.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7	26.3	68.0	0.921	9.2	23.9	66.9	22.467***	
	비빈곤층 (2,128)	5.6	25.0	69.4		5.8	15.3	78.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0	27.2	66.8	6.097*	7.5	20.0	72.5	0.296	
	중위소득 미만 (2,082)	5.3	24.3	70.5		7.3	18.9	73.8		

* $p < .05$, ** $p < .01$, *** $p < .001$.

(4) 건강 지원 정책에 관한 필요성 및 효과성

가.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83.1%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8.4%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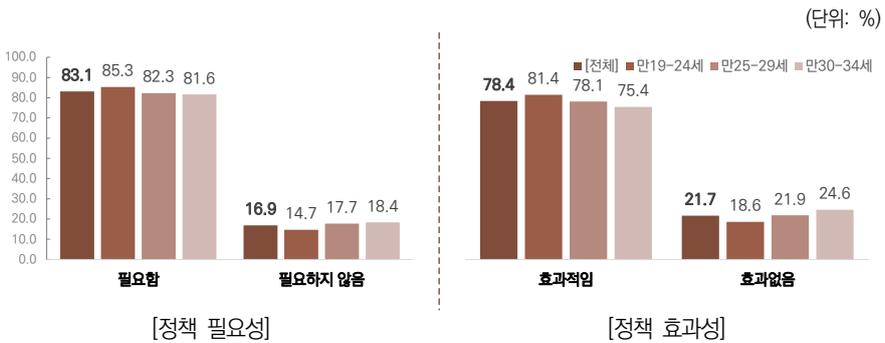


그림 V-25.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표 V-50.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3.1	16.9	35.979***	78.4	21.7	45.197***
만19~24세	(1,356)	85.3	14.7		81.4	18.6	
만25~29세	(1,321)	82.3	17.7		78.1	21.9	
만30~34세	(1,323)	81.6	18.4		75.4	24.6	

* $p < .05$, ** $p < .01$, *** $p < .001$.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51.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3.1	16.9		78.4	21.7	
성별	남성 (1,984)	77.6	22.4	101.804**	73.8	26.2	62.141***
	여성 (2,016)	88.5	11.5		82.8	17.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81.5	18.5	15.096*	76.9	23.1	27.972***
	대학교(재/졸) (3,370)	83.4	16.6		78.5	21.5	
	대학원(졸) (154)	80.5	19.5		79.2	20.8	
취업 여부	취업 (2,047)	81.3	18.7	20.714***	77.0	23.0	36.537***
	미취업 (1,953)	84.9	15.1		79.7	20.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1.4	18.6	33.614***	76.8	23.2	41.660***
	시간제 근로 (164)	81.1	18.9		79.9	20.1	
	미취업 (1,953)	84.9	15.1		79.7	20.3	
지역	수도권 (2,234)	82.2	17.8	14.109	77.4	22.6	9.658
	충청권 (409)	83.1	16.9		80.4	19.6	
	전라권 (348)	83.0	17.0		79.9	20.1	
	경상권 (869)	85.4	14.6		78.9	21.1	
	강원/제주권 (140)	83.6	16.4		79.3	20.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81.7	18.3	11.391	77.4	22.6	10.910
	중소도시 (1,426)	85.2	14.8		79.3	20.7	
	읍면 (268)	83.6	16.4		81.3	18.7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82.9	17.1	11.370**	77.2	22.8	5.289
	비빈곤층 (2,128)	83.3	16.7		79.4	20.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2.4	17.6	8.775*	77.8	22.2	21.102***
	중위소득 미만 (2,082)	83.7	16.3		78.8	21.2	

* $p < .05$, ** $p < .01$, *** $p < .001$.

나.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83.1%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7.5%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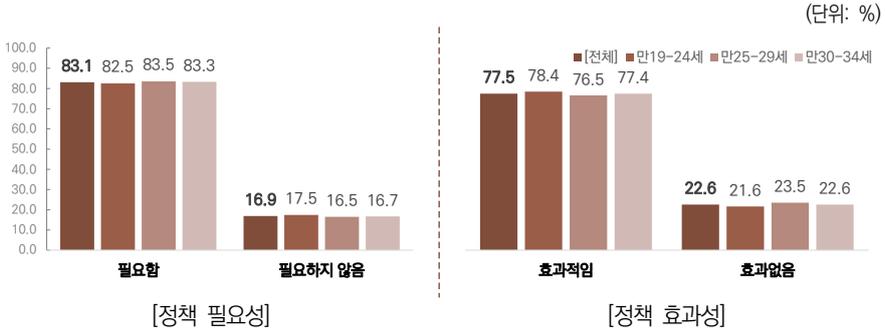


그림 V-26.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표 V-52.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3.1	16.9	6.078	77.5	22.6	24.683***
만19~24세	(1,356)	82.5	17.5		78.4	21.6	
만25~29세	(1,321)	83.5	16.5		76.5	23.5	
만30~34세	(1,323)	83.3	16.7		77.4	22.6	

* $p < .05$, ** $p < .01$, *** $p < .001$.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53.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3.1	16.9		77.5	22.6	
성별	남성 (1,984)	77.8	22.2	125.833***	72.6	27.4	66.590***
	여성 (2,016)	88.3	11.7		82.2	1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80.5	19.5	9.919	75.4	24.6	13.751*
	대학교(재/졸) (3,370)	83.5	16.5		77.8	22.2	
	대학원(졸) (154)	83.1	16.9		75.3	24.7	
취업 여부	취업 (2,047)	82.4	17.6	2.979	77.2	22.8	17.491***
	미취업 (1,953)	83.8	16.2		77.7	22.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2.5	17.5	6.060	77.4	22.6	19.712**
	시간제 근로 (164)	81.7	18.3		75.6	24.4	
	미취업 (1,953)	83.8	16.2		77.7	22.3	
지역	수도권 (2,234)	82.4	17.6	15.133	77.4	22.6	12.793
	충청권 (409)	83.9	16.1		78.7	21.3	
	전라권 (348)	84.5	15.5		79.6	20.4	
	경상권 (869)	83.3	16.7		76.3	23.7	
	강원/제주권 (140)	87.1	12.9		77.1	2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81.7	18.3	24.451***	75.9	24.1	14.938*
	중소도시 (1,426)	84.9	15.1		79.0	21.0	
	읍면 (268)	85.8	14.2		82.5	17.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83.1	16.9	0.187	75.9	24.1	5.934
	비빈곤층 (2,128)	83.1	16.9		78.9	21.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3.2	16.8	0.398	77.9	22.1	4.688
	중위소득 미만 (2,082)	83.0	17.0		77.0	23.0	

* $p < .05$, ** $p < .01$, *** $p < .001$.

다.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81.5%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7.0%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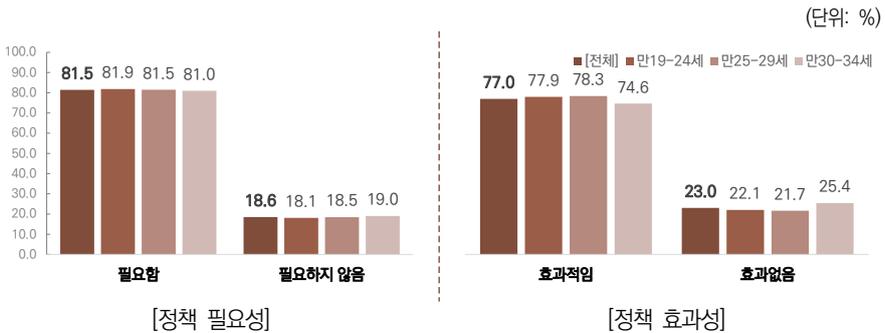


그림 V-27.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표 V-54.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1.5	18.6	8.229	77.0	23.0	26.615***
만19~24세	(1,356)	81.9	18.1		77.9	22.1	
만25~29세	(1,321)	81.5	18.5		78.3	21.7	
만30~34세	(1,323)	81.0	19.0		74.6	25.4	

* $p < .05$, ** $p < .01$, *** $p < .001$.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55.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1.5	18.6		77.0	23.0	
성별	남성 (1,984)	75.8	24.2	141.359***	72.7	27.3	63.127***
	여성 (2,016)	87.0	13.0		81.2	18.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8.2	21.8	14.714*	74.8	25.2	25.860***
	대학교(재/졸) (3,370)	82.1	17.9		77.5	22.5	
	대학원(졸) (154)	77.9	22.1		71.4	28.6	
취업 여부	취업 (2,047)	80.4	19.6	11.284*	75.9	24.1	17.303***
	미취업 (1,953)	82.6	17.4		78.1	21.9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0.6	19.4	17.319**	75.8	24.2	17.424**
	시간제 근로 (164)	77.4	22.6		76.8	23.2	
	미취업 (1,953)	82.6	17.4		78.1	21.9	
지역	수도권 (2,234)	80.8	19.2	11.996	76.2	23.8	23.145*
	충청권 (409)	82.4	17.6		80.2	19.8	
	전라권 (348)	83.6	16.4		81.3	18.7	
	경상권 (869)	81.6	18.4		75.6	24.4	
	강원/제주권 (140)	83.6	16.4		77.1	2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9.7	20.3	35.049***	76.1	23.9	15.664*
	중소도시 (1,426)	84.1	15.9		78.4	21.6	
	읍면 (268)	82.1	17.9		76.5	23.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80.6	19.4	7.937*	75.1	24.9	8.609*
	비빈곤층 (2,128)	82.2	17.8		78.6	21.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1.4	18.6	2.612	76.5	23.5	3.710
	중위소득 미만 (2,082)	81.5	18.5		77.4	22.6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78.4%로 나타났으
 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4.3%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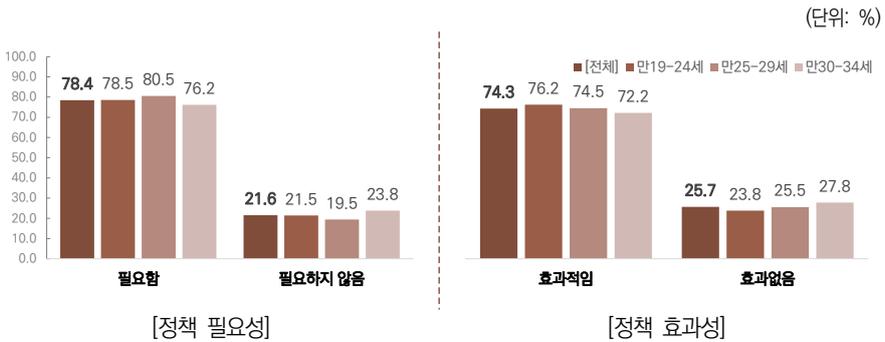


그림 V-28.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표 V-5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8.4	21.6	14.487*	74.3	25.7	23.633***
만19~24세	(1,356)	78.5	21.5		76.2	23.8	
만25~29세	(1,321)	80.5	19.5		74.5	25.5	
만30~34세	(1,323)	76.2	23.8		72.2	27.8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근무유형, 주관적 빈곤의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57.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8.4	21.6		74.3	25.7	
성별	남성 (1,984)	72.6	27.4	107.787***	69.3	30.7	74.833***
	여성 (2,016)	84.1	15.9		79.2	2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6.7	23.3	12.707*	72.7	27.3	16.655*
	대학교(재/졸) (3,370)	78.8	21.2		74.9	25.1	
	대학원(졸) (154)	75.3	24.7		66.9	33.1	
취업 여부	취업 (2,047)	76.5	23.5	10.662*	72.8	27.2	13.019**
	미취업 (1,953)	80.5	19.5		75.8	24.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6.5	23.5	12.354	72.5	27.5	15.379*
	시간제 근로 (164)	75.6	24.4		76.8	23.2	
	미취업 (1,953)	80.5	19.5		75.8	24.2	
지역	수도권 (2,234)	77.2	22.8	23.672*	73.1	26.9	16.427
	충청권 (409)	77.5	22.5		76.5	23.5	
	전라권 (348)	81.9	18.1		77.6	22.4	
	경상권 (869)	80.1	19.9		74.1	25.9	
	강원/제주권 (140)	82.1	17.9		80.0	2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6.9	23.1	22.515***	72.3	27.7	18.220**
	중소도시 (1,426)	80.3	19.7		76.4	23.6	
	읍면 (268)	81.3	18.7		80.6	19.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9.2	20.8	5.000	73.0	27.0	5.223
	비빈곤층 (2,128)	77.8	22.2		75.4	24.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7.3	22.7	2.953	73.1	26.9	4.040
	중위소득 미만 (2,082)	79.4	20.6		75.4	24.6	

* $p < .05$, ** $p < .01$, *** $p < .001$.

마.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74.0%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0.9%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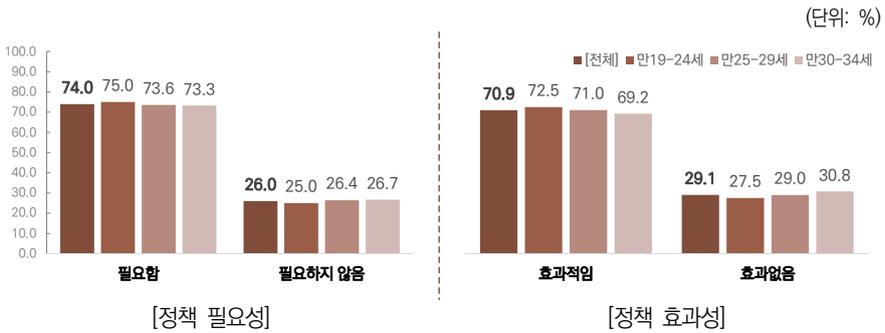


그림 V-29.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표 V-58.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4.0	26.0	100.800***	70.9	29.1	16.837**
만19~24세	(1,356)	75.0	25.0		72.5	27.5	
만25~29세	(1,321)	73.6	26.4		71.0	29.0	
만30~34세	(1,323)	73.3	26.7		69.2	30.8	

* $p < .05$, ** $p < .01$, *** $p < .001$.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학력,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9.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4.0	26.0		70.9	29.1	
성별	남성 (1,984)	67.9	32.1	100.800**	65.5	34.5	76.366***
	여성 (2,016)	80.0	20.0		76.3	23.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1.8	28.2	8.786	69.7	30.3	14.931*
	대학교(재/졸) (3,370)	74.2	25.8		71.2	28.8	
	대학원(졸) (154)	75.3	24.7		67.5	32.5	
취업 여부	취업 (2,047)	72.8	27.2	3.769	70.0	30.0	5.205
	미취업 (1,953)	75.2	24.8		71.9	28.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3.1	26.9	5.558	70.0	30.0	9.304
	시간제 근로 (164)	68.9	31.1		68.9	31.1	
	미취업 (1,953)	75.2	24.8		71.9	28.1	
지역	수도권 (2,234)	73.1	26.9	18.248	70.7	29.3	12.753
	충청권 (409)	73.1	26.9		70.9	29.1	
	전라권 (348)	75.6	24.4		74.1	25.9	
	경상권 (869)	75.9	24.1		70.4	29.6	
	강원/제주권 (140)	73.6	26.4		69.3	30.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2.8	27.2	9.917	69.2	30.8	18.087**
	중소도시 (1,426)	75.1	24.9		72.4	27.6	
	읍면 (268)	78.0	22.0		77.6	22.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2.9	27.1	4.611	70.0	30.0	1.592
	비빈곤층 (2,128)	75.0	25.0		71.8	28.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3.4	26.6	2.259	70.3	29.7	1.316
	중위소득 미만 (2,082)	74.5	25.5		71.5	28.5	

* $p < .05$, ** $p < .01$, *** $p < .001$.

바.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81.6%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7.0%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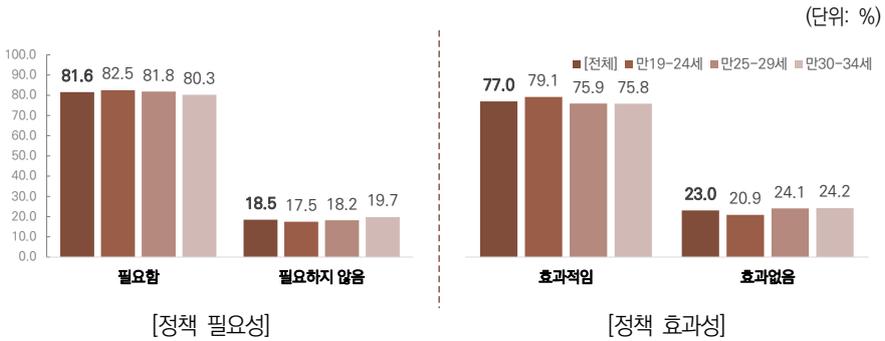


그림 V-30.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표 V-60.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1.6	18.5	3.505	77.0	23.0	13.876*
만19~24세	(1,356)	82.5	17.5		79.1	20.9	
만25~29세	(1,321)	81.8	18.2		75.9	24.1	
만30~34세	(1,323)	80.3	19.7		75.8	24.2	

* $p < .05$, ** $p < .01$, *** $p < .001$.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취업여부, 근무유형, 거주 지역의 규모,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61.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81.6	18.5		77.0	23.0	
성별	남성 (1,984)	76.3	23.7	149.293***	72.0	28.0	84.804***
	여성 (2,016)	86.8	13.2		81.8	1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9.0	21.0	7.241	70.4	29.6	20.469**
	대학교(재/졸) (3,370)	82.1	17.9		78.0	22.0	
	대학원(졸) (154)	76.6	23.4		74.0	26.0	
취업 여부	취업 (2,047)	80.9	19.1	2.347	76.7	23.3	4.989
	미취업 (1,953)	82.3	17.7		77.3	22.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0.8	19.2	4.138	76.7	23.3	5.106
	시간제 근로 (164)	81.1	18.9		76.8	23.2	
	미취업 (1,953)	82.3	17.7		77.3	22.7	
지역	수도권 (2,234)	80.9	19.1	11.538	76.2	23.8	21.436 ^o
	충청권 (409)	82.9	17.1		78.0	22.0	
	전라권 (348)	82.2	17.8		82.8	17.2	
	경상권 (869)	81.7	18.3		76.5	23.5	
	강원/제주권 (140)	85.7	14.3		75.0	2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80.1	19.9	20.704**	75.5	24.5	10.080
	중소도시 (1,426)	83.1	16.9		78.6	21.4	
	읍면 (268)	85.8	14.2		80.6	19.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81.2	18.8	1.107	74.7	25.3	14.341**
	비빈곤층 (2,128)	81.9	18.1		79.0	21.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0.9	19.1	4.001	77.0	23.0	0.208
	중위소득 미만 (2,082)	82.2	17.8		77.0	23.0	

^o $p < .05$, ** $p < .01$, *** $p < .001$.

(5)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응답이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확대'(65.1%),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6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2+3순위 기준)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4.3%, 만25~29세: 72.2%, 만30~34세: 7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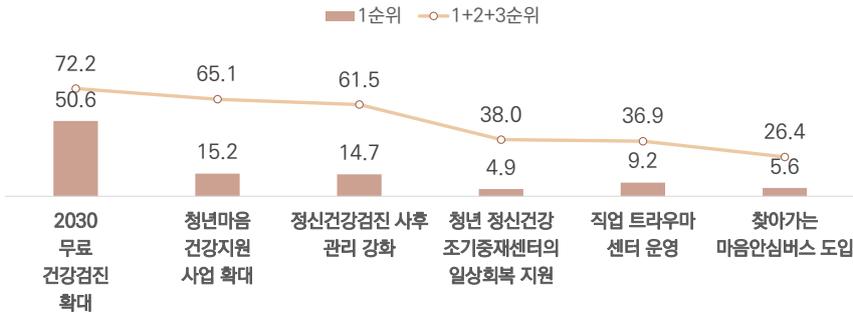


그림 V-31.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표 V-62.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확대	정신건강 검진 (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 버스 도입	청년 정신 건강 조기 중재센터의 일상회복 지원	χ^2
전체	(4,000)	50.6	15.2	14.7	9.2	5.6	4.9	32.630***
만19~24세	(1,356)	52.6	13.3	15.7	8.3	5.9	4.3	
만25~29세	(1,321)	51.0	17.0	13.6	8.2	4.2	6.1	
만30~34세	(1,323)	48.0	15.3	14.8	11.1	6.6	4.2	

* $p < .05$, ** $p < .01$, *** $p < .001$.

표 V-63.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청년 정신 건강 조기 중재센터의 일상회복 지원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전체	(4,000)	72.2	65.1	61.5	38.0	36.9	26.4
만19~24세	(1,356)	74.3	65.1	63.2	35.7	35.0	26.8
만25~29세	(1,321)	72.2	65.7	60.9	39.7	36.9	24.5
만30~34세	(1,323)	70.1	64.3	60.3	38.5	38.9	27.8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취업여부, 근무유형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남성(52.9%),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53.4%) 집단에서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순위 기준)

표 V-64.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청년 정신 건강 조기 중재센터의 일상회복 지원	χ^2	
전체	(4,000)	50.6	15.2	14.7	9.2	5.6	4.9		
성별	남성	(1,984)	52.9	13.8	14.3	8.3	5.5	5.2	14.313*
	여성	(2,016)	48.3	16.6	15.1	10.0	5.6	4.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0.6	16.0	15.5	7.6	5.0	5.3	5.358
	대학교(재/졸)	(3,370)	50.4	15.0	14.7	9.5	5.5	4.8	
	대학원(졸)	(154)	53.9	15.6	11.0	7.8	7.1	4.5	
취업 여부	취업	(2,047)	47.8	16.1	14.2	10.6	6.3	5.0	22.472***
	미취업	(1,953)	53.4	14.2	15.2	7.7	4.8	4.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7.8	16.5	13.9	10.6	6.2	5.1	27.041**
	시간제 근로	(164)	48.2	12.2	18.3	11.0	6.7	3.7	
	미취업	(1,953)	53.4	14.2	15.2	7.7	4.8	4.7	
지역	수도권	(2,234)	50.0	16.0	14.3	9.8	5.4	4.5	16.047
	충청권	(409)	47.7	16.4	16.6	8.3	6.6	4.4	
	전라권	(348)	49.1	14.7	16.4	8.0	5.5	6.3	
	경상권	(869)	53.7	13.0	14.0	8.7	5.5	4.9	
	강원/제주권	(140)	51.4	13.6	15.0	7.9	5.0	7.1	

구분	사례수 [명]	2030	청년마	정신건강	직업 트	찾아가	청년 정신	x ²
		무료 건강검진 확대	음건강 지원사 업 확대	건강검진 (우울증) 사후 관 리 강화	라우마 센터 운영	는 마음 안심버 스 도입	건강 조기 중재센터 의 일상회 복 지원	
거주	대도시 (2,306)	51.9	14.5	14.2	9.2	5.7	4.5	17.217
지역의	중소도시 (1,426)	48.5	16.3	15.0	10.0	5.3	5.0	
규모	읍면 (268)	50.0	14.9	17.5	4.5	6.0	7.1	
주관적	빈곤층 (1,872)	50.3	15.5	14.7	8.9	5.3	5.2	1.838
빈곤의식	비빈곤층 (2,128)	50.8	14.8	14.7	9.4	5.8	4.6	
1인가구	중위소득 이상 (1,918)	49.1	16.3	14.1	10.2	5.5	4.8	9.631
중위소득	중위소득 미만 (2,082)	51.9	14.1	15.3	8.3	5.6	4.9	

p < .05, ** p < .01, *** p < .001.

표 V-65.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030	청년마	정신건강	청년 정신	직업 트	찾아가
		무료 건강 검진 확대	음건강 지원사 업 확대	건강검진 (우울증) 사후 관 리 강화	강 조기 중재 센터의 일상 회복 지원	라우마 센터 운영	는 마음 안심버 스 도입
전체	(4,000)	72.2	65.1	61.5	38.0	36.9	26.4
성별	남성 (1,984)	75.4	63.5	62.4	40.0	32.0	26.8
	여성 (2,016)	69.1	66.6	60.6	36.0	41.8	25.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5.0	64.9	65.1	33.8	34.7	26.5
	대학교(재/졸) (3,370)	71.9	64.9	61.1	38.3	37.6	26.2
	대학원(졸) (154)	70.8	68.2	58.4	44.2	27.9	30.5
취업 여부	취업 (2,047)	69.8	63.7	60.2	39.5	38.4	28.3
	미취업 (1,953)	74.8	66.5	62.8	36.4	35.3	24.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9.4	63.8	60.3	39.2	39.0	28.3
	시간제 근로 (164)	74.4	62.8	59.1	42.7	32.3	28.7
	미취업 (1,953)	74.8	66.5	62.8	36.4	35.3	24.3
지역	수도권 (2,234)	72.2	65.4	60.7	38.2	37.6	26.0
	충청권 (409)	71.1	67.5	65.5	35.9	34.0	25.9
	전라권 (348)	67.8	65.5	62.1	40.5	35.9	28.2
	경상권 (869)	74.6	63.1	61.2	37.3	37.9	26.0
	강원/제주권 (140)	72.1	64.3	61.4	38.6	31.4	32.1
거주	대도시 (2,306)	72.8	65.5	60.8	38.2	36.2	26.5
지역의	중소도시 (1,426)	71.2	64.1	62.5	37.2	38.8	26.1
규모	읍면 (268)	72.4	66.0	61.6	40.3	32.8	26.9
주관적	빈곤층 (1,872)	72.4	66.5	61.6	37.8	35.6	26.0
빈곤의식	비빈곤층 (2,128)	72.0	63.8	61.3	38.2	38.0	26.7
1인가구	중위소득 이상 (1,918)	70.9	64.0	60.5	38.4	38.3	27.9
중위소득	중위소득 미만 (2,082)	73.5	66.0	62.3	37.6	35.6	25.0

p < .05, ** p < .01, *** p < .001.

(6)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28.9%), '청년 건강검진 확대'(2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9.0%, 만25~29세: 31.5%, 만30~34세: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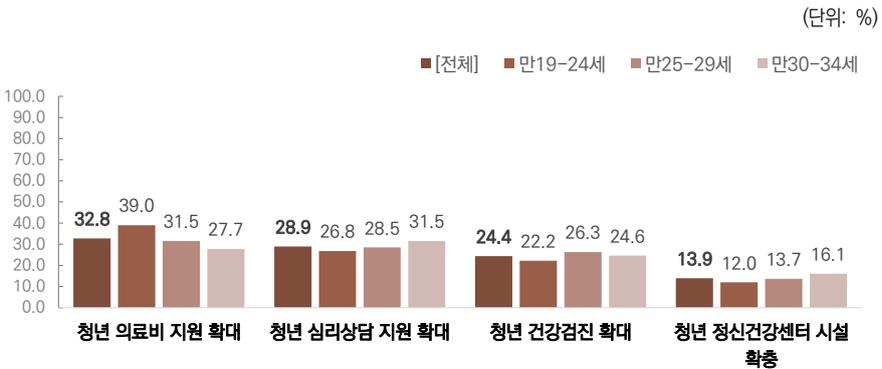


그림 V-32.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표 V-66.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	청년 건강검진 확대	청년 정신건강센터 시설 확충	χ^2
전체	(4,000)	32.8	28.9	24.4	13.9	44.987***
만19~24세	(1,356)	39.0	26.8	22.2	12.0	
만25~29세	(1,321)	31.5	28.5	26.3	13.7	
만30~34세	(1,323)	27.7	31.5	24.6	16.1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40.8%),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37.1%) 집단에서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67.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	청년 건강검진 확대	청년 정신건강센터 시설 확충	χ^2
전체		(4,000)	32.8	28.9	24.4	13.9	
성별	남성	(1,984)	33.4	28.1	28.2	10.2	64.171***
	여성	(2,016)	32.2	29.7	20.5	17.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40.8	23.9	24.2	11.1	19.935**
	대학교(재/졸)	(3,370)	31.9	29.5	24.2	14.3	
	대학원(졸)	(154)	27.3	31.8	27.3	13.6	
취업 여부	취업	(2,047)	28.7	31.0	26.1	14.1	33.197***
	미취업	(1,953)	37.1	26.7	22.5	13.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28.3	31.0	26.3	14.4	35.943***
	시간제 근로	(164)	33.5	31.1	24.4	11.0	
	미취업	(1,953)	37.1	26.7	22.5	13.7	
지역	수도권	(2,234)	32.8	30.1	24.5	12.6	15.135
	충청권	(409)	28.9	28.9	26.7	15.6	
	전라권	(348)	33.0	28.2	23.3	15.5	
	경상권	(869)	33.7	27.0	23.4	15.9	
	강원/제주권	(140)	37.9	23.6	24.3	1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32.4	28.3	26.2	13.1	21.200**
	중소도시	(1,426)	32.9	31.1	20.8	15.2	
	읍면	(268)	35.8	22.8	27.2	14.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36.5	26.8	23.1	13.6	22.552***
	비빈곤층	(2,128)	29.6	30.8	25.5	14.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29.3	31.1	25.8	13.8	22.884***
	중위소득 미만	(2,082)	36.0	26.9	23.0	14.0	

* $p < .05$, ** $p < .01$, *** $p < .001$.

(7)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중복 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응답이 6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61.9%),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5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5.5%, 만25~29세: 61.6%, 만30~34세: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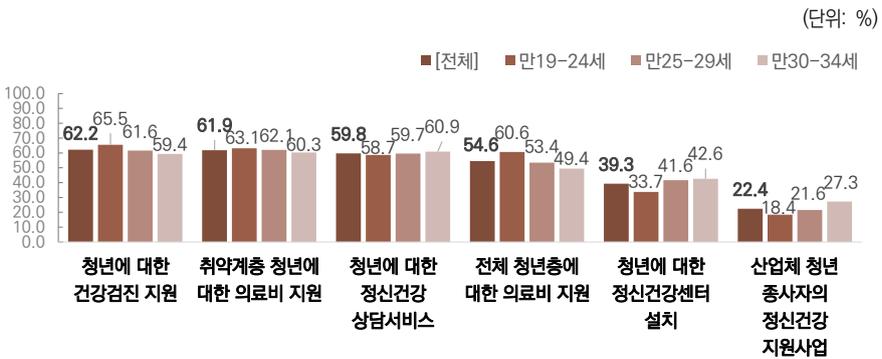


그림 V-33.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표 V-68.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구분	사례수 [명]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전체 청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센터 설치	산업체 청년 종사자의 정신건강 지원사업
전체	(4,000)	62.2	61.9	59.8	54.6	39.3	22.4
만19~24세	(1,356)	65.5	63.1	58.7	60.6	33.7	18.4
만25~29세	(1,321)	61.6	62.1	59.7	53.4	41.6	21.6
만30~34세	(1,323)	59.4	60.3	60.9	49.4	42.6	27.3

구체적으로, 성별로 남성(65.2%), 지역별로 강원/제주권(65.7%) 집단에서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69.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에 대한 건강검 진 지원	취약계층 청년에 대 한 의료비 지원	청년에 대 한 정신건 강 상담서 비스	전체 청년 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청년에 대 한 정신건 강센터 설치	산업체 청년 종사자의 정 신건강 지원 사업
전체		(4,000)	62.2	61.9	59.8	54.6	39.3	22.4
성별	남성	(1,984)	65.2	64.1	55.9	53.6	38.7	22.5
	여성	(2,016)	59.2	59.7	63.5	55.5	39.8	22.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62.4	67.0	55.3	60.1	33.6	21.6
	대학교(재/졸)	(3,370)	62.7	61.1	60.2	53.8	40.0	22.2
	대학원(졸)	(154)	51.3	61.7	63.0	53.9	40.9	29.2
취업 여부	취업	(2,047)	59.8	58.5	61.9	51.1	43.9	24.8
	미취업	(1,953)	64.7	65.3	57.5	58.2	34.4	19.9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59.6	58.8	61.6	51.0	44.5	24.6
	시간제 근로	(164)	62.8	55.5	65.9	51.8	37.2	26.8
	미취업	(1,953)	64.7	65.3	57.5	58.2	34.4	19.9
지역	수도권	(2,234)	60.9	61.1	61.3	54.3	39.6	22.7
	충청권	(409)	63.6	64.5	57.7	47.4	41.6	25.2
	전라권	(348)	63.5	61.2	59.5	58.6	37.4	19.8
	경상권	(869)	63.8	62.5	58.1	55.6	39.1	20.9
	강원/제주권	(140)	65.7	62.9	51.4	62.9	33.6	23.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1.2	61.3	59.6	55.6	39.7	22.5
	중소도시	(1,426)	63.3	62.0	60.3	53.0	38.7	22.7
	읍면	(268)	64.6	65.7	58.2	53.4	38.4	19.8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62.1	63.0	58.3	56.4	38.3	22.0
	비빈곤층	(2,128)	62.3	60.8	61.0	53.0	40.1	22.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59.6	59.2	61.5	51.4	43.8	24.5
	중위소득 미만	(2,082)	64.6	64.3	58.1	57.5	35.1	20.4

(8)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의료기관'(26.6%), '청년센터'(1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0.1%, 만 25~29세: 36.6%, 만30~34세: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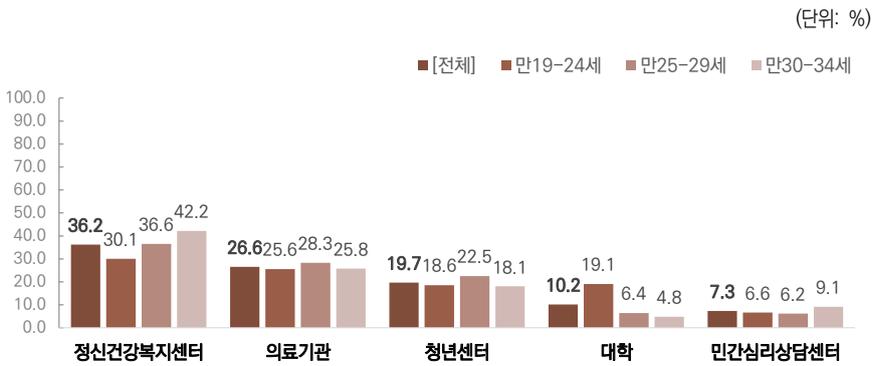


그림 V-34.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표 V-70.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신건강 복지센터	의료기관	청년센터	대학	민간심리 상담센터	χ^2
전체	(4,000)	36.2	26.6	19.7	10.2	7.3	207.324***
만19~24세	(1,356)	30.1	25.6	18.6	19.1	6.6	
만25~29세	(1,321)	36.6	28.3	22.5	6.4	6.2	
만30~34세	(1,323)	42.2	25.8	18.1	4.8	9.1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 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45.5%),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 자(42.7%) 집단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1. 청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로 선호하는 기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신건강 복지센터	의료기관	청년센터	대학	민간심리 상담센터	χ^2
전체		(4,000)	36.2	26.6	19.7	10.2	7.3	
성별	남성	(1,984)	31.2	25.9	21.3	14.3	7.4	96.733***
	여성	(2,016)	41.2	27.2	18.2	6.2	7.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7.8	28.2	21.4	4.2	8.4	28.988***
	대학교(재/졸)	(3,370)	35.6	26.5	19.5	11.2	7.2	
	대학원(졸)	(154)	45.5	22.7	18.2	7.1	6.5	
취업 여부	취업	(2,047)	40.4	24.7	22.0	5.1	7.8	145.674***
	미취업	(1,953)	31.8	28.5	17.3	15.6	6.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0.2	25.0	21.9	5.1	7.8	146.834***
	시간제 근로	(164)	42.7	21.3	23.2	4.9	7.9	
	미취업	(1,953)	31.8	28.5	17.3	15.6	6.8	
지역	수도권	(2,234)	36.6	26.1	20.4	9.5	7.4	15.060
	충청권	(409)	36.4	26.4	20.5	9.8	6.8	
	전라권	(348)	32.2	27.0	22.7	11.8	6.3	
	경상권	(869)	37.2	27.2	16.8	11.6	7.2	
	강원/제주권	(140)	33.6	29.3	17.1	10.0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37.1	25.8	20.1	10.1	6.9	5.823
	중소도시	(1,426)	35.4	27.3	18.8	10.4	8.1	
	읍면	(268)	33.2	29.1	21.3	9.7	6.7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36.6	27.1	21.0	8.0	7.3	20.000***
	비빈곤층	(2,128)	35.9	26.1	18.6	12.1	7.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39.0	25.9	21.9	5.6	7.6	94.994***
	중위소득 미만	(2,082)	33.7	27.1	17.7	14.5	7.1	

* $p < .05$, ** $p < .01$, *** $p < .001$.

3.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1) 사회·문화자본 실태 및 인식

(1)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지냄’ 응답은 53.4%로 나타났으며, ‘못지냄’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잘지냄’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9.6%, 만25~29세: 52.1%, 만30~34세: 48.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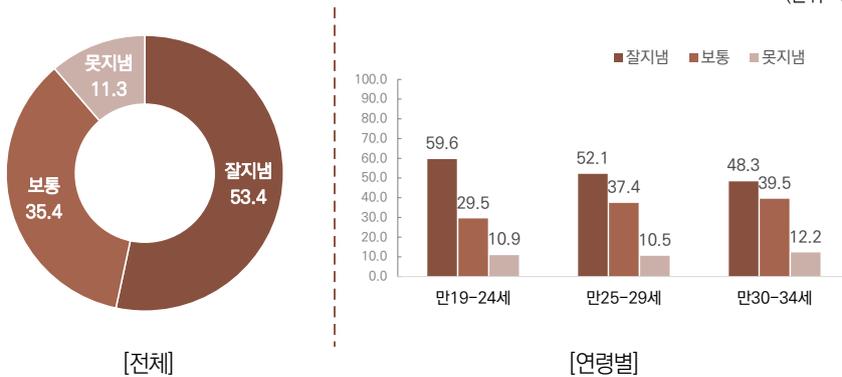


그림 V-35.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표 V-72.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지냄	조금 잘지냄	보통임	별로 못지냄	매우 못지냄	χ^2
전체	(4,000)	20.0	33.4	35.4	9.3	2.0	84.217***
만19~24세	(1,356)	27.1	32.5	29.5	8.3	2.6	
만25~29세	(1,321)	17.8	34.3	37.4	9.1	1.4	
만30~34세	(1,323)	15.0	33.3	39.5	10.4	1.8	

* $p < .05$, ** $p < .01$, *** $p < .001$.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65.6%),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62.8%) 집단에서 ‘잘지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3.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지냄	조금 잘지냄	보통임	별로 못지냄	매우 못지냄	χ^2
전체		(4,000)	20.0	33.4	35.4	9.3	2.0	
성별	남성	(1,984)	19.7	31.4	36.1	10.6	2.2	15.318**
	여성	(2,016)	20.4	35.4	34.7	7.9	1.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4.3	25.8	40.3	14.5	5.0	77.858***
	대학교(재/졸)	(3,370)	20.9	33.8	35.0	8.6	1.6	
	대학원(졸)	(154)	18.2	47.4	27.9	6.5	0.0	
취업 여부	취업	(2,047)	18.8	37.2	35.5	7.3	1.2	51.473***
	미취업	(1,953)	21.3	29.3	35.3	11.3	2.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8.9	38.0	35.0	7.2	1.0	62.811***
	시간제 근로	(164)	18.3	28.7	40.9	8.5	3.7	
	미취업	(1,953)	21.3	29.3	35.3	11.3	2.8	
지역	수도권	(2,234)	19.5	34.4	35.8	8.5	1.8	13.955
	충청권	(409)	20.0	34.5	34.0	9.5	2.0	
	전라권	(348)	20.4	30.2	37.1	9.8	2.6	
	경상권	(869)	20.5	32.0	34.3	11.4	1.8	
	강원/제주권	(140)	24.3	30.7	35.7	6.4	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9.0	34.4	35.8	9.0	1.8	11.845
	중소도시	(1,426)	22.3	32.1	34.4	9.3	2.0	
	읍면	(268)	16.8	31.3	37.7	11.2	3.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2.9	29.8	40.8	13.2	3.2	220.281***
	비빈곤층	(2,128)	26.3	36.5	30.6	5.7	0.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9.6	37.5	34.5	7.6	0.9	52.667***
	중위소득 미만	(2,082)	20.4	29.6	36.3	10.8	2.9	

* $p < .05$, ** $p < .01$, *** $p < .001$.

(2)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명'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2명'(24.2%), '6~10명'(1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3~5명' 응답이(40.7%)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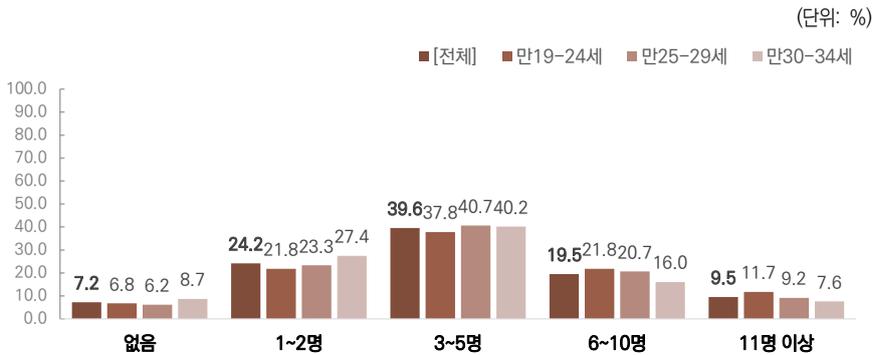


그림 V-36.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표 V-74.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7.2	24.2	39.6	19.5	9.5	41.997***
만19~24세	(1,356)	6.8	21.8	37.8	21.8	11.7	
만25~29세	(1,321)	6.2	23.3	40.7	20.7	9.2	
만30~34세	(1,323)	8.7	27.4	40.2	16.0	7.6	

* $p < .05$, ** $p < .01$, *** $p < .001$.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18.7%)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5.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 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7.2	24.2	39.6	19.5	9.5	
성별	남성	(1,984)	9.4	23.8	37.4	17.9	11.5	51.176***
	여성	(2,016)	5.1	24.6	41.6	21.1	7.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8.7	33.6	32.8	10.1	4.8	171.642***
	대학교(재/졸)	(3,370)	5.8	23.0	40.7	20.4	10.0	
	대학원(졸)	(154)	2.6	20.1	35.7	28.6	13.0	
취업 여부	취업	(2,047)	4.3	22.8	42.4	21.1	9.5	68.798***
	미취업	(1,953)	10.3	25.7	36.6	17.9	9.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3.8	21.7	42.8	21.9	9.9	98.806***
	시간제 근로	(164)	9.8	34.8	38.4	12.2	4.9	
	미취업	(1,953)	10.3	25.7	36.6	17.9	9.6	
지역	수도권	(2,234)	6.5	24.3	39.7	19.7	9.8	8.981
	충청권	(409)	7.6	23.7	38.6	22.0	8.1	
	전라권	(348)	8.3	26.1	37.1	19.5	8.9	
	경상권	(869)	8.3	23.5	40.3	18.1	9.9	
	강원/제주권	(140)	7.9	22.9	41.4	18.6	9.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6	24.4	40.5	19.5	9.0	23.852**
	중소도시	(1,426)	7.6	22.2	39.4	20.1	10.7	
	읍면	(268)	10.4	32.5	32.5	16.8	7.8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0.7	29.2	39.0	15.1	6.0	176.944***
	비빈곤층	(2,128)	4.2	19.7	40.0	23.4	12.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4.4	21.0	42.1	21.6	10.9	78.026***
	중위소득 미만	(2,082)	9.8	27.1	37.2	17.6	8.3	

* $p < .05$, ** $p < .01$, *** $p < .001$.

(3)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가 있다고 응답한(N=3,711)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달에 한두번'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너달에 한두번'(24.1%), '일주일에 한두번'(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주일에 한두번'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5.1%, 만25~29세: 18.4%, 만30~34세: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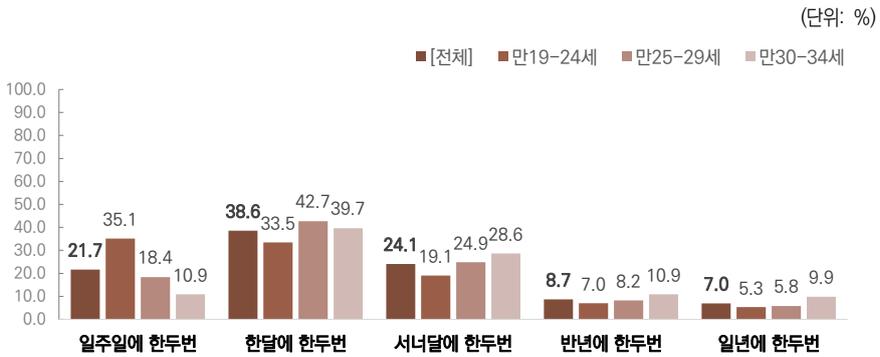


그림 V-37.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표 V-76.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서너달에 한두번	반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χ^2
전체	(3,711)	21.7	38.6	24.1	8.7	7.0	
만19~24세	(1,264)	35.1	33.5	19.1	7.0	5.3	
만25~29세	(1,239)	18.4	42.7	24.9	8.2	5.8	
만30~34세	(1,208)	10.9	39.7	28.6	10.9	9.9	

* $p < .05$, ** $p < .01$, *** $p < .001$.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전일제 근로자(43.3%),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42.7%) 집단에서 '한달에 한두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7.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의 만남 횟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서너달에 한두번	반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χ^2
전체		(3,711)	21.7	38.6	24.1	8.7	7.0	
성별	남성	(1,798)	25.3	38.2	22.1	8.2	6.3	29.974***
	여성	(1,913)	18.3	38.9	26.0	9.1	7.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7)	18.9	34.9	24.3	11.6	10.3	23.470**
	대학교(재/졸)	(3,174)	22.2	39.0	23.9	8.1	6.7	
	대학원(졸)	(150)	16.7	38.0	28.0	13.3	4.0	
취업 여부	취업	(1,960)	15.1	42.5	27.6	9.8	5.1	148.735***
	미취업	(1,751)	29.1	34.2	20.3	7.4	9.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12)	15.1	43.3	27.3	9.6	4.8	157.024***
	시간제 근로	(148)	14.9	33.1	31.1	12.8	8.1	
	미취업	(1,751)	29.1	34.2	20.3	7.4	9.1	
지역	수도권	(2,088)	19.9	40.4	25.6	8.1	6.0	32.528**
	충청권	(378)	23.5	33.9	25.9	9.8	6.9	
	전라권	(319)	24.8	36.4	20.4	9.7	8.8	
	경상권	(797)	23.5	38.0	20.8	8.9	8.8	
	강원/제주권	(129)	25.6	31.0	24.8	11.6	7.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154)	20.8	40.8	23.8	8.5	6.1	25.233**
	중소도시	(1,317)	23.2	36.2	24.6	8.6	7.4	
	읍면	(240)	20.8	31.3	24.6	10.8	12.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672)	17.2	38.2	26.3	9.2	9.2	56.361***
	비빈곤층	(2,039)	25.4	38.8	22.4	8.3	5.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834)	17.3	42.7	26.4	8.8	4.9	78.957***
	중위소득 미만	(1,877)	25.9	34.5	21.9	8.6	9.0	

* $p < .05$, ** $p < .01$, *** $p < .001$.

(4)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명'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5명'(31.9%), '없음'(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1~2명' 응답이(52.1%)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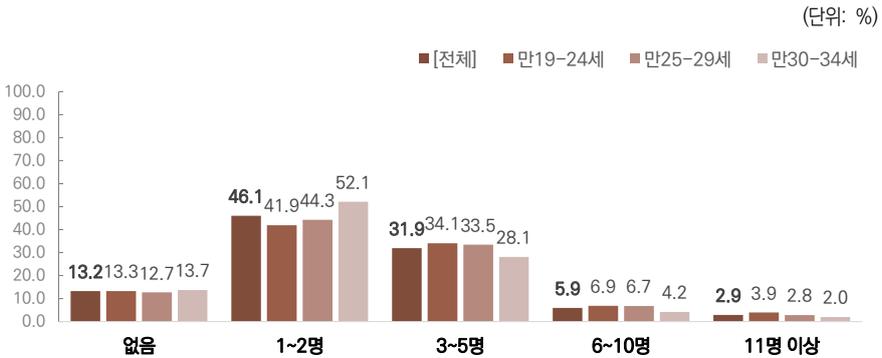


그림 V-38.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표 V-78.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13.2	46.1	31.9	5.9	2.9	
만19~24세	(1,356)	13.3	41.9	34.1	6.9	3.9	
만25~29세	(1,321)	12.7	44.3	33.5	6.7	2.8	
만30~34세	(1,323)	13.7	52.1	28.1	4.2	2.0	
							45.077***

* $p < .05$, ** $p < .01$, *** $p < .001$.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25.2%),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20.1%)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9.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 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13.2	46.1	31.9	5.9	2.9	
성별	남성	(1,984)	13.6	41.9	33.1	6.9	4.5	57.107***
	여성	(2,016)	12.8	50.1	30.8	5.0	1.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25.2	50.4	21.0	1.7	1.7	107.412***
	대학교(재/졸)	(3,370)	11.9	45.2	33.3	6.5	3.1	
	대학원(졸)	(154)	4.5	50.6	34.4	7.1	3.2	
취업 여부	취업	(2,047)	9.9	48.0	33.5	6.0	2.6	43.548***
	미취업	(1,953)	16.7	44.0	30.2	5.8	3.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9.0	47.7	34.1	6.4	2.8	68.888***
	시간제 근로	(164)	20.1	51.2	26.2	1.8	0.6	
	미취업	(1,953)	16.7	44.0	30.2	5.8	3.2	
지역	수도권	(2,234)	12.3	45.9	33.2	6.0	2.7	15.284
	충청권	(409)	14.4	46.9	28.9	6.6	3.2	
	전라권	(348)	14.7	46.0	30.2	5.5	3.7	
	경상권	(869)	15.3	45.7	30.6	5.8	2.6	
	강원/제주권	(140)	8.6	48.6	32.1	5.7	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2.4	45.9	33.0	5.8	3.0	14.705
	중소도시	(1,426)	13.9	45.5	31.7	6.0	2.9	
	읍면	(268)	17.2	50.4	23.5	7.1	1.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8.8	51.4	24.9	3.5	1.4	220.631***
	비빈곤층	(2,128)	8.3	41.4	38.1	8.0	4.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0.0	46.6	33.9	6.4	3.1	35.689***
	중위소득 미만	(2,082)	16.2	45.6	30.0	5.5	2.7	

* $p < .05$, ** $p < .01$, *** $p < .001$.

(5)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일'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5일'(30.3%), '없음'(1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27.9%), 만25~29세(32.2%) 집단에서는 '3~5일' 응답이, 만30~34세 집단에서는 '1~2일' 응답이(36.6%)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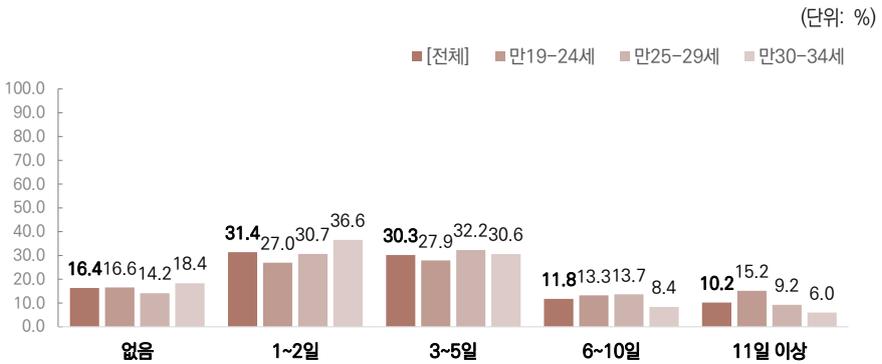


그림 V-39.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표 V-80.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χ^2
전체	(4,000)	16.4	31.4	30.3	11.8	10.2	
만19~24세	(1,356)	16.6	27.0	27.9	13.3	15.2	
만25~29세	(1,321)	14.2	30.7	32.2	13.7	9.2	
만30~34세	(1,323)	18.4	36.6	30.6	8.4	6.0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31.9%),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28.0%)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1.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횟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χ^2
전체		(4,000)	16.4	31.4	30.3	11.8	10.2	14.842**
성별	남성	(1,984)	17.6	29.8	28.9	13.0	10.6	
	여성	(2,016)	15.1	32.9	31.5	10.6	9.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1.9	33.2	20.6	6.5	7.8	122.537***
	대학교(재/졸)	(3,370)	14.6	31.3	31.2	12.4	10.4	
	대학원(졸)	(154)	7.1	27.3	38.3	14.9	12.3	
취업 여부	취업	(2,047)	11.3	34.4	34.7	12.1	7.6	134.397***
	미취업	(1,953)	21.7	28.2	25.6	11.5	13.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0.1	34.0	35.8	12.3	7.8	168.666***
	시간제 근로	(164)	25.0	39.0	21.3	9.8	4.9	
	미취업	(1,953)	21.7	28.2	25.6	11.5	13.0	
지역	수도권	(2,234)	14.9	32.0	31.5	12.2	9.5	23.287
	충청권	(409)	17.6	32.0	29.6	10.3	10.5	
	전라권	(348)	19.5	27.3	29.0	9.8	14.4	
	경상권	(869)	18.6	31.0	28.2	12.2	10.0	
	강원/제주권	(140)	15.0	32.9	28.6	12.1	1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4.4	33.2	31.1	11.9	9.4	42.482***
	중소도시	(1,426)	17.3	29.4	29.7	12.1	11.4	
	읍면	(268)	28.0	26.5	25.4	9.3	10.8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1.3	35.4	28.4	8.7	6.3	156.741***
	비빈곤층	(2,128)	12.0	27.9	31.9	14.5	13.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0.1	33.0	34.5	13.4	9.0	127.962***
	중위소득 미만	(2,082)	22.2	29.9	26.3	10.3	11.3	

* $p < .05$, ** $p < .01$, *** $p < .001$.

(6)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났다고 응답한(N=3,345)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시간'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6시간'(25.3%), '1~2시간'(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1시간 이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1.5%, 만25~29세: 1.9%, 만30~34세: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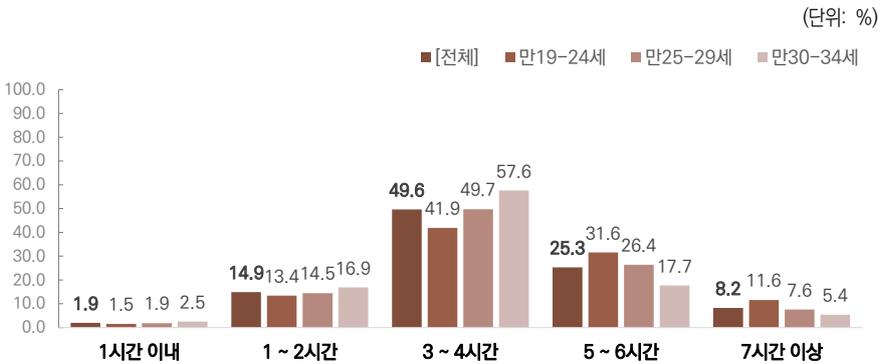


그림 V-40.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표 V-82.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χ^2
전체	(3,345)	1.9	14.9	49.6	25.3	8.2	104.367***
만19~24세	(1,131)	1.5	13.4	41.9	31.6	11.6	
만25~29세	(1,134)	1.9	14.5	49.7	26.4	7.6	
만30~34세	(1,080)	2.5	16.9	57.6	17.7	5.4	

* $p < .05$, ** $p < .01$, *** $p < .001$.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55.9%),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56.9%) 집단에서 '3~4시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3.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소요 시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χ^2
전체		(3,345)	1.9	14.9	49.6	25.3	8.2	
성별	남성	(1,634)	2.5	19.5	48.8	22.0	7.3	68.200***
	여성	(1,711)	1.4	10.5	50.4	28.5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24)	4.3	16.7	45.1	21.6	12.3	24.295**
	대학교(재/졸)	(2,878)	1.7	14.7	49.8	25.9	7.9	
	대학원(졸)	(143)	1.4	14.0	55.9	22.4	6.3	
취업 여부	취업	(1,816)	1.5	15.0	54.7	22.4	6.4	52.840***
	미취업	(1,529)	2.4	14.8	43.6	28.8	10.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693)	1.4	15.2	54.5	22.4	6.6	58.383***
	시간제 근로	(123)	4.1	12.2	56.9	22.0	4.9	
	미취업	(1,529)	2.4	14.8	43.6	28.8	10.3	
지역	수도권	(1,902)	1.3	13.8	50.4	26.1	8.4	26.243
	충청권	(337)	2.4	18.1	50.1	21.7	7.7	
	전라권	(280)	4.3	17.5	45.4	25.4	7.5	
	경상권	(707)	2.3	15.0	49.6	24.6	8.5	
	강원/제주권	(119)	4.2	16.0	46.2	26.9	6.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973)	1.9	15.6	51.3	23.3	7.9	34.156***
	중소도시	(1,179)	1.4	13.1	47.6	29.0	8.8	
	읍면	(193)	5.7	18.7	44.6	23.3	7.8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73)	3.1	17.8	49.0	22.9	7.2	43.472***
	비빈곤층	(1,872)	1.0	12.6	50.1	27.2	9.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725)	1.6	15.0	53.1	23.0	7.4	22.388***
	중위소득 미만	(1,620)	2.3	14.8	45.9	27.8	9.1	

* $p < .05$, ** $p < .01$, *** $p < .001$.

(7)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회 이상'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5회'(20.2%), '1~2회'(1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집단에서 '11회 이상' 응답이(40.1%)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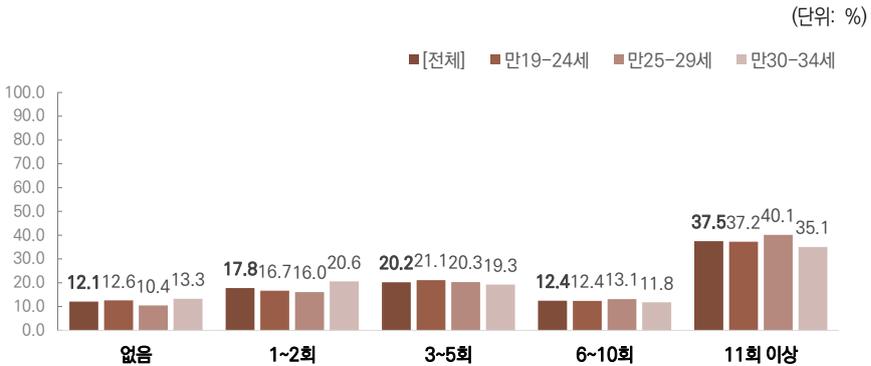


그림 V-41.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표 V-84.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χ^2
전체	(4,000)	12.1	17.8	20.2	12.4	37.5	
만19~24세	(1,356)	12.6	16.7	21.1	12.4	37.2	
만25~29세	(1,321)	10.4	16.0	20.3	13.1	40.1	
만30~34세	(1,323)	13.3	20.6	19.3	11.8	35.1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학력,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전일제 근로자(13.3%),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13.9%)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5.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한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χ^2
전체		(4,000)	12.1	17.8	20.2	12.4	37.5	1.877
성별	남성	(1,984)	12.4	17.7	20.2	13.0	36.7	
	여성	(2,016)	11.8	17.8	20.2	11.9	3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4.3	16.2	18.1	10.7	40.8	9.217
	대학교(재/졸)	(3,370)	11.9	18.0	20.3	12.7	37.0	
	대학원(졸)	(154)	9.7	17.5	24.7	11.0	37.0	
취업 여부	취업	(2,047)	13.0	19.1	22.8	12.9	32.1	53.661***
	미취업	(1,953)	11.2	16.3	17.5	11.9	43.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3.3	19.2	22.8	13.2	31.4	61.084***
	시간제 근로	(164)	9.8	17.7	22.6	9.1	40.9	
	미취업	(1,953)	11.2	16.3	17.5	11.9	43.1	
지역	수도권	(2,234)	11.5	17.4	20.9	11.6	38.6	20.766
	충청권	(409)	13.4	16.9	19.3	13.0	37.4	
	전라권	(348)	13.2	21.0	18.7	13.2	33.9	
	경상권	(869)	12.7	18.3	18.1	13.7	37.3	
	강원/제주권	(140)	11.4	15.0	29.3	14.3	3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1.4	17.7	20.6	12.7	37.7	13.074
	중소도시	(1,426)	12.8	16.8	19.6	12.3	38.5	
	읍면	(268)	14.6	23.1	20.9	11.2	30.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0.1	17.0	20.1	11.1	41.7	34.749***
	비빈곤층	(2,128)	13.9	18.4	20.3	13.6	33.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2.6	18.3	22.1	13.6	33.5	27.217***
	중위소득 미만	(2,082)	11.7	17.2	18.5	11.3	41.2	

* $p < .05$, ** $p < .01$, *** $p < .001$.

(8)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2회'(14.9%), '3~5회'(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65.0%)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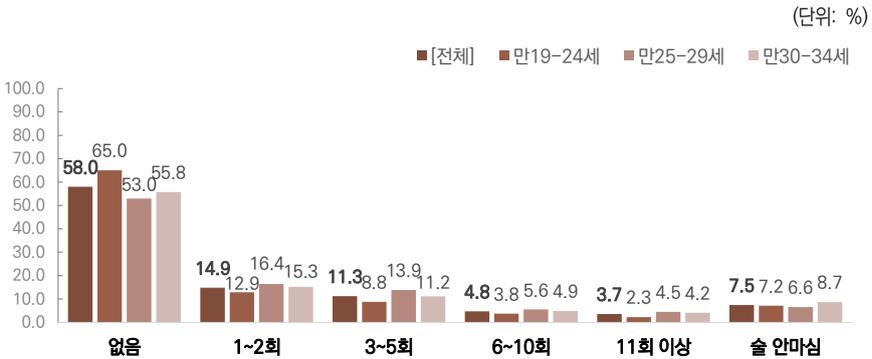


그림 V-42.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표 V-86.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술 안마심	χ^2
전체	(4,000)	58.0	14.9	11.3	4.8	3.7	7.5	58.946***
만19~24세	(1,356)	65.0	12.9	8.8	3.8	2.3	7.2	
만25~29세	(1,321)	53.0	16.4	13.9	5.6	4.5	6.6	
만30~34세	(1,323)	55.8	15.3	11.2	4.9	4.2	8.7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64.4%),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63.3%)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7.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술 안마심	χ^2
전체		(4,000)	58.0	14.9	11.3	4.8	3.7	7.5	
성별	남성	(1,984)	51.5	16.7	14.0	6.3	4.8	6.8	100.257***
	여성	(2,016)	64.4	13.0	8.6	3.2	2.5	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4.0	14.7	10.7	3.8	5.0	11.8	29.892***
	대학교(재/졸)	(3,370)	59.0	14.8	11.1	4.7	3.4	6.9	
	대학원(졸)	(154)	48.7	15.6	16.2	8.4	4.5	6.5	
취업 여부	취업	(2,047)	53.6	16.9	13.8	5.2	4.4	6.1	68.944***
	미취업	(1,953)	62.6	12.7	8.6	4.2	2.9	9.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53.7	17.0	13.5	5.4	4.3	6.1	72.473***
	시간제 근로	(164)	52.4	15.2	17.1	3.7	5.5	6.1	
	미취업	(1,953)	62.6	12.7	8.6	4.2	2.9	9.0	
지역	수도권	(2,234)	56.2	15.4	12.1	5.8	3.8	6.8	41.171**
	충청권	(409)	59.9	13.2	11.0	3.9	4.2	7.8	
	전라권	(348)	59.2	13.8	12.1	4.3	2.0	8.6	
	경상권	(869)	62.0	14.3	9.4	3.2	3.5	7.6	
	강원/제주권	(140)	53.6	17.1	7.9	1.4	5.7	1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5.5	15.9	12.4	5.3	4.1	6.8	33.386***
	중소도시	(1,426)	61.3	12.7	10.0	4.3	3.3	8.4	
	읍면	(268)	61.9	17.2	8.2	2.2	1.9	8.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2.0	16.0	12.8	5.3	4.5	9.3	57.296***
	비빈곤층	(2,128)	63.3	13.8	9.9	4.2	2.9	5.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54.0	16.9	13.9	5.1	4.2	5.9	59.156***
	중위소득 미만	(2,082)	61.7	12.9	8.8	4.5	3.2	8.9	

* $p < .05$, ** $p < .01$, *** $p < .001$.

(9)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명' 응답이 5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5명'(23.6%), '없음'(1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16.2%, 만25~29세: 16.3%, 만 30~34세: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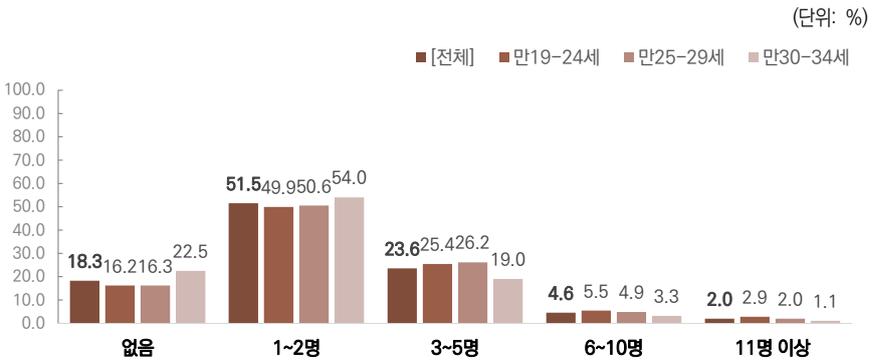


그림 V-43.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표 V-88.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18.3	51.5	23.6	4.6	2.0	
만19~24세	(1,356)	16.2	49.9	25.4	5.5	2.9	
만25~29세	(1,321)	16.3	50.6	26.2	4.9	2.0	
만30~34세	(1,323)	22.5	54.0	19.0	3.3	1.1	

* $p < .05$, ** $p < .01$, *** $p < .001$.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34.7%),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27.4%)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89.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 사람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18.3	51.5	23.6	4.6	2.0	92.131***
성별	남성	(1,984)	17.7	45.8	27.3	6.1	3.1	
	여성	(2,016)	18.9	57.1	19.9	3.0	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4.7	47.9	13.9	2.9	0.6	123.704***
	대학교(재/졸)	(3,370)	16.3	52.2	24.8	4.5	2.2	
	대학원(졸)	(154)	12.3	48.1	26.0	10.4	3.2	
취업 여부	취업	(2,047)	16.9	52.7	24.4	4.4	1.6	11.534*
	미취업	(1,953)	19.8	50.2	22.7	4.7	2.5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6.5	52.5	24.7	4.6	1.7	18.902*
	시간제 근로	(164)	22.0	54.9	20.7	2.4	0.0	
	미취업	(1,953)	19.8	50.2	22.7	4.7	2.5	
지역	수도권	(2,234)	17.0	51.9	24.6	4.6	1.9	24.275
	충청권	(409)	16.4	54.3	24.2	3.4	1.7	
	전라권	(348)	21.6	51.7	20.7	3.2	2.9	
	경상권	(869)	20.6	50.3	22.0	4.9	2.2	
	강원/제주권	(140)	22.9	44.3	22.9	8.6	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6.7	50.9	25.5	4.7	2.3	24.286**
	중소도시	(1,426)	20.3	51.6	22.0	4.5	1.5	
	읍면	(268)	21.6	56.3	15.7	4.1	2.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7.4	51.2	17.0	3.1	1.3	246.563***
	비빈곤층	(2,128)	10.4	51.7	29.3	5.9	2.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7.0	51.0	25.4	4.8	1.8	10.169*
	중위소득 미만	(2,082)	19.5	52.0	21.9	4.4	2.3	

* $p < .05$, ** $p < .01$, *** $p < .001$.

(10)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 응답이 7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2회'(13.0%), '3~5회'(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30~34세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81.9%)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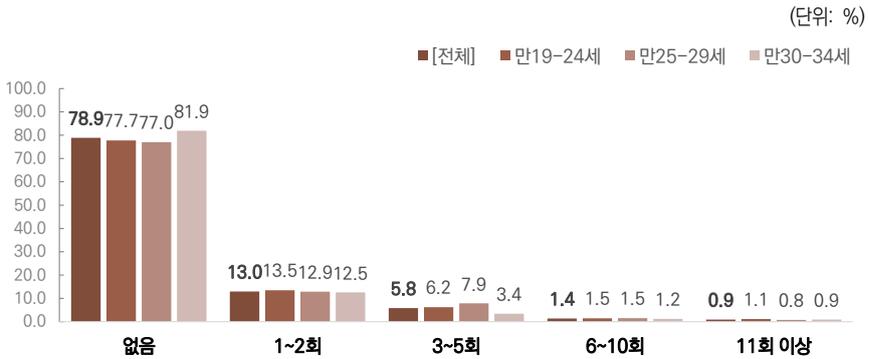


그림 V-44.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표 V-90.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χ^2
전체	(4,000)	78.9	13.0	5.8	1.4	0.9	
만19~24세	(1,356)	77.7	13.5	6.2	1.5	1.1	
만25~29세	(1,321)	77.0	12.9	7.9	1.5	0.8	
만30~34세	(1,323)	81.9	12.5	3.4	1.2	0.9	
							27.454***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82.4%),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83.6%)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1.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χ^2
전체		(4,000)	78.9	13.0	5.8	1.4	0.9	
성별	남성	(1,984)	75.3	13.8	7.9	1.6	1.4	47.892***
	여성	(2,016)	82.4	12.2	3.8	1.2	0.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0.8	17.4	6.9	2.1	2.7	45.300***
	대학교(재/졸)	(3,370)	80.3	12.4	5.5	1.2	0.7	
	대학원(졸)	(154)	73.4	12.3	9.7	3.2	1.3	
취업 여부	취업	(2,047)	78.4	14.0	5.7	1.5	0.4	14.506**
	미취업	(1,953)	79.4	11.9	5.9	1.3	1.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8.3	14.0	5.7	1.6	0.4	16.809*
	시간제 근로	(164)	78.7	13.4	6.1	0.6	1.2	
	미취업	(1,953)	79.4	11.9	5.9	1.3	1.4	
지역	수도권	(2,234)	78.6	12.8	6.4	1.3	0.9	16.872
	충청권	(409)	77.0	14.9	5.6	1.7	0.7	
	전라권	(348)	77.3	12.4	6.9	2.6	0.9	
	경상권	(869)	80.4	13.3	4.0	1.0	1.2	
	강원/제주권	(140)	82.9	9.3	5.7	0.7	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7.1	14.2	6.3	1.5	0.8	19.765*
	중소도시	(1,426)	81.4	11.5	4.8	1.4	0.8	
	읍면	(268)	80.2	10.4	6.7	0.4	2.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3.5	16.1	6.9	2.0	1.5	68.478***
	비빈곤층	(2,128)	83.6	10.2	4.8	0.9	0.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8.8	13.5	5.7	1.4	0.6	5.845
	중위소득 미만	(2,082)	78.9	12.5	6.0	1.4	1.2	

* $p < .05$, ** $p < .01$, *** $p < .001$.

(11)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N=845)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806,293원, 중위값 300,00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17,879원, 만25~29세: 3,088,887원, 만30~34세: 5,212,11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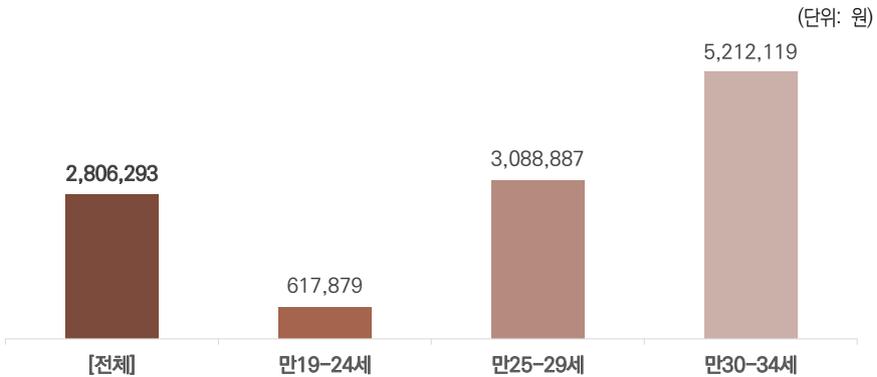


그림 V-45.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표 V-92.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F (유의도)
전체	(845)	10,000	2,806,293	300,000	130,000,000	17.090***
만19~24세	(302)	10,000	617,879	150,000	30,000,000	
만25~29세	(304)	10,000	3,088,887	427,778	130,000,000	
만30~34세	(239)	10,000	5,212,119	500,000	65,000,000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취업여부, 근무유형, 1인가구 중위소득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5,131,800원),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4,641,703원) 집단에서 '평균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3. 최근 1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 (배경변인별)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845)	10,000	2,806,293	300,000	130,000,000	-0.892
성별	남성	(490)	10,000	2,562,973	300,000	65,000,000	
	여성	(355)	10,000	3,142,144	300,000	130,000,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39)	10,000	2,926,424	400,000	130,000,000	1.105
	대학교(재/졸)	(665)	10,000	2,654,122	250,000	100,000,000	
	대학원(졸)	(41)	10,000	4,867,159	500,000	50,000,000	
취업 여부	취업	(443)	10,000	4,328,270	500,000	130,000,000	5.264***
	미취업	(402)	10,000	1,129,090	200,000	50,000,0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408)	10,000	4,259,340	500,000	100,000,000	12.939***
	시간제 근로	(35)	10,000	5,131,800	500,000	130,000,000	
	미취업	(402)	10,000	1,129,090	200,000	50,000,000	
지역	수도권	(478)	10,000	3,236,581	300,000	130,000,000	0.862
	충청권	(94)	10,000	1,677,662	300,000	50,000,000	
	전라권	(79)	10,000	2,147,709	300,000	40,000,000	
	경상권	(170)	10,000	2,741,722	200,000	60,000,000	
	강원/제주권	(24)	10,000	1,282,083	200,000	15,000,0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527)	10,000	2,554,234	270,000	100,000,000	1.393
	중소도시	(265)	10,000	3,533,555	300,000	130,000,000	
	읍면	(53)	10,000	1,676,302	300,000	20,000,00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497)	10,000	2,933,777	400,000	100,000,000	0.475
	비빈곤층	(348)	10,000	2,624,225	200,000	130,000,0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06)	10,000	4,641,703	500,000	130,000,000	5.434***
	중위소득 미만	(439)	10,000	1,108,852	200,000	60,000,000	

* $p < .05$, ** $p < .01$, *** $p < .001$.

(12)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명'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5명'(26.4%), '없음'(1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1~2명' 응답이(54.0%)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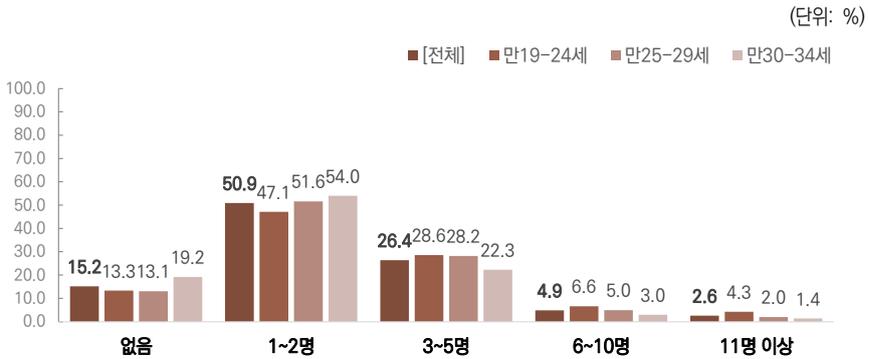


그림 V-46.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표 V-94.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15.2	50.9	26.4	4.9	2.6	80.987***
만19~24세	(1,356)	13.3	47.1	28.6	6.6	4.3	
만25~29세	(1,321)	13.1	51.6	28.2	5.0	2.0	
만30~34세	(1,323)	19.2	54.0	22.3	3.0	1.4	

* $p < .05$, ** $p < .01$, *** $p < .001$.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23.7%),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22.3%)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5. 건강 상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 사람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χ^2
전체		(4,000)	15.2	50.9	26.4	4.9	2.6	64.039***
성별	남성	(1,984)	15.7	45.6	28.7	6.1	3.8	
	여성	(2,016)	14.7	56.1	24.1	3.7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23.7	58.2	14.9	1.5	1.7	84.955***
	대학교(재/졸)	(3,370)	14.2	50.1	28.0	5.2	2.6	
	대학원(졸)	(154)	11.7	46.1	27.3	9.1	5.8	
취업 여부	취업	(2,047)	13.5	52.6	27.7	4.4	1.9	24.177***
	미취업	(1,953)	17.0	49.2	25.0	5.4	3.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2.9	52.4	28.2	4.5	2.0	33.406***
	시간제 근로	(164)	20.1	54.3	22.0	3.0	0.6	
	미취업	(1,953)	17.0	49.2	25.0	5.4	3.4	
지역	수도권	(2,234)	14.0	50.4	27.8	5.0	2.8	23.864
	충청권	(409)	12.2	57.0	24.9	3.2	2.7	
	전라권	(348)	19.0	48.3	24.7	5.5	2.6	
	경상권	(869)	18.0	50.4	24.4	5.1	2.2	
	강원/제주권	(140)	17.1	50.0	25.0	5.7	2.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4.5	49.8	28.2	4.6	2.8	13.917
	중소도시	(1,426)	15.8	52.7	23.7	5.5	2.2	
	읍면	(268)	17.5	51.1	25.0	3.7	2.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2.3	56.3	18.2	2.2	1.1	311.012***
	비빈곤층	(2,128)	9.0	46.1	33.6	7.3	3.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3.4	52.2	27.3	4.8	2.2	12.750*
	중위소득 미만	(2,082)	16.9	49.7	25.6	4.9	3.0	

* $p < .05$, ** $p < .01$, *** $p < .001$.

(13)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건강상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N=3,392)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회’(20.8%), ‘2회’(1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7.4%, 만25~29세: 52.3%, 만30~34세: 58.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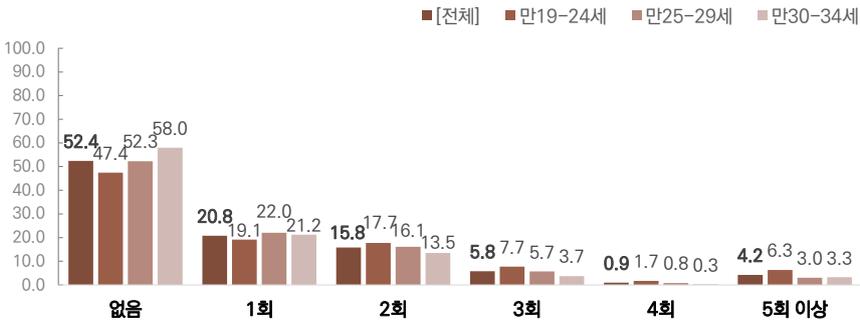


그림 V-47.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표 V-96.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χ^2
전체	(3,392)	52.4	20.8	15.8	5.8	0.9	4.2	
만19~24세	(1,175)	47.4	19.1	17.7	7.7	1.7	6.3	
만25~29세	(1,148)	52.3	22.0	16.1	5.7	0.8	3.0	
만30~34세	(1,069)	58.0	21.2	13.5	3.7	0.3	3.3	
								66.718***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중소도시(56.3%),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55.0%)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7. 최근 1년 동안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χ^2
전체		(3,392)	52.4	20.8	15.8	5.8	0.9	4.2	
성별	남성	(1,672)	52.8	19.0	16.2	6.5	1.1	4.3	9.554
	여성	(1,720)	52.0	22.5	15.5	5.1	0.8	4.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63)	51.8	23.7	13.5	5.0	0.6	5.5	12.273
	대학교(재/졸)	(2,893)	52.7	20.3	16.2	5.7	1.0	4.1	
	대학원(졸)	(136)	47.1	23.5	14.7	10.3	0.7	3.7	
취업 여부	취업	(1,771)	53.2	22.8	15.6	5.0	0.6	2.7	37.075***
	미취업	(1,621)	51.4	18.6	16.0	6.7	1.3	5.9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640)	53.7	22.6	15.8	4.8	0.7	2.4	45.954***
	시간제 근로	(131)	47.3	25.2	13.7	6.9	0.0	6.9	
	미취업	(1,621)	51.4	18.6	16.0	6.7	1.3	5.9	
지역	수도권	(1,922)	51.4	21.3	16.3	5.9	0.9	4.2	30.370
	충청권	(359)	53.2	24.5	11.4	5.0	0.8	5.0	
	전라권	(282)	48.9	17.7	16.3	8.2	2.1	6.7	
	경상권	(713)	55.8	18.8	16.5	5.3	0.6	2.9	
	강원/제주권	(116)	53.4	20.7	15.5	4.3	1.7	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971)	49.9	22.0	17.3	6.1	0.8	4.0	27.558**
	중소도시	(1,200)	56.3	18.1	13.7	5.8	1.2	5.0	
	읍면	(221)	53.4	24.9	14.5	3.6	1.4	2.3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55)	50.7	22.5	16.2	6.0	0.9	3.6	7.808
	비빈곤층	(1,937)	53.6	19.5	15.6	5.6	1.0	4.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61)	55.0	21.9	15.3	4.9	0.5	2.4	43.017***
	중위소득 미만	(1,731)	49.9	19.8	16.3	6.7	1.3	6.0	

* $p < .05$, ** $p < .01$, *** $p < .001$.

(14)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함' 응답은 41.5%로 나타났으며, '부족함' 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충분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7.3%, 만25~29세: 38.8%, 만30~34세: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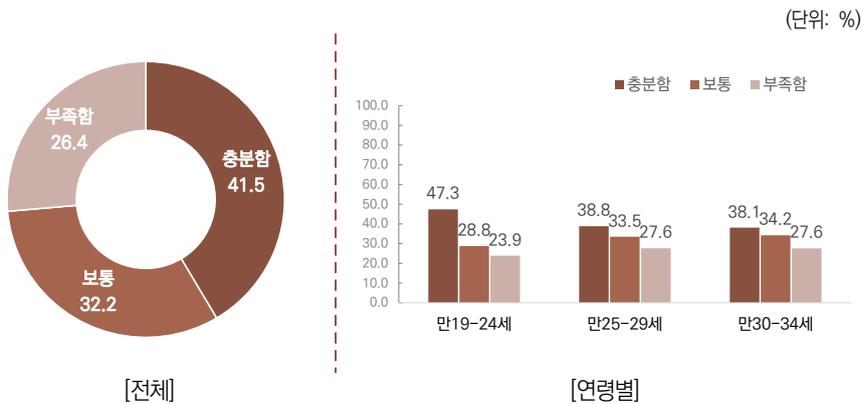


그림 V-48.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표 V-98.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함 (%)	조금 충분함 편임 (%)	보통임 (%)	다소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χ^2
전체	(4,000)	10.9	30.6	32.2	20.0	6.4	49.949***
만19~24세	(1,356)	15.1	32.2	28.8	17.9	6.0	
만25~29세	(1,321)	9.3	29.5	33.5	21.4	6.2	
만30~34세	(1,323)	8.1	30.0	34.2	20.6	7.0	

* $p < .05$, ** $p < .01$, *** $p < .001$.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45.4%),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47.5%), 집단에서 ‘충분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9.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함	조금 충분한 편임	보통임	다소 부족함	매우 부족함	χ^2
전체		(4,000)	10.9	30.6	32.2	20.0	6.4	
성별	남성	(1,984)	12.0	32.1	34.6	16.3	5.0	52.953***
	여성	(2,016)	9.8	29.1	29.8	23.6	7.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3.4	23.9	34.0	18.7	9.9	28.836***
	대학교(재/졸)	(3,370)	10.7	31.4	32.2	19.9	5.9	
	대학원(졸)	(154)	7.8	33.8	26.0	26.6	5.8	
취업 여부	취업	(2,047)	6.7	31.0	33.4	22.1	6.8	78.730***
	미취업	(1,953)	15.2	30.2	30.9	17.7	6.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3	31.4	32.9	22.7	6.6	90.387***
	시간제 근로	(164)	11.6	26.2	38.4	15.2	8.5	
	미취업	(1,953)	15.2	30.2	30.9	17.7	6.0	
지역	수도권	(2,234)	9.7	31.3	32.0	20.6	6.3	20.953
	충청권	(409)	12.5	27.4	32.0	21.3	6.8	
	전라권	(348)	11.8	33.0	32.8	15.8	6.6	
	경상권	(869)	12.5	30.0	32.3	19.6	5.5	
	강원/제주권	(140)	12.1	25.7	32.1	18.6	1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0.3	30.7	32.3	20.6	6.0	11.599
	중소도시	(1,426)	11.3	31.2	31.1	19.7	6.7	
	읍면	(268)	13.4	26.1	36.6	15.7	8.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8.6	26.0	33.8	21.8	9.7	110.811***
	비빈곤층	(2,128)	12.9	34.6	30.7	18.3	3.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2	30.8	32.7	22.6	6.8	59.552***
	중위소득 미만	(2,082)	14.3	30.5	31.7	17.6	6.1	

* $p < .05$, ** $p < .01$, *** $p < .001$.

(15)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음' 응답은 47.8%로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있음' 응답이(50.1%)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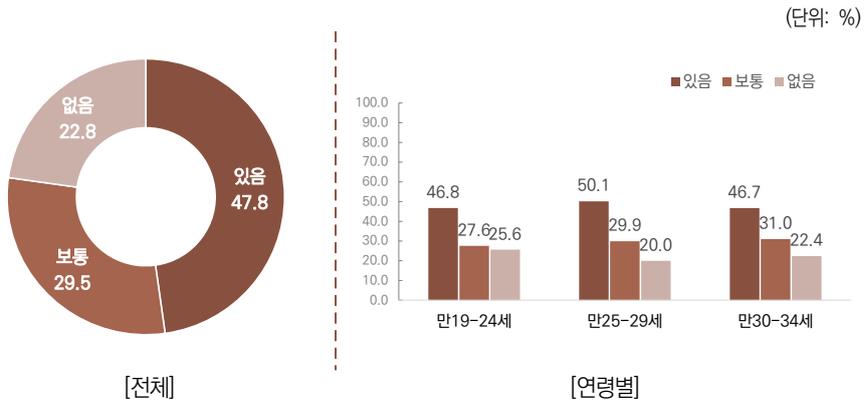


그림 V-49.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표 V-100.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14.4	33.4	29.5	17.1	5.7	21.753**
만19~24세	(1,356)	14.7	32.1	27.6	18.2	7.4	
만25~29세	(1,321)	15.2	34.9	29.9	15.2	4.8	
만30~34세	(1,323)	13.4	33.3	31.0	17.7	4.7	

* $p < .05$, ** $p < .01$, *** $p < .001$.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53.2%),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52.4%) 집단에서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01. 주변 사람들의 평상 시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상황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14.4	33.4	29.5	17.1	5.7	60.930***
성별	남성	(1,984)	11.4	30.9	32.9	17.7	7.0	
	여성	(2,016)	17.4	35.8	26.1	16.4	4.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6.0	29.6	30.9	15.5	8.0	13.871
	대학교(재/졸)	(3,370)	14.1	33.7	29.5	17.3	5.4	
	대학원(졸)	(154)	16.9	39.0	25.3	15.6	3.2	
취업 여부	취업	(2,047)	15.0	35.3	29.0	16.8	4.0	27.425***
	미취업	(1,953)	13.8	31.4	30.0	17.4	7.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4.7	35.4	29.2	16.9	3.8	30.982***
	시간제 근로	(164)	18.3	34.1	26.2	15.2	6.1	
	미취업	(1,953)	13.8	31.4	30.0	17.4	7.4	
지역	수도권	(2,234)	14.4	35.0	29.6	16.4	4.6	33.200**
	충청권	(409)	15.2	33.3	31.1	16.1	4.4	
	전라권	(348)	11.5	33.6	31.3	14.9	8.6	
	경상권	(869)	14.7	30.1	28.2	19.4	7.5	
	강원/제주권	(140)	18.6	27.9	26.4	20.0	7.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4.2	33.6	30.4	16.3	5.5	12.278
	중소도시	(1,426)	15.0	34.0	27.6	18.0	5.3	
	읍면	(268)	13.4	28.7	31.0	17.9	9.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7.0	33.3	31.5	13.8	4.4	52.105***
	비빈곤층	(2,128)	12.2	33.5	27.7	19.9	6.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5.3	35.7	28.3	16.6	4.2	23.103***
	중위소득 미만	(2,082)	13.6	31.3	30.6	17.5	7.0	

* $p < .05$, ** $p < .01$, *** $p < .001$.

(16)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음' 응답은 55.1%로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7.1%, 만25~29세: 55.2%, 만30~34세: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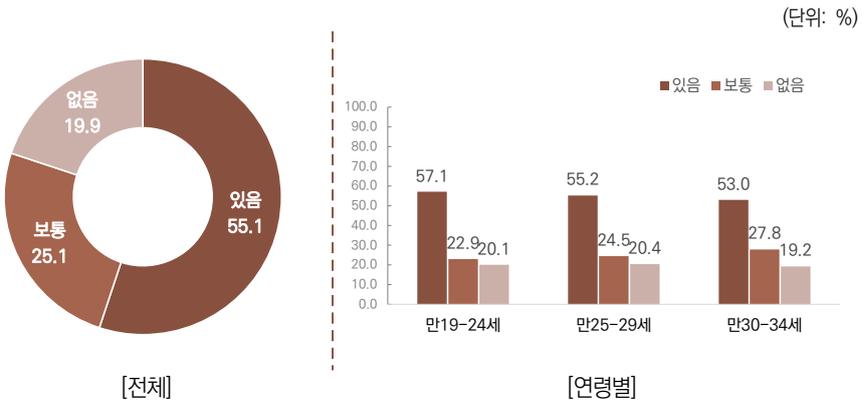


그림 V-50.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표 V-102.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21.2	33.9	25.1	14.8	5.1	28.862***
만19~24세	(1,356)	23.5	33.6	22.9	13.6	6.5	
만25~29세	(1,321)	21.8	33.4	24.5	15.4	5.0	
만30~34세	(1,323)	18.3	34.7	27.8	15.6	3.6	

* $p < .05$, ** $p < .01$, *** $p < .001$.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강원/제주권(66.4%),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65.7%) 집단에서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03.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21.2	33.9	25.1	14.8	5.1	
성별	남성	(1,984)	15.5	30.4	30.4	16.8	6.9	154.886***
	여성	(2,016)	26.8	37.3	19.8	12.8	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28.8	30.9	22.1	12.2	6.1	28.896***
	대학교(재/졸)	(3,370)	20.1	34.4	25.7	15.0	4.7	
	대학원(졸)	(154)	21.4	31.8	20.1	18.2	8.4	
취업 여부	취업	(2,047)	18.0	34.8	26.0	16.7	4.5	34.829***
	미취업	(1,953)	24.6	32.9	24.0	12.9	5.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7.5	35.3	25.8	17.0	4.5	41.541***
	시간제 근로	(164)	23.2	29.3	29.3	12.8	5.5	
	미취업	(1,953)	24.6	32.9	24.0	12.9	5.6	
지역	수도권	(2,234)	20.3	35.2	25.0	14.8	4.7	32.576**
	충청권	(409)	19.8	32.5	27.4	17.1	3.2	
	전라권	(348)	23.6	31.6	25.3	12.6	6.9	
	경상권	(869)	21.4	32.0	24.4	16.0	6.2	
	강원/제주권	(140)	32.1	34.3	22.1	6.4	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0.6	33.8	26.3	14.8	4.5	13.409
	중소도시	(1,426)	22.2	34.9	22.9	14.4	5.6	
	읍면	(268)	21.6	28.7	25.7	16.8	7.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30.3	35.4	24.4	8.0	2.0	316.041***
	비빈곤층	(2,128)	13.2	32.6	25.7	20.8	7.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8.5	35.3	24.9	16.5	4.8	22.510***
	중위소득 미만	(2,082)	23.7	32.6	25.2	13.3	5.3	

* $p < .05$, ** $p < .01$, *** $p < .001$.

(17)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됨' 응답은 59.3%로 나타났으며, '부담 안됨' 응답은 14.1%로 나타났다.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부담됨' 응답이(62.0%)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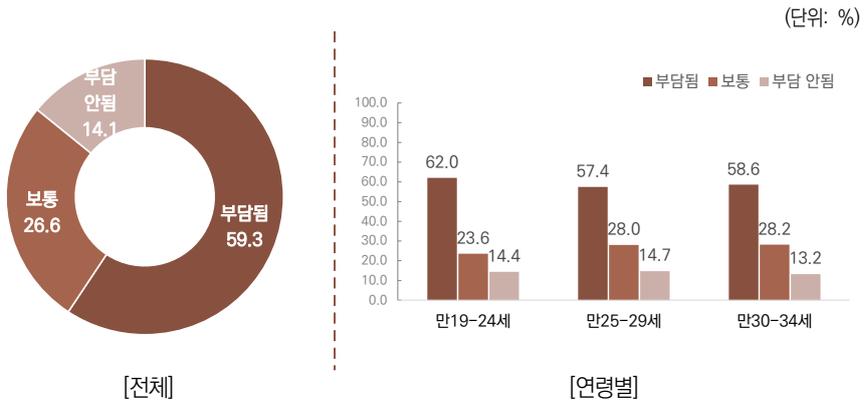


그림 V-51.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표 V-104.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보통임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χ^2
전체	(4,000)	22.6	36.7	26.6	10.9	3.2	27.677***
만19~24세	(1,356)	25.4	36.6	23.6	10.0	4.4	
만25~29세	(1,321)	22.0	35.4	28.0	12.1	2.6	
만30~34세	(1,323)	20.5	38.1	28.2	10.6	2.6	

* $p < .05$, ** $p < .01$, *** $p < .001$.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강원/제주권(71.4%),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69.8%) 집단에서 '부담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05. 생활비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보통임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χ^2
전체		(4,000)	22.6	36.7	26.6	10.9	3.2	147.235***
성별	남성	(1,984)	17.4	32.9	31.4	13.9	4.5	
	여성	(2,016)	27.7	40.4	21.9	8.0	2.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1.5	32.4	25.4	7.4	3.4	30.709***
	대학교(재/졸)	(3,370)	21.4	37.3	26.9	11.3	3.1	
	대학원(졸)	(154)	22.7	35.7	23.4	13.6	4.5	
취업 여부	취업	(2,047)	19.0	38.7	27.3	12.3	2.7	40.043***
	미취업	(1,953)	26.4	34.6	25.8	9.5	3.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8.7	38.7	27.0	12.7	2.8	46.505***
	시간제 근로	(164)	22.0	38.4	30.5	6.7	2.4	
	미취업	(1,953)	26.4	34.6	25.8	9.5	3.7	
지역	수도권	(2,234)	22.4	35.9	26.7	12.2	2.8	33.018**
	충청권	(409)	21.5	38.4	29.1	9.5	1.5	
	전라권	(348)	24.4	35.6	27.0	9.2	3.7	
	경상권	(869)	21.7	37.6	25.9	9.8	4.9	
	강원/제주권	(140)	30.7	40.7	20.0	5.7	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2.3	36.4	27.2	11.0	3.0	6.699
	중소도시	(1,426)	22.9	38.1	25.1	10.4	3.4	
	읍면	(268)	23.9	31.3	28.7	12.3	3.7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32.7	37.1	23.3	5.4	1.4	304.347***
	비빈곤층	(2,128)	13.7	36.3	29.5	15.7	4.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9.6	39.3	25.8	12.4	3.0	30.546***
	중위소득 미만	(2,082)	25.5	34.3	27.3	9.6	3.4	

* $p < .05$, ** $p < .01$, *** $p < .001$.

(18)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음' 응답은 50.1%로 나타났으며, '없음' 응답은 21.1%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1.7%, 만25~29세: 50.8%, 만30~34세: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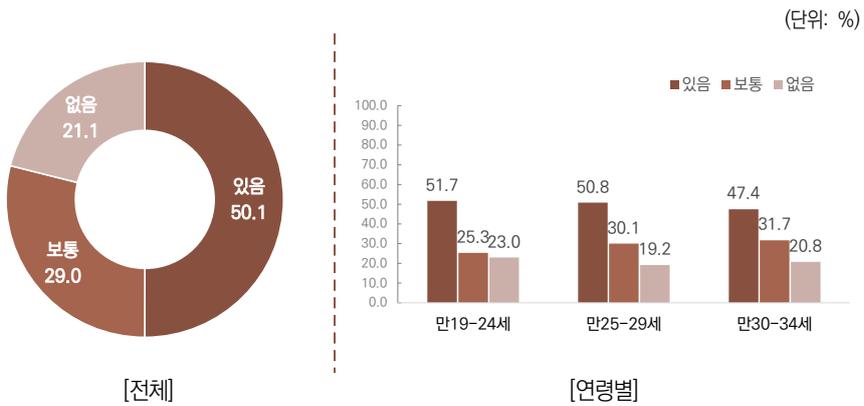


그림 V-52.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표 V-106.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15.8	34.3	29.0	15.9	5.2	29.930***
만19~24세	(1,356)	18.4	33.3	25.3	16.8	6.2	
만25~29세	(1,321)	16.0	34.8	30.1	14.7	4.5	
만30~34세	(1,323)	12.8	34.6	31.7	16.0	4.8	

* $p < .05$, ** $p < .01$, *** $p < .001$.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57.6%),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56.0%) 집단에서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07. 주변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상황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음	조금 있음	보통임	별로 없음	전혀 없음	χ^2
전체		(4,000)	15.8	34.3	29.0	15.9	5.2	
성별	남성	(1,984)	11.7	30.5	32.4	18.4	6.9	110.981***
	여성	(2,016)	19.7	37.9	25.6	13.3	3.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9.5	28.6	29.8	14.3	7.8	18.240*
	대학교(재/졸)	(3,370)	15.3	35.0	28.9	16.0	4.8	
	대학원(졸)	(154)	14.3	35.7	28.6	16.9	4.5	
취업 여부	취업	(2,047)	14.0	37.3	29.8	15.1	3.8	37.251***
	미취업	(1,953)	17.6	31.0	28.2	16.6	6.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4.0	37.9	29.2	15.5	3.4	51.222***
	시간제 근로	(164)	13.4	30.5	36.0	11.6	8.5	
	미취업	(1,953)	17.6	31.0	28.2	16.6	6.6	
지역	수도권	(2,234)	15.5	35.4	29.4	15.5	4.2	36.731**
	충청권	(409)	17.8	27.9	33.7	16.4	4.2	
	전라권	(348)	17.0	34.5	27.3	13.8	7.5	
	경상권	(869)	14.4	34.1	26.4	18.3	6.9	
	강원/제주권	(140)	18.6	35.0	29.3	10.0	7.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5.1	36.3	28.5	15.3	4.8	18.557*
	중소도시	(1,426)	17.2	31.8	29.5	16.2	5.3	
	읍면	(268)	13.4	29.5	29.9	19.0	8.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9.9	36.1	29.1	11.3	3.6	105.107***
	비빈곤층	(2,128)	12.1	32.7	28.9	19.8	6.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5.0	36.9	28.9	15.4	3.8	22.839***
	중위소득 미만	(2,082)	16.5	31.8	29.1	16.2	6.4	

* $p < .05$, ** $p < .01$, *** $p < .001$.

(19)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취업한(N=2,047)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유로움' 응답은 49.4%로 나타났으며, '자유롭지 않음'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유로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2.1%, 만25~29세: 49.1%, 만30~34세: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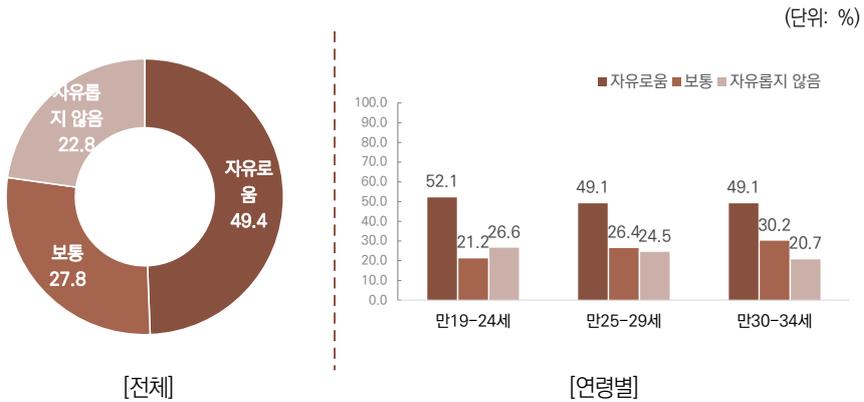


그림 V-53.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표 V-108.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자유롭게 사용함	조금 자유롭게 사용함	보통임	별로 자유롭지 않음	전혀 자유롭지 않음	χ^2
전체	(2,047)	16.6	32.8	27.8	14.9	7.9	10.855
만19~24세	(184)	17.9	34.2	21.2	17.4	9.2	
만25~29세	(829)	16.5	32.6	26.4	16.5	8.0	
만30~34세	(1,034)	16.3	32.8	30.2	13.2	7.5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57.6%), 지역별로 강원/제주권(70.3%) 집단에서 ‘자유로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09.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자유롭게 사용함	조금 자유롭게 사용함	보통임	별로 자유롭지 않음	전혀 자유롭지 않음	χ^2
전체		(2,047)	16.6	32.8	27.8	14.9	7.9	
성별	남성	(913)	18.0	30.4	33.3	13.8	4.5	47.583***
	여성	(1,134)	15.4	34.7	23.5	15.8	1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05)	20.0	26.8	25.4	14.1	13.7	19.695*
	대학교(재/졸)	(1,717)	15.7	33.4	28.5	15.1	7.2	
	대학원(졸)	(125)	22.4	35.2	22.4	12.8	7.2	
취업 여부	취업	(2,047)	16.6	32.8	27.8	14.9	7.9	0.000***
	미취업	(0)	0.0	0.0	0.0	0.0	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6.9	33.8	26.9	14.6	7.8	17.648**
	시간제 근로	(164)	12.2	22.0	38.4	18.9	8.5	
	미취업	(0)	0.0	0.0	0.0	0.0	0.0	
지역	수도권	(1,291)	16.7	32.1	28.0	16.1	7.0	34.908**
	충청권	(187)	15.0	34.8	28.9	16.6	4.8	
	전라권	(138)	13.8	36.2	26.1	10.1	13.8	
	경상권	(377)	17.0	31.0	28.9	11.9	11.1	
	강원/제주권	(54)	22.2	48.1	16.7	13.0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284)	15.0	31.6	30.4	15.9	7.2	19.828*
	중소도시	(658)	19.5	35.1	23.4	12.9	9.1	
	읍면	(105)	18.1	33.3	24.8	15.2	8.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981)	12.8	30.7	31.8	15.6	9.1	33.061***
	비빈곤층	(1,066)	20.0	34.8	24.2	14.3	6.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82)	17.6	34.2	25.7	14.4	8.1	29.971***
	중위소득 미만	(365)	11.8	26.3	37.8	17.3	6.8	

* $p < .05$, ** $p < .01$, *** $p < .001$.

(20)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일'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5일'(25.9%), '없음'(2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1~2일' 응답이(45.3%)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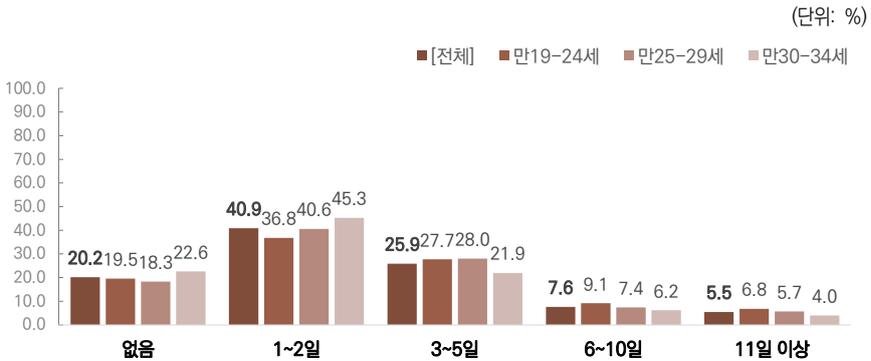


그림 V-54.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표 V-110.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χ^2
전체	(4,000)	20.2	40.9	25.9	7.6	5.5	47.561***
만19~24세	(1,356)	19.5	36.8	27.7	9.1	6.8	
만25~29세	(1,321)	18.3	40.6	28.0	7.4	5.7	
만30~34세	(1,323)	22.6	45.3	21.9	6.2	4.0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33.8%),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31.3%) 집단에서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1.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χ^2
전체		(4,000)	20.2	40.9	25.9	7.6	5.5	35.674***
성별	남성	(1,984)	18.2	38.5	27.8	8.9	6.6	
	여성	(2,016)	22.0	43.2	24.1	6.3	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3.8	37.0	21.6	2.9	4.6	75.021***
	대학교(재/졸)	(3,370)	18.5	41.2	26.6	8.2	5.6	
	대학원(졸)	(154)	14.3	46.1	24.0	9.1	6.5	
취업 여부	취업	(2,047)	16.3	45.0	27.2	7.6	4.0	68.572***
	미취업	(1,953)	24.2	36.5	24.6	7.6	7.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5.7	45.0	27.5	7.8	4.0	73.931***
	시간제 근로	(164)	22.6	44.5	23.8	5.5	3.7	
	미취업	(1,953)	24.2	36.5	24.6	7.6	7.1	
지역	수도권	(2,234)	18.2	40.8	27.9	8.0	5.1	40.910***
	충청권	(409)	22.5	42.3	22.7	7.8	4.6	
	전라권	(348)	22.4	40.2	19.5	9.8	8.0	
	경상권	(869)	22.4	41.1	25.7	5.5	5.3	
	강원/제주권	(140)	24.3	37.9	20.0	7.9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7.9	42.4	27.5	7.6	4.6	43.149***
	중소도시	(1,426)	21.7	39.8	24.2	7.7	6.6	
	읍면	(268)	31.3	32.8	21.6	7.1	7.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4.4	44.4	22.1	5.4	3.7	105.548***
	비빈곤층	(2,128)	16.4	37.7	29.2	9.5	7.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6.4	44.0	27.3	7.9	4.4	45.870***
	중위소득 미만	(2,082)	23.6	38.0	24.6	7.3	6.5	

* $p < .05$, ** $p < .01$, *** $p < .001$.

(21)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했다고 응답한(N=3,194)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0시간, 중위값 2.5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소요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1시간, 만25~29세: 2.9시간, 만30~34세: 2.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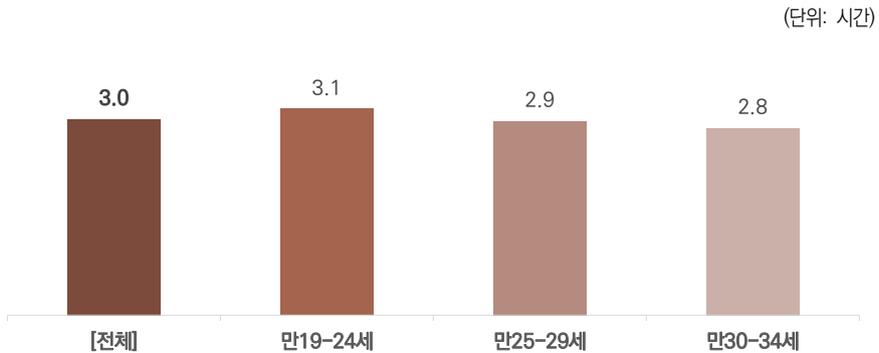


그림 V-55.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 (평균)

표 V-112.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F (유의도)
전체	(3,194)	0.1	3.0	2.5	23.0	5.714**
만19~24세	(1,091)	0.1	3.1	3.0	20.0	
만25~29세	(1,079)	0.1	2.9	2.0	23.0	
만30~34세	(1,024)	0.5	2.8	2.0	23.0	

* $p < .05$, ** $p < .01$, *** $p < .001$.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남성(3.2시간),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3.2시간) 집단에서 ‘평균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3.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소요 시간(배경변인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3,194)	0.1	3.0	2.5	23.0	
성별	남성	(1,622)	0.1	3.2	3.0	23.0	5.095***
	여성	(1,572)	0.1	2.8	2.0	23.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5)	0.5	3.2	3.0	19.0	2.228
	대학교(재/졸)	(2,747)	0.1	2.9	2.0	23.0	
	대학원(졸)	(132)	0.5	3.0	2.0	15.0	
취업 여부	취업	(1,714)	0.1	2.9	2.0	23.0	-2.408*
	미취업	(1,480)	0.1	3.1	3.0	2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587)	0.1	2.9	2.0	23.0	3.528*
	시간제 근로	(127)	0.5	3.1	3.0	10.0	
	미취업	(1,480)	0.1	3.1	3.0	20.0	
지역	수도권	(1,827)	0.1	3.0	3.0	23.0	0.608
	충청권	(317)	0.5	3.0	2.0	20.0	
	전라권	(270)	0.5	3.0	3.0	23.0	
	경상권	(674)	0.5	3.0	3.0	15.0	
	강원/제주권	(106)	0.5	2.7	2.0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893)	0.1	3.0	2.0	23.0	3.301*
	중소도시	(1,117)	0.1	2.9	2.0	20.0	
	읍면	(184)	1.0	3.2	3.0	12.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15)	0.1	2.9	2.0	20.0	-0.691
	비빈곤층	(1,779)	0.1	3.0	3.0	23.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03)	0.1	2.9	2.0	23.0	-1.784
	중위소득 미만	(1,591)	0.1	3.0	3.0	23.0	

* $p < .05$, ** $p < .01$, *** $p < .001$.

(22)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했다고 응답한(N=3,194)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5시간, 중위값 3.0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필요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7시간, 만25~29세: 3.4시간, 만30~34세: 3.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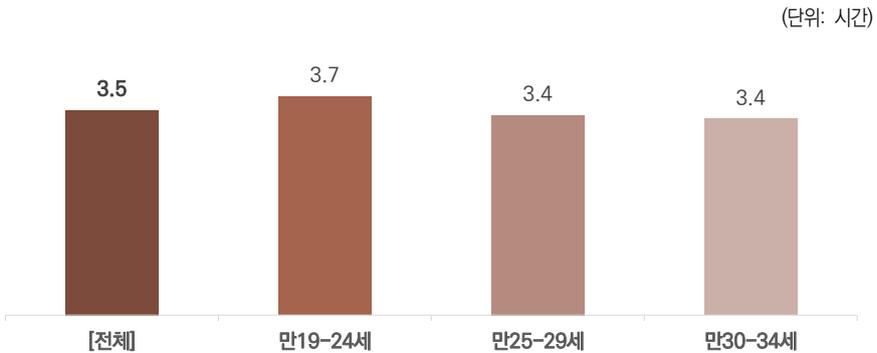


그림 V-56.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평균)

표 V-114.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F (유의도)
전체	(3,194)	0.5	3.5	3.0	23.0	9.297***
만19~24세	(1,091)	0.5	3.7	3.0	23.0	
만25~29세	(1,079)	0.5	3.4	3.0	23.0	
만30~34세	(1,024)	0.5	3.4	3.0	20.0	

* $p < .05$, ** $p < .01$, *** $p < .001$.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3.9시간),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3.8시간) 집단에서 '평균 필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5.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시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3,194)	0.5	3.5	3.0	23.0	
성별	남성	(1,622)	0.5	3.6	3.0	23.0	2.284*
	여성	(1,572)	0.5	3.4	3.0	2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5)	0.5	3.9	3.0	23.0	5.959**
	대학교(재/졸)	(2,747)	0.5	3.5	3.0	23.0	
	대학원(졸)	(132)	0.5	3.4	3.0	12.0	
취업 여부	취업	(1,714)	0.5	3.4	3.0	23.0	-2.717**
	미취업	(1,480)	0.5	3.6	3.0	23.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587)	0.5	3.4	3.0	21.0	5.648**
	시간제 근로	(127)	0.5	3.8	3.0	23.0	
	미취업	(1,480)	0.5	3.6	3.0	23.0	
지역	수도권	(1,827)	0.5	3.5	3.0	23.0	0.063
	충청권	(317)	1.0	3.5	3.0	20.0	
	전라권	(270)	0.5	3.5	3.0	21.0	
	경상권	(674)	0.5	3.5	3.0	23.0	
	강원/제주권	(106)	0.5	3.4	3.0	12.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893)	0.5	3.5	3.0	23.0	0.869
	중소도시	(1,117)	0.5	3.5	3.0	20.0	
	읍면	(184)	1.0	3.7	3.0	12.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15)	0.5	3.6	3.0	23.0	2.598**
	비빈곤층	(1,779)	0.5	3.4	3.0	23.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03)	0.5	3.4	3.0	19.0	-2.256*
	중위소득 미만	(1,591)	0.5	3.6	3.0	23.0	

* $p < .05$, ** $p < .01$, *** $p < .001$.

(23)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했다고 응답한(N=3,194)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58,115원, 중위값 30,000원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평균 지출 비용'이(65,419원)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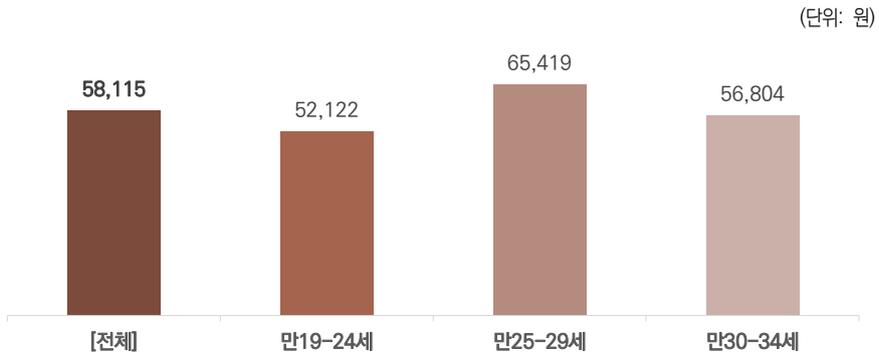


그림 V-57.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평균)

표 V-116.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F (유의도)
전체	(3,194)	0	58,115	30,000	5,000,000	1.107
만19~24세	(1,091)	0	52,122	30,000	5,000,000	
만25~29세	(1,079)	0	65,419	30,000	5,000,000	
만30~34세	(1,024)	0	56,804	30,000	5,000,000	

* $p < .05$, ** $p < .01$, *** $p < .001$.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주관적 빈곤의식, 1인 가구 중위소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67,726원),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67,170원) 집단에서 '평균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7.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용 (배경변인별)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3,194)	0	58,115	30,000	5,000,000		
성별	남성	(1,622)	0	61,238	30,000	5,000,000	0.852
	여성	(1,572)	0	54,893	30,000	5,000,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5)	0	56,060	30,000	2,000,000	0.216
	대학교(재/졸)	(2,747)	0	57,796	30,000	5,000,000	
	대학원(졸)	(132)	0	69,668	30,000	800,000	
취업 여부	취업	(1,714)	0	62,826	30,000	5,000,000	1.358
	미취업	(1,480)	0	52,659	20,035	5,000,0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587)	0	63,497	30,000	5,000,000	1.030
	시간제 근로	(127)	0	54,449	30,000	700,000	
	미취업	(1,480)	0	52,659	20,035	5,000,000	
지역	수도권	(1,827)	0	55,493	30,000	5,000,000	1.944
	충청권	(317)	0	51,648	25,000	1,000,000	
	전라권	(270)	0	90,704	30,000	5,000,000	
	경상권	(674)	0	57,985	29,545	5,000,000	
	강원/제주권	(106)	0	40,462	25,000	260,0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893)	0	64,415	30,000	5,000,000	2.185
	중소도시	(1,117)	0	50,069	30,000	2,000,000	
	읍면	(184)	0	42,141	30,000	260,00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15)	0	67,726	30,000	5,000,000	2.124*
	비빈곤층	(1,779)	0	50,471	30,000	3,455,55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03)	0	67,170	30,000	5,000,000	2.438*
	중위소득 미만	(1,591)	0	48,992	20,000	5,000,000	

* $p < .05$, ** $p < .01$, *** $p < .001$.

(24)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했다고 응답한(N=3,194)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81,964원, 중위값 50,000원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평균 필요 비용'이(82,823원)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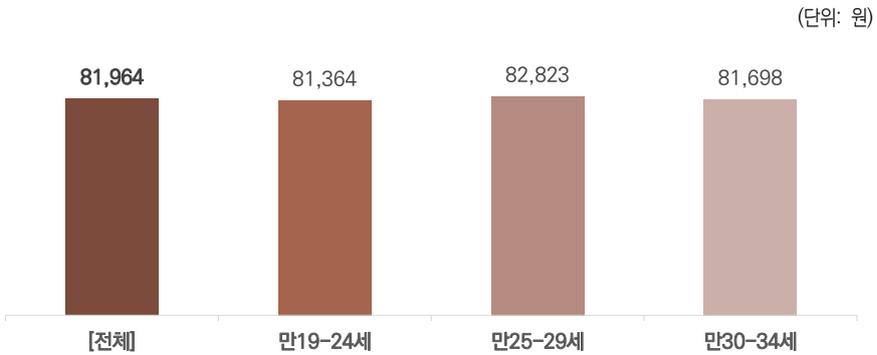


그림 V-58.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평균)

표 V-118.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F (유의도)
전체	(3,194)	0	81,964	50,000	5,000,000	0.016
만19~24세	(1,091)	0	81,364	50,000	4,477,474	
만25~29세	(1,079)	0	82,823	50,000	5,000,000	
만30~34세	(1,024)	0	81,698	50,000	3,000,000	

* $p < .05$, ** $p < .01$, *** $p < .001$.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취업여부, 근무유형,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무유형별로 시간제 근로자(110,882원),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92,499원) 집단에서 '평균 필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9. 하루에 여가 및 문화생활 필요 비용 (배경변인별)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명]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T/F (유의도)
전체		(3,194)	0	81,964	50,000	5,000,000	0.020
성별	남성	(1,622)	0	82,033	50,000	5,000,000	
	여성	(1,572)	0	81,893	50,000	4,477,47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5)	0	90,104	50,000	1,000,000	2.112
	대학교(재/졸)	(2,747)	0	79,540	50,000	5,000,000	
	대학원(졸)	(132)	0	112,990	50,000	3,000,000	
취업 여부	취업	(1,714)	0	92,086	50,000	5,000,000	3.200**
	미취업	(1,480)	0	70,242	50,000	3,000,000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587)	0	90,582	50,000	5,000,000	5.512**
	시간제 근로	(127)	0	110,882	50,000	3,000,000	
	미취업	(1,480)	0	70,242	50,000	3,000,000	
지역	수도권	(1,827)	0	84,853	50,000	5,000,000	0.880
	충청권	(317)	0	82,413	50,000	3,000,000	
	전라권	(270)	0	75,738	50,000	1,000,000	
	경상권	(674)	0	72,837	50,000	2,000,000	
	강원/제주권	(106)	0	104,717	40,000	3,000,0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893)	0	83,665	50,000	5,000,000	0.330
	중소도시	(1,117)	0	78,244	50,000	3,000,000	
	읍면	(184)	0	87,054	50,000	3,000,00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15)	0	92,499	50,000	4,477,474	2.657**
	비빈곤층	(1,779)	0	73,584	50,000	5,000,0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03)	0	88,557	50,000	3,000,000	1.898
	중위소득 미만	(1,591)	0	75,321	50,000	5,000,000	

* $p < .05$, ** $p < .01$, *** $p < .001$.

(25)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했다고 응답한(N=3,194)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화(혹은 TV나 OTT)'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운동'(21.9%), '여행'(1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영화(혹은 TV나 OTT)'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2.2%, 만25~29세: 50.0%, 만30~34세: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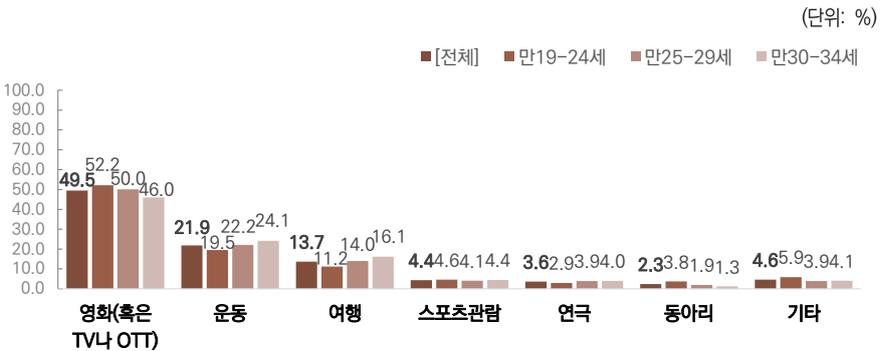


그림 V-59.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표 V-120.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영화 (혹은 TV나 OTT)	운동	여행	스포츠관람	연극	동아리	기타	χ^2
전체	(3,194)	49.5	21.9	13.7	4.4	3.6	2.3	4.6	
만19~24세	(1,091)	52.2	19.5	11.2	4.6	2.9	3.8	5.9	
만25~29세	(1,079)	50.0	22.2	14.0	4.1	3.9	1.9	3.9	
만30~34세	(1,024)	46.0	24.1	16.1	4.4	4.0	1.3	4.1	

* $p < .05$, ** $p < .01$, *** $p < .001$.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54.8%),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54.6%) 집단에서 '영화(혹은 TV나 OTT)'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1.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영화 (혹은 TV나 OTT)	운동	여행	스푸츠 관람	연극	동아리	기타	χ^2
전체		(3,194)	49.5	21.9	13.7	4.4	3.6	2.3	4.6	
성별	남성	(1,622)	44.3	26.0	12.1	6.5	3.2	3.1	4.7	95.442***
	여성	(1,572)	54.8	17.7	15.4	2.1	4.0	1.5	4.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5)	54.6	18.4	11.4	5.1	2.2	1.3	7.0	23.095*
	대학교(재/졸)	(2,747)	49.4	21.9	13.9	4.3	3.7	2.4	4.4	
	대학원(졸)	(132)	37.9	29.5	15.2	4.5	4.5	4.5	3.8	
취업 여부	취업	(1,714)	46.4	23.3	17.0	3.7	4.4	1.9	3.4	66.292***
	미취업	(1,480)	53.0	20.3	9.9	5.1	2.6	2.9	6.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587)	46.1	23.8	17.4	3.8	4.2	1.8	3.1	81.703***
	시간제 근로	(127)	50.4	17.3	11.8	2.4	7.9	3.1	7.1	
	미취업	(1,480)	53.0	20.3	9.9	5.1	2.6	2.9	6.1	
지역	수도권	(1,827)	49.5	21.3	13.5	4.4	4.1	2.4	4.9	23.655
	충청권	(317)	48.9	20.5	17.0	4.7	3.2	0.9	4.7	
	전라권	(270)	47.8	23.3	13.3	5.2	3.3	3.3	3.7	
	경상권	(674)	49.7	23.3	13.1	4.2	2.2	3.0	4.6	
	강원/제주권	(106)	53.8	23.6	13.2	0.9	5.7	0.0	2.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1,893)	48.5	21.6	14.6	4.6	4.0	2.7	3.9	16.583
	중소도시	(1,117)	50.4	22.7	12.3	3.8	3.0	1.8	5.9	
	읍면	(184)	53.3	20.1	13.0	4.3	2.7	2.2	4.3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415)	53.6	19.7	11.9	4.0	3.9	1.8	5.1	26.647***
	비빈곤층	(1,779)	46.1	23.6	15.2	4.6	3.4	2.8	4.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603)	46.2	24.1	16.6	4.1	3.8	1.8	3.4	49.948***
	중위소득 미만	(1,591)	52.8	19.6	10.8	4.6	3.4	2.9	5.9	

* $p < .05$, ** $p < .01$, *** $p < .001$.

(26)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함' 응답은 38.9%로 나타났으며, '충분하지 않음' 응답은 26.3%로 나타났다.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충분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5.3%, 만25~29세: 36.3%, 만30~34세: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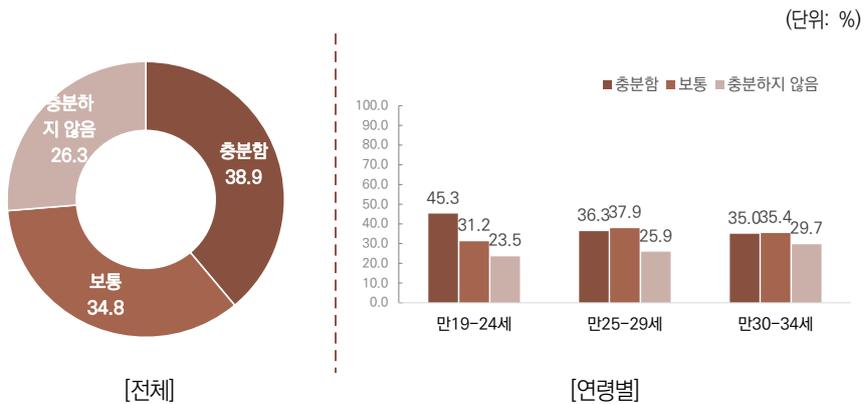


그림 V-60.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표 V-122.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함	조금 충분함	보통임	다소 부족함	매우 부족함	χ^2
전체	(4,000)	10.9	28.0	34.8	19.5	6.8	
만19~24세	(1,356)	14.0	31.3	31.2	16.8	6.7	
만25~29세	(1,321)	10.0	26.3	37.9	19.5	6.4	
만30~34세	(1,323)	8.7	26.3	35.4	22.4	7.3	

* $p < .05$, ** $p < .01$, *** $p < .001$.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43.2%), 지역별로 전라권(43.4%) 집단에서 ‘충분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3. 평상 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함	조금 충분함	보통임	다소 부족함	매우 부족함	χ^2
전체		(4,000)	10.9	28.0	34.8	19.5	6.8	
성별	남성	(1,984)	11.6	30.6	37.1	15.9	4.7	68.755***
	여성	(2,016)	10.3	25.4	32.4	23.1	8.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5.3	22.9	37.4	16.6	7.8	23.454**
	대학교(재/졸)	(3,370)	10.5	28.8	34.5	19.7	6.6	
	대학원(졸)	(154)	7.1	26.0	33.8	24.7	8.4	
취업 여부	취업	(2,047)	6.9	27.9	34.2	23.2	7.7	95.194***
	미취업	(1,953)	15.1	28.1	35.3	15.7	5.8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6	28.1	33.7	23.8	7.8	104.058***
	시간제 근로	(164)	10.4	26.2	40.2	15.9	7.3	
	미취업	(1,953)	15.1	28.1	35.3	15.7	5.8	
지역	수도권	(2,234)	9.4	27.8	34.5	21.2	7.0	37.764**
	충청권	(409)	9.8	28.6	37.4	17.6	6.6	
	전라권	(348)	15.8	27.6	33.3	17.5	5.7	
	경상권	(869)	13.7	28.4	34.9	17.3	5.8	
	강원/제주권	(140)	8.6	27.1	34.3	17.1	1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9.9	28.8	34.6	19.9	6.8	9.469
	중소도시	(1,426)	12.0	26.9	34.6	19.5	7.0	
	읍면	(268)	13.8	27.2	36.9	16.8	5.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9.8	24.7	33.7	22.2	9.7	77.094***
	비빈곤층	(2,128)	11.9	30.9	35.8	17.2	4.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9	27.2	34.1	23.1	7.7	61.806***
	중위소득 미만	(2,082)	13.7	28.7	35.4	16.2	6.0	

* $p < .05$, ** $p < .01$, *** $p < .001$.

(27)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시간'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5시간'(29.2%), '1시간 이내'(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1시간 이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8.7%, 만25~29세: 11.6%, 만30~34세: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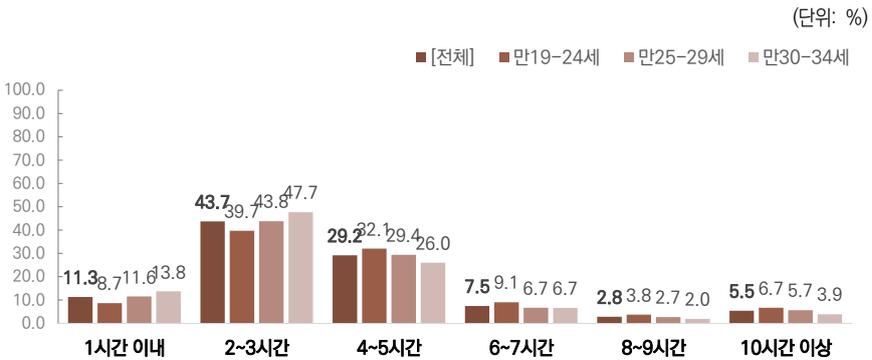


그림 V-61.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표 V-124.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시간	4~5시간	6~7시간	8~9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11.3	43.7	29.2	7.5	2.8	5.5	
만19~24세	(1,356)	8.7	39.7	32.1	9.1	3.8	6.7	
만25~29세	(1,321)	11.6	43.8	29.4	6.7	2.7	5.7	
만30~34세	(1,323)	13.8	47.7	26.0	6.7	2.0	3.9	
								57.754***

* $p < .05$, ** $p < .01$, *** $p < .001$.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55.2%), 근무유형별로 전일제 근로자(50.8%) 집단에서 '2~3시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5.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11.3	43.7	29.2	7.5	2.8	5.5	
성별	남성	(1,984)	10.0	42.0	30.8	8.3	2.7	6.2	19.197**
	여성	(2,016)	12.6	45.4	27.6	6.7	2.9	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5.8	33.2	26.7	8.4	3.8	12.2	80.022***
	대학교(재/졸)	(3,370)	10.8	44.7	29.6	7.5	2.8	4.7	
	대학원(졸)	(154)	9.1	55.2	27.3	5.2	1.3	1.9	
취업 여부	취업	(2,047)	12.5	50.3	28.8	6.1	1.5	0.9	240.814***
	미취업	(1,953)	10.1	36.8	29.6	9.0	4.2	10.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2.5	50.8	28.7	5.8	1.4	0.7	246.739***
	시간제 근로	(164)	11.6	44.5	29.3	8.5	2.4	3.7	
	미취업	(1,953)	10.1	36.8	29.6	9.0	4.2	10.2	
지역	수도권	(2,234)	11.5	45.2	28.6	7.0	2.7	5.1	22.406
	충청권	(409)	10.3	43.8	30.8	7.3	2.0	5.9	
	전라권	(348)	12.6	38.8	29.3	9.2	2.3	7.8	
	경상권	(869)	10.1	42.5	30.3	8.1	3.9	5.2	
	강원/제주권	(140)	16.4	40.0	27.9	8.6	2.1	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0.8	45.7	28.6	7.2	2.8	4.9	18.135
	중소도시	(1,426)	12.1	42.1	29.5	7.9	2.7	5.7	
	읍면	(268)	11.9	35.4	32.5	7.8	3.4	9.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3.9	44.2	25.4	6.9	3.0	6.6	48.208***
	비빈곤층	(2,128)	9.1	43.3	32.5	8.0	2.6	4.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2.0	49.7	28.8	6.1	1.6	1.8	151.961***
	중위소득 미만	(2,082)	10.7	38.2	29.5	8.8	3.9	8.8	

* $p < .05$, ** $p < .01$, *** $p < .001$.

(28)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시간'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3시간'(31.0%), '6~7시간'(1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1시간 이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0%, 만25~29세: 7.3%, 만30~34세: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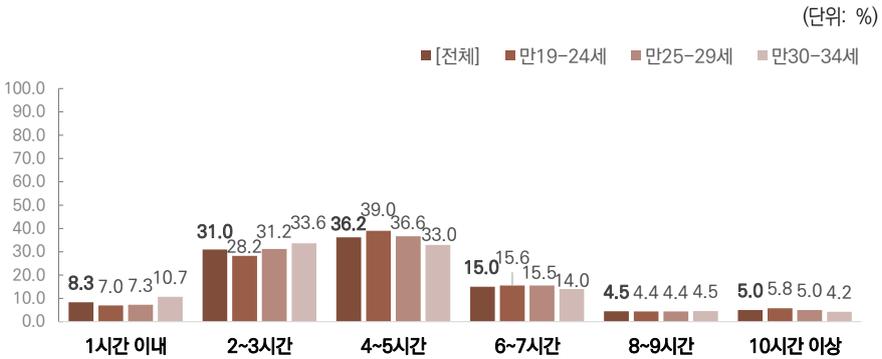


그림 V-62.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표 V-126.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8.3	31.0	36.2	15.0	4.5	5.0	
만19~24세	(1,356)	7.0	28.2	39.0	15.6	4.4	5.8	
만25~29세	(1,321)	7.3	31.2	36.6	15.5	4.4	5.0	
만30~34세	(1,323)	10.7	33.6	33.0	14.0	4.5	4.2	

* $p < .05$, ** $p < .01$, *** $p < .001$.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중소도시(39.0%),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38.0%) 집단에서 '4~5시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7. 평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8.3	31.0	36.2	15.0	4.5	5.0	
성별	남성	(1,984)	8.2	31.4	36.1	13.5	4.7	6.1	17.176**
	여성	(2,016)	8.4	30.7	36.3	16.5	4.2	3.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1.6	24.8	33.0	14.5	5.3	10.9	58.292***
	대학교(재/졸)	(3,370)	7.7	31.8	36.9	15.1	4.2	4.2	
	대학원(졸)	(154)	10.4	32.5	31.8	15.6	6.5	3.2	
취업 여부	취업	(2,047)	8.7	33.7	36.7	15.1	4.0	1.8	98.140***
	미취업	(1,953)	7.8	28.2	35.7	15.0	4.9	8.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6	34.0	36.7	15.2	3.9	1.6	102.469***
	시간제 근로	(164)	11.0	29.9	36.6	13.4	5.5	3.7	
	미취업	(1,953)	7.8	28.2	35.7	15.0	4.9	8.3	
지역	수도권	(2,234)	8.6	31.7	35.1	15.8	4.1	4.7	20.757
	충청권	(409)	9.5	28.6	38.6	13.9	3.2	6.1	
	전라권	(348)	8.9	32.5	33.6	12.6	6.3	6.0	
	경상권	(869)	7.0	29.9	38.8	14.7	4.8	4.7	
	강원/제주권	(140)	6.4	29.3	37.1	14.3	6.4	6.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8.1	32.8	34.4	15.1	4.6	5.0	20.912*
	중소도시	(1,426)	8.8	29.0	39.0	14.9	3.9	4.4	
	읍면	(268)	7.5	26.1	36.9	15.3	6.0	8.2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0.0	28.8	34.2	15.3	5.2	6.5	41.495***
	비빈곤층	(2,128)	6.8	32.9	38.0	14.8	3.8	3.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2	32.9	36.8	15.7	3.8	2.6	52.084***
	중위소득 미만	(2,082)	8.4	29.3	35.7	14.4	5.1	7.2	

* $p < .05$, ** $p < .01$, *** $p < .001$.

(29)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시간 이상'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5시간'(23.8%), '2~3시간'(1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1시간 이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3%, 만25~29세: 5.5%, 만30~34세: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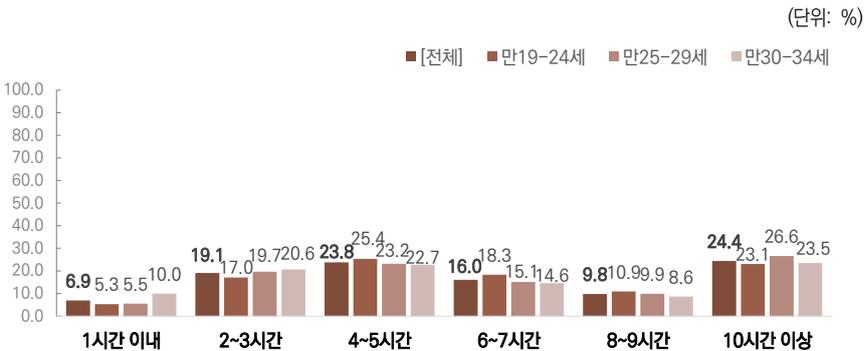


그림 V-63.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표 V-128.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6.9	19.1	23.8	16.0	9.8	24.4	
만19~24세	(1,356)	5.3	17.0	25.4	18.3	10.9	23.1	
만25~29세	(1,321)	5.5	19.7	23.2	15.1	9.9	26.6	
만30~34세	(1,323)	10.0	20.6	22.7	14.6	8.6	23.5	
								48.117***

* $p < .05$, ** $p < .01$, *** $p < .001$.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읍면(28.4%),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 중위소득 이상(27.4%) 집단에서 ‘10시간 이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9.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6.9	19.1	23.8	16.0	9.8	24.4	
성별	남성	(1,984)	6.7	20.7	25.0	15.9	9.4	22.3	15.375**
	여성	(2,016)	7.1	17.6	22.5	16.2	10.2	26.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9.7	14.7	22.1	14.9	11.6	27.1	24.915**
	대학교(재/졸)	(3,370)	6.6	19.3	24.3	16.2	9.6	23.9	
	대학원(졸)	(154)	6.5	27.3	16.2	16.2	8.4	25.3	
취업 여부	취업	(2,047)	6.8	20.4	22.5	15.1	9.4	25.7	12.914*
	미취업	(1,953)	7.0	17.7	25.1	17.0	10.2	22.9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5	20.1	22.4	15.0	9.7	26.3	22.275*
	시간제 근로	(164)	10.4	23.8	23.8	16.5	6.7	18.9	
	미취업	(1,953)	7.0	17.7	25.1	17.0	10.2	22.9	
지역	수도권	(2,234)	6.5	19.7	22.9	15.7	10.5	24.8	19.142
	충청권	(409)	6.6	18.6	26.7	14.9	10.5	22.7	
	전라권	(348)	7.8	20.7	22.7	19.0	7.8	22.1	
	경상권	(869)	7.1	17.3	25.3	16.2	8.7	25.3	
	강원/제주권	(140)	11.4	19.3	22.1	15.7	8.6	2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0	20.5	23.9	16.5	9.2	23.0	18.959*
	중소도시	(1,426)	6.7	17.2	24.5	15.4	10.2	25.9	
	읍면	(268)	7.5	17.5	18.3	15.3	13.1	28.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8.7	20.7	23.6	14.8	9.3	22.8	28.705***
	비빈곤층	(2,128)	5.4	17.7	23.9	17.1	10.2	25.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1	19.2	23.1	14.8	9.4	27.4	21.854***
	중위소득 미만	(2,082)	7.7	19.0	24.4	17.1	10.2	21.6	

* $p < .05$, ** $p < .01$, *** $p < .001$.

(30)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시간 이상' 응답이 2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5시간'(21.8%), '6~7시간'(1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10시간 이상' 응답이(30.7%)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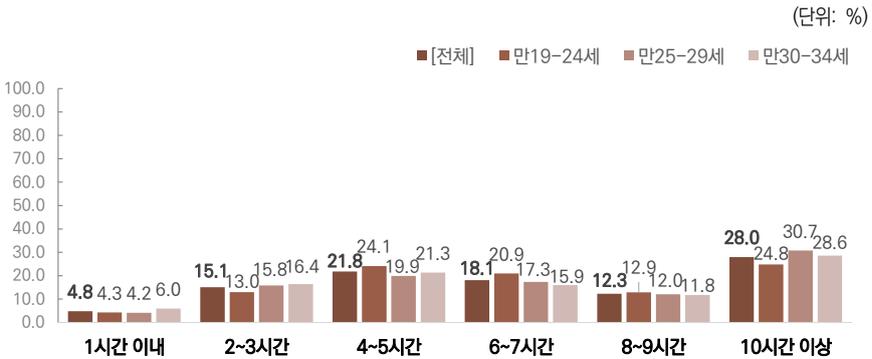


그림 V-64.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표 V-130.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4.8	15.1	21.8	18.1	12.3	28.0	36.631***
만19~24세	(1,356)	4.3	13.0	24.1	20.9	12.9	24.8	
만25~29세	(1,321)	4.2	15.8	19.9	17.3	12.0	30.7	
만30~34세	(1,323)	6.0	16.4	21.3	15.9	11.8	28.6	

* $p < .05$, ** $p < .01$, *** $p < .001$.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사졸/박사졸)(32.5%), 근무유형별로 전일제 근로자(32.3%) 집단에서 ‘10시간 이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31.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루 기준 자유롭게 쓰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시간 이내	2~3 시간	4~5 시간	6~7 시간	8~9 시간	10시간 이상	χ^2
전체		(4,000)	4.8	15.1	21.8	18.1	12.3	28.0	39.822***
성별	남성	(1,984)	4.9	16.8	24.4	18.1	11.3	24.5	
	여성	(2,016)	4.7	13.3	19.2	18.1	13.2	3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1	13.9	17.9	17.9	13.4	29.8	19.678*
	대학교(재/졸)	(3,370)	4.5	15.0	22.6	18.3	12.0	27.5	
	대학원(졸)	(154)	5.2	18.8	15.6	14.3	13.6	32.5	
취업 여부	취업	(2,047)	4.6	15.9	20.1	16.2	11.7	31.5	35.155***
	미취업	(1,953)	5.0	14.1	23.6	20.1	12.9	24.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5	16.1	19.4	15.9	11.9	32.3	50.567***
	시간제 근로	(164)	6.1	14.0	28.7	20.1	9.1	22.0	
	미취업	(1,953)	5.0	14.1	23.6	20.1	12.9	24.4	
지역	수도권	(2,234)	5.2	14.7	21.4	17.7	11.4	29.7	29.940
	충청권	(409)	5.4	15.9	19.3	20.8	12.0	26.7	
	전라권	(348)	4.3	18.7	22.1	17.5	14.7	22.7	
	경상권	(869)	3.5	14.7	23.5	18.6	12.8	26.9	
	강원/제주권	(140)	6.4	11.4	25.0	15.0	17.9	2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1	15.7	22.2	18.5	11.0	27.5	14.733
	중소도시	(1,426)	4.3	14.4	21.7	17.7	13.5	28.4	
	읍면	(268)	4.5	12.7	19.0	17.2	16.8	29.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4	17.3	20.5	16.1	12.4	28.3	24.618***
	비빈곤층	(2,128)	4.3	13.1	23.0	19.8	12.1	27.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4.3	15.3	20.0	16.5	11.7	32.2	36.482***
	중위소득 미만	(2,082)	5.2	14.8	23.4	19.6	12.8	24.2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문화자본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1)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0.0%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80.0%로 나타났다.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알고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1.6%, 만 25~29세: 20.0%, 만30~34세: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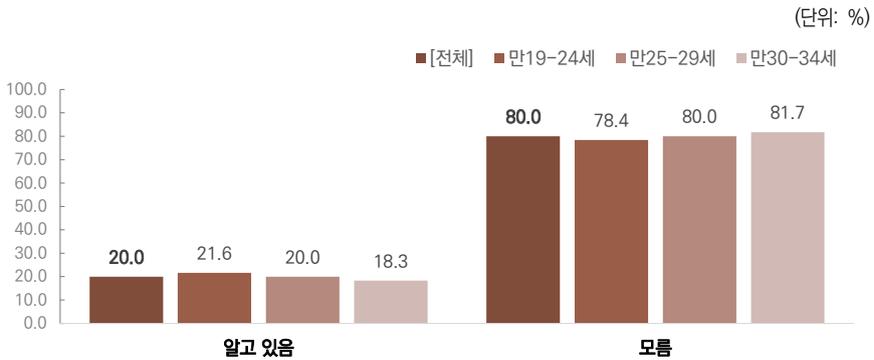


그림 V-65.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표 V-132.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음	모름	χ^2
전체	(4,000)	20.0	80.0	4.606
만19~24세	(1,356)	21.6	78.4	
만25~29세	(1,321)	20.0	80.0	
만30~34세	(1,323)	18.3	81.7	

* $p < .05$, ** $p < .01$, *** $p < .001$.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84.0%), 취업여부별로 미취업자(82.3%) 집단에서 '모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33.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음	모름	χ^2
전체		(4,000)	20.0	80.0	
성별	남성	(1,984)	24.0	76.0	39.736***
	여성	(2,016)	16.0	8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9.1	80.9	0.949
	대학교(재/졸)	(3,370)	20.0	80.0	
	대학원(졸)	(154)	22.7	77.3	
취업 여부	취업	(2,047)	22.1	77.9	12.180***
	미취업	(1,953)	17.7	82.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21.8	78.2	14.045***
	시간제 근로	(164)	26.2	73.8	
	미취업	(1,953)	17.7	82.3	
지역	수도권	(2,234)	19.4	80.6	5.462
	충청권	(409)	20.3	79.7	
	전라권	(348)	24.4	75.6	
	경상권	(869)	19.9	80.1	
	강원/제주권	(140)	17.1	82.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1.2	78.8	6.500*
	중소도시	(1,426)	17.8	82.2	
	읍면	(268)	20.9	79.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9.3	80.7	0.894
	비빈곤층	(2,128)	20.5	79.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21.9	78.1	8.523**
	중위소득 미만	(2,082)	18.2	81.8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급함' 응답은 48.2%로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음' 응답은 11.2%로 나타났다.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시급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3.6%, 만 25~29세: 47.0%, 만30~34세: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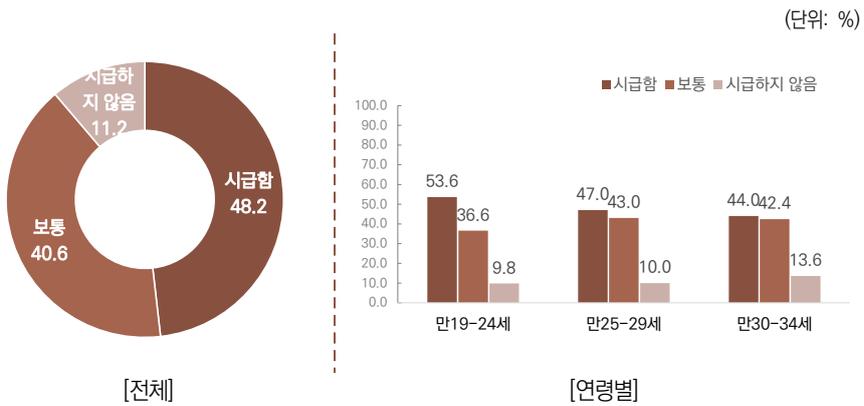


그림 V-66.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표 V-134.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시급한 사안	조금 시급한 사안	보통임	별로 시급한 사안 아님	전혀 시급한 사안 아님	χ^2
전체	(4,000)	13.8	34.4	40.6	9.4	1.8	38.569***
만19~24세	(1,356)	16.7	36.9	36.6	8.3	1.5	
만25~29세	(1,321)	12.9	34.1	43.0	8.7	1.3	
만30~34세	(1,323)	11.7	32.3	42.4	11.1	2.5	

* $p < .05$, ** $p < .01$, *** $p < .001$.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여성(50.8%),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52.1%), 집단에서 '시급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35.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조항 내용에 대한 시급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시급한 사안	조금 시급한 사안	보통임	별로 시급한 사안 아님	전혀 시급한 사안 아님	χ^2
전체		(4,000)	13.8	34.4	40.6	9.4	1.8	
성별	남성	(1,984)	13.9	31.8	41.9	10.3	2.2	16.468**
	여성	(2,016)	13.8	37.0	39.4	8.4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8.7	30.9	39.1	8.8	2.5	14.890
	대학교(재/졸)	(3,370)	13.1	34.9	41.0	9.3	1.7	
	대학원(졸)	(154)	13.6	35.7	37.7	11.7	1.3	
취업 여부	취업	(2,047)	11.8	35.6	40.5	10.2	1.9	17.103**
	미취업	(1,953)	15.9	33.2	40.7	8.5	1.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1.6	35.8	40.3	10.3	2.0	19.744*
	시간제 근로	(164)	14.0	32.3	43.9	8.5	1.2	
	미취업	(1,953)	15.9	33.2	40.7	8.5	1.6	
지역	수도권	(2,234)	12.8	34.9	40.9	9.3	2.1	24.298
	충청권	(409)	14.2	32.8	39.1	12.2	1.7	
	전라권	(348)	13.5	32.2	44.5	7.5	2.3	
	경상권	(869)	16.3	34.5	39.4	9.2	0.6	
	강원/제주권	(140)	15.0	36.4	39.3	7.1	2.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3.8	34.7	39.7	9.9	1.8	7.240
	중소도시	(1,426)	13.7	34.4	41.7	8.8	1.5	
	읍면	(268)	14.6	32.1	42.9	7.5	3.0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7.0	35.1	37.2	8.8	1.9	38.622***
	비빈곤층	(2,128)	11.0	33.8	43.7	9.9	1.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3.0	34.9	40.1	9.9	2.0	4.536
	중위소득 미만	(2,082)	14.6	34.0	41.1	8.9	1.5	

* $p < .05$, ** $p < .01$, *** $p < .001$.

(3)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관한 인지도 및 수혜여부

가. 해외 청년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7.3%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72.8%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40.5%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5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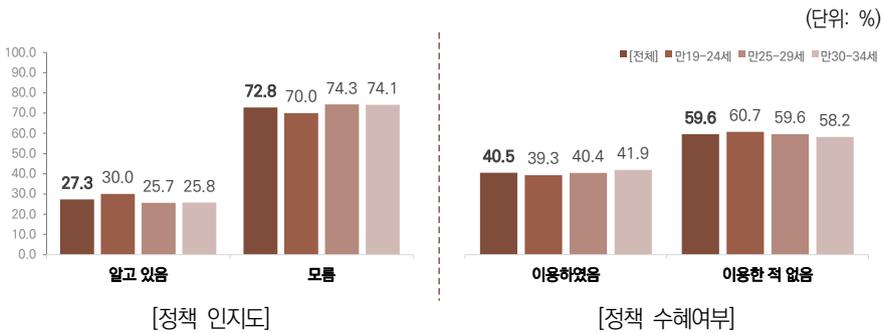


그림 V-67.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표 V-136.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1	21.2	72.8		9.4	31.1	59.6		
만19~24세	(1,356)	7.3	22.7	70.0	10.180*	10.8	28.5	60.7	3.524	
만25~29세	(1,321)	5.6	20.1	74.3		7.7	32.7	59.6		
만30~34세	(1,323)	5.2	20.6	74.1		9.4	32.5	58.2		

* $p < .05$, ** $p < .01$, *** $p < .001$.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 학력,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137.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x ²	수혜여부			x ²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1	21.2	72.8		9.4	31.1	59.6		
성별	남성 (1,984)	8.0	23.2	68.8	42.068 ***	11.5	37.9	50.6	47.547 ***	
	여성 (2,016)	4.1	19.1	76.8		6.6	22.0	7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6.1	15.3	78.6	11.959 *	7.8	29.4	62.7	2.468	
	대학교(재/졸) (3,370)	6.0	21.8	72.2		9.5	30.8	59.7		
	대학원(졸) (154)	6.5	24.7	68.8		10.4	39.6	50.0		
취업 여부	취업 (2,047)	6.0	21.7	72.3	0.888	9.5	35.4	55.0	11.436 **	
	미취업 (1,953)	6.1	20.5	73.3		9.2	26.3	64.5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5.6	21.8	72.6	5.430	9.5	35.5	55.0	11.441 *	
	시간제 근로 (164)	9.8	21.3	68.9		9.8	35.3	54.9		
	미취업 (1,953)	6.1	20.5	73.3		9.2	26.3	64.5		
지역	수도권 (2,234)	5.6	21.4	73.0	9.827	9.0	31.5	59.5	7.599	
	충청권 (409)	4.4	19.3	76.3		12.4	34.0	53.6		
	전라권 (348)	7.5	19.3	73.3		9.7	31.2	59.1		
	경상권 (869)	7.4	21.6	71.0		10.7	29.0	60.3		
	강원/제주권 (140)	7.1	23.6	69.3		0.0	30.2	69.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6	22.8	70.6	15.304 **	11.4	31.4	57.2	10.109 *	
	중소도시 (1,426)	5.0	19.1	75.9		5.5	30.5	64.0		
	읍면 (268)	7.1	17.5	75.4		9.1	30.3	60.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6.3	20.5	73.2	1.259	11.2	36.5	52.3	20.358 ***	
	비빈곤층 (2,128)	5.8	21.8	72.4		7.8	26.4	65.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0	21.5	72.5	0.328	9.5	33.3	57.2	2.668	
	중위소득 미만 (2,082)	6.1	20.8	73.1		9.3	28.9	61.8		

* $p < .05$, ** $p < .01$, *** $p < .001$.

나.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27.7%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72.4%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39.6%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60.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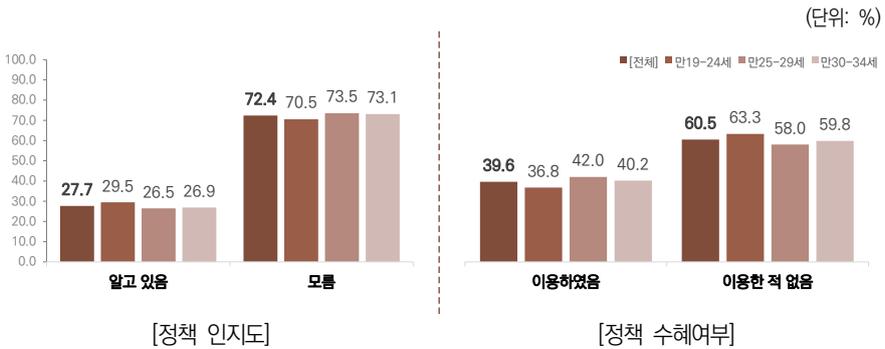


그림 V-68.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표 V-138.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2	21.5	72.4	4.638	9.9	29.7	60.5	2.624	
만19~24세	(1,356)	7.1	22.4	70.5		8.5	28.3	63.3		
만25~29세	(1,321)	5.8	20.7	73.5		10.9	31.1	58.0		
만30~34세	(1,323)	5.7	21.2	73.1		10.4	29.8	59.8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139.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2	21.5	72.4		9.9	29.7	60.5	
성별	남성 (1,984)	8.1	24.6	67.3	55.146 ***	12.5	33.4	54.1	29.204 ***
	여성 (2,016)	4.3	18.4	77.3		6.1	24.3	69.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4.8	19.7	75.4	7.215	8.5	31.6	59.8	0.682
	대학교(재/졸) (3,370)	6.4	21.4	72.1		9.9	29.4	60.7	
	대학원(졸) (154)	4.5	27.9	67.5		12.0	30.0	58.0	
취업 여부	취업 (2,047)	6.6	22.2	71.2	2.897	12.6	33.3	54.2	23.290 ***
	미취업 (1,953)	5.7	20.7	73.5		6.8	25.5	67.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8	21.9	71.3	5.126	12.2	33.1	54.7	24.600 ***
	시간제 근로 (164)	4.3	25.0	70.7		16.7	35.4	47.9	
	미취업 (1,953)	5.7	20.7	73.5		6.8	25.5	67.7	
지역	수도권 (2,234)	6.4	22.5	71.1	10.350	9.0	30.5	60.5	5.424
	충청권 (409)	4.2	20.3	75.6		8.0	31.0	61.0	
	전라권 (348)	6.3	22.4	71.3		10.0	33.0	57.0	
	경상권 (869)	6.8	19.7	73.5		13.0	25.7	61.3	
	강원/제주권 (140)	4.3	17.1	78.6		10.0	26.7	63.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4	23.2	69.4	30.107 ***	10.5	31.6	57.9	5.926
	중소도시 (1,426)	4.3	18.4	77.2		8.3	26.5	65.2	
	읍면 (268)	5.6	22.8	71.6		10.5	25.0	64.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2	20.7	72.2	6.577*	12.7	31.7	55.7	13.046 **
	비빈곤층 (2,128)	5.3	22.2	72.5		7.4	27.9	64.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8	21.4	71.8	2.735	12.9	30.7	56.4	13.554 **
	중위소득 미만 (2,082)	5.6	21.6	72.9		6.9	28.7	64.4	

* $p < .05$, ** $p < .01$, *** $p < .001$.

다.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0.1%로 나타
 났으며, '모름' 응답은 69.9%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49.2%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50.8%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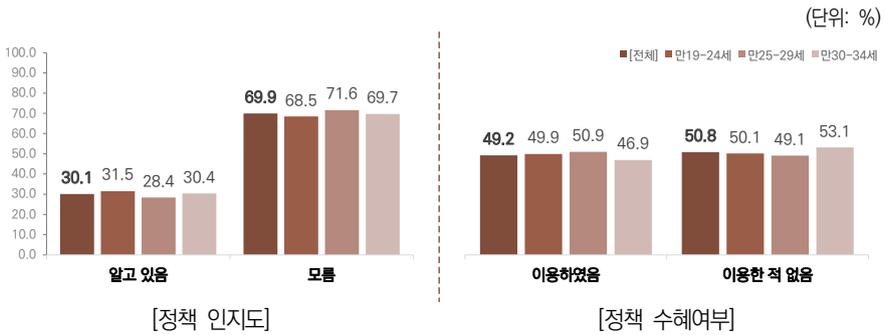


그림 V-69.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표 V-140.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7.7	22.4	69.9	8.371	12.0	37.2	50.8	1.800
만19~24세	(1,356)	9.1	22.4	68.5		12.9	37.0	50.1	
만25~29세	(1,321)	7.3	21.1	71.6		12.0	38.9	49.1	
만30~34세	(1,323)	6.7	23.7	69.7		11.0	35.9	53.1	

* $p < .05$, ** $p < .01$, *** $p < .00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취업 여부,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7.7	22.4	69.9		12.0	37.2	50.8		
성별	남성 (1,984)	9.5	23.4	67.0	24.166 ***	13.6	39.3	47.1	8.694*	
	여성 (2,016)	5.9	21.4	72.8		10.0	34.8	55.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9	20.0	74.2	9.061	17.1	39.0	43.9	4.996	
	대학교(재/졸) (3,370)	7.9	23.0	69.1		11.2	37.1	51.7		
	대학원(졸) (154)	9.1	16.2	74.7		15.4	35.9	48.7		
취업 여부	취업 (2,047)	7.9	23.9	68.2	6.035*	11.8	39.7	48.5	3.810	
	미취업 (1,953)	7.5	20.8	71.7		12.1	34.4	53.5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0	23.8	68.1	6.822	12.3	38.8	48.8	7.114	
	시간제 근로 (164)	6.1	24.4	69.5		6.0	50.0	44.0		
	미취업 (1,953)	7.5	20.8	71.7		12.1	34.4	53.5		
지역	수도권 (2,234)	7.6	22.7	69.7	12.507	12.1	38.9	49.0	5.216	
	충청권 (409)	6.4	20.5	73.1		12.7	32.7	54.5		
	전라권 (348)	11.2	20.4	68.4		12.7	32.7	54.5		
	경상권 (869)	7.7	22.7	69.6		11.0	38.3	50.8		
	강원/제주권 (140)	3.6	25.7	70.7		12.2	26.8	61.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8.8	23.4	67.9	17.487 **	11.9	37.7	50.5	0.661	
	중소도시 (1,426)	6.2	20.3	73.6		11.7	37.1	51.2		
	읍면 (268)	6.3	25.4	68.3		14.1	34.1	51.8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7	22.5	69.8	0.046	12.9	38.2	48.9	1.732	
	비빈곤층 (2,128)	7.7	22.3	70.1		11.1	36.4	52.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6	23.8	68.7	4.009	11.6	38.6	49.8	0.958	
	중위소득 미만 (2,082)	7.8	21.1	71.1		12.3	35.9	51.8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0.5%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69.6%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37.8%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62.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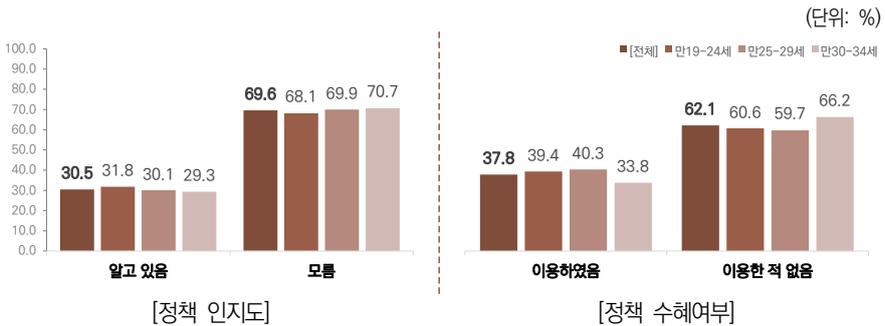


그림 V-70.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표 V-142.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1	24.4	69.6	3.290	8.5	29.3	62.1	4.314	
만19~24세	(1,356)	6.6	25.2	68.1		8.8	30.6	60.6		
만25~29세	(1,321)	5.5	24.6	69.9		8.8	31.5	59.7		
만30~34세	(1,323)	6.0	23.3	70.7		8.0	25.8	66.2		

* $p < .05$, ** $p < .01$, *** $p < .001$.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3.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6.1	24.4	69.6		8.5	29.3	62.1	
성별	남성 (1,984)	7.9	23.9	68.2	22.765	11.4	35.8	52.8	49.783
	여성 (2,016)	4.3	24.8	70.9	***	5.5	22.4	72.2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6	20.2	72.3	6.606	11.4	27.3	61.4	5.167
	대학교(재/졸) (3,370)	5.8	25.0	69.2		8.4	29.1	62.6	
	대학원(졸) (154)	5.8	24.0	70.1		4.3	41.3	54.3	
취업 여부	취업 (2,047)	6.3	25.4	68.4	2.777	9.3	29.7	61.1	1.166
	미취업 (1,953)	5.8	23.3	70.8		7.7	28.9	63.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1	25.4	68.5	4.426	9.3	29.5	61.2	1.261
	시간제 근로 (164)	8.5	24.4	67.1		9.3	31.5	59.3	
	미취업 (1,953)	5.8	23.3	70.8		7.7	28.9	63.3	
지역	수도권 (2,234)	5.7	24.0	70.3	6.547	8.4	29.0	62.6	12.075
	충청권 (409)	5.6	22.5	71.9		5.2	37.4	57.4	
	전라권 (348)	7.8	26.4	65.8		12.6	33.6	53.8	
	경상권 (869)	6.4	25.8	67.8		8.9	25.0	66.1	
	강원/제주권 (140)	6.4	22.1	71.4		5.0	30.0	65.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6	25.5	68.0	12.173*	8.7	29.4	62.0	11.843*
	중소도시 (1,426)	4.8	22.9	72.4		6.3	29.7	64.0	
	읍면 (268)	8.2	23.1	68.7		17.9	27.4	54.8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6.3	24.8	68.9	0.946	9.9	32.2	57.8	9.169*
	비빈곤층 (2,128)	5.8	24.0	70.2		7.3	26.7	66.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2	25.4	68.5	2.287	8.4	31.2	60.3	2.128
	중위소득 미만 (2,082)	6.0	23.4	70.6		8.7	27.5	63.9	

* $p < .05$, ** $p < .01$, *** $p < .001$.

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7.6%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62.4%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 응답자 중 정책 수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였음' 응답은 37.3%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은 62.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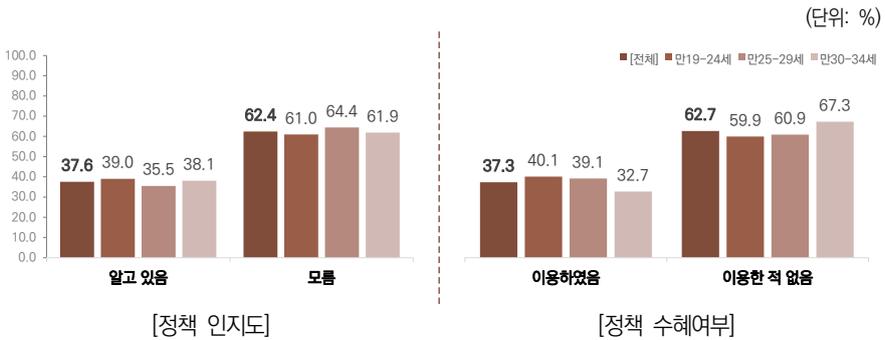


그림 V-7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표 V-14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χ^2	수혜여부			χ^2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000)	11.1	26.5	62.4		14.4	22.9	62.7	
만19~24세	(1,356)	12.3	26.7	61.0	5.626	16.3	23.8	59.9	8.093
만25~29세	(1,321)	10.4	25.1	64.4		15.5	23.6	60.9	
만30~34세	(1,323)	10.5	27.6	61.9		11.5	21.2	67.3	

* $p < .05$, ** $p < .01$, *** $p < .00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정책 '인지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혜여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인지도				수혜여부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χ^2	매우 많 이 이용 하였음	조금 이용 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χ^2
전체	(4,000)	11.1	26.5	62.4		14.4	22.9	62.7	
성별	남성 (1,984)	12.4	28.1	59.5	15.089	17.8	26.3	55.9	34.786
	여성 (2,016)	9.8	24.9	65.3	***	10.6	19.0	70.4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1.8	26.9	61.3	3.530	20.7	23.4	56.0	9.127
	대학교(재/졸) (3,370)	11.0	26.1	62.8		13.8	22.5	63.7	
	대학원(졸) (154)	11.0	32.5	56.5		9.0	28.4	62.7	
취업 여부	취업 (2,047)	10.5	27.7	61.7	4.218	12.6	23.8	63.6	4.405
	미취업 (1,953)	11.7	25.1	63.1		16.4	21.9	61.7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10.5	27.5	62.1	5.427	12.7	23.0	64.3	7.253
	시간제 근로 (164)	11.0	31.1	57.9		11.6	31.9	56.5	
	미취업 (1,953)	11.7	25.1	63.1		16.4	21.9	61.7	
지역	수도권 (2,234)	10.5	26.1	63.4	17.836	14.4	21.3	64.3	16.759
	충청권 (409)	9.8	22.5	67.7		9.1	34.1	56.8	
	전라권 (348)	15.2	30.2	54.6		15.2	27.2	57.6	
	경상권 (869)	11.5	27.5	61.0		16.8	20.6	62.5	
	강원/제주권 (140)	12.1	27.9	60.0		10.7	21.4	67.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1.2	27.7	61.1	7.713	15.8	23.1	61.0	20.832
	중소도시 (1,426)	10.4	25.0	64.7		9.7	23.0	67.3	
	읍면 (268)	14.2	24.3	61.6		25.2	20.4	54.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2.4	27.6	60.0	10.380	18.0	26.8	55.1	36.992
	비빈곤층 (2,128)	10.0	25.5	64.6	**	10.9	19.0	70.2	***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0.4	27.7	61.9	4.131	13.1	23.4	63.5	1.983
	중위소득 미만 (2,082)	11.8	25.3	62.9		15.7	22.4	61.9	

* $p < .05$, ** $p < .01$, *** $p < .001$.

(4)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관한 필요성 및 효과성

가.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53.2%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46.8%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54.3%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45.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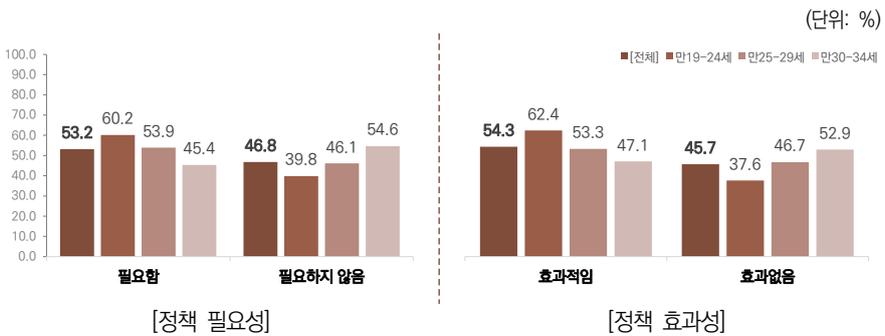


그림 V-72.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표 V-146.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53.2	46.8	69.440***	54.3	45.7	80.807***
만19~24세	(1,356)	60.2	39.8		62.4	37.6	
만25~29세	(1,321)	53.9	46.1		53.3	46.7	
만30~34세	(1,323)	45.4	54.6		47.1	52.9	

* $p < .05$, ** $p < .01$, *** $p < .001$.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147.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53.2	46.8		54.3	45.7	
성별	남성 (1,984)	51.3	48.7	27.765***	50.6	49.4	41.982***
	여성 (2,016)	55.1	44.9		58.0	42.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3.8	46.2	10.411	50.6	49.4	12.462
	대학교(재/졸) (3,370)	53.4	46.6		55.2	44.8	
	대학원(졸) (154)	46.1	53.9		46.1	53.9	
취업 여부	취업 (2,047)	50.0	50.0	33.216***	50.1	49.9	38.114***
	미취업 (1,953)	56.6	43.4		58.7	41.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9.9	50.1	33.943***	49.8	50.2	41.405***
	시간제 근로 (164)	50.6	49.4		54.3	45.7	
	미취업 (1,953)	56.6	43.4		58.7	41.3	
지역	수도권 (2,234)	52.4	47.6	15.601	53.2	46.8	18.829
	충청권 (409)	50.1	49.9		51.3	48.7	
	전라권 (348)	54.0	46.0		54.0	46.0	
	경상권 (869)	55.9	44.1		57.9	42.1	
	강원/제주권 (140)	56.4	43.6		59.3	40.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1.6	48.4	14.954*	52.6	47.4	12.256
	중소도시 (1,426)	54.3	45.7		56.4	43.6	
	읍면 (268)	60.8	39.2		58.6	41.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2.7	47.3	4.435	53.4	46.6	1.285
	비빈곤층 (2,128)	53.7	46.3		55.1	44.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51.0	49.0	16.427***	51.9	48.1	12.483**
	중위소득 미만 (2,082)	55.2	44.8		56.5	43.5	

* $p < .05$, ** $p < .01$, *** $p < .001$.

나.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71.3%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67.8%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32.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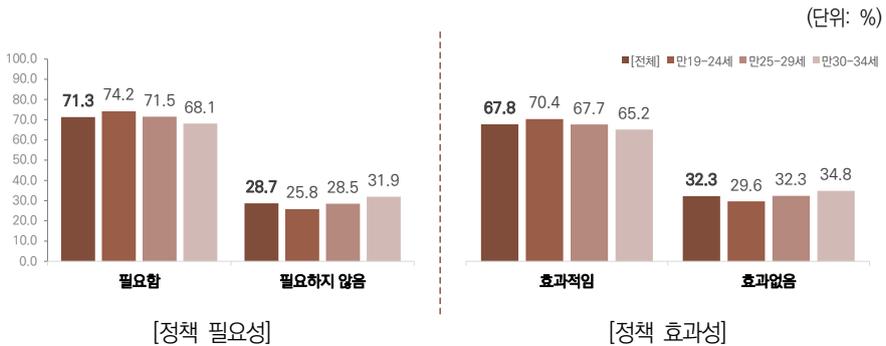


그림 V-73.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표 V-148.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1.3	28.7	26.118***	67.8	32.3	37.065***
만19~24세	(1,356)	74.2	25.8		70.4	29.6	
만25~29세	(1,321)	71.5	28.5		67.7	32.3	
만30~34세	(1,323)	68.1	31.9		65.2	34.8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149.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1.3	28.7		67.8	32.3	
성별	남성 (1,984)	67.3	32.7	36.060***	63.0	37.0	53.818**
	여성 (2,016)	75.2	24.8		72.5	27.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69.5	30.5	14.537*	65.5	34.5	18.472**
	대학교(재/졸) (3,370)	71.7	28.3		68.2	31.8	
	대학원(졸) (154)	68.8	31.2		63.6	36.4	
취업 여부	취업 (2,047)	69.0	31.0	18.001***	66.2	33.8	25.415***
	미취업 (1,953)	73.7	26.3		69.4	30.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8.7	31.3	20.108**	65.8	34.2	27.610***
	시간제 근로 (164)	72.0	28.0		70.7	29.3	
	미취업 (1,953)	73.7	26.3		69.4	30.6	
지역	수도권 (2,234)	70.7	29.3	9.295	66.6	33.4	16.875
	충청권 (409)	70.9	29.1		66.5	33.5	
	전라권 (348)	73.0	27.0		67.5	32.5	
	경상권 (869)	73.1	26.9		70.7	29.3	
	강원/제주권 (140)	67.1	32.9		72.9	27.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9.9	30.1	14.194*	66.5	33.5	13.357*
	중소도시 (1,426)	72.4	27.6		69.1	30.9	
	읍면 (268)	77.2	22.8		71.6	28.4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0.8	29.2	2.661	66.8	33.2	3.055
	비빈곤층 (2,128)	71.7	28.3		68.6	31.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9.9	30.1	6.570	66.9	33.1	10.758*
	중위소득 미만 (2,082)	72.6	27.4		68.5	31.5	

* $p < .05$, ** $p < .01$, *** $p < .001$.

다.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72.1%로 나타났으
 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28.0%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0.2%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9.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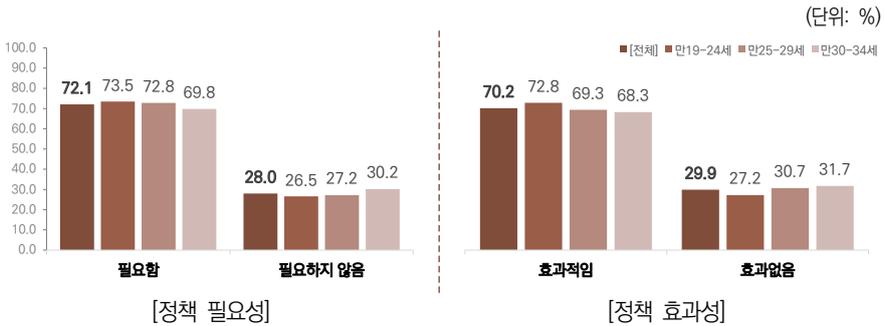


그림 V-74.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표 V-150.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2.1	28.0	12.674*	70.2	29.9	13.272*
만19~24세	(1,356)	73.5	26.5		72.8	27.2	
만25~29세	(1,321)	72.8	27.2		69.3	30.7	
만30~34세	(1,323)	69.8	30.2		68.3	31.7	

* $p < .05$, ** $p < .01$, *** $p < .00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 학력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2.1	28.0		70.2	29.9	
성별	남성	(1,984)	65.0	35.0	121.749	63.3	36.7	116.098
	여성	(2,016)	79.0	21.0	***	76.9	23.1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1.8	28.2	7.707	64.3	35.7	17.025**
	대학교(재/졸)	(3,370)	72.3	27.7		71.2	28.8	
	대학원(졸)	(154)	66.2	33.8		64.3	35.7	
취업 여부	취업	(2,047)	71.5	28.5	6.919	68.7	31.3	5.044
	미취업	(1,953)	72.7	27.3		71.7	28.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1.1	28.9	10.495	68.2	31.8	10.001
	시간제 근로	(164)	75.6	24.4		74.4	25.6	
	미취업	(1,953)	72.7	27.3		71.7	28.3	
지역	수도권	(2,234)	71.7	28.3	8.126	70.1	29.9	9.019
	충청권	(409)	71.1	28.9		68.0	32.0	
	전라권	(348)	71.8	28.2		68.1	31.9	
	경상권	(869)	72.7	27.3		71.6	28.4	
	강원/제주권	(140)	77.1	22.9		72.9	27.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0.6	29.4	10.232	69.3	30.7	9.321
	중소도시	(1,426)	73.6	26.4		71.2	28.8	
	읍면	(268)	76.9	23.1		71.3	28.7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2.5	27.5	2.989	68.6	31.4	5.038
	비빈곤층	(2,128)	71.6	28.4		71.5	28.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2.7	27.3	5.428	69.9	30.1	1.502
	중위소득 미만	(2,082)	71.5	28.5		70.4	29.6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66.5%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64.9%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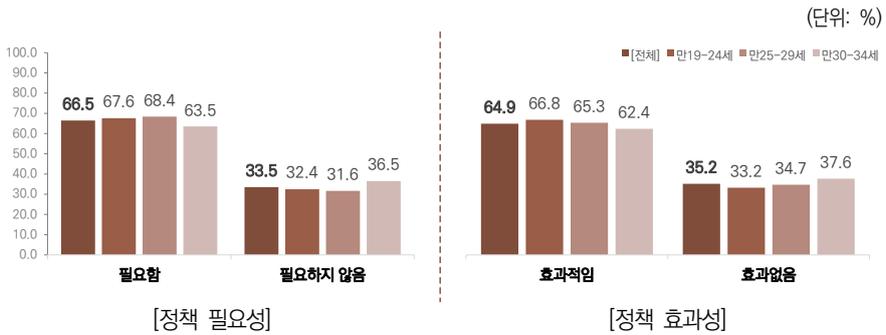


그림 V-75.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표 V-152.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66.5	33.5	29.149***	64.9	35.2	27.057***
만19~24세	(1,356)	67.6	32.4		66.8	33.2	
만25~29세	(1,321)	68.4	31.6		65.3	34.7	
만30~34세	(1,323)	63.5	36.5		62.4	37.6	

* $p < .05$, ** $p < .01$, *** $p < .001$.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최종 학력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주관적 빈곤의식, 1인가구 중위 소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153.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66.5	33.5		64.9	35.2	
성별	남성	(1,984)	59.7	40.3	112.868 ***	57.8	42.2	109.700 ***
	여성	(2,016)	73.1	26.9		71.8	2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64.7	35.3	19.104**	61.1	38.9	20.914**
	대학교(재/졸)	(3,370)	67.1	32.9		65.5	34.5	
	대학원(졸)	(154)	57.8	42.2		61.7	38.3	
취업 여부	취업	(2,047)	65.7	34.3	6.590	63.0	37.0	9.561*
	미취업	(1,953)	67.3	32.7		66.8	33.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65.5	34.5	11.065	62.7	37.3	18.493**
	시간제 근로	(164)	68.3	31.7		66.5	33.5	
	미취업	(1,953)	67.3	32.7		66.8	33.2	
지역	수도권	(2,234)	65.8	34.2	9.893	63.4	36.6	13.111
	충청권	(409)	65.0	35.0		66.3	33.7	
	전라권	(348)	67.0	33.0		64.4	35.6	
	경상권	(869)	67.4	32.6		66.6	33.4	
	강원/제주권	(140)	75.0	25.0		73.6	26.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65.1	34.9	6.847	63.0	37.0	10.289
	중소도시	(1,426)	67.7	32.3		66.7	33.3	
	읍면	(268)	71.6	28.4		70.9	29.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66.5	33.5	0.753	63.1	36.9	4.718
	비빈곤층	(2,128)	66.4	33.6		66.4	33.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66.5	33.5	6.367	64.2	35.8	4.993
	중위소득 미만	(2,082)	66.5	33.5		65.5	34.5	

* $p < .05$, ** $p < .01$, *** $p < .001$.

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함' 응답은 74.2%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 응답은 25.8%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효과적임' 응답은 72.1%로 나타났으며, '효과 없음' 응답은 28.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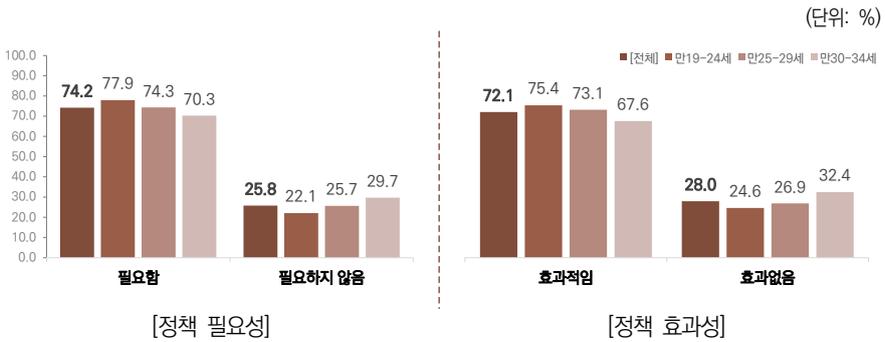


그림 V-7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표 V-15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4.2	25.8	45.130***	72.1	28.0	46.000***
만19~24세	(1,356)	77.9	22.1		75.4	24.6	
만25~29세	(1,321)	74.3	25.7		73.1	26.9	
만30~34세	(1,323)	70.3	29.7		67.6	32.4	

* $p < .05$, ** $p < .01$, *** $p < .00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최종학력,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책 ‘효과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지역, 주관적 빈곤의식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15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4.2	25.8		72.1	28.0	
성별	남성	(1,984)	70.9	29.1	27.943***	68.8	31.2	25.438***
	여성	(2,016)	77.5	22.5		75.2	24.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3.7	26.3	9.209	72.7	27.3	12.728*
	대학교(재/졸)	(3,370)	74.4	25.6		72.1	27.9	
	대학원(졸)	(154)	71.4	28.6		68.8	31.2	
취업 여부	취업	(2,047)	70.7	29.3	53.166***	69.3	30.7	43.871***
	미취업	(1,953)	77.9	22.1		74.9	25.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0.6	29.4	54.672***	69.2	30.8	45.661***
	시간제 근로	(164)	72.0	28.0		70.7	29.3	
	미취업	(1,953)	77.9	22.1		74.9	25.1	
지역	수도권	(2,234)	73.9	26.1	24.230*	71.6	28.4	19.279
	충청권	(409)	73.8	26.2		73.6	26.4	
	전라권	(348)	68.7	31.3		68.4	31.6	
	경상권	(869)	77.3	22.7		73.0	27.0	
	강원/제주권	(140)	75.0	25.0		77.9	22.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2.5	27.5	21.969**	69.8	30.2	23.708***
	중소도시	(1,426)	75.9	24.1		74.3	25.7	
	읍면	(268)	80.6	19.4		79.5	20.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4.2	25.8	4.985	71.8	28.2	0.220
	비빈곤층	(2,128)	74.2	25.8		72.2	27.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2.7	27.3	19.829***	70.8	29.2	20.615***
	중위소득 미만	(2,082)	75.6	24.4		73.2	26.8	

* $p < .05$, ** $p < .01$, *** $p < .001$.

(5)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 응답이 7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70.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5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2+3순위 기준)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1.2%, 만25~29세: 74.6%, 만30~34세: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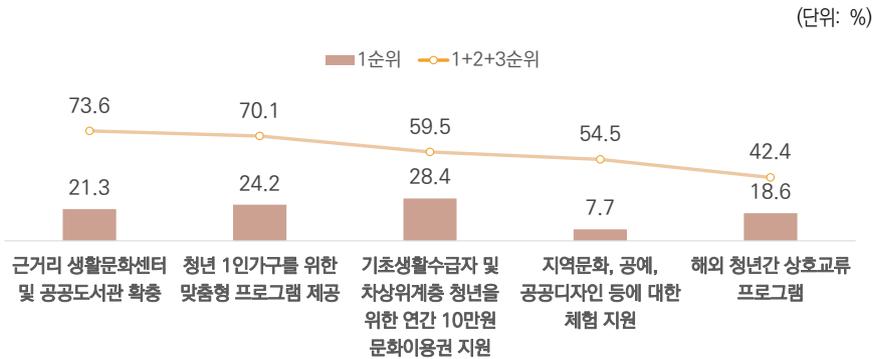


그림 V-77.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

표 V-156.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 화이용권 지원	청년 1인 가구를 위 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근거리 생 활문화센 터 및 공공 도서관 확충	해외 청년 상호교 류 프로그 램	지역문화, 공예, 공공 디자인 등 에 대한 체 험 지원	χ^2
전체	(4,000)	28.4	24.2	21.3	18.6	7.7	39.844***
만19~24세	(1,356)	29.4	22.4	19.2	22.3	6.6	
만25~29세	(1,321)	28.5	23.8	21.4	17.7	8.6	
만30~34세	(1,323)	27.2	26.2	23.2	15.5	7.9	

* $p < .05$, ** $p < .01$, *** $p < .001$.

표 V-157.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근거리 생활 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	청년 1인가 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 원 문화이 용권 지원	지역문화, 공 공예, 공공디 자 등에 대한 체험 지원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전체	(4,000)	73.6	70.1	59.5	54.5	42.4
만19~24세	(1,356)	71.2	69.0	59.7	52.2	47.9
만25~29세	(1,321)	74.6	69.9	59.3	56.2	40.0
만30~34세	(1,323)	75.0	71.4	59.3	55.0	39.3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변인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남성(29.7%) 집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순위 기준)

표 V-158.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순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 권 지원	청년 1인 가구를 위 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근거리 생 활문화센 터 및 공 공도서관 확충	해외 청년 간 교류 프로그램	지역문화, 공예, 공 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χ^2	
전체	(4,000)	28.4	24.2	21.3	18.6	7.7		
성별	남성	(1,984)	29.7	24.1	18.8	21.3	6.1	48.300***
	여성	(2,016)	27.0	24.2	23.7	15.9	9.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34.5	23.3	14.7	19.1	8.4	3.520
	대학교(재/졸)	(3,370)	27.7	24.3	21.8	18.5	7.7	
	대학원(졸)	(154)	25.3	23.4	28.6	16.9	5.8	
취업 여부	취업	(2,047)	25.8	24.7	22.6	18.1	8.7	3.643
	미취업	(1,953)	31.0	23.6	19.8	19.0	6.6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26.1	24.2	23.0	17.9	8.8	6.134
	시간제 근로	(164)	22.6	29.9	18.3	20.7	8.5	
	미취업	(1,953)	31.0	23.6	19.8	19.0	6.6	
지역	수도권	(2,234)	28.2	23.7	21.8	18.2	8.1	13.564
	충청권	(409)	30.8	22.0	20.5	20.0	6.6	
	전라권	(348)	29.9	24.1	19.0	19.5	7.5	
	경상권	(869)	26.7	26.4	21.2	19.3	6.4	
	강원/제주권	(140)	30.0	24.3	21.4	12.9	11.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26.7	25.1	21.4	18.8	8.0	9.036
	중소도시	(1,426)	30.2	23.1	21.9	17.7	7.2	
주관적 비근의식	읍면	(268)	33.6	21.6	16.8	20.5	7.5	0.665
	빈곤층	(1,872)	28.6	24.8	20.1	18.8	7.6	
1인가구 중위소득	비빈곤층	(2,128)	28.1	23.5	22.3	18.3	7.7	2.762
	중위소득 이상	(1,918)	25.9	24.1	22.8	18.5	8.7	
	중위소득 미만	(2,082)	30.6	24.2	19.8	18.6	6.7	

* $p < .05$, ** $p < .01$, *** $p < .001$.

표 V-159.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1+2+3순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근거리 생활 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	청년 1인가 구를 위한 맞 춤형 프로그 램 제공	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 위계층 청년 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 이용권 지원	지역문화, 공 예, 공공디자 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전체		(4,000)	73.6	70.1	59.5	54.5	42.4
성별	남성	(1,984)	72.3	71.4	58.3	50.4	47.5
	여성	(2,016)	74.8	68.8	60.6	58.4	37.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74.6	71.2	61.8	50.6	41.8
	대학교(재/졸)	(3,370)	73.5	69.7	59.1	55.1	42.6
	대학원(졸)	(154)	70.8	76.6	59.1	52.6	40.9
취업 여부	취업	(2,047)	74.9	70.2	56.7	56.4	41.7
	미취업	(1,953)	72.1	70.0	62.3	52.4	43.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5.3	70.3	56.8	56.3	41.4
	시간제 근로	(164)	70.7	70.1	56.1	57.9	45.1
	미취업	(1,953)	72.1	70.0	62.3	52.4	43.2
지역	수도권	(2,234)	74.0	69.7	59.4	54.9	42.0
	충청권	(409)	70.4	68.7	63.8	54.5	42.5
	전라권	(348)	79.0	69.3	56.0	52.9	42.8
	경상권	(869)	71.5	73.6	58.1	52.6	44.2
	강원/제주권	(140)	74.3	62.1	65.0	62.1	36.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3.9	70.1	58.2	54.4	43.5
	중소도시	(1,426)	72.8	70.7	61.2	54.3	41.0
	읍면	(268)	75.0	67.5	61.2	56.0	40.3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73.9	70.2	58.4	55.3	42.3
	비빈곤층	(2,128)	73.3	70.1	60.4	53.7	42.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74.9	70.4	57.1	55.5	42.1
	중위소득 미만	(2,082)	72.3	69.9	61.6	53.5	42.7

(6)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년 문화/여가활동비 지원'(35.8%), '청년 공공문화시설 확충'(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는 '청년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응답이(40.1%), 만25-29세 집단에서는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 응답이(37.8%)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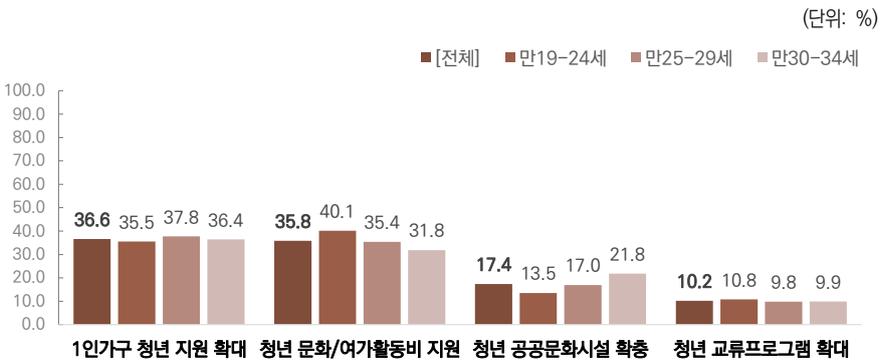


그림 V-78.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표 V-160.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	청년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청년 공공문화 시설 확충	청년 교류프로그램 확대	χ^2
전체	(4,000)	36.6	35.8	17.4	10.2	41.748***
만19~24세	(1,356)	35.5	40.1	13.5	10.8	
만25~29세	(1,321)	37.8	35.4	17.0	9.8	
만30~34세	(1,323)	36.4	31.8	21.8	9.9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43.1%) 집단에서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61.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	청년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청년 공공문화 시설 확충	청년 교류프로 그램 확대	χ^2
전체		(4,000)	36.6	35.8	17.4	10.2	
성별	남성	(1,984)	40.5	34.6	13.1	11.8	70.895***
	여성	(2,016)	32.7	37.0	21.7	8.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43.1	38.7	9.7	8.6	28.736***
	대학교(재/졸)	(3,370)	35.6	35.6	18.4	10.4	
	대학원(졸)	(154)	38.3	31.2	20.1	10.4	
취업 여부	취업	(2,047)	38.4	32.7	18.9	10.0	20.559***
	미취업	(1,953)	34.6	39.1	15.9	10.4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38.3	32.3	19.3	10.0	25.061***
	시간제 근로	(164)	39.6	37.8	13.4	9.1	
	미취업	(1,953)	34.6	39.1	15.9	10.4	
지역	수도권	(2,234)	35.9	36.9	16.9	10.3	21.646*
	충청권	(409)	39.1	31.8	18.8	10.3	
	전라권	(348)	33.3	42.0	17.2	7.5	
	경상권	(869)	39.1	31.4	18.5	10.9	
	강원/제주권	(140)	32.9	42.1	15.0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37.8	33.6	17.6	11.1	18.660**
	중소도시	(1,426)	35.6	38.2	17.6	8.6	
	읍면	(268)	31.3	42.2	14.9	11.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38.5	36.3	16.1	9.2	10.681*
	비빈곤층	(2,128)	34.9	35.4	18.6	11.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38.4	33.1	18.7	9.8	15.589**
	중위소득 미만	(2,082)	34.9	38.4	16.2	10.6	

* $p < .05$, ** $p < .01$, *** $p < .001$.

(7)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중복 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년 1인가구 돌봄 프로그램’(49.5%), ‘청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44.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만19~24세: 57.2%, 만25~29세: 51.4%, 만30~34세: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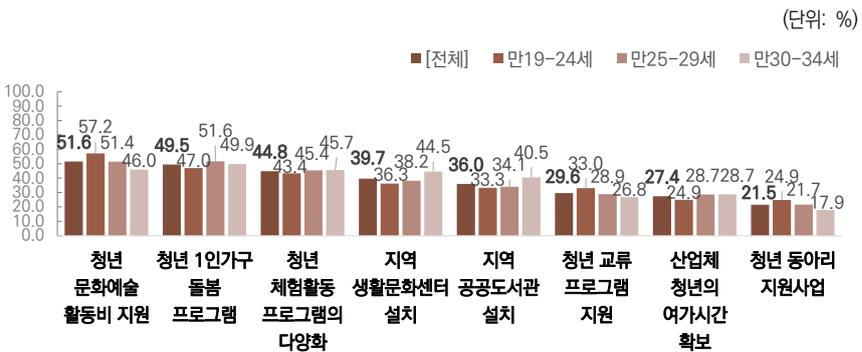


그림 V-79.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표 V-162.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청년 1인가구 돌봄 프로그램	청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생활문화센터 설치	지역 공공도서관 설치	청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산업체 청년의 여가시간 확보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전체	(4,000)	51.6	49.5	44.8	39.7	36.0	29.6	27.4	21.5
만19~24세	(1,356)	57.2	47.0	43.4	36.3	33.3	33.0	24.9	24.9
만25~29세	(1,321)	51.4	51.6	45.4	38.2	34.1	28.9	28.7	21.7
만30~34세	(1,323)	46.0	49.9	45.7	44.5	40.5	26.8	28.7	17.9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58.8%), 지역별로 강원/제주권(62.1%) 집단에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63.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문 화예술 활동비 지원	청년 1인가 구 돌봄 프로 그램	청년 체 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생 활문화 센터 설치	지역 공 공도서관 설치	청년 교 류 프로 그램 지 원	산업체 청년의 여가시 간 확보	청년 동 아리 지 원사업
전체		(4,000)	51.6	49.5	44.8	39.7	36.0	29.6	27.4	21.5
성별	남성	(1,984)	48.6	50.4	42.0	38.7	33.6	33.2	26.6	27.0
	여성	(2,016)	54.5	48.6	47.5	40.6	38.3	26.1	28.3	16.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58.8	51.3	37.8	37.6	33.6	29.4	28.2	23.3
	대학교(재/졸)	(3,370)	50.5	49.1	45.9	39.8	36.5	29.7	27.1	21.4
	대학원(졸)	(154)	53.2	51.9	42.9	42.2	30.5	28.6	33.1	17.5
취업 여부	취업	(2,047)	47.5	50.8	45.6	42.9	37.8	26.7	28.0	20.7
	미취업	(1,953)	55.9	48.1	44.0	36.2	34.1	32.7	26.8	22.3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47.3	50.6	46.4	43.3	38.0	26.7	27.3	20.4
	시간제 근로	(164)	50.0	53.7	36.6	38.4	34.8	26.2	36.6	23.8
	미취업	(1,953)	55.9	48.1	44.0	36.2	34.1	32.7	26.8	22.3
지역	수도권	(2,234)	51.3	49.7	45.1	39.6	37.7	28.5	26.7	21.5
	충청권	(409)	51.8	53.1	42.5	41.1	34.0	29.1	26.9	21.5
	전라권	(348)	55.2	46.6	43.7	40.2	29.9	34.2	27.6	22.7
	경상권	(869)	49.1	49.0	45.0	39.4	36.1	29.7	30.4	21.3
	강원/제주권	(140)	62.1	45.7	47.9	37.1	27.9	37.9	22.1	19.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50.4	49.7	44.7	39.7	38.5	29.3	25.3	22.4
	중소도시	(1,426)	53.7	49.2	44.3	39.6	32.7	29.5	30.8	20.3
	읍면	(268)	50.4	49.3	48.5	39.6	31.3	33.2	27.6	20.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52.2	51.0	43.9	38.9	35.6	28.0	29.4	20.9
	비빈곤층	(2,128)	51.0	48.2	45.6	40.3	36.3	31.0	25.7	22.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48.3	50.9	46.4	42.4	36.4	28.4	27.0	20.1
	중위소득 미만	(2,082)	54.6	48.1	43.3	37.1	35.5	30.8	27.9	22.8

4. 빈곤 의식

1) 주관적 빈곤 의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빈곤 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은 46.9%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응답은 53.3%로 나타났다.

주관적 빈곤 의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9.3%, 만25~29세: 48.8%, 만30~34세: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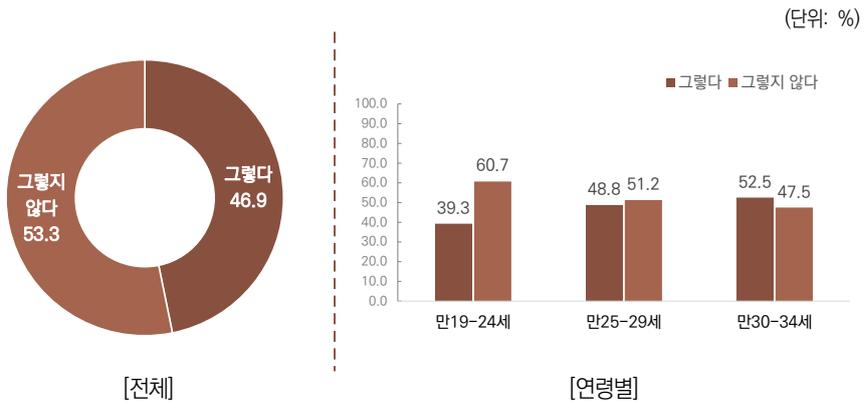


그림 V-80. 주관적 빈곤 의식

표 V-164. 주관적 빈곤 의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00)	11.4	35.5	40.4	12.9	99.107***
만19~24세	(1,356)	9.9	29.4	41.3	19.4	
만25~29세	(1,321)	11.4	37.3	40.6	10.7	
만30~34세	(1,323)	12.8	39.8	39.2	8.3	

* $p < .05$, ** $p < .01$, *** $p < .001$.

주관적 빈곤 의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대학교(재학/졸업)(55.6%), 지역별로 수도권(55.0%)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65. 주관적 빈곤 의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00)	11.4	35.5	40.4	12.9	2.667
성별	남성	(1,984)	12.3	34.4	39.2	14.2	
	여성	(2,016)	10.4	36.5	41.5	11.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26.1	37.6	29.2	7.1	134.602***
	대학교(재/졸)	(3,370)	9.4	35.0	42.0	13.6	
	대학원(졸)	(154)	9.1	37.7	39.0	14.3	
취업 여부	취업	(2,047)	9.2	38.7	41.8	10.3	53.302***
	미취업	(1,953)	13.6	32.0	38.9	15.5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6	38.5	42.3	10.7	65.941***
	시간제 근로	(164)	16.5	41.5	36.0	6.1	
	미취업	(1,953)	13.6	32.0	38.9	15.5	
지역	수도권	(2,234)	10.3	34.7	41.3	13.7	30.893**
	충청권	(409)	12.5	36.4	42.1	9.0	
	전라권	(348)	13.2	38.5	31.3	17.0	
	경상권	(869)	12.1	35.2	41.4	11.3	
	강원/제주권	(140)	16.4	37.9	35.7	1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1.4	35.7	40.5	12.3	3.548
	중소도시	(1,426)	10.7	35.2	40.4	13.7	
	읍면	(268)	13.8	34.3	38.8	13.1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24.3	75.7	0.0	0.0	4,000.000***
	비빈곤층	(2,128)	0.0	0.0	75.8	24.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10.3	37.1	42.1	10.5	24.802***
	중위소득 미만	(2,082)	12.3	34.0	38.7	15.0	

* $p < .05$, ** $p < .01$, *** $p < .001$.

2)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은 41.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응답은 59.0%로 나타났다.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5.7%, 만25~29세: 42.0%, 만30~34세: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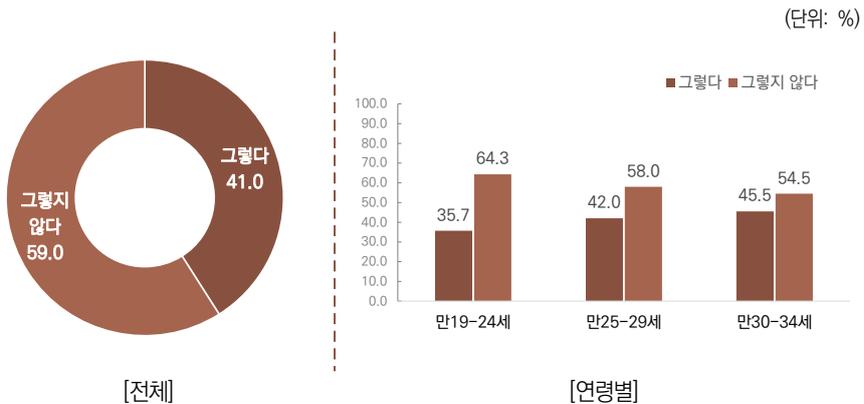


그림 V-81.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

표 V-166.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00)	9.8	31.2	39.3	19.7	82.821***
만19~24세	(1,356)	8.7	27.0	36.9	27.4	
만25~29세	(1,321)	10.4	31.6	40.8	17.2	
만30~34세	(1,323)	10.4	35.1	40.1	14.4	

* $p < .05$, ** $p < .01$, *** $p < .001$.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의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80.1%)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67. 건강 빈곤층에 관한 의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00)	9.8	31.2	39.3	19.7	2.667
성별	남성	(1,984)	9.2	30.8	40.1	19.9	
	여성	(2,016)	10.5	31.5	38.4	19.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18.7	34.7	32.1	14.5	60.607***
	대학교(재/졸)	(3,370)	8.6	30.6	40.2	20.5	
	대학원(졸)	(154)	8.4	33.1	40.3	18.2	
취업 여부	취업	(2,047)	8.6	33.3	41.7	16.4	42.965***
	미취업	(1,953)	11.1	28.9	36.7	23.2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8.1	32.7	42.5	16.7	57.479***
	시간제 근로	(164)	14.6	40.2	32.3	12.8	
	미취업	(1,953)	11.1	28.9	36.7	23.2	
지역	수도권	(2,234)	9.1	31.2	39.8	19.9	14.031
	충청권	(409)	11.7	31.5	39.4	17.4	
	전라권	(348)	12.4	33.9	33.0	20.7	
	경상권	(869)	9.6	29.2	41.1	20.1	
	강원/제주권	(140)	10.7	35.0	35.0	19.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9.7	31.9	40.2	18.3	9.637
	중소도시	(1,426)	9.8	30.3	38.6	21.2	
	읍면	(268)	11.2	29.9	35.1	23.9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8.1	46.9	28.1	6.9	925.094***
	비빈곤층	(2,128)	2.6	17.3	49.1	31.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4	32.9	41.2	17.4	24.245***
	중위소득 미만	(2,082)	11.1	29.6	37.5	21.9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은 40.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응답은 59.2%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5.5%, 만25~29세: 42.3%, 만30~34세: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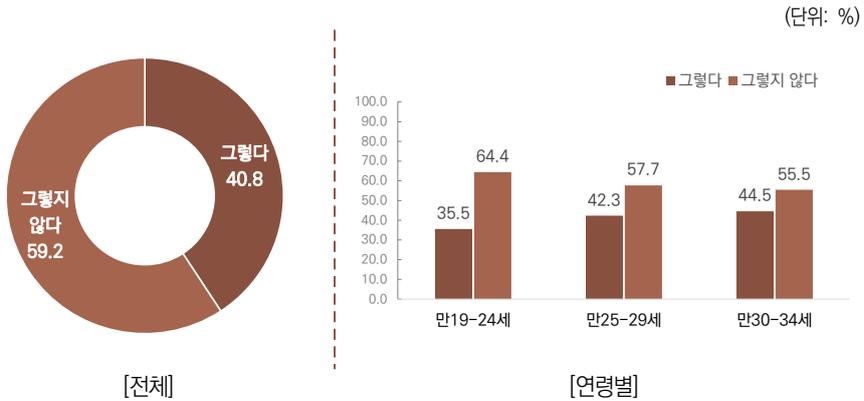


그림 V-82.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

표 V-168.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00)	9.7	31.1	39.6	19.6	56.969***
만19~24세	(1,356)	8.9	26.6	38.6	25.8	
만25~29세	(1,321)	9.3	33.0	40.9	16.8	
만30~34세	(1,323)	10.8	33.7	39.4	16.1	

* $p < .05$, ** $p < .01$, *** $p < .001$.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의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 지역, 거주 지역의 규모 변인을 제외한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비빈곤층(82.3%)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69.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에 관한 의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4,000)	9.7	31.1	39.6	19.6	5.065
성별	남성	(1,984)	10.1	31.0	38.2	20.7	
	여성	(2,016)	9.3	31.2	41.0	18.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20.2	33.4	34.0	12.4	85.840***
	대학교(재/졸)	(3,370)	8.2	30.4	40.6	20.7	
	대학원(졸)	(154)	9.7	37.7	35.1	17.5	
취업 여부	취업	(2,047)	8.0	32.6	41.9	17.5	31.274***
	미취업	(1,953)	11.5	29.4	37.2	21.9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7.4	32.6	42.3	17.8	41.372***
	시간제 근로	(164)	14.6	33.5	37.8	14.0	
	미취업	(1,953)	11.5	29.4	37.2	21.9	
지역	수도권	(2,234)	9.1	31.1	39.9	19.9	9.401
	충청권	(409)	10.5	31.3	39.9	18.3	
	전라권	(348)	11.2	31.9	35.1	21.8	
	경상권	(869)	9.8	29.8	41.4	19.0	
	강원/제주권	(140)	11.4	36.4	34.3	17.9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9.8	31.5	40.4	18.3	8.244
	중소도시	(1,426)	9.1	30.3	39.1	21.5	
	읍면	(268)	11.9	31.3	36.2	20.5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18.4	48.5	27.5	5.6	1,106.442***
	비빈곤층	(2,128)	2.0	15.7	50.3	32.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8.3	32.2	41.4	18.1	15.766**
	중위소득 미만	(2,082)	11.0	30.1	38.0	21.0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전체(N=4,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층' 응답은 11.4%, '중층' 응답은 40.5%, '하층' 응답은 48.2%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상층'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17.3%, 만25~29세: 8.9%, 만30~34세: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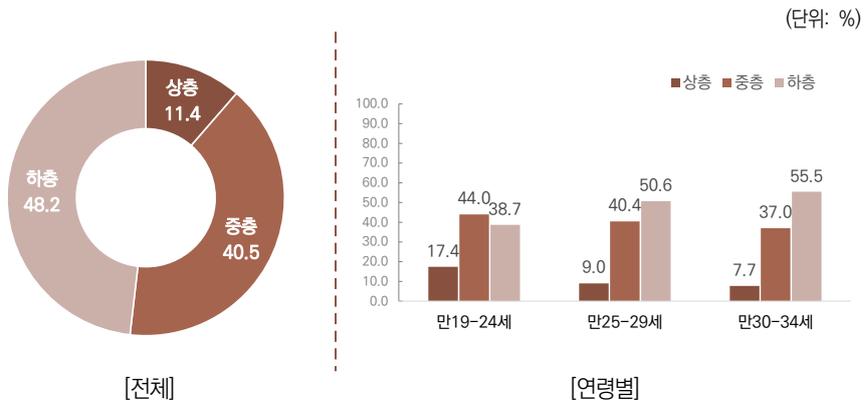


그림 V-83.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표 V-170.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상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	χ^2
전체	(4,000)	0.9	10.5	40.5	37.1	11.1	116.770***
만19~24세	(1,356)	1.5	15.9	44.0	29.8	8.9	
만25~29세	(1,321)	0.7	8.3	40.4	39.5	11.1	
만30~34세	(1,323)	0.4	7.3	37.0	42.3	13.2	

* $p < .05$, ** $p < .01$, *** $p < .001$.

사회·경제적 계층 의식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전체 분석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70.6%), 주관적 빈곤의식별로 빈곤층(78.0%) 집단에서 '하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71. 사회·경제적 계층 의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상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	χ^2
전체		(4,000)	0.9	10.5	40.5	37.1	11.1	
성별	남성	(1,984)	1.2	11.7	40.1	35.1	11.8	18.104**
	여성	(2,016)	0.5	9.3	40.8	39.1	10.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76)	0.6	4.4	24.4	45.4	25.2	172.283***
	대학교(재/졸)	(3,370)	0.8	11.1	42.9	35.8	9.3	
	대학원(졸)	(154)	1.9	15.6	37.0	40.9	4.5	
취업 여부	취업	(2,047)	0.6	9.3	41.1	39.9	9.1	32.423***
	미취업	(1,953)	1.1	11.8	39.8	34.2	13.1	
근무 유형	전일제 근로	(1,883)	0.6	9.6	41.6	39.7	8.6	43.561***
	시간제 근로	(164)	0.6	6.1	34.8	42.7	15.9	
	미취업	(1,953)	1.1	11.8	39.8	34.2	13.1	
지역	수도권	(2,234)	1.0	12.0	41.6	35.4	10.0	31.442*
	충청권	(409)	1.2	8.3	37.4	42.1	11.0	
	전라권	(348)	0.0	8.0	39.9	37.4	14.7	
	경상권	(869)	0.7	8.6	39.6	39.1	12.0	
	강원/제주권	(140)	0.7	10.0	38.6	37.1	13.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1.3	12.0	40.5	35.8	10.5	43.472***
	중소도시	(1,426)	0.1	8.6	42.3	37.7	11.4	
	읍면	(268)	0.7	8.2	30.6	45.9	14.6	
주관적 빈곤의식	빈곤층	(1,872)	0.7	2.5	18.8	56.0	22.0	1,343.194***
	비빈곤층	(2,128)	0.9	17.6	59.5	20.5	1.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1,918)	0.6	9.5	41.7	38.6	9.6	15.728**
	중위소득 미만	(2,082)	1.1	11.4	39.4	35.8	12.3	

* $p < .05$, ** $p < .01$, *** $p < .001$.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 청년의 건강 의식 및 정책 욕구

전체 응답자 중 45.8%가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4.4%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17.4%,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23.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의 경우 정신 건강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 방문 및 입원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6%는 최근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방문하는 경우 대체로 1~5회 방문이 49.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방문하는 경우에도 72.3%의 응답자가 최근 1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41.6%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이 없어서(47.1%), 병원비가 아까워서(33.7%)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비가 아까워서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는 미취업자(43.7%), 빈곤층(41.9%), 중위소득 미만(41.3%) 등 취약계층에서 주요하게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청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였다.

의료비 지출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의료비 지출은 353,909원(중위값 100,000원)이었으며, 월 생활비에서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대부분 5% 이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경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40.0%의 응답자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했다.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8%가 우울 상태에 있으며, 37.1%는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울 및 자살 증상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청년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함의한다. 특히,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로부터 우울증과 자살 증상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건강 증진 정책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의 인지도는 약 34%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건강 증진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이용한 비율이 가장 큰 정책 사업은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가 46.1%로 가장 높았다. 모든 청년 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다른 정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로 응답자의 72.2%가 이를 지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65.1%)와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61.5%)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았다.

또한, 청년들은 현재 청년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66.9%)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의료비 지원(32.8%)과 청년 심리상담 지원(28.9%)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으로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의 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크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2)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의식 및 정책 욕구

과반수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53.4%)고 응답했으며, 약 11.3%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까운 친구 혹은 선후배의 수는 3~5명(39.6%) 응답이 높았지만,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은 1~2명(46.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저학력 청년들은 가까운 친구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최종학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타 배경요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혼밥'이나 '혼술'로 알려진 청년들의 식사 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식사를 한 경험이 있었고, 34%의 응답자가 최근 한 달 동안 혼자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수에 대한 조사 결과, 18.3%의 응답자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저학력층(34.7%)과 빈곤층(27.4%)에서 이러한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또한, 건강상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의 수에 대한 조사 결과, 15.2%의 응답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저학력층(23.7%)과 빈곤층(22.3%)에서 이러한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여가 및 문화생활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충분하다는 응답이 41.5%로 부족하다는

응답(26.4%)보다 더 높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시간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의 10명 중 2명은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특히 저학력층(33.8%), 미취업자(24.2%), 빈곤층(24.4%), 중위소득 미만(23.6%) 등의 청년빈곤층에서 이러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 시간은 대부분 3시간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비용은 약 6만원을 실제 지출하지만 필요 비용은 약 8만원 정도로 차이가 났다. 이들은 주로 영화/TV/OTT(49.5%)를 즐기며, 운동(21.9%), 여행(13.7%) 등의 순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의 인지도는 37.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 중에서 실제로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을 인지하고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49.2%의 응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은 청년 건강 증진 정책에 비해 필요성이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해의 청년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근거리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확충'이 73.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70.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59.5%) 등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정책이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밀려난 이유는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응답자들 중 48.2%는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36.6%)와 청년 문화/여가활동비 지원(35.8%)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으로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청년 1인가구 돌봄 프로그램 등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크게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1) 청년의 건강

청년이 타 연령대에 비해 의료이용 수요가 낮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일하는 환경, 출퇴근 길, 장기 구직활동이나 장기 실업상태 등에서 건강의 위해요인이 타 연령대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젊다는 신체적 건강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협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 악화, 근로환경에서의 재해 등의 요인도 청년의 의료이용권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울증 증상이나 자살생각 모두 고졸 이하 학력자와 빈곤층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의 실태에서는 비빈곤층 집단에서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청년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실업, 사회적 관계, 정책 정보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는 근로환경에서 정신건강적 정책 개입을 더 요구한다는 점, 미취업자 청년의 경우는 보편적인 건강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이 건강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 기본적인 건강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청년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연계되는 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측면에서는 위험요인별 재검진, 의료비 감면, 심리상담 등의 후속 조치가, 예방 측면에서는 운동처방·식이처방, 금연·금주 챌린지 등의 후속 조치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건강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검토, 건강검진 이용경험에 따른 의료비 차등적용 팩트 안내 등 청년이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의 취약성에 따른 건강정책 정보 접근, 정책 이용경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이한 점에서 취약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급여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 자립준비청년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외의 취약청년은 별도의 의료비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청년(최소한 일시적 주거급여 혹은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정책의 서비스 제공 기관(전달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청년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 이행 상태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청년의 연령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실업여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년이 원하는 건강정책이나 전달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구직준비자에 맞춘 기본적인 건강정책을 알리고, 청년센터에서는 미취업자(장기/단기), 이직 예정자, 구직준비자에 맞춘 정책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나 산업체별 심리상담센터 등은 지역별 편중 없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 보건소 등과 이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2)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지 결핍은 전체 집단의 결핍 비율보다 높고, 사회적 지지(관계망)의 결핍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자본 실태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년의 빈곤 문제가 다차원적이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초기 청년들과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빈곤층 청년 그리고 정책혜택의 마지막에 있는 후기 청년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사회, 문화 자본 지원 정책을 강구하여 청년층 내부의 심화되고 있는 격차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집단별로 여가활동, 시간, 지출 문화 활동 시 조건, 중요성 측면에서 지역 간의 크고 작은 격차가 나타났으며,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책인지도 경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학력별, 소득별 생활여건별로도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지역 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를 보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영화(혹은 TV나 OTT)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이는 청년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문화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이고 행사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문화 활동 제약 조건을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청년문화시설 확충,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 및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자인 청년 당사자의 정책인지도와 경험률은 매우 낮다. 설문결과에서도 청년기본법 23조 청년 문화 활동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모름'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현행 청년 사회문화 정책이 그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체감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청년들이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취약청년계층문화지원, 1인 가구 청년지원, 활동비 지원 등 청년이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사회·문화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정책전달체계 및 청년기관을 활용한 정책 확산, 지역별 청년 공간 확충, 청년기관 지원 확대, 청년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오프라인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스톱 신청 등 정책정보들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포털, 온라인청년센터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있음에도 청년들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사회, 문화자본 정책의 경우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에서 청년정책 대상의 확대와 확충이 필요하며 Top-down 방식의 정책추진 보다는 다양한 청년 간, 지역 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제6장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심으로

- 1. 면담조사 개요
- 2. 면담조사 분석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활동 유형 등 다양한 배경요인을 고려하여 30명의 청년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건강(신체·정신), 사회·문화자본 관련 인식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 면담 주요 내용, 면담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면담조사 참여자

본 연구의 면담조사 참여자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 여부, 거주 형태, 경제활동 및 세부상태, 주관적 계층의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배경요인별 면담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녀 각각 15명으로 같으며, 연령별은 20대 초반(만19~24세)/20대 후반(만25~29세)/30대(만30~34세) 각 10명으로 동일하게 선발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이 각 15명으로 동일하며, 면담참여자의 학력은 고졸 10명, 대학교 재학 이상이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 참여자가 10명, 미혼 참여자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거주 형태는 1인가구 13명, 비1인가구 17명, 경제활동별로는 경제활동(구직 중/일시적 실업자 포함) 인원이 20명, 비경제활동(재학, 전업주부 포함) 인원이 10명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계층의식별로는 상층이 6명, 중층이 16명, 하층이 8명이 포함되었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세부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64)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숙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표 VI-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연번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학력	혼인 여부	거주 형태	경제활동	경제활동 세부상태	주관적 계층 의식
1	남성	만 30세 ~ 34세	수도권	고졸	미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실업	하층
2	남성	만 30세 ~ 34세	수도권	고졸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비정규직	하층
3	여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고졸	미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구직중	중층
4	남성	만 30세 ~ 34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중층
5	여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재학중	상층
6	여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고졸	미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중층
7	남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구직중	중층
8	남성	만 30세 ~ 34세	비수도권	고졸	미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비정규직	하층
9	여성	만 25세 ~ 29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상층
10	여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하층
11	여성	만 30세 ~ 34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중층
12	남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비경제활동	재학중	중층
13	남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비경제활동	재학중	중층
14	남성	만 25세 ~ 29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재학중	상층
15	여성	만 30세 ~ 34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중층
16	남성	만 25세 ~ 29세	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하층
17	여성	만 30세 ~ 34세	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비재학	중층
18	여성	만 30세 ~ 34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비정규직	하층
19	여성	만 30세 ~ 34세	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구직중	하층

연번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학력	혼인 여부	거주 형태	경제활동	경제활동 세부상태	주관적 계층 인식
20	여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고졸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비정규직	하층
21	남성	만 19세 ~ 24세	수도권	고졸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구직중	중층
22	여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전업주부	중층
23	남성	만 19세 ~ 24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미혼	1인 가구	비경제활동	재학중	상층
24	남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비정규직	상층
25	여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고졸	기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전업주부	중층
26	남성	만 19세 ~ 24세	비수도권	고졸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비정규직	중층
27	여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전업주부	중층
28	남성	만 25세 ~ 29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중층
29	남성	만 30세 ~ 34세	비수도권	대재 이상	기혼	비1인 가구	비경제활동	전업주부	중층
30	여성	만 19세 ~ 24세	비수도권	고졸	미혼	1인 가구	경제활동	정규직	상층

2) 면담조사 주요 내용

청년빈곤에 대한 면담조사 주요내용은 1) 일상 생활시간, 2) 건강, 3) 사회자본, 4) 문화자본, 5)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면담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일상 생활시간을 면담조사에 포함한 것은 청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여가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데 그들의 생활시간 실태 및 시간에 대한 평소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VI-2. 청년빈곤 심층면담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일상 생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주일 활동 패턴 ② 일주일 중 최다/최소 시간 보내는 활동 ③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 ④ 시간에 대한 인식
2)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소 갖고 있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② 평소 갖고 있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 ③ 현재 영양 상태 ④ 수행 중인 신체 건강 유지 활동 ⑤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 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3) 사회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②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③ 만족/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④ 사회적 관계의 의미에 대한 인식
4) 문화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② 여가/문화 활동 욕구 발생 및 해소 방법 ③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
5)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 대상 신체건강 지원 경험 여부 ② 청년 대상 정신건강 지원 경험 여부 ③ 청년 대상 사회자본 지원 경험 여부 ④ 청년 대상 문화자본 지원 경험 여부 ⑤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3) 면담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서는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혼인 여부 등을 면담 참여자 선정 배경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면담 참여자 선정 절차의 경우 조사업체의 응답자 Pool을 활용하여 배경변인에 적합한 면담 참여자를 구분하고, 면담 참여 및 면담 결과 활용에 동의한 청년들을 최종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면담조사는 2023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개별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 방식을 활용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고, 녹취된 내용은 전사한 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에 대해 반복 읽기와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고, 면담조사에 대한 분석방법으로서 워드클라우드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은 단어의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정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 기법이다. 즉, 전사된 텍스트 파일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분리하고, NIA사전에 의해 단어를 인식한 후, 명사들을 추출하여 각 명사 단어별 빈도표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단어별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도식화하였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위해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면담조사 분석결과

본 면담조사에서는 심층면담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면담 참여자 배경변인(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혼인 여부, 거주 형태, 경제활동, 주관적 계층의식)별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면담 분석결과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일상 생활시간

(1) 일주일 활동 패턴

“경제활동별로 일주일 활동 패턴이 구분되어 나타남. 정규직의 경우 자기 계발,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또는 친교 활동,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편임”

청년들이 일주일을 보내는 방법은 경제활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정규직 청년들은 주로 회사나 직장에서 퇴근 후 자기 계발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가거나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교류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전업주부의 경우 대개 육아나 가사활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적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일주일 활동 패턴(정규직) - 공부, 운동 등 자기 계발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6시 이후에 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요. 주말에는 사실 아무래도 평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의 휴식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본가에 다녀오거나 부모님을 뵈기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응답자10: 만 25세~29세, 여성, 정규직)

“일하는 시간 외에 주 3회 정도 필라테스 운동하고요. 아니면 보통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주말에는 남편하고 스케줄이 맞으면 같이 교외로 나가든지 하는데, 아니면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평일에는 저녁에 회사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은 10시 반쯤 자거든요. 그래서 한 두 시간 반 정도의 개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와이프랑 얘기하고, 없으면 혼자 유튜브 보고, 고양이 잠깐 만져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정규직)

일주일 활동 패턴(재학 중) - 아르바이트 및 친구들과의 교류

“과외 일정 있는 날은 과외하고, 없으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과외, 학원 아니면 친구들 주로 만나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재학중)

“남는 시간에 블로그 작성 같은 일바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기도 합니다.”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재학중)

일주일 활동 패턴(전업주부) - 육아 및 가사

“주중에는 아기 유치원 보내고, 일주일에 두 번은 오전에 필라테스 가서 운동하고요. 오후에는 집에서 쉬어요.” (응답자22: 만 25세~29세, 여성, 전업주부)

“거의 육아하고 있어요. 주중이나 주말에도 다 육아하고, 놀러 가는 것도 애들이랑 놀러 가니까 거의 동일한 거 같아요.” (응답자27: 만 25세~29세, 여성, 전업주부)

일주일 동안의 활동 패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 공부, 운동, 친구, 아이 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퇴근 후 공부나 운동을 한다는 청년들, 학교 수업 후 친구들과 교류하는 청년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주일 중 최소 시간 보내는 활동(경제활동) -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장 적게 보내는 시간은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응답자15: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제일 적은 건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제일 적죠.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 가족하고 보내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관리자가 아니라 지사장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을 하면 조금 더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있을 것 같은 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요.” (응답자24: 만 25세~29세, 남성, 비정규직)

일주일 중 최소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 게임, 건강, 공부 등의 단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운동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는데 이는 청년들이 일주일 생활 패턴 중 운동을 가장 적게 하고 있다는 응답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I-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일주일 중 최소 시간 보내는 활동

(3)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으로는 여행”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으로는 공통적으로 여행이 주로 언급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국내 및 해외여행을 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돈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여행을 못가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학업이나 일 등 본업으로 인해 여행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운동도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으로 자주 언급되었는데 주로 경제활동 참여자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을 일정 부분 하고 있으나,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여건 상 현재 운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공통) - 여행

“국내, 해외여행 둘 다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고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난다고 해도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죠.”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행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일하는 것도 있고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되나, 혼자 가기 싫은데 애들은 이제 학기 중에 바쁘니까 학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30: 만 19세~24세, 여성)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경제활동) - 운동

“제가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받쳐줄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취미를 붙여서 꾸준히 하고 싶어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정규직)

“테니스, 골프하고 클라이밍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정규직)

“운동하는 걸 원래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운동을 항상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건이 안 돼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응답자28: 만 25세~29세, 남성, 정규직)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행, 일, 여유, 운동 등의 단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 또는 학업으로

‘시간’하면 떠오르는 생각(공통) - 평등하고 공정한 자원

“나름 볼만 없이 잘 쓰는 것 같아요.”

(응답자3: 만 19세~24세, 여성)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더 쪼개서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게으르면 그걸 못 쓰다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시간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제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시간을 쪼개서 쓰는 타입이라 시간은 마냥 짧지만 않고 또 길지만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응답자25: 만 25세~29세, 여성)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은 진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거짓되지 않고 공정하게 흐른다는 거죠.”

(응답자29: 만 30세~34세, 남성)

‘시간’하면 떠오르는 생각(공통) - 항상 부족한 것

“저는 항상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 가족들이 언제쯤 집에 올 거니라고 연락이 와도 시간이 없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응답자10: 만 25세~29세, 여성)

“너무 빨리 가요. 서울 올라온 지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줄 몰랐어요. 그리고 25살에 아직 무직인 것이 주는 압박감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제 자리에 있다는 게 시간이 좀 안 갔으면 하더라고요”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맨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로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응답자22: 만 25세~29세, 여성)

“저는 쫓긴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계속 일 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한데, 물건을 빨리 갖다 줘야 된다는 이 압박이 되게 스트레스라서 저는 지금 쫓긴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자24: 만 25세~29세, 남성)

- 한국사회에서 시간의 의미

“한국사회에서의 시간: 빨리빨리 문화 & 생애주기별 정해진 시간표”

한국사회에서의 시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시간은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먼저, 면담 참여자들은 한국사회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특정 과업을 빨리 끝내도록 압박하는 문화가 있으며, 이 때문에 그만큼 시간의 가치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죄악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고 있다.

한편, 일부 미혼의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시간을 생애주기별 정해진 시간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 취업, 결혼 등 연령대에 따라 마쳐야 할 과업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연령별 과업을 벗어나 행동할 경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스케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고 시간에 쫓긴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국사회에서 시간의 의미(공통) - 빨리빨리 문화

“한국사회는 빠르게 많이 강조하는 거 같아요. 빨리 빨리 강조하는 게 어떤 결과물은 빨리빨리 내려하는 습성도 있는 것 같고요. 학창시절을 되돌아봐도 행동이 느리면 좀 혼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동을 빠르게 하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게 외국을 갔을 때랑 비교해봤을 때 외국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한국 사회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그건 빠르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한국사회에서의 시간은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그냥 조금만 늦어도 촉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응답자22: 만 25세~29세, 여성)

-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성

“건강한/인간다운/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함 vs. 충분하지 않음으로 양분”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재학 중인 일부 응답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긴 노동 시간으로 인해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성(공통) - 충분하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현재 건강을 논하기에는 20대 후반으로 젊은 편에 속하고 건강에 대해서 일상에 지장을 받고 살지는 않았으니까, 조금만 내가 시간을 덜 투자해도 건강은 관리만 잘하면 또 회복이 되니까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구직중)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재학중)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과 휴식과의 관계가 밸런스가 맞는 거 같아요.”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정규직)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건강하고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구직중)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성(공통) - 충분하지 않다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독립을 안했는데, 제 나이에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건강하다기보다는 손 빌리는 느낌이 강하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 얼른 배워가지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성(공통) - 충분하지 않다

고 취업을 빨리 하는 거죠.”

(응답자1: 만 30세~34세, 남성, 실업)

“충분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일단 학생이니까 완전히 추구하는 것들을 다 하기에는 그 비용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학점이나 학업 공부를 아직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재학중)

“수면 패턴이 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에서 쪽잠 자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자고, 또 이제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잠을 자는 패턴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재학중)

“충분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노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운동을 하거나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언가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조차 뭔가 하나의 테스트 같은 느낌 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15: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2) 건강

(1) 평소 갖고 있는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 평소 갖고 있는 신체 건강 상 질환의 치료비 부담

“대체로 건강하지만,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별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다르게 나타남”

면담 참여자들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참여자들의 경우 치료비 부담에 있어서 주관적 계층의식별로 양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에서는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과정에서 치료비 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언급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층에서는 보험 실비 청구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했다.

평소 갖고 있는 신체 건강 상 질환의 치료비 부담(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치료비 부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해서 지금 쉬고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녀서 기차비, 병원 진료비 하면 꾸준히 30만 원씩은 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죠.”

(응답자18: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미주신경성 실신을 가끔씩 해요. 딱 한 번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을 해 주셔서 갔는데 뇌 MRI 찍고, 뭐 찍고 찍으면 한 거의 100만 원 후반대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사해 볼 거냐고 해서 제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평소 갖고 있는 신체 건강 상 질환의 치료비 부담(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 치료비 부담 없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병원은 약 처방을 받으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보통 검사를 하게 되면 5만 원 이상 나오게 되고요. 약값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에요. 보험 실비를 청구 하다 보니까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사구체신염이라고 콩팥이 좀 안 좋은 증상인데, 지금은 꾸준히 병원에 가는데,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어요. 원래는 평생 알아야 되는 질병인데, 의료가 좋아지고 거의 완치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그게 한 번 갈 때 검사비랑 다 해가지고 7만 원에서 9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약간 부담을 해주고 계셔서 큰 부담은 없어요.”

(응답자21: 만 19세~24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본인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일상생활에 대한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크며, 건강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함”

신체적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면담참여자가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악영향을 언급했다. 여러 응답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일상 활동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를 더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적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감정조절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본인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공통) -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

“신체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요. 조금만 활동을 해도 너무 피곤하고, 일정 시간 자지 못하면 너무 피곤하고, 당이 올라도 피곤하고 당이 내려가도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지장이 가기는 해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체중 감량을 해서 몸이 가벼운 걸 느끼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제대 몇 개월 전에 몸살에 걸렸었는데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건강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할 때 무리가 가다 보니까 이게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기도 해서 일상생활에 약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17: 만 30세~34세, 여성)

(2) 평소 갖고 있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

“많은 청년들이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 건강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배경요인에 따라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먼저 면담 참여자들 중 일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을 겪은 적이 있고,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또는 첫 직장에서 경험했던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등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치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여전히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소 갖고 있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여성, 미혼, 경제활동): 어려움 있으며 치료 경험 있음

“사실 우울증 약을 되게 오래 복용을 했었고, 취준 때는 공황장애도 좀 심하게 왔었어요. 지금도 신경 안정제는 통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것을) 들킬까 봐 병원도 되게 멀리 다녔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병원도 없긴 했지만, 누가 볼까 봐 멀리 다니다 보면 교통비나 약값도 한 달 분으로 가져와야 해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응답자 10: 만 25세~29세, 여성, 미혼, 정규직)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정신과를 계속 다니거든요. 뭔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너무 없으면 제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함도 너무 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때가 첫 직장을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그래서 한번 진료를 받아볼까 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신과 치료)가 내과를 간다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금전적인 거는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건 아니어서요.” (응답자 19: 만 30세~ 4세, 여성, 미혼, 구직중)

“내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계속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거나 뭔가 다른 친구들은 적금도 하고, 돈을 모으고, 뭔가 사고 싶은 걸 사서 사는데, 저는 진짜 제가 보험료랑 통신비 이런 걸 제가 다 내야 하니까 정말 너무 좀 힘든 거예요. 모델 일에 대해서 포기는 못하고, 또 이제 돈 이제 벌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계속 우울해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심리적으로 제가 되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 병원에 갔었는데 새끼 손톱만한 알약이 나를 치료해 준다고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뭔가 먹는데도 그냥 사람이 멍해지기만 하지, 내가 괜찮아 진다라고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는 심리 상담 같은 거는 한 두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응답자 20: 만 19세~24세, 여성, 고졸, 비정규직)

“3년 전쯤 제가 원래 일하던 매장에서 신규 프랜차이즈로 출점을 해서 거기 1호점에 점장으로 파견을 갔는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서 가게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위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만 계속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짜증이 났죠. 이제 이것저것 다 안 풀리고. 치료비가 10만원 이상 나왔는데 일부러 돈 생각을 안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응답자 8: 만 30세~34세, 남성, 고졸, 비정규직)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면담 참여자들은 정신과 방문을 고민했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끼거나, 정신과 방문이 향후 부정적인 이력으로 남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갖고 있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미혼, 경제활동): 어려움 있으나 치료 경험 없음

“목적 없이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치료는 안 받았어요. 솔직히 정신과 이런 거 한번 가볼까 생각은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꽤 든다고 들어서 아깝다고 느껴져서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응답자1: 만 30세~34세, 남성, 수도권, 미혼, 실업,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회사 다닐 때 제가 원치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려고는 했는데, 알아보니깐 실비보험을 들기 전에는 이력이 나오면 보험 들기 힘들다고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병원 이력이 남는 것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에요.”(응답자3: 만 19세~24세, 여성, 수도권, 미혼, 구직중)

현재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사용하여 해소한다는 의견은 주로 정규직, 재학중,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중상층 이상인 면담 참여자들로부터 나타났다. 이들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일시적인 상태로 여기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운동이나 쇼핑, 친구와의 교류 등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평소 갖고 있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정규직, 재학중,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이상)
- 일상적 스트레스는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소**

“정신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잊어버리고 한 번 우울했다가도 자각을 하면 관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1년 전에 이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하면 해결되는 거여서 치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치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평소 갖고 있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정규직, 재학중,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이상)
- 일상적 스트레스는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소**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하긴 하지만 어려움이라고 할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좀 확실한 길을 찾기 위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처방으로 다른 영상 같은 걸 시청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재학중,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나약한 정신 상태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거를 질환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거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 개인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답자26: 만 19세~24세, 남성, 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다른 걸 하죠.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거나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고,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집으로는 안 가져오는 편이에요.”

(응답자27: 만 25세~29세, 여성, 비경제활동,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3) 현재 영양 상태

- 식사 해결 방식과 현재 영양 상태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영양 상태 긍정적으로 나타남”

식사 해결 방식에 따른 현재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정규직 참여자들에게서 주로 건강한 식사 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균형잡힌 영양상태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주로 정규직 참여자에서 나타났고 불균형한 영양상태로 응답한 면담 참여자들은 구직중이거나 비정규직인 참여자에서 주로 나타났다.

먼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다고 느낀 참여자들의 경우,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끼니를 대충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불균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식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중이거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간단한 식사를 통해 식비를 절약하려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한편, 정규직 면담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결하고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평일 점심이나 저녁을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는 점이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식사 해결 방식과 현재 영양 상태(구직중/비정규직) - 영양상태 불균형

“점심, 저녁을 먹긴 하는데, 그것도 영양 상태가 밸런스가 갖춰진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때우거나 라면이나 계란, 김치나 이렇게 간단히 먹는 경우가 많아서 영양 상태가 풍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구직중)

“대부분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나 간편식 이런 걸로 다 해먹고. 거의 식비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먹는 걸 아까다 보니까 식비가 일주일에 10만 원은 안 되지 않을까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비정규직)

“집에서 먹을 때는 간단하게 먹거나 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비용도 많이 들고, 교재비 이런 것도 들고 하니깐 그 비중이 약간 공부 쪽으로 돈을 많이 쓰니까 먹는 거에는 많은 돈을 쓰기가 어려워요.”

(응답자21: 만 19세~24세, 남성, 구직중)

식사 해결 방식과 현재 영양 상태(정규직) - 영양상태 균형

“일단 아침은 에스프레소, 예그 프라이, 주스, 영양제 꼭 챙겨서 먹고 나오고요.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야근을 하면 회사 식당에서 먹고, 아니면 집에 와서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매일 세끼를 다 해결해요.”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정규직)

“구내식당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하루에 한 끼는 이제 정말 건강하게 잘 먹고요.”

(응답자10: 만 25세~29세, 여성, 정규직)

“잘 먹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식사는 제가 하루에 한 두 끼 먹거든요. 아침은 원래 안 먹고,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녁은 보통 집에서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 식사하고요. 점심까지 회사에서 먹고, 저녁은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와이프가 차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차려 먹거나 합니다.”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정규직)

-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간의 관계

“저렴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 간 관계에 대한 면담 결과,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식비가 상승할수록 영양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저렴한 식비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 관계가 적다는 의견이 모두 나타났다.

우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면담 참여자들은 식비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식비를 늘릴수록 영양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약속이 있거나 외식을 할 경우 식당에서 먹는 식사가 평소 저렴하게 해결하는 식사보다 더 건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학식이나 구내식당이 저렴하더라도 식단의 구성이 영양있고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배달 음식이나 비싼 식비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영양적인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간의 관계(공통) - 식비와 영양 상태는 밀접한 관계

“식비 사용 패턴이나 영양상태 간의 관계는 많이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데, 안 먹고 지내면 건강이 매우 크게 나빠질 것 같아서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금액이 높을수록 건강한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 퀄리티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식비사용패턴이랑 영양상태간의 관계는 아무래도 더 쓸수록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균일하게 먹지 않을까 싶어요. 식당에서 먹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찬이 (다양하니까)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응답자13: 만 19세~24세, 남성)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간의 관계(공통) - 저렴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

“식비 사용 패턴이랑 영양상태 간의 관계는 예산이 많으면 좀 더 골고루 다양한 식재료들을 살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요리를 하면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섭취를 할 수가 있겠쬬. 하지만 학교 학식과 같이 저렴한데 영양식이고 집에서 먹을 땐 또 아니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식비 사용 패턴이랑 영양상태간의 관계는 크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하면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돈으로 이만큼 하면 영양 상태는 크게 문제가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간의 관계(공통) - 저렴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8: 만 30세~34세, 남성)

“사실 구내식당만 점심저녁 딱 먹고 이제 주말에 식비를 쓰게 되면 사실 식비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제 몸 상태도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 식비가 올라가고 제 건강 상태도 딱히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응답자15: 만 30세~34세, 여성)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배달 음식 자체가 뭔가 되게 짜거나 아니면 뭐 칼로리가 높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 영양 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

“영양 상태는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침”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영양 상태와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간에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예민해지거나 민감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몸이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양 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공통) -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영향

“배우를 하던 시절에 좀 가난해서 계속 라면만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독립을 했었고 극단에서 거주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밥 먹고 운동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죠.”(응답자1: 만 30세~34세, 남성)

“아침을 잘 챙겨먹다가 먹지 않은 이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영양상태가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간의 관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아무래도 몸이 안 좋게 되면 더 예민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주변 가족들한테도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편도 있는 것 같고,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해야 정신이나 신체적

영양 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공통) -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영향

건강을 잘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영양제도 안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에 비해서 좀 눈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안 좋은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정신건강간의 관계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배가 고프면 사람이 더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한 끼를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었을 때랑 인스턴트로 간단히 배를 채웠을 때 제 평상시 기본 상태가 일단 달라요.”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4) 수행 중인 신체 건강 유지 활동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신체건강 유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 나타남”

현재 수행 중인 신체 건강 유지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은 연령, 경제적 안정성 등의 요인에 의해 구분되었다. 연령이 30대에 가까워질수록 경제적 여유로 인해 정기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세부유형이 불안정할수록 운동을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체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더라도 건강상의 목적을 떠나 신체활동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참여 활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중인 신체 건강 유지 활동(공통) - 주기적인 운동 중

“축구는 제일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고 나면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부듯한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헬스는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긴 한데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응답자21: 만 19세~24세, 남성, 구직중)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헬스하고 있어요. 운동이 조금 삶의 활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헬스랑 한 2주에 한 번씩 축구, 풋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응답자23: 만 19세~24세, 남성, 재학중)

(5)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

“명상, 종교 활동,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지 노력”

면담 참여자들이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으로는 명상, 종교 활동, 가족과의 시간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먼저 명상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는 참여자들의 경우 각자 다른 방식의 명상들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명상 앱, 유튜브의 명상 영상, 자신만의 호흡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에는 종교 활동도 포함되었는데, 면담 참여자들은 종교시설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위로와 심적 안정을 찾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언급하였는데, 가족과의 교류와 소통이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공통) - 명상

“아이폰에 보면 캄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명상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이 나오는 앱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감정이 좀 다운되면 유튜브로 명상 같은 걸 듣는 편이에요.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뇌 과학 공부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들숨을 크게 두 번 쉬고, 날숨을 크게 쉴 게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행위이거든요. 아침에 제가 꼭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하루에 10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해를 보고 있어요.” (응답자26: 만 19세~24세, 남성)

수행 중인 정신 건강 유지 활동(공통) - 종교 활동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종교활동인거 같아요.”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종교 활동, 제가 신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루틴으로 매주 가서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을 토로하러 가는 거죠. 교회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가서 위로를 얻어서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응답자30: 만 19세~24세, 여성)

신체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면담 참여자들은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조건으로 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먼저 경제적 여건, 즉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 응답자들은 최소한의 여유자금을 보장받아 야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돈이 없으면 영양제 구입과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워지 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 는 것이 신체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미혼의 경제활동 참여자라 는 공통적인 배경요인을 지녔으며, 적절한 경제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자원을 구입하여 신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일부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에 해당하는 면담 참여자들은 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시간을 보내는 것, 부족한 시간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여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신체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미혼, 경제활동) - 경제적 여건

“신체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영양제 등을 살 수 있는 돈과 적절한 운동, 적절한 식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미혼, 비정규직)

“영양제를 사먹을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시세끼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배달만 시켜 먹는 건 확실히 건강에 안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미혼, 정규직)

“최소한의 비용이 보장돼야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뭐 먹어야지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조깅은 사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빗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보장되는 게 있어야지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21: 만 19세~24세, 남성, 미혼, 구직중)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면 그 신체 건강을 절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장 생계가 지금 모자라는데, 일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양제를 살 것이며, 내가 필요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식사도 당연히 조금 불규칙하거나 거르게

신체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미혼, 경제활동) - 경제적 여건

되고, 또 때로는 일이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면 주기도 엉망이 될 테고, 그래서 돈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26: 만 19세~24세, 남성, 미혼, 비정규직)

신체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시간

“루틴한 스케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루틴한 스케줄을 살아야지 좀 건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프리랜서라 엄청 바쁘게 살았다가 한카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바뀌니까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신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아무래도 시간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제가 알바를 하고 오면 대부분 서서 하는 일인데 계속 서 있었을 때 다리가 엄청 붓는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많아서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지쳐서 바로 잠들어버리니까 시간이 제일 필요해요.”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남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 교류 활동, 심리 상담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는데 배경변인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미혼의 면담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정신건강에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반면, 기혼의 면담 참여자들은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병원, 심리치료 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미혼) - 남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내적으로 조바심 내거나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응답자2: 만 30세~ 4세, 남성, 미혼)

“저는 항상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제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그거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불행해 하는 순간 그 목적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미혼)

“하루에 1시간이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 삶이 더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응답자10: 만 25세~29세, 여성, 미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미혼) - 교류 활동

“사람 성격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이랑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정신 건강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미혼)

“정신건강의 경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꾸준한 사람들과의 접촉 교류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응답자13: 만 19세~24세, 남성, 미혼)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미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기혼) - 심리 상담 또는 병원의 치료를 위한 지원

“정신건강은 상담 같은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상담 통해서 우울감을 극복한 적도 있었고, 또 지인 중에도 상담을 받는 사람 몇 명 알고 있거든요. 자기 힘든 거 말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지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기혼)

“상담센터 한 번 가려면 아이가 놀이치료 진행을 거기서 한 번 했었는데, 3개월 하는데 180 줬었나, 그런데 아이를 상담하려면 부모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게 되면 그 한 시간 타임 빼서 해야 되면 서로 인해 아이한테 쓸 돈이 또 몇 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돈만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런 데에 다니면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스트레스 얘기하고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답자17: 만 30세~34세, 여성, 기혼)

“정신 건강도 병원을 가야 한다고 봐요. 기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되면 병원 가는 것도 괜찮고, 요즘은 상담소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응답자27: 만 25세~29세, 여성, 기혼)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 운동, 헬스, 산책, 시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응답결과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VI-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3) 사회자본

(1)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존재 여부

“가족 외에 맺고 있는 관계 중, 친구 및 연인 등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편”

주관적 계층 의식이 증상층인 응답자는 가족 외에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친구와 연인을 주로 언급하였다.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학창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가까운 관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로 친구와 연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응답자들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며, 연인과의 관계도 친구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존재 여부(주관적 계층의식 증상층) - 가족 외 친구, 연인

“제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가족, 친구가 있는 거 같아요. 오래 봤다는 이유보다는 저랑 취향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개인적으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고등학교 친구가 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행도 같이 가고,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자 친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꾸준히 졸업한 이후, 성인 돼서도 만나고 있어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재학중,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저는 가족을 제일 신뢰하고 있고, 여자 친구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는 의지를 하거나 힘들 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응답자23: 만 19세~24세, 남성, 재학중,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구직중이거나 실업 상태의 응답자들은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자제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현재 친구나 동료와의 소통이 제한적이며, 일자리를 얻은 후에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더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요소는 신뢰, 시간,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필요”

면담 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 배려하는 마음과 예의, 시간,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청년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공통) - 시간, 신뢰, 마음가짐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간과 자본 같아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제가 그 사람한테 무례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저한테 무례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자세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된 마음, 자세 등이 1순위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7: 만 25세~29세, 남성)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건 시간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선입견이 심한 사람인데, 겪어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선입견을 깨고 사회관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응답자17: 만 30세~34세, 여성)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시간과 마음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면담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여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VI-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

(2)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 친구, 연인에게 도움을 받는 편”

면담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모를 언급했다. 면담 참여자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친구와 연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주로 언급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화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간에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친구와 연인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면담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공통) - 부모님
“가족은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힘들 때 집안일 해주시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게 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살면서 저를 완벽하게 지지해 줄 사람 몇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다르잖아요. 저보다 오래 사셨고, 저를 계속 봐오셨던 게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공통) - 친구, 연인 등

“학창 시절의 친구에게 많이 기대는 편인 것 같아요.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감정적으로 의지만 하기 보다는 서로 해결책을 찾아줘요.”

(응답자3: 만 19세~24세, 여성)

“가족 외에는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어려울 때 가장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고민을 같이 얘기해 준다거나 힘들어 보이면 물어봐 주고 응원해주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생각나는 건 가족,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현재 연락하는 친구예요. 여건이 있으니까 당장 달려와 주지는 못하지만, 말만으로도 되게 마음을 좀 진정 시켜주는 대상인 것 같아요.”

(응답자10: 만 25세~29세, 여성)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부모님, 가족, 친구 등의 단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부모(가족) 또는 친구, 연인 등을 생각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말, 이야기 등과 같은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들어주거나 이야기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면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3) 만족/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편안함, 지지, 배움을 얻는 관계 vs. 업무적으로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하는 관계”

면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만족스러운 관계는 편안함을 주는 관계로, 심적으로 안정적 인 관계, 가식 없는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반면, 불만족스러운 관계는 불가피하게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긴장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관계, 업무적인 이유로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운 관계(공통) - 만났을 때 편안함을 주는 관계

“친구들, 가족 정도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제가 말을 하지 않거나 어떻게 말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저랑 친한 친구랑 가만히 핸드폰만 하는데도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느껴요. 이러한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응답자3: 만 19세~24세, 여성)

“허례의식 없고, 그냥 만났을 때 편하고 가식 없는 관계가 만족스러워요.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마음을 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관계 같아요.”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좋은 관계들은 글쓰기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멘토가 되어 주시는 관계는 당연히 저한테 엄청 좋죠, 인사이트를 주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응답자26: 만 19세~24세, 남성)

불만족스러운 관계(공통) - 불가피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

“불편한 것은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러 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내 주도권이 없을 때 불편해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든지, 직장 상사 같은 분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들이예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만족/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 편안, 연락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공통) - 나를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 중심을 잡게 해주는 존재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집에 있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립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사회적 관계는)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집에 있더라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서 뭔가 사회랑 연결되게 해주는 사람들.”(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사회적 관계는 뭔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 세상이 뒤집히지 않게 딱 눌러주는 누름돌, 누름돌같이 딱 눌러주고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응답자10: 만 30세만 25세~29세, 여성)

“사회적 관계는 제가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갈 때 좋은 곳으로 끌어줄 수 있는 핸들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자8: 만 30세~34세, 남성)

사회적 관계의 의미(공통) - 불편한 관계 또는 우선순위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도 친해지지 못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이랑 엮어 있다 보니까 친구랑 있을 때보다 솔직해지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이대가 맞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3: 만 19세~24세, 여성)

“현재 제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1순위는 지금 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 사회적 관계형성에서의 변화

“사회생활을 통한 강제적 관계 형성의 불가피성 수용 & 불필요한 관계 정리”

대부분 면담 참여자들은 청년이 된 이후 사회적 관계형성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청소년기와 달리 사회생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또는 필요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늘어났고 동시에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경향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생활 이전에는 자유롭게 관계를 맺은 반면, 사회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계를 형성하거나,

업무적으로 원하지 않는 관계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청년이 된 이후, 수는 적더라도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과 가정 형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이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는 경제활동 등의 사회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소년기에 비해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형성에서의 변화(경제활동) - 사회생활을 통한 강제적인 관계 형성의 불가피성 수용

“20살 전에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관계를 맺었다면 청년이 된 이후에는 좀 실리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억지로 사회적인 면을 좀 더 끌어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정규직)

“사회 활동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친구로서 같은 반이라든지, 딱히 계산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도 있고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사회적 관계형성에서의 변화(공동) -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

“어릴 때는 그냥 다 같이 친구였으니까 어울리는 친구로 생각했다면,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의 인성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친구 관계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고, 전에는 사실 도움이 안 돼도 만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영향을 저한테 안 좋게 끼치는 친구는 피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21: 만 19세~24세, 남성)

“학생 때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다 같이 몰려 있는 걸 좋아했어요. 넓고 얇게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좁지만 정말 깊게 알 수 있는 내 사람들만 만나자고 생각해요. 내 사람들에게 뭔가 더 의지하고, 뭔가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응답자25: 만 25세~29세, 여성)

“처음에 결혼하고 한 번 정리되고, 그리고 또 애를 낳으면서 정리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느슨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같아요.”

(응답자27: 만 25세~29세, 여성)

4) 문화자본

(1)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 여가/문화 활동하면 떠오르는 활동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비용 적은 활동 vs. 비용 많은 활동으로 구분”

면담 참여자들의 여가문화 활동은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실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여유가 없거나 전시회, 영화 관람 등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 등을 언급하였다. 반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뮤지컬 관람, 비교적 비용 지출이 많은 스포츠 활동 등을 떠올렸다. 또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여가활동과 문화 활동을 구분해보면, 여가 활동에는 스포츠, 게임, 여행, 캠핑 등을, 문화 활동으로는 전시회와 영화 관람이 자주 언급되었다.

여가/문화 활동하면 떠오르는 활동(불안정한 경제활동)

- 여가문화 활동 참여 여유 없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여가활동 참여

“게임, 영화, 여행이네요. 여행은 시간이나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영화도 요새는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비정규직)

“여가는 스포츠나 영상 시청, 게임이 있을 것 같고, 문화는 전시회 관람, 박물관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재학중)

“여가는 여행, 캠핑, 문화는 전시회, 영화 쪽의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 같아요.” (응답자18: 만 30세~ 4세, 여성, 비정규직)

“여행이나 운동이나 쇼핑이나 그런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애기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24: 만 25세~29세, 남성, 비정규직)

여가/문화 활동하면 떠오르는 활동(안정적인 경제활동)

-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활동 참여

“저는 여행이랑 음악, 오케스트라, 영화, 뮤지컬,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시야가 넓어지고, 작가의 의도를 들으면 다시 보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거를 듣고 보면 경이롭고 신기해요.” (응답자4: 만 30세~34세, 남성, 정규직)

“저는 여행도 생각나고, 뮤지컬, 스포츠 같은 게 생각나요. 이제 중간중간 갑자기 스퀘시, 클라이밍, 주짓수, 크로스핏 등을 하고 싶다면 그 운동을 한번 끊어서 한 번씩 맛을 보는

여가/문화 활동하면 떠오르는 활동(안정적인 경제활동)

-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활동 참여

것 같아요.”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정규직)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나 영화 보기, 음악 듣기, 혹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 등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 운동도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더 열심히 챙겨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응답자15: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 여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여가 활동을 위한 조건(시간, 돈 등) 필요 vs. 조건 필요 없음으로 구분”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청년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가 활동을 위해 충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 관리와 금전적인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은 여가 활동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다는 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여가 활동을 위한 조건(공통) - 필요하지 않음

“여가 활동을 하는데 조건은 필요 없는 거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책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나 도서관 가서 읽을 수 있고, 음악은 유튜브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22: 만 25세~29세, 여성)

“음악이나 헬스 등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여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응답자23: 만 19세~24세, 남성)

(2) 여가/문화 활동 욕구 발생 및 해소 방법

-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발생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증상층: 여가/ 활동 욕구 발생 多 vs. 주관적 계층의식 중하층: 여가/ 활동 욕구 발생 少”

여가 활동을 위한 조건(공통) - 필요함(시간, 돈)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조건은 시간이란 자본이 제일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사실 다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다니는 사람은 혼자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맥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시간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 평소에 제가 혼자서 생활할 때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머무는 시간, 왕복하는 시간도 포함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 응답자들은 콘서트, 영화, 전시, 공연, 여행 등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전시나 공연이 있을 때는 더욱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변에서 재미있는 영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하층 응답자들은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현재의 생활에서 여행, 여가, 문화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 활동이 많지 않아서 욕구도 없다고 언급했다.

여가/문화 활동 욕구 (주관적 계층의식 중상층) -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콘서트를 다녀왔었고, 영화가 개봉하고 있어서 관심이 생겨요. 평소에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안 하던 거라서 궁금하거나 도전 해봐야겠다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관심 있던 부분의 전시, 공연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주변에서 영화 개봉했는데 봤더니 재미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보고 싶어요. 원래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학교에 교환 학생들과 프로그램도 하다 보니까 재미가 더 생겼어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계속 여행 가고 싶다 얘기했는데, 요즘에 여행 유튜브가 많잖아요. 볼 때마다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자30: 만 19세~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여가/문화 활동 욕구 (주관적 계층의식 중하층) - 하고 싶은 욕구 존재하지 않음

“현재 생활에 여가나 문화생활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굳이 문화생활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니까요.”(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하고 싶은 문화 활동이 별로 없어서 욕구도 별로 없어요. 하고 싶다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응답자16: 만 25세~29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여가/문화 활동 욕구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여행, 영화, 공연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주로 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활동의 관심 분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1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여가/문화 활동 욕구 발생 시기 및 해소 방법

-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경제 활동: 여건 충분 vs 비경제 활동: 불충분으로 구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면담 참여자들은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 여가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인식했다. 여가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시간도 충분하고, 매달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휴일 및 주말 등에는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여가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인식했다. 이들은 여가나 문화 활동을 즐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안정적인 수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지적하였다.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존재(경제활동) - 충분

“여가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어느 정도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간을 낼 수 있는 날도 있고, 어찌 됐든 월급은 매달 나오다 보니까”

(응답자6: 만 19세~24세, 여성, 정규직)

“여가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에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남는 시간 주말인 경우에는 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정규직)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비교적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파트 타임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일도 하고 있어서요.”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구직중)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존재(비경제활동) - 불충분/제한적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 놓여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도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응답자25: 만 25세~29세, 여성, 전업주부)

“사실 안 되어 있죠. 미래 결혼 자금 이런 것도 사실 당겨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응답자18: 만 30세~34세, 여성, 비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3)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

- 여가/문화 활동의 중요성

“여가/문화 활동은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 vs 청년 시기는 여가/문화 활동보다 경제적인 성장과 인생 설계가 보다 중요한 요소”

면담참여자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여가와 문화 활동은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얻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가와 문화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도움이 되며, 신체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여가, 문화활동의 가치나 의미를 중시하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면담 참여자들은 청년 시기에 여가와 문화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계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현재 실업 또는 구직 중인 상태에 있었는데, 본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과 취업을 위한 인생설계 등 보다 실용적인 활동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공통) - 청년에게 중요한 활동

“청년들에게 여가나 문화 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생물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1인가구, 비정규직,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청년들한테 여가나 문화 활동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가문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 시야에 만 갇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시야를 펼쳐나가야 될 시기에 너무 포커싱이 좁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1인가구, 정규직)

“청년들에게 여가 문화 활동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재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이 움직여야지 활동성도 생기는데, 여가 문화 활동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도 쓰다 보니까 가만히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재학중,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청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가 문화 활동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청년 시기에 많이 접하고 알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1인가구, 구직중,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구직중, 실업) - 청년에게 중요하지 않은 활동

“제가 청년 때로 돌아가면 여가 안 즐길 거 같아요. 경험이 있어서 크게 느끼지만, 그 시기에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구직중, 실업) - 청년에게 중요하지 않은 활동

(응답자1: 만 30세~34세, 남성, 실업,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청년기는 여가 문화 활동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여가 문화 활동보다는 나의 커리어를 더 개발하는 데 비중을 많이 뒀어야 될 것 같아요.”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구직중,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 여가/문화 활동에 부모님이 끼친 영향

“과거 계층적 지위에 따른 여가문화 활동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의 여가/문화 활동의 유형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과거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가진 경우 현재 여가/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향 나타남”

청년들은 과거 부모 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영화, 스포츠를 즐긴 경험들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경험했던 문화 활동에서 차이가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면담참여자들은 청소년 시기 클래식 악기를 배운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콘서트 관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본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의식과는 무관하게, 모든 청년들이 영화 관람, 전시 및 공연 관람, 근교 여행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와 문화 활동에서의 계층별 차이를 크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현재 주관적 계층의식을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과거 여가 문화활동을 통해 긍정적 체험이나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에도 여가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주관적 계층의식 상층~중층)

- 현재 즐기는 여가/문화 생활에 영향

-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영화/전시/공연 관람, 독서, 여행 등

“부모님이 끼친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엄청 유복하게 자란 건 아닌데 어렸을 때 경험하는 걸 중요시해서 학교 빼도 되고 어딜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커서 넓은 시야를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주관적 계층의식 상층~중층)

- 현재 즐기는 여가/문화 생활에 영향

-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영화/전시/공연 관람, 독서, 여행 등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영화 관람, 독서, 공연 관람)

“유년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여가 문화 활동은 영화관 가고, 놀이동산, 워터파크 갔던 기억도 나요. 악기 배우는 거는 엄마의 영향이 있었는데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피아노 잘 치는 애들 보면 확실히 돋보이는 자기만의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양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는 게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영화 관람, 전시/공연 관람, 여행)

“엄마 아빠도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셨거든요. 주말마다 나갔던 것 같아요. 차 타고 나가서 바다 가서 낚시도 많이 하고, 계곡 가서 다슬기 같은 것도 많이 잡고, 엄마 아빠의 그런 밖에서 나가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응답자25: 만 25세~29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캠핑)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현재 즐기는 여가/문화 생활에 영향

-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여행, 영화/전시 관람 등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나 부모님과 여가문화 활동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 그런 경험이 드물다 보니까 나 혼자서라도 가지 뭐 하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응답자8: 만 30세~34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연극, 영화, 전시회 관람)

“부모님이랑 만나면 항상 영화는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셨는데, 주말에 설 때는 항상 저희랑 바깥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제 성격에도 좀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고 이런 것도 많아요.”

(응답자20: 만 19세 ~ 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전시 관람, 영화 관람)

여가/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긍정적 경험 有,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지속적 참여가 높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을 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형들 따라다니면서 공연도 보러 가고, 이런저런 미술 전시 같은 것도 보러 다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쪽 이어졌죠. 군대에서 지낼 때 빼고는 계속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 그런 활동들이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되었.”

(응답자8: 만 30세 ~ 34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저는 공연 보는 걸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좋아해서 전공을 그쪽으로 정했던 거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클래식 공연을 많이 보러 갔고요. (...) 요즘도 공연은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인간답게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총명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19: 만 30세 ~ 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5)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1)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경험 여부

“홍보 부족,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참여 경험 없음”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건강 정책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면담 참여자들의 지원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청년 건강 정책 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20대 초반의 남성 참여자들 중 일부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유형의 건강검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정책 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30대 면담참여자 중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으나 참여한 상담센터에 대한 전문성 및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지원 사업 목록

-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경험 여부(20대 초반, 남성) - 신체건강 관련 지원 경험

▷ "직접 이런 (사업을) 본 적은 없는데, 무료 건강검진은 받았던 것 같아요."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응답자13: 만 19세~24세, 남성)

▷ "일단 무료 건강검진 참여를 해봤고, 나머지는 없네요."

(응답자26: 만 19세~24세, 남성)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경험 여부(30대,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정신건강 관련 지원 경험

▷ "청년마음건강 사업 참여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우울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뤘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내 센터들이 괜찮은 센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따오는 건데,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굳이 안 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센터들이 많이 이 사업을 떠나가지고 좀 불만족스러운 반응이 많았었어요."

(응답자18: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이전에 서울시 연계를 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한 6회 정도."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 지원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여행 바꾸
 처 사업에 참여한 면담 참여자가 있었고 그 외 사업 참여 경험자는 없었다.

※ 정부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 지원 사업

-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경험 여부(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문화자본 관련 지원 경험

▷ “청년(정책)은 아닌데, 사회문화자본 정책 지원을 받은 적 있어요.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자
 들을 위해서 여행비용을 지원해주는 여행 바꾸처에 당첨돼서 그 돈으로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응답자2: 만 30세~34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위처럼 일부 면담 참여자들이 청년 대상 정책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지원 참여 경험이 없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지원하려고 했으나, 소득분위 등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한 참여자가 다수 있었다.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경험 여부(공통) - 지원하지 않은 이유: 홍보 부족, 지원 자격 미달

“소득 분위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알아보는 걸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응답자5: 만 19세~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분들을 이제 1순위로 두고 진행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느껴졌고, 저는 사실 맘만 먹으면 저곳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더라고 느껴졌어요.”

(응답자15: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제가 지금 딱 청년이 올해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지원받으려고 했었던데요. 야가 말씀드렸드시피 센터 같은데 주기적으로 다니고 싶어 하는데 가격적인 면이 부담이 되니까 해보려고 알아봤었는데, 이때도 제약이 있어서 신청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응답자17: 만 30세~3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게 있다고 약간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찾아볼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응답자20: 만 19세~24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지원할 때마다 소득 분위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안 된다. 해외 정착 지원금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6분위 이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더라도 제가 큰 비용 들어가는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정보 탐색 자체를 거의 안 한 거 같아요.”(응답자23: 만 19세~24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2)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배경변인별 다양한 정책욕구 존재, 지원은 보편적 지원 vs. 차등 지원으로 양분”

건강 및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에 대한 면담 결과, 면담참여자의 배경변인별로 조금씩 상이한 정책지원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정규직 청년들은 건강 유지 활동, 여가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신체활동,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반면 1인가구,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교류 활동 기회, 정신건강 유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또 1인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우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지원되는 정책들이 보편적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기혼, 정규직): 노동시간 완화, 신체건강 활동 지원, 심리정서적 여유 증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일을 너무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가 생활도 즐길 만큼의 시간을 좀 남겨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주4일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응답자22: 만 25세~29세, 여성, 비수도권, 기혼, 비경제활동)

“PT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PT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뭔가 PT 같은 걸 좀 청년들이 5회에서 10회 정도 받아보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원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10: 만 25세~29세, 여성, 미혼, 정규직)

“저같이 애매한 청년들이 많잖아요. 어찌됐든 사회에서 정한 청년이니까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업주부 청년 경우에도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센터에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스포츠 바우처 같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일회성이어도 콘서트나 공연 볼 수 있는 연간 10만원 지원도 좋겠어요.”

(응답자17: 만 30세~34세, 여성, 기혼, 비경제활동)

“금전적인 거는 아무리 해줘도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져서 금전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답자28: 만 25세~29세, 남성, 비수도권, 기혼, 정규직)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1인가구,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교류 활동 지원, 정신건강 유지 활동 지원

“1인 청년들은 고립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자 살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정신건강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21: 만 19세~24세, 남성, 고졸, 1인가구, 구직중)

“저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 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같은 걸 지원해 주면 관심이 있어요.” (응답자7: 만 25세~29세, 남성, 비수도권, 구직중)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요즘은 돈을 내고 카페를 가든 모임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다. 청년 대상 할인을 좀 늘려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예술의전당 회원이었는데 만 24세 이하 대상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었어요. 할인이 높아서 저렴하게 공연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1인가구,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교류 활동 지원, 정신건강 유지 활동 지원

(응답자19: 만 30세~34세, 여성, 1인가구, 비정규직)

“제 20대 초반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분명 있어서 심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학번이어서 중고등학교 때 비해서 대학교 올라가면 친구를 사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들이 인간관계 맺고 형성하는 걸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응답자14: 만 25세~29세, 남성, 재학중)

보편적 지원으로 지원대상 확대되어야 vs. 차등 지원해야

“문화이용권 지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맞춘다면 할 수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관련해서는 보험료에도 관련이 있다고 들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9: 만 25세~29세, 여성,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특히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좀 여유가 있으면 근데 뭐 이게 돈이 있다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런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젊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그래도 기회나 접근성은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12: 만 19세~24세, 남성, 주관적 계층의식 중층, 재학중)

“해당되는 사람만 소수적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적용을 받기 어려운 사업 같아요. 좀 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참여할 거 같아요. 문화시설 확충이 가장 마음에 가요.”

(응답자11: 만 30세~34세, 여성, 비수도권, 기혼, 정규직)

“스포츠 관람이나 여행 같은 거에 10만 원 지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일반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정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27: 만 25세~29세, 여성, 비수도권, 기혼, 비경제활동)

“청년들 저러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요. 관계 형성하고 교류를 하려면 교통비가 필요하죠. 사실 노인들은 교통비를 다 무료로 해주는데, 어차피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보다 많거든요, 몇 배나. 그걸 거면 청년도 해주면 좋겠다. 물론 선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응답자29: 만 30세~34세, 남성, 비수도권, 기혼, 비경제활동)

3. 요약 및 시사점

청년의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을 중점 주제로 하여 청년들이 평소 인식하는 바와 경험, 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을 위한 본 심층면담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상 생활시간

심층 면담의 첫 번째 파트인 일상 생활시간 파트에서는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 일주일 중 최다/최소 시간을 보내는 활동, 원하는 활동 중 여건 상 이루지 못한 활동, 그리고 시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들은 주중에는 퇴근 후 공부나 운동 등 자기계발 활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친교활동으로 일주일을 보냈으며, 전업주부 청년들은 가사활동 및 육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 일주일 활동 패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는 대부분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정규직, 구직중, 학생, 전업주부 등)와 관련된 일, 공부, 육아 등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현재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활동은 운동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의 일주일 활동패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은 여행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가 보유한 시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간은 평등하고 공정한 자원”이라는 인식과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라는 인식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전자의 입장을 가진 청년들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청년들은 나이에 비해 성취한 것이 적다는 압박 또는 일과 육아 등으로 개인시간이나 친교활동을 갖지 못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한국사회에서 시간의 의미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먼저 시간에 대한 이미지는 재촉, 촉박, 빨리빨리 등으로 표현되었고 제한된 시간 내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만들었다. 한편 일부 미혼의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특정 시간대에 대학 졸업, 취업, 결혼 등 일정한 과업을 마쳐야 하는 생애주기별 시간표로서 시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대체로 청년들은 건강하고 인간다우며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인식했는데, 일부 청년들의 경우 학업 또는 일로 인해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기회가 적다고 인식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들의 일주일 활동 패턴은 주로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운동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은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지만, 돈과 시간 부족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도 청년들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체로 청년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2) 건강

건강 파트에서는 청년들이 평소 갖고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어려움, 현재의 영양상태, 신체/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평소 갖고 있는 신체적 질환의 경우 대체로 건강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일상생활에 신체적 건강 상태가 끼치는 영향은 크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 또는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중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치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에 대한 타인의 시선, 또는 치료 이력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들의 현재 영양 상태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 양호한 영양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경우 영양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식사를 때우거나 주말 외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비 사용 패턴과 영양 상태 간 관계에 대해 청년들은 식비가 오를수록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식비와 무관하게 저렴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으로 양분된 입장을 보였다.

청년들은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을,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명상, 종교 활동 등을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적지 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일부는 외부의 시선과 치료 이력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균형 있는 식단과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영양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부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자본

심층 면담의 세 번째 파트인 사회자본에서는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만족/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의 의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 청년들의 경우 주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친구 및 연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하층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현재 본인이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만한 상황(구직중,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대체로 부모, 친구, 연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는 만났을 때 편안함을 주는 관계, 불만족스러운 관계는 업무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부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불필요하거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4) 문화자본

청년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화자본 파트에서는, 청년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여가/문화 활동 욕구 및 해소 방법,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면담 참여 청년들은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게임, 여행, 캠핑 등을, 문화 활동에는 전시회와 공연, 영화 관람을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는 시간과 돈이라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는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의 청년들은 콘서트,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의 청년들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였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일부 기혼 청년들은 육아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여가/문화 활동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고 자아실현 및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청년 시기는 자기 계발이나 경력을 쌓는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여가/문화 활동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수의 청년들은 과거 부모와 즐겼던 문화/여가 생활이 현재 자신이 즐기는 여가/문화활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이들이 즐기는 여가/문화활동에서의 계층적 배경별 차이를 크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과거 여가/문화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있는 청년들일수록 여가/문화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심층 면담의 다섯 번째 파트이자 마지막 파트인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에서는 청년 대상 정책 지원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관련 사업 목록에 대해 처음 접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청년들만이 무료 건강검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여행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업을 알고 지원하려 했던 청년들은 소득 분위 등 지원 자격이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를 살펴본 결과, 청년들의 배경변인별로 다양한 정책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면담참여자

중 다수는 여가 및 문화 활동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책들이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청년 대상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6) 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심층면담에 참여한 청년들 다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했다. 유전적 질환이나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20대와 30대 초반 청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중 일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과도하게 식비를 줄여서 생활했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청년들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신 건강 상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신 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청년들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첫 번째 직장에서 경험했던 극도의 압박감 때문이었다. 이들이 주로 일했던 첫 번째 직장은 대부분 계약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였는데,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인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던 경험을 지켜본 청년들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청년들은 신뢰하고 배려하는 관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편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는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학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청년들로, 이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 중이거나 실업 상태에 놓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본인의 경제적 상태로 인해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에 속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은 관계 형성 및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의 경우 상당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버팀목, 비밀 언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또는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산 가능한 자기 계발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과 비교할 때 여가문화 활동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 때문에 면담조사에 참여한 일부 청년들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다수의 청년들은 청년 시기의 여가문화 활동은 그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거나 그들이 일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고양감과 충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으로 인식했다. 여가문화 활동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타인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들이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여가문화 활동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현재 이들이 참여하는 여가문화 활동은 계층적 배경보다는 오히려 과거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가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성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기혼 청년들 중 일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청년 연령에 해당하지만 청년으로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다. 예컨대,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포츠 바우처, 전시회나 공연 등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 패스, 국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지원 바우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년들의 신체, 정신 건강 유지 활동,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 여가문화 활동 참여 여부는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 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생활시간의 활용 실태와 시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도 시간과 상술한 활동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년들 중 일부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공평한 자원이라고 인식했지만, 다수는 생애주기별 시간표에 따라 관련 과업을 완수하도록 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늘 쫓기고 부족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관행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청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간을 공평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청년들 역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자기 계발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Foucault)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구조의 지배적인 담론을 통해 자아를 구성하고 있고, 청년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은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 및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건강 지원 정책,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들이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제7장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⁶⁵⁾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 실태를 통해 청년의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금년 3차년도 연구에서 중점 분야로 다룬 건강 분야와 사회·문화자본 분야, 그리고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의 3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1차년도(경제 분야, 노동 분야,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 2차년도(교육훈련 분야, 주거 분야,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청년의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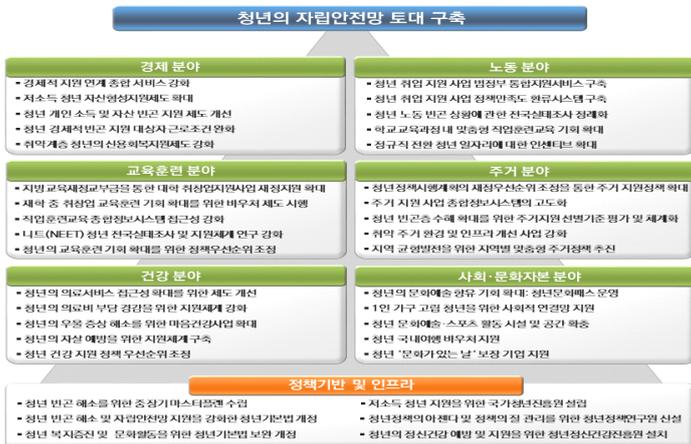


그림 VII-1. 정책 비전 및 분야

65)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숙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주요 내용
경제 분야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노동, 주거, 교육, 건강, 사회·문화 영역의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확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차상위 이상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 제도로써 도입된 '청년 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2년간 매달 15,000원에 불과하여 청년들이 제값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청년 개인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정책적 배제 집단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청년내일지속계좌'는 하한선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중도해지 조건에서도 일시적 휴직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 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하자금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년들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노동 분야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각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담당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취업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전체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재설계(BPR)를 할 필요가 있음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각 사업 참여자들의 정책만족도에 대한 조사 항목을 현실화하고 각 만족도 결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피드백 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청년 노동 빈곤 상황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정례화	연간 노동 현실을 제시함과 더불어 시계열 데이터로 축적하여 사회, 경제적 개선 상황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제안함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 확대	졸업 이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정식 이수과정으로 편성하여 사회 진출 이전에 개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임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규직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는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 기반 및 인프라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청년빈곤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청년진흥원 설립	청년정책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가칭 국가청년진흥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VII-2. 1차년도 정책과제(안)

정책 영역	정책 과제	주요 내용
고용·취업·직업 교육·훈련·인프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지원사업 재정 지원 확대	정부에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대학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등 대학의 취창업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교육 바우처' 제도를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접근성 강화	HRD-NET 등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파악, 접근방법의 개선, 홍보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강화	국가단위 조사를 통한 니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방안으로 연계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20%이상의 응답치를 나타낸 정책을 중심으로 조정
	청년정책시행계획의 재정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주거 지원정책 확대	주거 지원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건별 소요 예산 규모가 매우 크므로 수혜 대상자를 늘리고 주거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거분야	주거 지원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의 고도화	주거 지원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의 중앙과 지자체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원 신청과 전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등 기능을 고도화 하며,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 빈곤층 수혜 확대를 위한 주거지원 선별 기준 평가 및 체계화	격한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이 예상되는 최근 정책 수혜 대상의 전반적인 확대와 선별 기준의 강화를 통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성 확보가 필요함
	취약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사업 강화	청년 개인 대상의 주거비 지원이나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전반적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배분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신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정책 기반 및 인프라	청년 빈곤 해소 및 자립 안전망 지원을 강화한 청년기본법 개정	청년기본법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빈곤 등 소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제5장(빈곤 등 소외 청년 지원)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청년 정책의 아젠다 및 정책의 질 관리를 위한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정부에서 발표한 92번 국정과제에서 청년정책 인프라와 관련하여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근거 기반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그림 VII-3. 2차년도 정책과제(안)

2. 정책 제언

1) 건강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1) 청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가.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생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청년의 경우는 극빈층 청년을 제외하고 수혜 범위가 좁아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금년 연구의 청년의 건강 관련 현황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아픈 데도 병원에 못 간 경험을 가진 청년이 41.6%로 나타났다. 또한 그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와 병원비 지출 부담을 들고 있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대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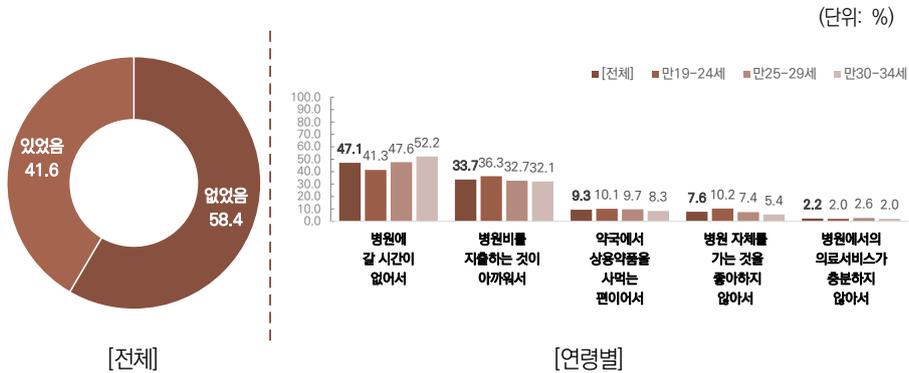


그림 7-4. 최근 1년 동안 아픈데도 병원을 못간 경험 여부와 그 이유

다. 추진내용

청년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은 주로 극빈층 청년에 대한 의료급여가 주된 사업이었고 그 외에 2030 무료 건강검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이 있다. 주로 청년 연령대를 건강 한 시기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의 주된 정책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왔으나 청년 고용난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회진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와 있듯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한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복무 중 건강관리 유급휴가 확대와 노사간 의료비 분담, 이와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기업의 근로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1. 청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교부금	지방비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유급휴가 확대 및 근로감독	2024년	22,300	-
	2025년	22,900	-
	2026년	13,500	-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노사간 의료비 분담 협력 및 지원	2024년	82,200	-
	2025년	84,600	-
	2026년	87,100	-

※ 2023년도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시기의 의료비 지출이 절대 금액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의료비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전히 대학 졸업이후에 취업준비생으로 남아 있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고, 니트(NEET) 청년의 비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를 물었는데, 부담된다는 응답이 40.0%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3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년 시기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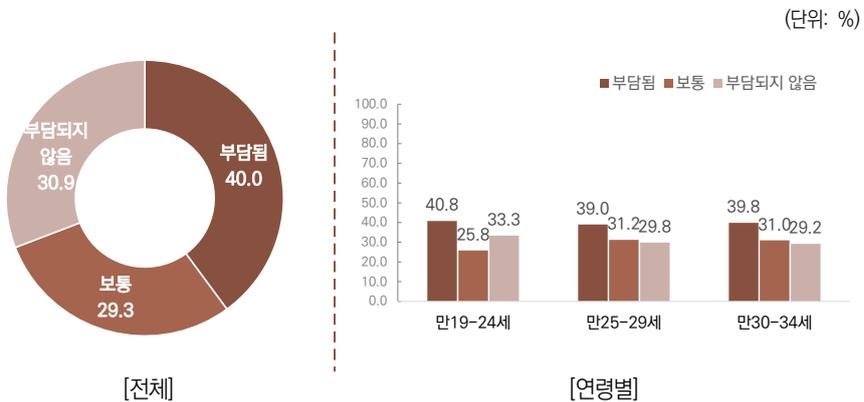


그림 Ⅴ-5.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다. 추진내용

청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의 확대는 다른 고연령층의 의료 혜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사업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소득의 지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가 건강하냐의 논의에서 어느 연령대가 의료비 지불능력이 있느냐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 청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대학 재학 청년들의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국민건강보험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대학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Ⅶ-2. 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무료 건강검진 및 차상위 계층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2024년	1,989	726
	2025년	2,048	747
	2026년	2,109	769
대학 재학 청년의 의료비 지원 확충	2024년	17,000	-
	2025년	17,510	-
	2026년	18,035	-

※ 2021년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일반건강검진 예산을 준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17개 시도별 의료보조금 지원액을 추산하여 물가인상을 고려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청년의 우울 증상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사업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지속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은 청년들의 취업준비과정과 소득정체기간이 확장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운둔고립청년의 증가와 니트(NEET)청년의 증가는 이러한 정서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우울 증상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연구의 청년대상 설문조사에서 우울증을 판별하는 간략한 문항들로 상황을 진단해 보았는데, 심리정서적으로 보통인 상태가 42.2%, 우울 상태 전체(가벼운 우울, 중간 우울, 심한 우울 합계)가 57.8%로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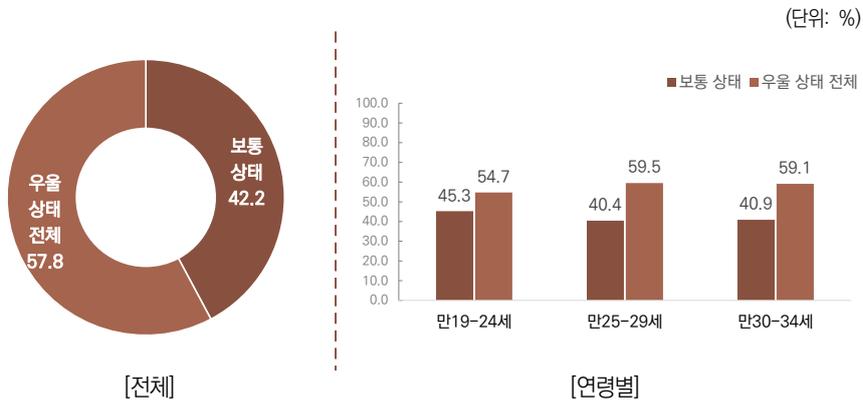


그림 VII-6. 우울증 증상 실태

표 VII-3. 우울증 증상 실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보통 상태 (%)	가벼운 우울 상태 (%)	중간 우울 상태 (%)	심한 우울 상태 (%)
전체	(4,000)	42.2	27.0	26.2	4.6

다. 추진내용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더불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유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지자체와 더불어 시행해 왔는데, 시행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충분하게 마음건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련 서비스와 기관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17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4. 청년의 우울 증상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사업 확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우울 증상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사업 확대	2024년	50,400	17,000
	2025년	51,912	17,510
	2026년	53,469	18,035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마음건강 지원예산을 준용하여 물가인상률을 고려 저자가 임의 산정함

(4)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듯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0명으로 나타나 있다(통계청, 2023b). 청년 취업난을 오래 겪고 있어 사회적 자립 지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회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대상 설문에서 자살생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경우는 62.9%이며, 자살생각 전체(자살생각이 있는 편이며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 있는 상태, 자살생각이 위험 정도이고 실제 자살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며 심도있는 상담이 요망되는 상태)가 37.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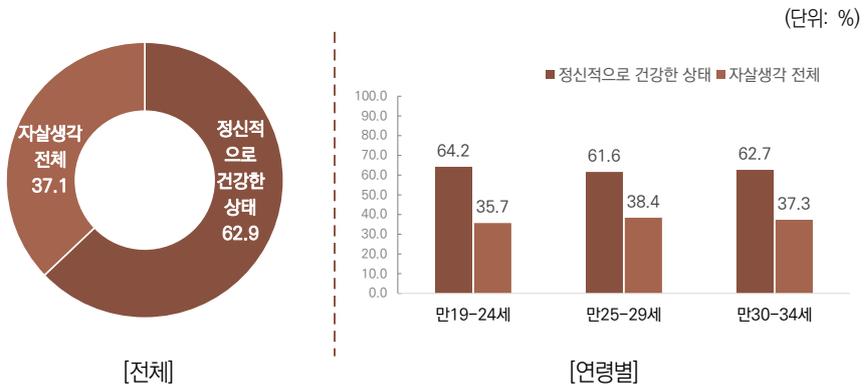


그림 VII-7. 자살생각 실태

표 VII-5. 자살생각 실태

구분	사례수 [명]	(단위: 명, %)		
		정신적으로 정상이며 건강한 상태	자살생각이 있는 편이며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 있는 상태	자살생각이 위험 정도이고 실제 자살행동 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며, 심도있는 상담이 요망되는 상태
전체	(4,000)	62.9	25.7	11.4

다. 추진내용

청년들의 자살생각 실태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3명 중 1명 정도로 높은 상황이어서 청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와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로 이어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 정신건강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6.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자살예방지원센터 설치 및 지자체 전달체계 구축	2024년	59,000	-
	2025년	61,950	-
	2026년	65,047	-

※ 유관부처 지원기관 평균 연간예산을 준용하여 사업비 5% 순증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5) 청년 건강 지원 정책 우선순위 조정

가.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들의 건강에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적 전개를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청년 건강 지원 정책의 중요도를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종합한 결과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일상회복 지원,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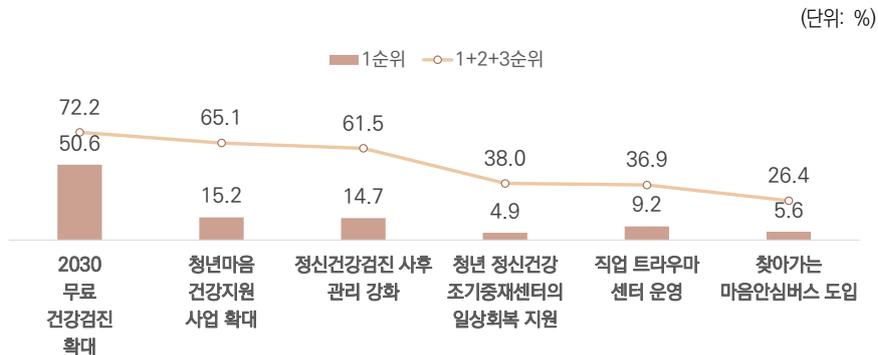


그림 VII-8.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다. 추진내용

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VII-7. 청년의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우선 순위	청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중요한 정부 정책
1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3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일상회복 지원
5	직업 트라우마센터 운영
6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라. 추진체계

청년 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17개 시도 청년 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8. 청년의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건강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2024년	41	210
	2025년	41	210
	2026년	41	210

※ 국무조정실과 지자체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예산을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1)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청년문화패스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2023년 현재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2023년 기준 연간 11만원, 홈페이지 참조)⁶⁶⁾ 사업이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청년에 한해 서울청년문화패스(19세~22세, 중위소득 150% 이하, 홈페이지 참조)⁶⁷⁾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지원 대상자 또는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어, 모든 청년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55.1%로 나타났고,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51.6%로 1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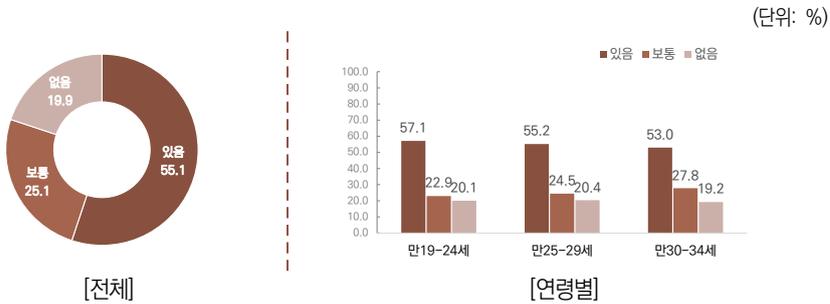


그림 Ⅶ-9. 비용 부담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험

66)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2023). 문화누리카드. <https://www.mnuri.kr/main/main.do>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67)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2023). 서울청년문화패스. <https://www.youthcultureseoul.kr/>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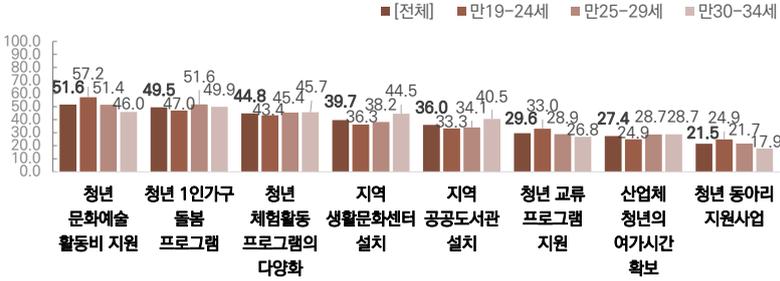


그림 Ⅶ-10.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다. 추진내용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모두로 확대하여 이들이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일정 금액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지원 또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 할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기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되어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복권위원회 및 17개 시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마. 소요예산

표 Ⅶ-9. 청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패스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문화패스' 운영	2024년	10,000	-

※ 문화체육관광부(2023a)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제시된 예산을 참고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1인 가구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정책대상에는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 한정하여 범죄 및 주거 안심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 1인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청년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 빈곤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이후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고, 일반가구 청년보다 저소득가구 청년, 또 기혼 청년보다 미혼 청년들이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더 큰 폭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 중 고립 청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 청년 지원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나 청년들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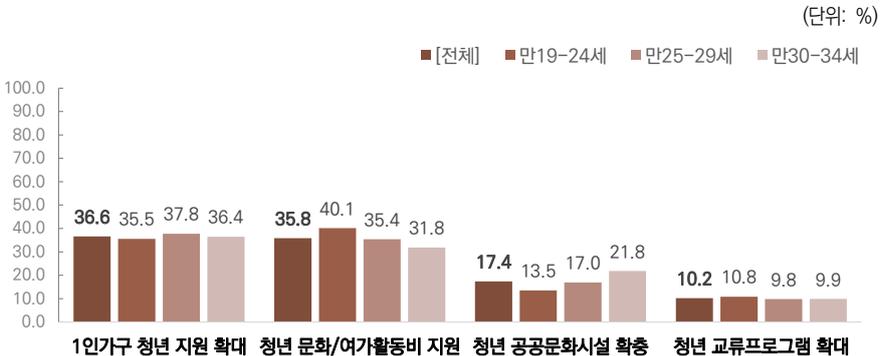


그림 VII-11. 가장 시급한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다. 추진내용

1인 가구 증가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이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1인 가구 청년들 중,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 연결망 형성은 우선적인 어려움이 아닐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 1인 가구 청년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 문화예술·관광·체육 현장의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대 과제 중에는 ‘외로운 청년세대의 사회적 연결망 회복’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어(문화체육관광부, 2023c),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회복을 위한 과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Ⅶ-10. 1인 가구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1인 가구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지원 (자발적 모임, 지역 인프라 구축 등)	2024년	30,000	-
	2025년	33,000	-
	2026년	36,300	-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 중,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관계망 지원 예산을 준용하여 연간 10% 순증하는 것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청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시설 및 공간 확충

가. 필요성 및 목적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회성의 문화 행사 또는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한정된 재정 및 공간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다수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향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2.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 및 읍면 거주 청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및 거주지 규모별로 활동 시설 및 공간 등 인프라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Ⅷ-11.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효과적임	효과 없음	χ^2
전체	(4,000)	72.1	28.0		70.2	29.9	
지역	수도권 (2,234)	71.7	28.3	8.126	70.1	29.9	9.019
	충청권 (409)	71.1	28.9		68.0	32.0	
	전라권 (348)	71.8	28.2		68.1	31.9	
	경상권 (869)	72.7	27.3		71.6	28.4	
	강원/제주권 (140)	77.1	22.9		72.9	27.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306)	70.6	29.4	10.232	69.3	30.7	9.321
	중소도시 (1,426)	73.6	26.4		71.2	28.8	
	읍면 (268)	76.9	23.1		71.3	28.7	

* $p < .05$, ** $p < .01$, *** $p < .001$.

다. 추진내용

현재 각 지자체별로 청년센터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센터들은 청년들에게 공간을 대여하거나,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청년센터들의 기능과 프로그램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고, 비수도권 및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많다.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자체도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활동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중 청년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읍면 지역 중 청년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등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 이때 기존 유휴공간을 재활용하거나, 신규 건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II-12. 청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시설 및 공간 확충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시설 및 공간 확충	2024년(10개소)	10,000	지자체별 매칭
	2025년(12개소)	12,000	"
	2026년(14개소)	14,400	"

※ 지자체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공간 확충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연간 20% 순증하는 것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다. 추진내용

현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 중 만 19세에서 만 29세 청년들 중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경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⁶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행바우처의 경우, 근로자 분담금(15만원~20만원)이 필수적인데, 미취업 20대 청년들에게는 본인 분담금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담금을 설정하지 않고 순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기존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축이 되어 17개 시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13. 청년 국내여행 바우처 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국내여행 바우처 지원	2024년	300	지자체별 매칭
	2025년	300	"
	2026년	300	"

※ 1인당 지원 예산을 20만원으로 설정하되,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⁶⁹⁾을 참고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68)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202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6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9423>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5) 청년 '문화가 있는 날' 보장 기업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매년 10월은 문화의 달로 지정되어 각종 문화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4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일상에서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 관람, 야간 개방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삶을 실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청년들 중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시간이 없는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없음' 응답이 20.2%로 청년 5명 중 1명은 아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응답자들은 1~2일의 여가 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없음' 응답 비율은 30대(22.6%) 청년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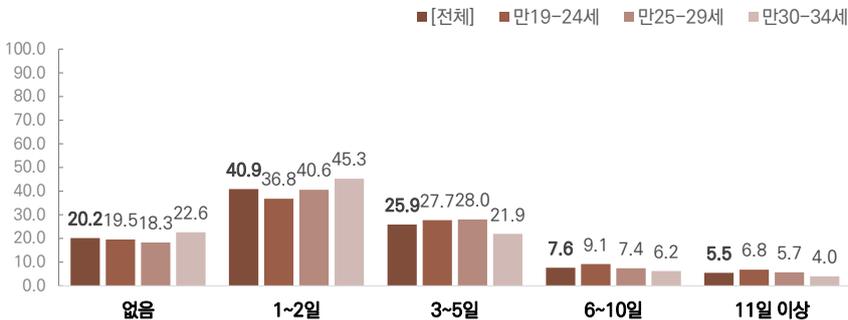


그림 Ⅶ-13.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에 대한 실태

다. 추진내용

취업한 청년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청년 근로자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가 시간을 보장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시차출퇴근제 또는 탄력적 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기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고 있지만, '문화가 있는 날'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의 근무혁신 유도 및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⁷⁰⁾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VII-14. 청년 '문화가 있는 날' 보장 기업 지원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중앙	비고
청년 '문화가 있는 날' 보장 기업 지원	2024년	50,000	-
	2025년	52,500	전년 대비 5% 증액
	2026년	55,125	전년 대비 5% 증액

※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70) 고용노동부(2023b).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조

3) 자립안전망 체계를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1) 청년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위한 청년기본법 보완 개정

가. 필요성 및 목적

2020년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무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청년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상에 청년의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등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현실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2020년 2월에 제정되어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총 5개 장과 28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청년 일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Ⅶ-15. 청년기본법 조문 구성

장별 주제	조문 주요내용
제1장(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날
제2장(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3장(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5장(보칙)	권한의 위임·위탁, 포상, 국회 보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출처: 김형주 외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재인용. p.396.

다. 추진내용

청년기본법은 총칙, 보칙 등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담은 것은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이다. 이에 다음가 같이 각 시책의 구체성을 보다 강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I-16. 청년기본법 개정(안)

구분		조문 주요내용(안)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기관을 설치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 활동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기관을 설치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정부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17. 청년기본법 개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정책연구/공청회	2024년	120	-

※ 국무조정실이 위탁 추진하는 법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고려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2) 청년의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청년정신건강진흥원 설치

가. 필요성 및 목적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나 있다. 관련 지원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도록 전담추진기관을 두는 것이며, 특히 청년의 우울 증상이나 자살생각 등의 실태를 고려할 때 청년의 정신건강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설문조사에서 살펴본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77.0%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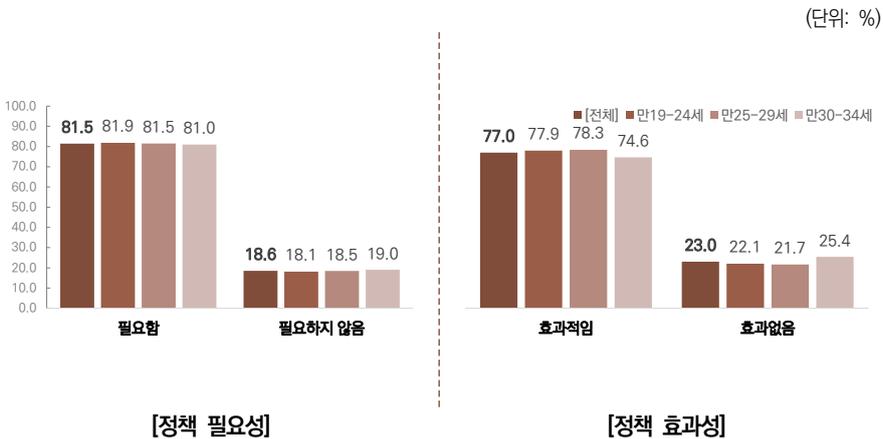


그림 Ⅷ-14.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다. 추진내용

최근 청년들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련 사업의 확대와 예산의 확충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있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각 지자체에 있는 청년마음건강센터나 청년마인드링크 등의 총괄지원 기능을 하는 가칭 청년정신건강진흥원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 전담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I-18. (가칭)청년정신건강진흥원 설치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신건강진흥원 설치	2024년	59,000	-
	2025년	61,950	-
	2026년	65,047	-

※ 유관부처 지원기관 평균 연간예산을 준용하여 사업비 5% 순증으로 저자가 임의 산정함

3. 결론

금년도 연구는 전체 3개년 연구의 마지막 3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의 정의와 빈곤을 구성하는 지표를 수립하고 빈곤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빈곤 영역 중 경제와 노동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정책 욕구를 설문과 심층면담으로 조사하였다. 2차년도는 1차년도에 수립된 청년 빈곤 지표를 기반으로 2차년도 실태 분석 결과를 누적하여 제시하고 청년 빈곤 영역 중 교육훈련과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정책 욕구를 설문과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수립한 청년 빈곤 지표의 3차년도 실태분석 결과를 누적하여 제시하고 청년 빈곤 영역 중 마지막 두가지 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대해 청년들의 인식과 정책요구를 설문과 심층면담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1, 2, 3차년도 모두 2차 자료를 통해 당해년도 청년 빈곤 중점 영역과 관련된 변인을 도출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심층 분석하였으며, 정책제언으로는 1차년도, 2차년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3차년도 정책과제와 종합하여 청년의 자립지원망 구축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빈곤 지표에 따른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년은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의 빈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기준으로 경제(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실업, 비정규직), 건강(정신건강) 영역 빈곤 수준이 악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2022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표는 저임금근로자 비율, 순자산 빈곤, 우울증 환자 비율, 과부담 의료비, 니트였다. 주목할 점은 2020년 이후 급격히 악화하였던 노동영역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양상을 고려해 청년층의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전통적인 취약층이 아니다.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외 영역의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다수의 청년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은 청년 이행기 취약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더 오래 지속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 취약층을 선별하는 경제적 영역의 빈곤과 더불어 비경제적 영역의 빈곤을 고려해 청년이 직면한 자원, 기회의 박탈과 결핍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영역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이 니트, 사회적지지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의 노동영역 빈곤의 악화는 청년의 이행기 연장과 노동시장 일자리 수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등의 변화로 설명해왔다. 특히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청년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이 때문에 청년정책의 방향도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고려하는 것에서 고용중심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최근 청년 고용지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의 노동시장 진입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용지표의 개선은 실질적 개선이 아닐 수 있다. 다수의 청년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니트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적지지 결핍과 정신건강 악화 경향은 겉으로 드러난 고용지표의 개선 뒤에 가려진 청년 삶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 청년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년의 다차원 영역의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에 사회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청년층의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평균적 삶의 결핍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은 청년 개인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청년층이 전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청년의 집단내 격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재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형성기 청년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청년으로 진입하는 다음세대의 다차원 빈곤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누적된 취약성(vulnerability) 혹은 불리함(disadvantage)의 결과가 청년기에 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청년 개인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청년정책은 아동, 청소년정책과의 연속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청년 다차원 빈곤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구구조, 생애과정의 구조적 불평등 등 관점에서 다차원 빈곤을 전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청년의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빈곤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중 우선, 건강 빈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년이 타연령대에 비해 의료이용 수요가 낮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일하는 환경, 출퇴근 길, 장기 구직활동이나 장기 실업상태 등에서 건강의 위해요인이 타 연령대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젊다는 신체적 건강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 악화, 근로환경에서의 재해 등의 요인도 청년의 의료이용권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울증 증상이나 자살생각 모두 고졸 이하 학력자와 빈곤층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의 실태에서는 비빈곤층 집단에서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청년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실업, 사회적 관계, 정책 정보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는 근로환경에서 정신건강적 정책 개입을 더 요구한다는 점, 미취업자 청년의 경우는 보편적인 건강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청년의 건강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 기본적인 건강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청년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연계되는 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측면에서는 위험요인별 재검진, 의료비 감면, 심리상담 등의 후속 조치가, 예방 측면에서는 운동처방·식이처방, 금연·금주 챌린지 등의 후속 조치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건강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검토, 건강검진 이용경험에 따른 의료비 차등적용 팩트 안내 등 청년이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취약성에 따른 건강정책 정보 접근, 정책 이용경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이한 점에서 취약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급여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 자립준비청년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외의 취약청년은 별도의 의료비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청년(최소한 일시적 주거급여 혹은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정책의 서비스 제공 기관(전달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청년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 이행 상태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청년의 연령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실업여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년이 원하는 건강정책이나 전달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구직준비자에 맞춘 기본적인 건강정책을 알리고, 청년센터에서는 미취업자(장기/단기), 이직 예정자, 구직준비자에 맞춘 정책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나 산업체별 심리상담센터 등은 지역별 편중 없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 보건소 등과 이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이는 청년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청년 빈곤 영역 중 사회·문화자본 빈곤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지 결핍은 전체 집단의 결핍 비율보다 높고, 사회적 지지(관계망)의 결핍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자본 실태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년의 빈곤 문제가 다차원적이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초기 청년들과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빈곤층 청년 그리고 정책혜택의 마지막에 있는 후기 청년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사회, 문화 자본 지원 정책을 강구하여 청년층 내부의 심화되고 있는 격차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집단별로 여가활동, 시간, 지출 문화 활동 시 조건, 중요성 측면에서 지역 간의 크고 작은 격차가 나타났으며,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책인지도 경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학력별, 소득별 생활여건별로도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지역 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 및 문화생활 종류를 보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영화(혹

은 TV나 OTT)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이는 청년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문화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이고 행사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문화 활동 제약 조건을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청년문화시설 확충,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 및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자인 청년 당사자의 정책인지도와 경험률은 매우 낮다. 설문결과에서도 청년기본법 23조 청년 문화 활동 조항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모름'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현행 청년 사회문화 정책이 그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체감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청년들이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취약청년계층문화지원, 1인 가구 청년지원, 활동비 지원 등 청년이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사회·문화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정책전달체계 및 청년기관을 활용한 정책 확산, 지역별 청년 공간 확충, 청년기관 지원 확대, 청년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오프라인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스톱 신청 등 정책정보들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포털, 온라인청년센터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음에도 청년들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사회·문화자본 정책의 경우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을 확대와 확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Top-down 방식의 정책추진 보다는 청년 간, 지역 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청년들 다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했다. 유전적 질환이나 지병이 있지 않은 이상, 20대와 30대 초반 청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중 일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과도하게 식비를 줄여서 생활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청년들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신 건강 상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신 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청년들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또는 첫 번째 직장에서 경험했던 극도의 압박감 때문이었다. 이들이 주로 일했던 첫 번째 직장은 대부분 계약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였는데,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인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던 경험을 지켜본 청년들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청년들은 신뢰하고 배려하는 관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편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는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학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청년들로, 이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 중이거나 실업 상태에 놓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본인의 경제적 상태로 인해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에 속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은 관계 형성 및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의 경우 상당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버팀목,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또는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산 가능한 자기 계발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과 비교할 때 여가문화 활동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 때문에 면담조사에 참여한 일부 청년들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다수의 청년들은 청년 시기의 여가문화 활동은 그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거나 그들이 일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고양감과 충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으로 인식했다. 여가문화 활동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타인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들이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여가문화 활동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현재 이들이 참여하는 여가문화 활동은 계층적 배경보다는 오히려 과거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가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성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기혼 청년들 중 일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청년 연령에 해당하지만 청년으로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다. 예컨대,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포츠 바우처, 전시회나 공연 등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 패스, 국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지원 바우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년들의 신체, 정신 건강 유지 활동,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 여가문화 활동 참여 여부는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 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생활시간의 활용 실태와 시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도 시간과 상충한 활동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년들 중 일부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공평한 자원이라고 인식했지만, 다수는 생애주기별 시간표에 따라 과업을 완수하기를 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늘 쫓기고 부족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관행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청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간을 공평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청년들 역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자기 계발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Foucault)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구조의 지배적인 담론을 통해 자아를 구성하며, 청년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은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 및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건강 지원 정책,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들이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 빈곤 지표를 구성하는 6가지 영역 중 1차 년도는 경제, 노동, 2차 년도는 교육훈련, 주거, 3차 년도는 건강, 사회·문화자본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2차 자료를 통한 연도별 누적 실태통계를 제시하여 청년 빈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근거로 3개년 동안 6가지 빈곤 영역에 대해 청년의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작부터 마지막 차 년도의 연구를 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한 본 연구의 시각은 청년의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겪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청년 삶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청년의 부딪치고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지속화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청년들이 학교 졸업과 함께 취업을 거쳐 독립하는 이행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실태가 되지 않고 있는 지난 수년간의 우리 현실을 살펴볼 때 청년들이 당면한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진우 (2022). **2021년 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강상경, 정은희, 김병수(2015). 복지패널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우울궤적 불평등과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241-270.
- 건강보험공단. 「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3a).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09.13.
- 고용노동부 (2023b).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s://www.moe.go.kr/info/financeInfo/busiexplan/busiExplanView.do?bbs_seq=20230200029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에서 2023년 4월 2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3).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74에서 2023년 9월 11일 인출.
- 광주광역시 (2023). 2023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시행계획. https://www.gwangju.go.kr/youth/boardView.do?pageId=youth176&boardId=YH_0000000002&seq=1900632&movePage=1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 청년의 정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토교통부 (2011).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 제2011-490호. 국토해양부 공고. 2011.05.27.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8285 에서 2022년 11월 28일 인출.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portal/search/newSearchList.do>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202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 김정숙, 강영배 (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장근영, 박미선, 정세정, 변금선, 배정희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혜진 (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사회복지정책**, 46(4), 65-90.
- 대구광역시 (2023). 2023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부자료.
- 대전광역시 (2023). 2023년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https://www.daejeonyouthportal.kr/board/BBSMSTR_00000000231/articleView.do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배포자료. 2022.07.
- 두산백과사전 (2023). 빈곤의 유형.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8485 에서 2023년 04월 17일에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3a).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자료.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View.jsp?pSeq=918&pMenuCD=0413000000&pCurrentPage=1&pTypeDept=21&pType=&pSearchTy

- pe=01&pSearchWord=%EC%98%88%EC%88%A0%EC%A7%84%ED%9D%A5%EA%B8%B0%EA%B8%88 에서 2023년 9월 11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3b).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https://www.mcst.go.kr/kor/s_policy/plan2023/plan2023.jsp에서 2023년 4월 5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3c).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연다 ‘2023 청년문화포럼’ 개최 보도자료. 2023.5.15.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224 에서 2023년 9월 11일 인출.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2023). 문화누리카드. <https://www.mnuri.kr/main/main.do> 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 박미희, 조미라 (2019). 니트 청년의 시간사용 유형과 설명요인. **청소년학연구**, 26(5), 413-442.
- 박지현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이 지각한 우울 및 불안의 양상과 긍정심리자본의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0(2), 51-71.
- 박윤주 (2021). 미국 Healthy People 2030이 한국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에 주는 시사점: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4), 19-31.
- 배정희 (2022). 코로나19 전후 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우울 변화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3(4), 121-14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3년 4월 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b). 청년기본조례.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년 4월 5일 각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를 검색했음.
 [강원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도청년기본조례/\(4986,20221223\)](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도청년기본조례/(4986,20221223))
 [경기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청년기본조례/\(7310,20220106\)](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청년기본조례/(7310,20220106))
 [경상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5290,20221229\)](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5290,20221229))
 [경상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4582,20211101\)](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4582,20211101))
 [광주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청년기본조례/\(5647,20210225\)](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청년기본조례/(5647,20210225))
 [대구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5849,20221011\)](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5849,20221011))
 [대전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5886,20220930\)](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5886,20220930))
 [부산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6686,20220413\)](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6686,20220413))

-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513,20221017\)](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513,20221017))
-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2079,20230306\)](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2079,20230306))
- [울산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2548,20220310\)](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2548,20220310))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6893,20221109\)](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6893,20221109))
-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3277,20221230\)](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3277,20221230))
- [전라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5563,20220519\)](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5563,20220519))
- [전라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5132,20221021\)](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5132,20221021))
- [충청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4868,20230201\)](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4868,20230201))
- [충청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5352,20230310\)](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5352,20230310))
- 변금선, 이해림 (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 : 서울연구원.
- 변금선, 이해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23).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 부산광역시 (2023).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https://young.busan.go.kr/article/view.nm> 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2023). 서울청년문화패스. <https://www.youthcultureseoul.kr/> 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 서울특별시 (2023).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9423> 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 신예솔, 박수현 (2022).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가 20대의 코로나 우울에 이르는 경로 탐색: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7(4), 589-607.
-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2), 25-57.
- 우리말샘 (2023). 빈곤선의 정의.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B%B9%88%EA%B3%A4%EC%84%A0에

- 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울산광역시 (2023). 2023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mId=008006001000000000&bbsId=BBS_0000000000000310&dataId=36101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 반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 (2020). **서울의 미래 시정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미간행.
- 이가현 (2022). **“관계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사각지대 속 청년 대답(FGD)**. 2022년 청년의제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청년 주요의제 이슈브리프 청년활동의 미래. 서울: 청년허브.
- e-나라지표(2023).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에서 2023년 3월 20일 인출.
- 인천광역시 (2023).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https://www.incheon.go.kr/youth/YO010008/2106036>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현 (2022). **청년 NEET 특성 및 유형분석**. 고용이슈 여름호.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질병관리청 (2022). **2021 국민건강통계**. 청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청년허브 홈페이지 (2023). 청년참. <https://youthhub.kr/활동지원단체/청년모임>에서 2023년 4월17일 인출.
- 최보연 (2022). “모두를 위한 정책, 고민해야 할 지점들: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예술 향유”. A Square(웹진), Vol. 1. https://www.arko.or.kr/asquare/webzine.cs?webzineId=vol1&webzineNm=square_9&wvrId=9 에서 2023년 4월 19일 인출.
- 통계청 (2022).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2.09.27.
- 통계청 (2023a). 2023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23.09.13.
- 통계청 (2023b).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popup=Y&clasCd=2&idxCd=5091> 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3월 14일, 2023년 8월 8일 인출.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 빈곤의 정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856> 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한국어기초사전 (2023). 청년의 정의. <https://krdict.korean.go.kr/dicSearch/search?nationCode=&ParaWordNo=&mainSearchWord=%EC%B2%AD%EB%85%84> 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8일 인출.

후지타 다카노리 (2016).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 박선민 역. 서울: 시공사.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23).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9.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京都府 (2023).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ール」事業. https://www.pref.kyoto.jp/jutaku/jisedaigeshuku_kyotosolidaire.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京都府住宅課 (2023).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ール」事業概要. <https://www.pref.kyoto.jp/jutaku/documents/gaiyo2212.pdf>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京都新聞社 (2020). https://www.pref.kyoto.jp/jutaku/kyoto_solidaire/document/s/200521kyotoshinbun.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内閣府 (2017). 平成29年版・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 (2018). 平成30年版・子ども・若者白書.

東京都 (2023a). 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 <https://www.hikikomori-tokyo.jp/pdf>

f/guidebook.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東京都 (2023b). 都政情報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19/05/30/25.html>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2023a).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とは <https://www.hikikomori-tokyo.jp/wakamono/> 에서 2023년 3월 29일 인출.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2023b).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の支援体制 <https://www.hikikomori-tokyo.jp/howto/first.php>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2023c). 相談方法について https://www.hikikomori-tokyo.jp/howto/index.php#s_tel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 (2023a).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 에서 2023년 3월 29일 인출.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 (2023b). 리플렛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pdf/leaflet.pdf?ver=20220425> 에서 2023년 3월 16일 인출.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 (2023c). 若ナビαのこと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profile/> 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東京都若者総合スタンセンター (2023d). 統計情報 . <https://www.wakanavi-tokyo.metro.tokyo.lg.jp/advice/> 에서 2023년 3월 16일 인출.

東京都青少年治安対策本部 (2023). 東京都におけるひきこもり対策. <https://www.cas.go.jp/jp/seisaku/kids/dai03/siryu2.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東京新聞 (2022). <https://www.tokyo-np.co.jp/article/189476> 에서 2023년 3월 9일 인출.

富山県 (2022a). つながる健康キャンペーン (習慣化アプリ「みんチャレ」を活用した若年層の生活習慣改善事業) 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pref.toyama.jp/120501/kenkouzoushin/r4_minchare.html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富山県 (2022b). つながる健康プロジェクト. <https://www.pref.toyama.jp/documents/29474/chirashi.pdf>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非営利法人With優 (2023). https://www.with-yu.net/html/yui_top.html#aim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仙台市 (2023a). まちづくり政策局関連リンク. <http://www.city.sendai.jp/project/s>

- hise/gaiyo/soshiki/sesakukyoku/link/shokai.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仙台市 (2023b). ユースチャレンジ! コラボプロジェクト (若者版・市民協働事業提案制度). <http://www.city.sendai.jp/jigyosuishin/wakamono/wakamonoteiantop.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 仙台市 (2023c). 仙台まちづくり若者ラボ. <https://www.city.sendai.jp/jigyosuishin/wakamono/wakamonolabotop.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 仙台市 (2023d). 仙台まちづくり若者ラボ2022. <https://www.city.sendai.jp/jigyosuisin/wakamono/wakamonolabo2022.html>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 安竹 洋平 (2019). 次世代下宿「京都ソリデール」事業視察 まとめ. <https://yasutakeyohei.com/wp-content/uploads/2019/07/20190704-kyoto-solidaire-inspection-summary.pdf> 에서 2023년 3월 7일 인출.
- 井上慧真 (2016). 移行の危機にある若者への支援の形成と変容, *社会学評論* 67(2), 222-237.
- 川口市ホームページ (2023).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010/020/6/2478.html> 에서 2023년 3월 9일 인출.
- Adams, S. H., Park M. J., Twietmeyer, L., Brindis, C. D., & Irwin, C. E. Jr. (2018).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preventive care and the role of the Affordable Care Act. *JAMA Pediatrics*, 172(1), 43-48.
- Emam, D., & Golden, O. (2014). *The Affordable Care Act and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New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for action*. Washington (DC): State Policy Advocacy and Reform Center.
- English, A., Scott, J., & Park, M. J. (2014). *Implementing the Affordable Care Act: How much will it help vulnerab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hapel Hill, NC: Center for Adolescent Health & the Law.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Kwak, C. W., & Ickovics, J. R. (2019). Adolescent suicide in South Korea: risk factors and proposed multi-dimensional solution. *Asian Journal of Psychiatry*, 43, 150-153.

- Lin, N. (2008).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9). The promise of adolescence: Realizing opportunity for all youth. <https://www.russellsage.org/sites/default/files/NAS%20Report%20Full%20Text.pdf> 에서 2023년 4월 2일 인출.
- NHK (2022).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608/k10013662971000.html>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 OECD (2023).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에서 2023년 8월 8일 인출
- Olfson, M., Wall, M., Barry, C. L., Mauro, C., & Mojtabai, R. (2018). Effects of the Affordable Care Act on private insurance coverage and treatment of behavioral health conditions in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8*(10), 1352-1354.
- Ortega, A. N., McKenna, R. M., Chen, J., Alcalá, H. E., Langellier, B. A., & Roby, D. H. (2018). Insurance coverage and well-child visits improved for youth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but Latino youth still lag behind. *Academic Pediatrics, 18*(1), 35-42.
- Osberg, L. (2015). *"How Should One Measure Economic Insecurity?"*,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5/01, OECD Publishing, Paris.
- Pierce, M., Hope, H., Ford, T., Hatch, S., Hotopf, M., John, A., Kontopantelis, E., Webb, R., Wessely, S., McManus, S., & Abel, K. M. (2020). Mental health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probability sample survey of the UK population. *The Lancet Psychiatry, 7*(10), 883-892.
- Power, E., Hughes, S., Cotter, D., & Cannon, M. (2020). Youth mental health in the time of COVID-19.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37(4), 301-305.

PRTIMES (2022). 富山県の若年層が習慣化アプリみんチャレでチームを組み、自身の食生活や歩数の記録を共有し健康的な生活にトライ. <https://prt-times.jp/main/html/rd/p/000000104.000024217.html> 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SOLIDAIRE PROJECT (2023). <http://www.solidaire.kyoto/sub/concept> 에서 2023년 2월 28일 인출.

Tebb, K. P., Pica, G., Twietmeyer, L., Diaz, A., & Brindis, C. D. (2018). Innovative approaches to addres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Health Equity*, 2(1), 321-328.

U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23). Young adults and the Affordable Care Act: protecting young adults and eliminating burdens on families and businesses. https://www.cms.gov/CCIIO/Resources/Files/adult_child_fact_sheet 에서 2023년 3월 2일, 2023년 3월 16일 인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Healthy People 2030. <https://health.gov/healthypeople> 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US Government (2013).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US Government (2023). <https://youth.gov/youth-topics/adolescent-health/federal-data>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US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2023). WSCC model. <https://statepolicies.nasbe.org/about/the-wscc-model> 에서 2023년 3월 17일, 2023년 4월 15일 인출.

VanGarde, A., Yoon, J., Luck, J., & Mendez-Luck, C. A. (2018). Racial/ethnic variation in the impact of the affordable care act on insurance coverage and access among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8(4), 544-549.

○ — 부 록

- 1. 설문 조사지
- 2. 심층면담 조사지

부 록

1. 설문 조사지

청년의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알컨설팅입니다.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청년의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3차년도 연구로서 청년의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만19~34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A. 응답자 선정

문A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A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19세 미만, 34세 초과 응답자 OUT

문A2-1)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만19~24세 ② 만25~29세 ③ 만30~34세

문A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중 ③ 대졸 ④ 대학원 석사졸 ⑤ 대학원 박사졸

문A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문A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문A6) 귀하는 취업을 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A6-1) (문A6에서 ①에 응답한 사람의 경우만) 귀하의 근무는 어느 유형입니까?

- ① 전일제 근로 ② 시간제 근로

문A7)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귀하의 평균 월소득(세전)은 얼마이십니까?

: 본인 1인이 한달간 번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원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e-나라지표(2023).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3. 3. 20 인출)

PART B. 청년의 건강

1. 청년의 건강 실태 및 의식

문B1) 귀하는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함 ② 조금 건강함 ③ 보통임 ④ 별로 건강하지 못함 ⑤ 전혀 건강하지 못함

문B2) 귀하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함 ② 조금 건강함 ③ 보통임 ④ 별로 건강하지 못함 ⑤ 전혀 건강하지 못함

문B3) 최근 1년 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을 대략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 ① 다닌 적 없음 ② 1~5회 ③ 6~10회 ④ 11~15회 ⑤ 16~20회 ⑥ 21회 이상

문B4) (문B3에서 ② ~ ⑥에 응답한 경우만)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아프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없었음 ② 조금 있었음 ③ 자주 있었음

문B4-1) (문B4에서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횟수와 총 입원일은 얼마나 됩니까?

- 병원 입원 횟수 : ()회 ※ 조건: B3 방문 횟수 이하
- 총 입원일 수 : ()일 ※ 조건: 병원 입원 횟수 ≤ 총 입원일 수

문B5) 최근 1년 동안 아프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없었음 ② 조금 있었음 ③ 자주 있었음

문B5-1) (문B5에서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아프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② 병원비(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까워서(의료비 부담)
- ③ 약국에서 상용약품(비처방약)을 사먹는 편이어서
- ④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 ⑤ 병원 자체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문B6) 최근 1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문B7) 최근 1년 동안 의료비(병원진료비, 약구입비 포함)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원

문B8) 최근 1년 동안을 살펴볼 때 월 생활비(용돈 등)에서 의료비 지출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① 의료비 지출 전혀 없음 ② 약 5% 이하 ③ 약 6 ~ 10% ④ 약 11 ~ 20%
- ⑤ 약 21 ~ 30% ⑥ 약 31 ~ 40% ⑦ 약 41 ~ 50% ⑧ 약 51% 이상

문B9) 생활비(용돈 등)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조금 부담됨 ③ 보통임 ④ 별로 부담 안됨 ⑤ 전혀 부담 안됨

문B10) 주변 아는 사람들 중에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많이 있음 ② 조금 있음 ③ 보통임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문B11)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0	1	2	3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0	1	2	3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0	1	2	3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0	1	2	3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0	1	2	3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0	1	2	3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0	1	2	3

※ 출처: 보건복지부(2017). 한국판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09.15. p.5. (총점 : 1-4점 보통, 5-9점 가벼운 우울, 10-19점 중간 우울, 20점 이상 심한 우울)

문B12)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음 ② 조금 많음 ③ 보통임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문B13)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1주일 동안 본인이 느끼거나 행동했다고 생각되는 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주 동안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 자주
1) 나는 이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진다.	3	2	1
2) 나는 사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1	2	3
3) 당신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까?	1	2	3
4) 당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합니까?	1	2	3
5) 당신에게 일단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1	2	3
6) 당신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까?	3	2	1
7) 당신은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1	2	3
8) 자살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았습니까?	1	2	3
9) 당신은 “정말로 내가 자살을 시도했으면”하고 생각하십니까?	1	2	3
10) 당신은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사전 준비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11) 당신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	2	3
12) 자살시도방법을 생각해보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또 사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	2	3
13) 당신은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나 이와 비슷한 글을 써본적이 있습니까?	1	2	3
14) 당신은 죽음에 대한 준비로 어떤 행동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1	2	3
15) 당신은 “내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다른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1	2	3

※ 출처: 논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2023). 자살생각척도 자가진단표. <https://www.nonsan.go.kr/mhc/html/sub04/0407.html>에서 2023. 3. 20 인출(20점 이하 : 정신적으로 정상이며 건강함, 21~30점 : 자살생각이 있는편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30점 이상 : 자살생각이 위험할 정도이고 실제 자살행동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음. 심도있는 상담이 요망됨)

문B14)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 증상이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음 ② 조금 많음 ③ 보통임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2. 건강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및 의견

문B15) 청년기본법의 제21조(청년 복지증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문B16) 청년기본법의 제21조(청년 복지증진)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시급한 사안 ② 조금 시급한 사안 ③ 보통임
 ④ 별로 시급한 사안 아님 ⑤ 전혀 시급한 사안 아님

문B17)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건강 증진 관련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서 해당 정책사업을 알고 있는지(인지도)와 해당사업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수혜여부)에 대해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일 경우 정책 수혜 여부 응답

청년 건강 증진 정책	정책 인지도			정책 수혜여부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이 이용하였음	조금 이용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1)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2)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3)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5)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6)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문B18)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건강 증진 관련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서 해당 정책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필요성)와 청년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효과성)에 대해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건강 증진 정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우선순위 표시 (1~6위)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효과적임	조금 효과적임	별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1)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2)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3)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확대									
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5)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6)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문B19) 다음 중 정부의 청년 건강 증진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
- ② 청년 건강검진 확대
- ③ 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
- ④ 청년 정신건강센터 시설 확충

문B20) 다음 중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건강 증진 관련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체 청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 ② 취약계층 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③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④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 ⑤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센터 설치
- ⑥ 산업체 청년 종사자의 정신건강 지원사업

문B21) 청년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는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 ② 청년센터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민간심리상담센터 ⑤ 의료기관

PART C. 청년의 사회·문화자본

1. 사회·문화자본 실태 및 인식

문C1) 귀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지냄 ② 조금 잘지냄 ③ 보통임 ④ 별로 못지냄 ⑤ 매우 못지냄

문C2) 귀하는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가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명 이상

문C3) (C2번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는 가까운 친구(혹은 선후배)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 ① 일주일에 한두번 ② 한달에 한두번 ③ 서너달에 한두번 ④ 반년에 한두번 ⑤ 일년에 한두번

문C4) 주변에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명 이상

문C5) 최근 한 달 동안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날은 얼마나 됩니까?

- ① 없음 ② 1~2일 ③ 3~5일 ④ 6~10일 ⑤ 11일 이상

문C5-1) (5번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번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1 ~ 2시간 ③ 3 ~ 4시간 ④ 5 ~ 6시간 ⑤ 7시간 이상

문C6) 최근 한 달 동안 혼자서 식사를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회 ③ 3~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문C7) 최근 한 달 동안 혼자서 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회 ③ 3~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⑥ 술 안마심

문C8) 주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명 이상

문C9) 최근 1년 동안 지인(가족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회 ③ 3~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문C9-1) (C9번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최근 1년 동안 빌린 돈의 액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총 ()원

문C10) 귀하가 건강상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명 이상

문C10-1) (문C10 문항에서 ②, ③, ④, ⑤, ⑥에 응답한 경우만) 최근 1년 동안 귀하가 건강 상 어려울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문C11) 귀하는 평상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충분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함 ② 조금 충분한 편임 ③ 보통임 ④ 다소 부족함 ⑤ 매우 부족함

문C12) 주변 아는 사람 중에 평상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많이 있음 ② 조금 있음 ③ 보통임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문C13) 귀하는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돼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① 많이 있음 ② 조금 있음 ③ 보통임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문C14) 생활비(용돈 등)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조금 부담됨 ③ 보통임 ④ 별로 부담 안됨 ⑤ 전혀 부담 안됨

문C15) 주변 아는 사람들 중에 여가 및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많이 있음 ② 조금 있음 ③ 보통임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문C16) (문A6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쓰십니까?

- ① 매우 자유롭게 사용함 ② 조금 자유롭게 사용함 ③ 보통임 ④ 별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음 ⑤ 전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음

문C17) 최근 한 달 동안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한 날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생활 : 영화, 연극, 운동, 여행, 동아리, 스포츠타운 등)

- ① 없음 ② 1~2일 ③ 3~5일 ④ 6~10일 ⑤ 11일 이상

문C17-1) (문C17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하루 경험을 기준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씁니까?

() 시간

문C17-2) (문C17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하루 기준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 시간

문C17-3) (문C17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하루 경험을 기준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을 쓰셨습니까?

()원

문C17-4) (문C17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하루 기준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

문C17-5) (문C17 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은 무엇입니까?

- ① 영화(혹은 TV나 OTT) ② 연극 ③ 운동 ④ 여행 ⑤ 동아리 ⑥ 스포츠클럽
⑦ 기타 ()

문C18) 귀하는 평상시 휴식(쉬는) 시간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함 ② 조금 충분함 ③ 보통임 ④ 다소 부족함 ⑤ 매우 부족함

문C19) 평상시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휴식(쉬는) 시간 등 귀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6~7시간 ⑤ 8~9시간 ⑥ 10시간 이상

문C20) 평상시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휴식(쉬는) 시간 등 귀하가 자유롭게 쓰기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6~7시간 ⑤ 8~9시간 ⑥ 10시간 이상

문C21) 평상시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를 기준으로 휴식(쉬는) 시간 등 귀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6~7시간 ⑤ 8~9시간 ⑥ 10시간 이상

문C22) 평상시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를 기준으로 휴식(쉬는) 시간 등 귀하가 자유롭게 쓰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6~7시간 ⑤ 8~9시간 ⑥ 10시간 이상

2. 사회·문화자본 지원 정책에 관한 욕구 및 의견

문C23) 청년기본법의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문C24) 청년기본법의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시급한 사안 ② 조금 시급한 사안 ③ 보통임 ④ 별로 시급한 사안 아님
⑤ 전혀 시급한 사안 아님

문C25)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관련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서 해당 정책사업을 알고 있는지(인지도)와 해당사업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수혜여부)에 대해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일 경우 정책 수혜 여부 응답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정책 인지도			정책 수혜여부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모름	매우 많이 이용하였음	조금 이용하였음	이용한 적 없음
1)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2)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4)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C26)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관련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서 해당 정책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필요성)와 청년의 교류 및 문화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효과성)에 대해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우선순위표시 (1~5위)
	매우필요함	조금필요함	별로필요하지않음	전혀필요하지않음	매우효과적임	조금효과적임	별로효과없음	전혀효과없음	
1)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2)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4) 청년들이 지역문화, 양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C27) 다음 중 정부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정책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년 교류프로그램 확대
- ② 1인가구 청년 지원 확대
- ③ 청년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 ④ 청년 공공문화시설 확충

문C28) 다음 중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교류 및 문화 증진 관련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청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②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 ③ 청년 1인가구 돌봄 프로그램
- ④ 지역 생활문화센터 설치
- ⑤ 지역 공공도서관 설치
- ⑥ 청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⑦ 청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 ⑧ 산업체 청년의 여가시간 확보

PART D. 공통문항

문D1) 다음은 청년의 다양한 가구형태입니다. 귀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 ① 청년 부부 + 자녀가구
- ② 청년 부부가구
- ③ 청년 한부모 + 자녀가구
- ④ 청년 독립 1인 가구 (※세어하우스 포함, 본인이 가구주임)
- ⑤ 청년 독립 기타가구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경우 포함)
- ⑥ 부모 동거 청년 가구 (※부모와 청년자녀로 구성된 가구)
- ⑦ 부모 동거 청년 기타가구 (※혼인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포함)
- ⑧ 기타 (적을 것 : _____)

문D2) 귀하는 현재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D3) 귀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강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D4) 귀하는 주변에 정서적 혹은 경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거나 여가·문화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자본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D5)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

2. 심층면담 조사지

청년의 건강 및 사회·문화자본에 관한 면담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청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년 빈곤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년 빈곤이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빈곤의 주요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1차년에는 경제/소득, 노동, 2차년에는 교육, 주거 문제를 다루었고 올해는 건강 및 사회·문화 자본 관련한 실태를 분석합니다. 이에 건강 및 사회·문화 자본에 관한 청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년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연령 (만)		성별	
교육수준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재학 이상()				
거주지역	광역시/특별시() 중소도시 () 읍면 지역 ()				
혼인상태	미혼() 기혼()				
가구유형	1인 가구 () 2인 이상 부모 동거() 2인 이상 부모 비동거()				
경제활동	경제활동	정규직() 비정규직 () 실업() *실업: 경제활동 중, 실업급여 수급 등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비경제 활동	재학 () 비재학() *비재학: 휴학,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e-mail					

PART 1. 기초 정보

- (거주지역)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기혼) 결혼 시기
- (가구유형) 현재 살고 있는 가구유형을 선택한 이유
-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 참여 유형 확인
- (비경제활동) 재학하고 있는 대학유형(4년제 여부)/대학원 또는 휴학하게 된 이유 등

PART 2. 일상 생활시간

2-1. 1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 (경제활동) 일하는 시간 외에 어떻게 시간(주중/주말)을 보내십니까?
- (비경제활동) 공부하는 시간 외에 어떻게 시간(주중/주말)을 보내십니까?
- 주중/주말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예) 만족하는 이유
 - (아니오) 불만족하는 이유

2-2. 1주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경제활동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십니까?
- (비경제활동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십니까?

2-3. 평소 하고 싶었는데 여건 상 하지 못한 활동이 있습니까?

- 평소하고 싶었던 활동은 무엇이며, 그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떤 이유로 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4 문항 이동

2-4. 내가 보유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시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예: '시간'에 쫓기다, 여유로운 '시간', '시간'이 없다 등)
- 한국사회에서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나요?
- 본인은 건강한/인간다운/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ART 3. 건강

3-1. 평소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환 또는 아픈 곳이 있습니까?

- (예) 언제부터 그 질환을 앓으셨나요? 얼마나 자주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치료비(약값, 병원진료비 등)는 한 달 평균 얼마나 듭니까? 치료비 부담이 있으신가요?
- (아니오)
-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본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평소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고립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예) 언제부터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나타났나요? 얼마나 자주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치료비(약값, 병원진료비 등)는 한 달 평균 얼마나 듭니까? 치료비 부담이 있으신가요?
- (아니오)
- 정신건강 상태가 본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3. 본인의 영양 상태는 어떠한가요?

- 매일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1일 또는 1주일 식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 식비 사용 패턴과 본인의 영양 상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양 상태 vs.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4.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예)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아니오) 하고 있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5.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예)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아니오) 하고 있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6.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 신체건강을 유지/유지활동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신건강을 유지/유지활동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ART 4. 사회자본

4-1.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친구, 동호회, 단체 가입 등)가 있으신가요?

- (예) 언제 맺어진 관계인가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계속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 가족 외에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맺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의 장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 (예)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 (아니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4-3.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만족/불만족 또는 편안함/불편함을 느끼십니까?

- 만족하는/편안한 사회적 관계
- 불만족스러운/불편한 사회적 관계

4-4. 사회적 관계는 본인/청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관계의 의미
- 청년이 된 이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PART 5. 문화자본

5-1. 여가/문화 활동의 의미

- 여가/문화활동하면 어떤 활동이 떠오르십니까?
- 본인이 생각하는 여가/문화활동은 무엇인지,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예) 어떤 여가/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여가/문화활동을 하십니까?
여가/문화활동을 했을 때의 장점(가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가/문화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 최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겼던 때가 있습니까?

- (예) 언제였습니까? /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니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본인은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조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3. 여가/문화활동의 의미

- 청년들에게 여가/문화활동은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이 된 이후,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여가/문화활동에서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 유년시절 가족(부모님)과 함께 했던 여가/문화활동이 있으신가요?
 - 본인의 여가/문화활동에 부모님이 끼친 영향이 있으신가요?

PART 6. 청년 건강,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정부의 청년 건강 정책 지원 사업	정부의 청년 사회·문화자본 관련 정책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 관리 강화 •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층 조기치료 및 만성화 예방 등 일상회복 지원 •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도입 •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건·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청년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 청년 1인가구에 대해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 및 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들이 10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확충 •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체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광 등을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6-1.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건강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신체건강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무슨 지원을 받으셨나요?

지원 내용은 만족스러웠나요? 예/아니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니오) 6-2 문항 이동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6-2.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무슨 지원을 받으셨나요?

지원 내용은 만족스러웠나요? 예/아니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니오) 6-3 문항 이동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6-3.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자본(사회적 관계형성/활동 지원 등)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적 관계형성/활동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무슨 지원을 받으셨나요?

지원 내용은 만족스러웠나요? 예/아니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니오) 6-4 문항 이동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6-4.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자본(여가/문화활동 지원 등)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여가/문화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무슨 지원을 받으셨나요?

지원 내용은 만족스러웠나요? 예/아니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니오) 6-5문항 이동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6-5.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

○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관련 정책지원 욕구가 있으신가요?

○ 청년 대상 사회·문화 자본 관련 정책지원 욕구가 있으신가요?

○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구의 마지막 3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을 경제적 소득 결핍에 국한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청년 삶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자립지원망 구축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은 첫째,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책 및 법제도를 고찰하고, 둘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 분석 및 중점주제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통한 심층분석을 하였다. 넷째, 청년 빈곤 중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다섯째,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심층면담조사를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청년 빈곤에 대한 여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 영역 중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3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는데, 전체 3개년 연구의 마지막 연구로서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자립지원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년, 다차원 빈곤, 건강, 사회·문화자본, 자립지원망

ABSTRACT

Study of Youth Poverty Reality and Establishment of the Self-Reliance Safety Net System III

In its third and final year of a three-year research that began in 2021, this study aimed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a self-reliance safety net for young people's steady entry into society. For that, this study approached youth poverty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rather than limiting it to a lack of financial income, and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ality of youth life.

This year, the study primarily focused on the following: First, to examine previous research, policies and laws and programs on key areas of youth poverty (health, social and cultural capital); second, to analyze policies related to youth poverty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present implications; thir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reality of poverty among Korean youth and set research problems related to key topics; fourth, to conduct a survey on the awareness and policy needs of health and social and cultural capital among youth in poverty; fifth,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on key areas of youth poverty to derive implications; and sixth, to present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reliance safety net.

In conclusion, this study, based on various analysis results on youth poverty,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to establish a policy-based self-reliance safety net. In its third year, this study drew a total of 12 policy tasks across three youth poverty areas of health,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and presented a comprehensive vision and policy tasks to establish a self-reliance safety net, while encompassing the policy tasks identified in the preceding two years as the concluding year of the three-year research.

Key words: Youth, Multidimensional Poverty, Health, Social and Cultural Capital, Self-Reliance Safety Ne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숙·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의 실태와 과제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욱·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 탁 과 제

일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영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세미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워크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포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콜로키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기타자료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3-86-01
연구보고 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04-3 93330

연구보고 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04-3